

고구려통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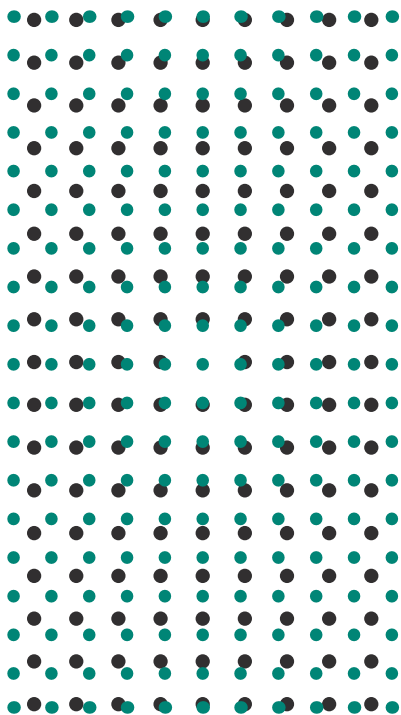
#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고구려통사 ①

#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통사』의 편찬 목적과 주안점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상을 보였던 분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초기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사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되었으며, 정치사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고학에서는 북한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개설적인 정리를 시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고고자료가 소개되고 임진강 이남의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면서 고분벽화·고분·토기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물이 나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집약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 새로운 연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첫째, 축적된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학계가 이용하고 있는 고구려사 개설서나 개인 연구자의 연구서들은 발간 당시의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과거의 이해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더해졌지만, 학문적 성과를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리물이 절실하다.

둘째,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할 필요성이다. 그동안 고구려사 연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재검토가 요청되는 선부른 결론도 보인다. 이 경우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하여 이제 막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이해를 토대로 고구려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구려통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역사상에 충실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집필이 가능할 것인가였다. 기획위원으로는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관장), 정호섭(고려대학교 교수), 양시은(충북대학교 교수),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장)가 참여하였다. 『고구려통사』 총서는 시대별 특징과 고고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사(전 2권), 중기사(전 2권), 후기사(전 3권), 고고자료(전 2권), 그리고 총론(1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은 주제와 시기를 달리하지만, 체계와 내용의 주안점에서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일관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책임지고 해당 장절을 집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목별 내용구성안과 집필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토록 하였다.

한편, 고구려사 연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발전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식 연구가 추동한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

는 고구려사를 핵심과제로 다루었고,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구성한 제 분야를 섭렵하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유민 묘지(遺民墓誌)나 『한원(翰苑)』 등 1차사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통사』는 세 번째 주안점을 새로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충실한 소개와 중국 측 논거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정합적 이해의 제시에 두었다.

『고구려통사』 발간은 이러한 고구려사의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학계와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막 입문한 이들에게는 고구려사의 주요 맥락과 과제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라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간 알지 못했던 고구려의 새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년 12월

기획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성제

책머리에 / 5

## 1

### 고구려의 자연환경

#### 1장 고구려의 자연지리와 환경 / 여호규

1.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지리와 환경 / 16
2. 압록강 중상류 주변의 자연지리와 환경 / 25
3. 만주 중남부의 자연지리와 환경 / 43
4. 한반도 중북부의 자연지리와 환경 / 59

## 2

### 고구려의 기원

#### 2장 고구려의 종족 기원 / 조영광

1. 고구려 종족 기원을 둘러싼 제 논의 / 89
2. 중국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예맥의 실체 / 95
3. 고구려와 맥족 / 101
4. 부여계 유이민집단의 이동과 주몽의 고구려 건국 / 105

#### 3장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 양시은

1.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징과 전개 양상 / 126
2. 요동 북부지역의 청동기문화 / 135
3. 중국 동북지역에서 초기철기문화 도입과 역사적 배경 / 143
4. 혼강 및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초기철기문화 / 151
5.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하여 / 161

## 3

### 고구려의 성립

#### 4장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한 이해 / 조우연

1. 고구려 건국설화 관련 문헌자료의 유형과 원형 / 181
2. 고구려 건국설화의 단계적 정립과 변형 / 203
3. 4세기~5세기 금석문 자료에 수록된 건국설화와 태왕권 / 221

#### 5장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 임기환

1. 고구려의 국가 형성 관련 자료 / 244
2. 고구려의 등장과 한의 현도군 설치 / 251
3. 현도군 개편과 고구려의 성장 / 268

#### 6장 정치 중심지의 형성과 초기 도성의 성격 / 권순홍

1. 국가형성기의 취락 입지 / 298
2. 정치 중심지의 형성 / 301
3. 졸본과 흘승골성의 위치 / 305
4. 국내 위나암의 위치 / 315
5.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기 / 321
6. 초기 도성의 성격과 경관 / 328

찾아보기 / 336



# 고구려의 자연환경

1장 고구려의 자연지리와 환경



## 1장

# 고구려의 자연지리와 환경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 발흥하여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한 후, 5세기에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중북부에 이르는 광활한 판도를 확보했다. 고구려의 판도는 크게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 유역, 1세기~3세기에 복속한 압록강 중상류의 주변 지역, 4세기 이후에 진출한 만주 중남부 및 한반도 중북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지도1 참조). 각 지역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환경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는 지방제도 정비를 비롯해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권역별 지형과 기후, 교통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고구려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지리와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접경지역으로 험준한 산간지대인데, 이러한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국가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에 유의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1세기~3세기에 복속한 압록강 중상류의 주변 지역을 함경도 동해안-두만강 유역과 천산산맥(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지역은 압록강 중상류를 기준으로 각각 동쪽과 서쪽



에 위치해 있는데, 모두 1세기~2세기에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압록강 중상류 일대처럼 험준한 산간지대로서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4세기 이후의 진출 지역을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중북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지역은 고구려 발흥지와 지리 관계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만주 중남부는 요동반도 일대, 요하(遼河) 유역, 북류 송화강(松花江) 유역, 목단강(牡丹江) 유역 등이 압록강 중상류를 기준으로 방사상(放射狀)으로 분포하지만, 한반도 중북부는 청천강, 대동강-채령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유역 등이 순차적으로 분포한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만주 각지로의 진출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 중남부로는 순차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각 지역의 자연환경이 고구려의 영역 확장이나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고구려사 연구나 서술에서는 자연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근대 역사학이 지나치게 시간적 변화 양상에만 주목하여 역사 전개의 무대인 공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각종 지리학 논저, 문헌사료, 고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구려 영역의 자연환경을 각 권역별로 고찰하여 고구려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지리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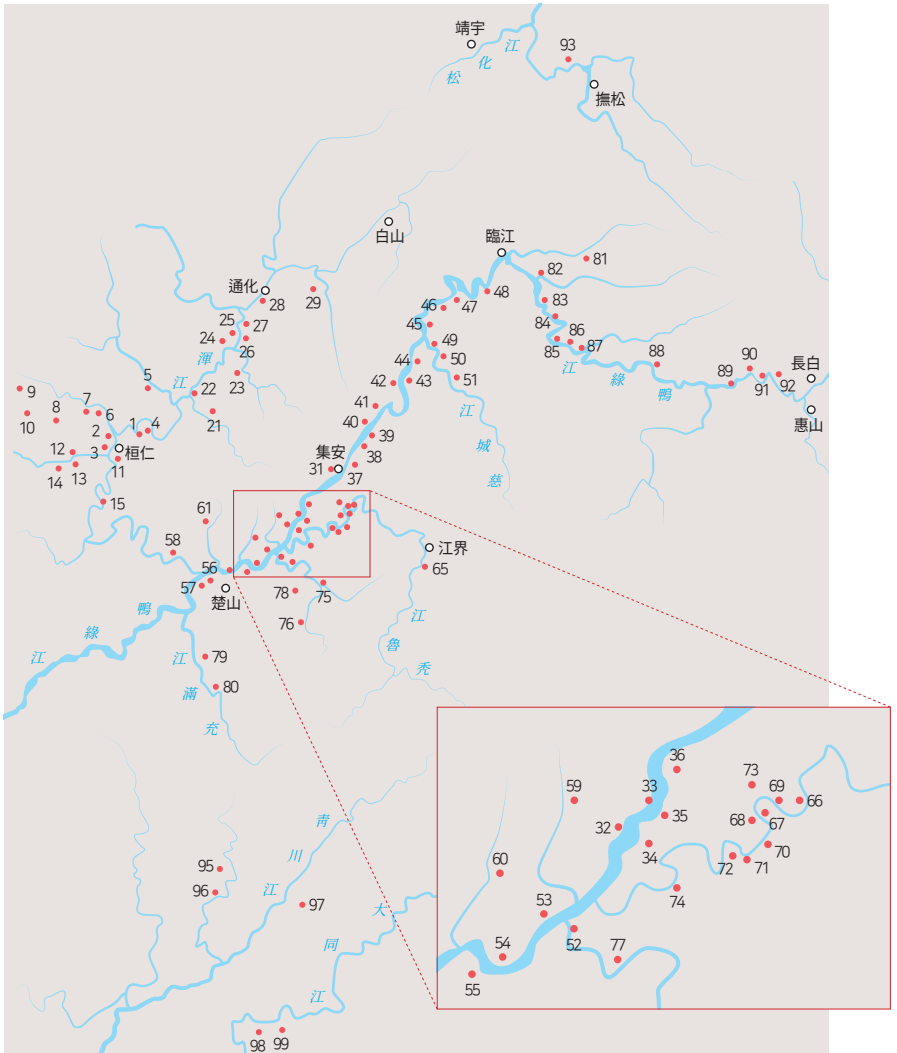
## 1) 자연지형과 기후환경의 특성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발흥했는데, 이곳에 널리 산재한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積石墓)와 성곽은 이를 잘 보여준다(지도2, 지도3). 지도1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접경지역으로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중국 쪽의 장백산맥(長白山脈), 그 지맥인 노령산맥(老嶺山脈)과 용강산맥(龍崗山脈), 북한 쪽의 낭림산맥과 강남산맥 등의 산줄기가 크게 발달하여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룬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은 총길이 790km, 유역 면적 3만 1,739km<sup>2</sup>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하류 유역을 제외하면 넓은 평야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백두산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구간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지대로 해발고도가 1,000m 이상인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중강진 이후 구간도 압록강 연안 남쪽에는 강남산맥, 북쪽에는 노령산맥과 용강산맥 등 여러 산줄기가 동북에서 서남으로 내달리며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룬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농사짓기에 열악한 자연환경이다. 이에 흔히 이 지역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판이나 비옥한 토지는 적어” 산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던 고구려인들이 “부지런히 농사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전한다.<sup>1</sup> 고구려 건국지인 환인(桓仁) 지역에는 해발 1,000m 이상 봉우리만 64좌이며(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1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



지도2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 적석묘 분포도(여호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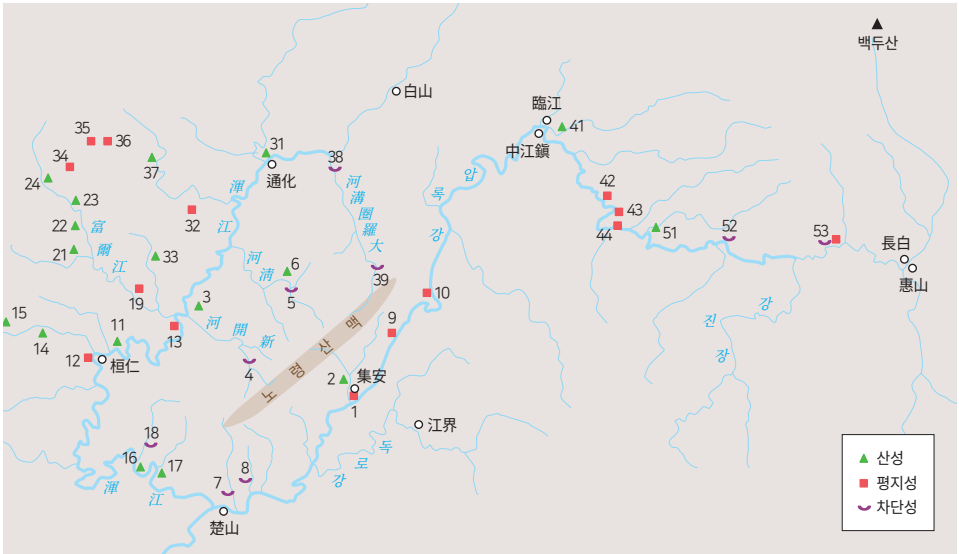
[渾江 유역] 1. 高力墓子 2. 上古城子 3. 望江樓 4. 連江村 5. 大荒溝 6. 楊家街 7. 五道河子 8. 馮家堡子 9. 川里 10. 蔡我堡 11. 董船營 12. 灣灣川 13. 聯合 14. 大青溝 15. 大把 21. 橫路九隊 22. 母背嶺 23. 潘家街 24. 繁榮 25. 下龍頭 26. 南頭屯 27. 江沿村 28. 萬發撥子 29. 向陽村

[압록강 중류 유역] 31. 滿溝 일대 32. 下活龍 33. 上活龍 34. 남상리 35. 고산리 36. 분토 37. 미타등 38. 별오리 39. 문악리 40. 長川 41. 蒿子溝 42. 良民 43. 조아리 44. 서해리 45. 연풍리 46. 토성리 47. 장성리 48. 호하리 49. 법동리 50. 신평동 51. 송암리 52. 송장리 53. 老虎哨 54. 地溝·弓濼川·榆林河河口 55. 新川洞 56. 운평리[운해천동] 57. 연무리 58. 古馬嶺 59. 太平溝 60. 大高力墓子·小高力墓子 61. 高地 65. 公귀리 66. 심귀리 67. 남파동 68. 내평 69. 간평 70. 풍청리 71. 하천장 72. 연상리 73. 미타골 74. 연하리 75. 양강동 76. 용연동 77. 만호동 78. 덕암동 79. 관평리 80. 등서리

[압록강 상류 유역] 81. 賈家營 82. 長川 83. 砬臺 84. 東甸子 85. 西馬鹿泡子 86. 龍崗 87. 七道溝 88. 十二道溝 89. 安樂 90. 干溝子 91. 良種場 92. 金華

[松花江 상류 유역] 93. 新安村

[청천강-대동강 상류 일대] 95. 용호동 96. 삼초리 97. 소민리 98. 목방리 99. 봉창리



지도3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 성곽 분포도(여호규, 1998)

- [집안 지역] 1. 國內城 2. 山城子山城 3. 霸王朝山城 4. 望波嶺關隘 5. 關馬牆關隘  
 6. 大川哨所 7. 七個頂子關隘 8. 灣溝老邊牆關隘 9. 長川古城 10. 良民古城  
 [桓仁 지역] 11. 五女山城 12. 下古城子城 13. 蜚哈城址 14. 馬鞍山城 15. 高儉地山城  
 16. 城牆砬子山城 17. 瓦房溝山城 18. 北溝關隘 19. 東古城과 西古城  
 [新賓 지역] 21. 黑溝山城 22. 四道溝山城 23. 轉水湖山城 24. 孤脚山山城  
 [통화 지역] 31. 自安山城 32. 赤柏松古城 33. 建設山城 34. 南台古城 35. 太平溝門古城  
 36. 依木樹古城 37. 英戈布山城 38. 二道溝門關隘 39. 石湖關隘  
 [臨江 지역] 41. 臨江古城 42. 樺皮甸子古城 43. 夾皮溝古城 44. 東馬鹿村古城  
 [長白 지역] 51. 八道溝鎮山城 52. 十二道灣關隘 53. 十四道溝古城/關隘

編纂委員會, 1990), 두 번째 도성이 위치했던 집안(集安) 지역의 경지율은 6.6%에 불과하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d).

그렇지만 이 지역이 험준한 산악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압록강 본류와 그 지류인 훈강(渾江), 독로강, 자성강 등지에는 곳곳에 상당히 넓은 충적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초기 중심지였던 환인 지역에는 부이강(富爾江), 아하(雅河), 육도하(六道河) 등이 훈강으로 흘러들면서 곳곳에 충적평지를 펼쳐 놓고 있는데, 환인분지는 최대 직경이 10여 k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넓다. 집안시 일대에도 무수한 소하천이 압록강이나 훈강으로

흘러들며 곳곳에 충적평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집안분지는 폭 2~4km, 길이 16km에 이른다.

환인과 집안 지역은 기후도 만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다. 환인과 집안의 연평균기온은 6.2~6.3°C로 만주에서는 상당히 온난하며, 집안분지 일대는 ‘만주의 소강남(小江南)’이라 불릴 정도로 따뜻한 편이다. 연강수량도 900~1,000mm 전후로 만주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풍부한 다우지역에 속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일수(無霜日數)도 140~160일로 농사짓기에 부족함이 없다.

산간지대에는 산림이 울창하며 집안 지역의 경우 수종이 600여 종에 이른다. 울창한 숲속에는 곰, 멧돼지, 노루, 사슴, 토끼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약초와 야생과일도 풍부하게 산출된다. 울창한 산림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과 그 지류는 수량이 풍부해 잉어와 붕어 등 각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d;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87).

시조 주몽(朱蒙)이 부여에서 남하해 지금의 환인분지인 졸본천(卒本川)을 둘러보고 “토양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준하다”고 했다거나<sup>2</sup> 유리명왕이 지금의 집안분지인 국내 지역으로 천도하면서 “산천이 험준하고 토양이 오곡을 짓기에 알맞고 사슴·물고기 등이 풍부하다”라고 했다는 것은<sup>3</sup>이 지역이 험준한 산간지대이면서도 농경에 적합하며, 수렵과 어로 자원이 풍부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강 연안의 충적평지를 터전 삼아 농사를 지으며 가축 기르기, 사냥, 물고기잡이 등을

2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 제1 동명성왕 즉위년조.

3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명왕 21년조.

병행하며 생활을 영위했다.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바다가 평평한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돌도끼나 돌괭이 등의 농공구, 그물추, 돌화살촉 등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두께가 얇은 돌괭이가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농경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그물추와 화살촉은 어로와 수렵을 병행했음을 알려준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 토기와 석기 제작기술이 더욱 발전했다. 다양한 용도의 석기를 대량생산함으로써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집단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대부분 석기만 대량으로 출토되며 청동기는 거의 없거나 극히 소량만 출토되고 있다. 본격적인 청동기시대로의 진입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던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로 진입했지만, 이 지역에는 구리와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금속기를 자체 제작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통화(通化) 소도령(小都嶺)유적이거나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에서 석제 용범(鎔范)이 다량 출토된 것에서 보듯이(滿承志, 1987; 中國 國家文物局 主編, 2001) 청동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독로강변의 노남리 쇠부리터에서 보듯이 철기도 자체 제작하여 사용했다.

이 지역은 서북으로는 요동 지역, 동남으로는 동해안으로 통하는 동서 교통로상의 중심지이다. 서쪽으로는 서해, 서남으로 대동강·재령강 유역의 평야지대,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의 대평원지대나 요하 상류 방면의 초원지대로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이 지역 주민에게 일찍부터 주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고,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할 토대를 제공했다.

## 2) 압록강 수로망과 수운교통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육로만 놓고 본다면 험준한 산줄기를 넘어야 하므로 각 지역 사이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압록강과 그 지류는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 쉽게 왕래할 수 있었다. 제15대 미천왕(美川王) 을불이 백부인 봉상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며 소금장수를 할 때, 배를 타고 압록강 본류와 그 지류인 비류수(沸流水: 渾江)를 넘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sup>4</sup>

고구려가 압록강 수로를 활발히 이용한 사실은 3세기 전반 손오(孫吳)와의 관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고구려는 230년대에 요동 지역의 공손씨(公孫氏) 정권을 협공하기 위해 남중국의 손오와 교류했는데, 안평구(安平口)를 통해 사신과 물자를 주고받았다.<sup>5</sup> 안평구는 서안평(西安平)으로 오늘날 압록강 하구의 단동(丹東) 애하첨고성(愛河尖古城)으로 비정된다(曹汎, 1980). 고구려는 3세기 전반에 압록강 하류 방향의 수로를 이용해 손오와 교섭했던 것이다.

20세기 전반 혼강에는 하구에서 강을 따라 상류 방향으로 100여 리까지 100석 정도의 대형 선박이 운항했고(張拱垣 編, 1931), 60~70석 소형 선박은 통화현성(通化縣城)까지 운항했다고 한다(羅寶書·邱在官 編, 1935). 수량이 많은 우기(雨期, 重水期)에는 혼강 상류인 백산시(白山市: 八道江)까지도 소형 선박이 운항했다(渾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4). 압록강 하류 방향의 지류인 독로강에도 강계까지 목선(木船)이 운항했고(吳允珍 編, 1933), 충만강에도 하구에서 49km 정도까지 항행이 가능했다(楚

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제5 미천왕 즉위년.

5 『삼국지』 오서(吳書)2 오주전(吳主傳) 황룡(黃龍)2년 시세조 주인(注引) 오서(吳書).

山郡誌編纂委員會 편, 1983). 도성인 국내성 주변이나 그 하류 방면의 압록강 수로는 20세기 전반까지도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발해시기에 황해를 다니던 대선(大船) 이용자는 압록강 하구에서 100여 리 지점(西安平: 丹東 鬮河尖古城)까지 거슬러온 다음, 소선(小船)으로 갈아타고 30여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작구(泊灼口: 高구려 泊灼城, 寬甸 虎山山城)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시 500여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도성이었던 환<sup>6</sup>도성에 도착했으며, 다시 동북 방향으로 200여 리를 거슬러 올라가 서경압록부의 소재지인 신주(神州: 북한 중강진 맞은편의 臨江)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육로를 통해 도성이었던 현주(顯州)로 나아갔다.<sup>7</sup>

이로 보아 고구려시기에도 국내성 하류뿐 아니라 상류 방면의 수로를 활발하게 이용했다고 추정된다. 실제 20세기 전반에 100석을 적재하는 대형 목선은 임강시(臨江市)나 중강진(中江鎮)까지 운항했고, 이보다 작은 선박이나 프로펠러선은 장백현(長白縣) 13도구하(道溝河)나 신갈과진(新架坡鎮: 김정숙시)까지 운항했다(渾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4; 金在鎬 편, 1980). 40석 정도의 소형 목선(木船)은 장백진(長白鎮)-혜산(惠山)까지도 운항했다(長白縣志編纂委員會 編, 1993; 惠山郡誌編纂委員會 편, 1999). 그러므로 고구려시기에 소형 선박은 압록강 상류를 거슬러 13도구하-신갈과진 일대,<sup>8</sup> 나아가 장백-혜산까지 운항했을 것이다.

고구려 고분군의 분포 현황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는 100여 곳 이상의 고분군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압록강

6 원문에는 ‘구(九)’로 나오나, ‘환(丸)’의 오기이다.

7 『신당서(新唐書)』 권43하 지리지7하 등주(登州)조에 인용된 가담(賈耽)의 도리기(道里記).

8 13도구하(道溝河) 직전인 압록강과 장진강의 합류 지점 북안(北岸)에는 석축방단(石築方壇)과 흙무지(土包)로 이루어진 장백(長白) 하외자(下廠子)유적이 있다(『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44~47쪽). 장진강과의 합류처로 압록강 수로상의 요충지인 만큼 수운 역참과 연관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2008, 141~142쪽).

분류와 지류를 따라 분포해 있다(지도2). 특히 상류 방면에는 임강 동전자 고분군(東甸子古墳群)이나 서마록포자고분군(西馬鹿泡子古墳群)처럼 육로로 접근하기 힘든 압록강 연안 충적대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이러한 지역은 주로 압록강 수로를 이용해 왕래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강 화피전자고성(樺皮甸子古城)이 주목된다. 화피전자고성의 남쪽 0.5km에 왕팔발자요지(王八脖子窯址)가 있다. 1960년 발견 당시 20여 개의 가마 구덩이가 산기슭을 따라 펼쳐져 있었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a). 가마터의 규모로 보아 이곳에서 생산한 토기는 화피전자고성으로 운반해 보관했다가 압록강 수로를 통해 국내성 등 각지로 운송한 것으로 보인다. 화피전자고성이 수운(水運) 역참(驛站)으로 기능했던 것이다(여호규, 2008).

20세기 전반 임강에서 수로를 따라 압록강 하구까지 4~5일 정도 소요되었으므로(俞榮慶 편, 1925; 羅寶書·邱在官 편, 1935), 거리가 그곳의 1/3인 집안(국내성)까지는 1~2일이면 도착했을 것이다. 또한 장백에서 임강까지는 3~6일 정도 소요되었다(渾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1994). 압록강 최상류인 장백에서 집안까지 4~7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로를 통한 물자 운송은 험준한 산간지대를 오르내려야 하는 육로에 비해 시간이나 노동력 등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이다.<sup>9</sup>

이에 고구려인들은 압록강 수로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압록강은 고구려인들에게 농사지를 들판과 풍성한 어로자원을 제공하며, 압록강 중상

9 압록강 하류에서 상류 방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압록강 하구에서 임강까지는 순풍을 만나야 20여 일만에 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30~40일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임강에서 장백까지도 18~26일 정도 소요되었다.

류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교통로 구실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의 영토로 양분된 오늘날과 달리, 고구려시기에는 압록강 중상류 전체가 물길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었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적석묘가 압록강 물길을 따라 남·북 양 지역에 모두 분포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지도2).

이러한 점에 주목해 만주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환경이 고구려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만주는 지리적으로 서북의 대흥안령산맥(大興安嶺山脈)과 동북의 소흥안령산맥(小興安嶺山脈) 그리고 동남쪽의 장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다. 이들 산맥 사이에는 요하와 송화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이 흐르는데, 두 강의 본류 연안에는 광활한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와는 판이한 자연환경이다.

더욱이 만주의 서북부는 비가 적게 오는 초원지대로 이곳 주민들은 수렵이나 유목을 했고, 동북부는 날씨가 춥고 산림이 울창해 주로 사냥이나 어로를 하며 생활했다. 만주의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압록강 중상류와 생활방식마저 달랐던 것이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만주보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특히 산간지대에서 성장한 고구려인들에게 만주 중심부의 광활한 대평원은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낯선 땅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평원을 장악한 다음에도 대평원지역을 거의 방기한 채, 그 안쪽의 하곡평지 입구에 성곽을 축조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가 5세기 전반 천도(遷都)를 단행하며 요동 방면이 아니라 서북한의 평양 지역을 선택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고구려인들은 압록강 중상류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축적한 문화기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던 것이다.

## 2. 압록강 중상류 주변의 자연지리와 환경

### 1) 함경도 지역과 두만강 유역

고구려는 1세기에 국가체제를 확립한 다음, 먼저 함경도-두만강 방면으로 진출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 동명성왕대에 태백산(백두산) 동남의 행인국(荇人國)과 두만강 하류의 북옥저를 멸망시키고, 대무신왕대에 개마고원의 개마국(蓋馬國)과 구다국(句茶國)을 점령했다고 한다. 태조왕대에는 개마고원을 넘어 함흥평야의 동옥저를 복속하고, 118년 화려성(華麗城) 공격을 시발로 동예로 진출해 2세기 말에는 영흥만 일대의 동예 지역을 대부분 장악했다.

고구려가 가장 먼저 함경도-두만강 방면으로 진출한 것에는 후한의 지배력이 이 지역으로 거의 미치지 않거나 덜 미친 국제정세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이 일대는 압록강 중상류처럼 산간지대이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접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함경도 지역은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관북지방이라 불리며 한반도 전체의 지역 구분에서는 북부지역에 속한다. 함경도 지역은 다시 함경산맥을 경계로 북부 고원지대와 함경도(관북) 해안지대로 구분되는데, 두 지역은 지형이나 기후 모두 큰 차이가 있다(지도10 참조).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고원지대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평탄한 고원대지를 이룬다. 함경산맥이 바다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하여 연강수량이 600mm 안팎에 불과하며, 하천의 침식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융기지형인 고위평탄면이 잘 남아 있다(권혁재, 2003). 연평균기온은 2~5℃로 한반도에서 가장 낮고, 무상일수도 120일 내외로 240일인 남해안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권혁재, 2003; 박병

익, 2008).

이러한 생활에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낮고(김중욱, 2008), 강력한 정치체가 등장하기도 힘들었다. 이는 고구려가 가장 먼저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구려가 북옥저 정복에 앞서 북속한 태백산 동남의 행인국, 동옥저 진출에 앞서 점령했다는 개마국과 구다국 등은 북부 고원지대와 그 주변 산간 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산맥 동남쪽의 함경도(관북) 해안지대는 동해안을 따라 평야가 기다랗게 펼쳐질 뿐 아니라, 기후도 북부 고원지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원산 지역을 개마고원과 비교하면, 연평균기온은 9°C나 높고 연강수량도 600mm나 많다. 이는 함경도 해안지대가 동해에 면하여 습윤하고, 낭림산맥과 함경산맥 등이 한랭한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이다(강석오, 1971). 함경도 해안지역은 북부 고원지역에 비해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자연환경인 것이다.

『삼국지』동이전 동옥저조의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蓋馬大山)의 동쪽에 있는데 큰 바닷가에 거주한다. 그 지형은 동북은 좁고 서남으로 길어 천리나 된다. … 토지가 비옥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는데, 오곡에 적합하여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기사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반영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고조선시기에 임둔(臨屯)이라는 정치체가 등장했고, 한나라도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이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 또한 고구려가 진출하기 이전에는 북옥저, 동옥저(남옥저), 동예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함경도 동해안지역은 남북으로 기다랗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남쪽의 영흥 이남은 온도가 높고 연강수량도 1,000mm 이상으로 온난습윤한 반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



지도4 | 함경도 해안지대의 소지역 구분 (임덕순, 1992b)

지고 강수량도 감소한다. 특히 길주 이북의 함북 해안지역은 5~6월에도 짙은 안개가 많이 끼어 냉해(冷害) 피해를 자주 입는다. 이에 이 지역을 기후에 따라 마천령산맥 북쪽의 함북 해안지대, 북청-단천 일대의 함남 북부 해안지대, 함흥 이남의 함남 남부 해안지대 등 세 개의 소지역으로 세분한다(강석오, 1971; 지도4 참조).<sup>10</sup>

10 임덕순, 1992b, 216쪽에서도 함경도 해안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경계 설정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중부와 북부의 경계는 길주-명천, 남부와 중부의 경계는 함흥-홍원으로 설정하며, 남부는 강원도 고성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소지역 구분은 북옥저, 동옥저(남옥저), 동예 등의 분포지역과도 깊이 연관된다. 함경도 해안지대의 북부와 중부 기후구는 백두산에서 동해안으로 뻗어 내린 마천령산맥을 경계로 구분되는데, 북옥저와 동옥저(남옥저)의 경계도 대체로 이 일대로 추정된다. 다만 동옥저의 중심지는 함흥평야, 동예의 중심지는 영흥-안변 일대로 정평과 영흥 사이의 산줄기가 경계를 이루지만, 양자 모두 함경도 해안지대의 남부기후구로 분류된다.

동옥저(남옥저)와 동예의 중심부가 같은 기후구에 속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남부기후구가 다시 함흥평야와 안변 지역 사이의 정평-영흥을 경계로 세분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함남 남부 해안지대에는 영흥만을 따라 함흥평야, 영흥평야, 안변평야 등이 펼쳐져 있는데, 각 평야는 해발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줄기로 구분되므로 이들을 합쳐 함남평야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이 지역의 기후는 정평과 영흥을 가르는 산줄기를 경계로 북쪽의 정평-함흥 일대와 남쪽의 영흥-안변 일대가 뚜렷이 대조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지도4 참조).

가령 영흥 이남 지역이 연평균기온 10.5°C, 무상일수 190일, 연강수량 1,000~1,300mm 등으로 온난습윤한 반면, 정평 이북은 그 남쪽보다 연평균기온이 1°C 낮고, 연강수량도 800mm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영흥 이남은 가을보리의 파종이 가능하지만, 정평 이북은 그루갈이가 힘들다(강석오, 1971).<sup>11</sup> 동옥저(남옥저)와 동예의 경계선인 정평과 영흥 사이의 산줄기가 함남 남부기후구의 소지역 구분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옥저(남옥저)와 동예의 분포 권역은 기후에 따른 지역 차이와 연

11 이에 정평과 영흥을 가르는 산줄기 이북에 위치한 함흥평야 지역의 기후구를 그 북쪽 지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221쪽).

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함경도의 북부 고원지대와 해안지대는 험준한 함경산맥 때문에 북청-풍산의 후치령(1,335m), 신흥-풍산의 금패령(1,676m), 함흥-부전호의 부전령(1,445m), 함흥-장진의 황초령(1,200m) 등 고개를 통해서만 내왕할 수 있었다. 마천령산맥도 혜산-무산의 허항령(1,401m)과 최가령(1,572m), 혜산-길주의 남설령(2,150m) 등을 통해 내왕할 수 있었다(권혁재, 2003). 험준한 함경산맥과 마천령산맥으로 인해 빈번하게 교류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함경남도 해안지역도 홍원-단천 구간은 함경산맥과 마천령산맥의 지맥이 동해안까지 뻗어 있어 함관령(480m), 남갈령(318m), 마운령(418m), 마천령(873m) 등을 넘어야 했다. 함경북도 동남해안에는 화산의 분출로 이루어진 칠보산 지루(地壘)가 분포하여 내륙의 단층곡(斷層谷)인 길주-명천지구대를 따라 교통로가 발달했으며, 이곳을 흐르는 어랑천과 남대천 연안에는 어랑평야와 길주평야가 펼쳐져 있다(강석오, 1971).

다만 함경도 해안지대의 고개는 해안지대와 개마고원 사이의 고개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내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함경도 해안지대를 따라 교통로가 발달했다. 245년 조위(曹魏)의 관구검(關丘儉)이 침공했을 때 고구려 동천왕은 개마고원을 넘어 함흥평야의 동옥저(남옥저)로 피신했는데, 조위의 군대가 계속 추격하자 동해안을 따라 두만강 하류의 북옥저까지 피신했다.<sup>12</sup> 동해안 교통로는 발해 시기에는 책성부(柵城府: 琿春)를 출발하여 신라의 천정군(井泉郡: 안변)에 이르는 신라도(39驛: 1,170리)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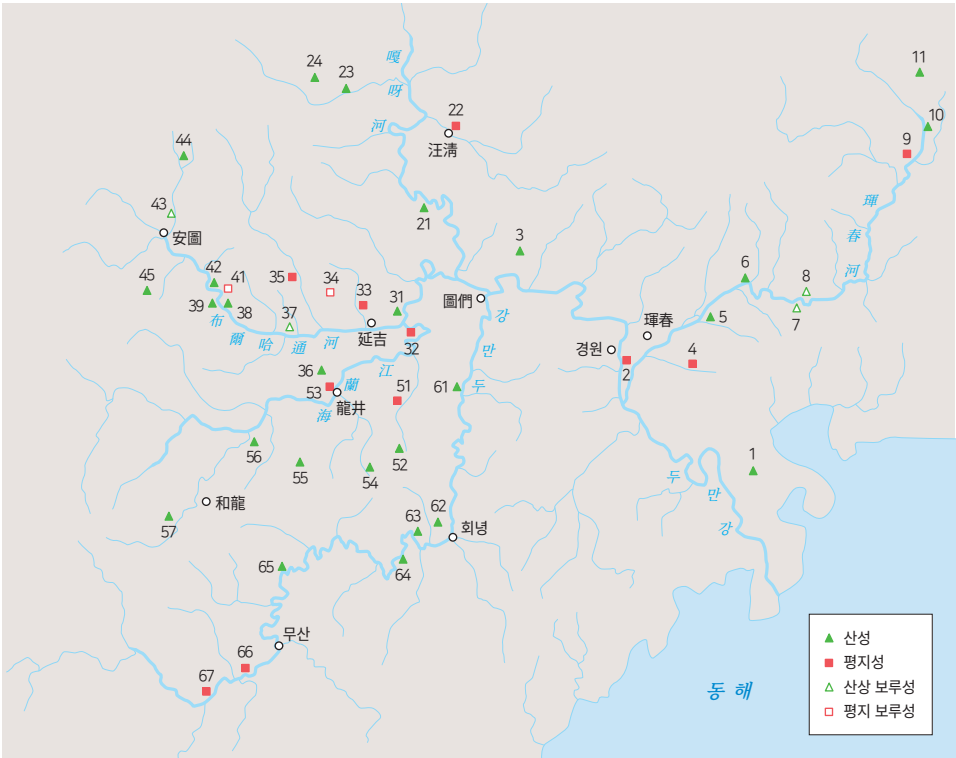
12 『삼국지』 권30 위서 제30 동이전 동옥저조.

고구려는 3세기 후반부터 지방통치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했는데, 함경도 해안지대의 교통로를 적극 활용했다. 가령 <광개토왕릉비> 수묘인 연호조에는 매구여민(賣句余民: 북옥저의 중심지였던 혼춘 일대), 동해고(東海賈: 청진 일대), 둔성(敦城: '東北 新城'으로 길주 일대), 우성(于城: 동옥저의 중심지였던 함흥 일대), 비리성(碑利城: 동예의 중심지였던 안변 일대)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는데, 함경도 해안지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영하, 1985; 임기환, 1987; 여호규, 2008).

다만 고구려가 함경도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던 초기에는 한의 영향력이 함흥평야의 동옥저 지역까지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먼저 동쪽으로 압록강 상류 연안과 함경북도 해안을 따라 두만강 방면의 북옥저로 진출한 다음, 후한의 유희책을 틈타 남쪽으로 개마고원을 넘어 함흥평야의 동옥저를 점령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탓에 고구려인들은 함경도 앞바다를 국내성을 기준으로 동쪽 방면인 함경북도 해안지대와 남쪽 방면인 함경남도(동옥저=남옥저) 해안지대로 각각 구분하여 '동해'와 '남해'로 부르기도 했다(여호규, 2008).

두만강 유역은 북한의 함경산맥과 중국의 노야령(老爺嶺)산맥 사이에 위치하는데(지도1 참조), 두만강 하류와 혼춘하(琿春河) 유역, 지류인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유역, 두만강 중상류 본류 연안 등으로 세분된다(지도5 참조).<sup>13</sup> 두만강 하류와 혼춘하 유역에는 혼춘시(琿春市) 일대에 혼춘분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혼춘하 상류 방면으로 100여 km 이상 하곡평지(河

13 두만강 유역은 가장 큰 지류인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두만강이 합류하는 도문(圖們: 남양), 성천수·연변수와 두만강이 합류하는 무산 등을 기점으로 각각 하구-도문 구간은 하류, 도문-무산 구간은 중류, 무산 위쪽은 상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만강' 항목 참조).



지도5 두만강 지역의 지형과 고구려 성곽 분포도(여호규, 2017)

- [두만강 하류-琿春河 유역] 1. 琿春 水流蜂山城 2. 溫特赫部城 3. 圖們 亭巖山城  
4. 琿春 石頭河子古城 5. 薩其城 6. 干溝子山城 7. 桃源洞南山城 8. 農坪山城  
9. 營城子古城 10. 城牆砬子山城 11. 通肯山城
- [嘎呀河 유역] 21. 圖們 滿臺城山城 22. 汪清 河北古城[江北古城] 23. 廣興山城  
24. 東四方臺山城
- [布爾哈通河 유역] 31. 圖們 城子山山城[磨盤村山城] 32. 延吉 河龍古城[土城村古城]  
33. 興安古城 34. 臺巖古城 35. 龍井 土城屯古城 36. 三山洞山城 37. 偏臉山城  
38. 白石砬子山城 39. 城子溝山城 41. 安圖 榆樹川古城 42. 五虎山城 43. 大砬子山城  
44. 五峰山城 45. 城門山城
- [海蘭江 유역] 51. 龍井 仲坪古城 52. 金谷山城 53. 東興古城 54. 養參峰山城  
55. 和龍 楊木頂子山城 56. 八家子山城 57. 松月山城
- [두만강 본류 중상류] 61. 龍井 船口山城 62. 清水山城 63. 朝東山城 64. 회령 운두산성  
65. 和龍 三層嶺山城 66. 土城里古城 67. 古城里古城

谷平地)가 이어진다. 포이합통하 유역은 알하하(嘎呀河) 유역, 포이합통하 본류와 소지류 연안, 해란강(海蘭江) 유역 등으로 세분되는데, 강 연안을

따라 비교적 넓은 하곡평지가 발달해 있다. 반면 두만강 중상류 본류 연안은 남쪽의 함경산맥과 북쪽의 남강산맥(南崗山脈)이 강변까지 뻗어 있어 하곡평지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두만강 유역은 만주 동부에서 가장 온난하며, 연강수량도 600~700mm 전후로 농경에 크게 모자라지 않다. 다만 두만강 유역은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해양성기후와 대륙성기후가 교차하여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심하다.

동해에 근접한 혼춘 지역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겨울에는 그다지 춥지 않고 여름철에도 덥지 않다.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1.9°C로 두만강 유역에서 가장 높고, 7월 평균기온은 20.3°C로 가장 낮으며,<sup>14</sup> 연교차도 32.3°C로 연변 지역에서 가장 적다. 연강수량은 654.1mm에 이르며, 무상일수는 126~156일로 상당히 길다. 다만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습한 해풍 때문에 흐린 날씨가 많고 일조시수가 적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e). 이처럼 혼춘 지역은 여름철 기온이 낮고 흐린 날씨가 많아 냉해 피해를 입기 쉬운데, 1960~1995년까지 저온 냉해 피해를 여섯 차례나 입었다. 이로 인해 혼춘 지역에서는 고온이 필요한 벼나 옥수수보다 저온에 강한 콩이나 조를 많이 재배한다(전경 외, 1995).

포이합통하 본류와 그 지류인 해란강 유역에 위치한 연길(延吉), 용정(龍井), 화룡(和龍) 등은 중온대성 대륙성기후로 연강수량은 혼춘보다 적지만, 7월 평균기온은 연길이 21.3°C, 용정이 21.6°C, 화룡이 20.8°C로, 20.3°C인 혼춘보다 높다. 해발고도가 높은 포이합통하 상류의 안도(安圖)는 20.4°C, 알하하 유역의 도문(圖們)은 21.1°C, 왕청(汪淸)은 20.6°C로

14 전경 외, 1995, 97쪽의 <표4-1> 연변지구 각 시현의 1월과 7월의 평균온도, 강수량 비교.

7월 평균기온이 혼춘보다 높다. 이들 지역은 여름철 농작물의 생육조건이 혼춘에 비해 좋은 것이다(전경 외, 1995). 더욱이 포이합통하 본류나 해란강 유역에는 하곡분지나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어 일찍부터 거주지와 농경지로 활용되었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d;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c;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f).

고구려는 이러한 자연지형과 기후환경을 활용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도모했을 것이다. 두만강 유역의 성곽 가운데 고구려시기 축조설이 제기된 성곽은 총 43기인데(지도5), 모두 고구려 성곽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 멸망 직전에 책성(柵城) 옥살(褥薩: 都督)을 역임한 이타인(李他仁)이 “12주(州) 고려(高麗)를 관장하고, 37부(部) 말갈(靺鞨)을 통할했다”는 기록을 참조하면, 고구려 말기에 두만강 유역에는 치소성(治所城)이 12개 존재했고, 그 외곽에 말갈이 산재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고고자료를 통해 고구려 치소성 8~9기를 상정할 수 있다. 평지가 가장 넓게 발달한 혼춘분지나 포이합통하-해란강 일대에는 평지성이 조밀하게 분포한 반면, 그 주변에는 포곡식 산성이 주로 분포한다. 반면 외곽인 혼춘하 중상류나 알하하 중상류에서는 치소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구려가 하곡평지가 넓게 발달한 두만강 하류의 혼춘분지 및 포이합통하-해란강 일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도모하며, 그 주변의 말갈을 통제했던 것이다(여호규, 2017). 혼춘분지와 포이합통하-해란강 일대는 기후상 뚜렷이 구분될 뿐 아니라, 두 지역의 경계에는 노야령산맥의 지맥이 두만강 연안까지 뻗어 있어 지형상으로도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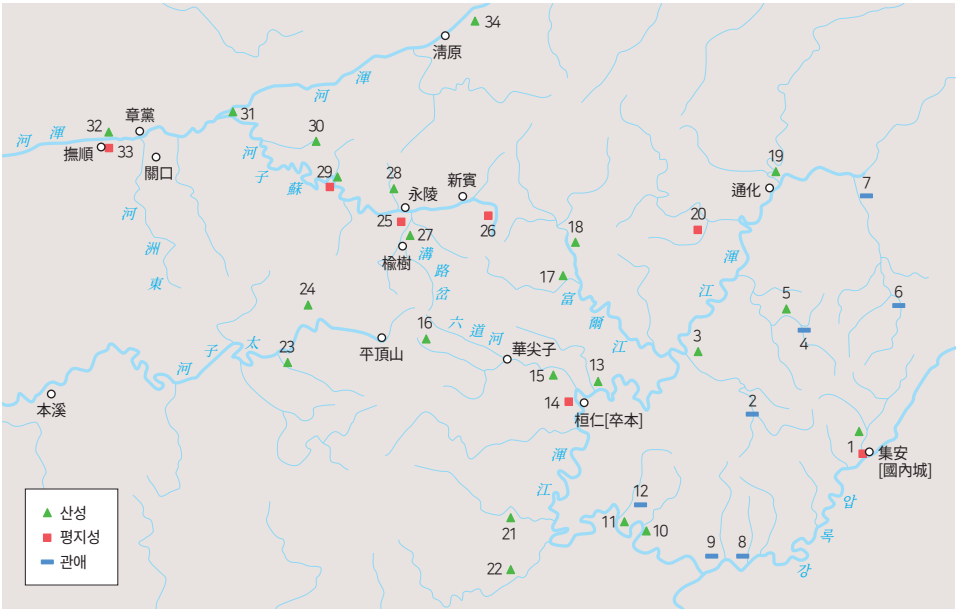
이 가운데 두만강 하류의 혼춘분지는 북옥저의 중심지로 고구려가 1세기경에 진출했고, 5세기에는 책성을 설치했다. 반면 고구려의 포이합통하 유역 진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고구려가 백두산 북쪽 경로를 거쳐 포이합통하 유역으로 진입했다거나(이성제, 2009), 도문 성자

산산성을 3세기 후반의 동북 대진(大鎭)인 신성(新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임기환, 2012). 고구려가 포이합통하 유역을 경유해 두만강 하류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헌사료나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가 동해안 일대의 신성(新城: 敦城)이나 해곡(海谷: 東海賈)을 경유해 두만강 유역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함경도 해안지대를 경유하는 경로가 국내성과 두만강 유역을 잇는 간선 교통로였던 것이다(여호규, 2008).

이에 포이합통하 유역 일대를 광개토왕이 410년(영락 20년)에 정벌했다는 동부여로 비정하기도 한다(김현숙, 2000). 혼춘분지 일대와 포이합통하 유역이 지형이나 기후상 별도의 권역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견해이지만, 명확한 논거가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고구려의 포이합통하 유역 진출 시기는 두만강 유역에 대한 지방제도의 정비, 읍루계(물길-말갈) 주민집단에 대한 통제, 두만강 유역과 북류 송화강 유역을 잇는 간선 교통망과 군사방어체계의 구축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내면서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현도군은 고조선 멸망 다음 해인 기원전 107년에 설치되었는데,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이 기원전 75년경에 제1현도군을 압록강 서북쪽의 소자하(蘇子河)로 몰아냈다. 고구려는 유리명왕대에 태자하(太子河) 상류의 양맥(梁貊)을 복속시킨 다음, 소자하 유역의 제2현도군을 공격했다.<sup>15</sup> 태조왕대인 1세기 중반에는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봉쇄하며 국가체제를 확립했고, 1세기 말경에는 제2현도군을 점령한 다음 요동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여호규, 2015).



지도6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의 지형과 고구려 성곽 분포도(여호규, 2014)

- [압록강-혼강 유역] 1. 국내성지/산성자산성 2. 망파령관애 3. 패왕조산성 4. 관마장관애  
 5. 대천초소 6. 석호관애 7. 이도구문관애 8. 노변장관애 9. 칠개정자관애  
 10. 외방구산성 11. 성장립자산성 12. 복구관애 13. 오녀산성 14. 하고성자고성  
 15. 마안산성 16. 고검자산성 17. 흑구산성 18. 전수호산성 19. 자안산성  
 20. 적백송고성 21. 관전 소성자산성 22. 동산산성
- [태자하 상류] 23. 태자성 24. 삼송산성
- [혼하-소자하 유역] 25. 영릉진고성 26. 백기보고성 27. 이도하자구노성  
 28. 두도립자산성 29. 하서춘고성/계자석산성 30. 오룡산성 31. 철배산성  
 32. 고이산성 33. 노동공원고성 34. 청원 산성자산성

이로써 고구려는 태자하 상류, 소자하 유역과 혼하 상류, 압록강 하류 등 천산산맥(千山山脈) 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하고, 요동평원이나 서북한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고구려는 2세기~4세기에 후한, 조위, 서진, 전연, 후연 등과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했

15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명왕 33년 8월조.

데, 이때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가 빈번하게 전쟁로로 활용되었다. 고구려 말기에도 이 지역은 당과의 격전장이 되었다.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는 고구려사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는 태자하-소자하 분수령 지대에서 요동반도로 뻗은 천산산맥 동쪽의 산간지대를 지칭하는데, 용강산맥(龍崗山脈)의 서남쪽 지맥과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의 서남 구간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험준한 지형을 이룬다. 이 지역은 연강수량이 800mm(압록강 하류 일대는 1,000mm) 이상으로 만주에서는 가장 다우(多雨)지역이다. 연평균기온도 고구려 초기 중심부인 환인-집안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劉明光 주편, 1998).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압록강 중상류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사이에는 일찍부터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졌는데, 전국 연나라의 요동 진출로 정세가 급변하던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에 ‘맥(貊)’이라 통칭할 수 있는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다. 1세기~3세기에 압록강 중상류의 주민집단을 대수맥(大水貊), 압록강 하류의 주민집단을 소수맥(小水貊), 태자하 상류의 주민집단을 양맥(梁貊)이라 부르는 등 모두 ‘맥(貊)’이라고 지칭한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는 기원전 3세기 중반까지도 청동기문화단계에 머물다가, 연-진-한 교체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에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때부터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고구려의 모체를 이룬 주민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의 ‘맥’집단으로부터 분화하여 국가적 성장을 이룩한 다음,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의 다른 주민집단을 복속시켜 나갔다(여호규, 2014).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와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 사이에는 일찍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천산산맥을 비롯하여 노령산맥,

용강산맥, 길림합달령산맥 등이 교차하며 험준한 산간지대를 이루지만, 오랜 침식작용으로 각 산맥 사이에 하곡(河谷)이 형성되었고, 그곳에 평지나 분지가 발달했다. 각 수계(水系)를 가르는 분수령 지대에는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다수 발달했는데, 이곳은 각 하천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가령 혼하 지류인 소자하는 한대(漢代)에 남소수(南蘇水)라 칭해졌다. 용강산맥 서남단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약 119km를 흘러 혼하 본류로 흘러드는데, 해발 500~1,000m의 산간지대를 통과한다. 발원지 일대는 비교적 험준하지만,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 곳곳에 형성되어 이웃한 혼강 유역과 연결되는 산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신빈현(新賓縣) 소재지에서 영릉진(永陵鎭)을 거쳐 목기진(木奇鎭)에 이르는 중류 구간에는 넓고 평탄한 하곡평지가 약 5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소자하 중류 구간은 동남쪽으로 혼강 유역, 서남쪽으로 태자하 유역과 접하는데, 양자의 수계를 가르는 분수령 지대에는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나 완경사면이 곳곳에 형성되어 산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하류 구간은 하천 연안로가 발달하기 힘들 정도로 험준하다. 이처럼 소자하는 해발 500~1,000m 산간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평탄한 하곡평지도 펼쳐져 있지만, 험준한 절벽이나 협곡 구간이 많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소자하 연안의 교통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자하 서남쪽의 태자하는 한대(漢代)에 대량수(大梁水)로 불렸다. 태자하도 소자하처럼 용강산맥의 서남단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약 413km를 흘러 해성시(海城市) 부근에서 혼하(渾河)와 합류한 다음 요동만으로 흘러든다. 태자하는 용강산맥의 서남단에서 발원했고, 상류 구간은 천산산맥의 동북단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험준하다. 특히 본계현(本溪縣)과 본계시(本溪市) 소재지 사이의 구간은 하천 연안로가 발달하기 힘들 정

도로 곳곳에 험준한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다만 태자하 상류의 북태자하와 남태자하 연안에는 곳곳에 비교적 평탄한 완경사면이 펼쳐져 있고, 두 하천이 합류하는 북전(北甸) 일대에는 상당히 넓은 하곡분지가 발달해 있다. 고구려 초기의 양맥은 이러한 태자하 상류의 하곡분지와 완경사면을 터전으로 삼아 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태자하 상류는 동쪽으로는 혼강 연안, 북쪽으로는 소자하 연안과 접하는데, 분수령 일대에는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나 완경사면이 발달해 산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는 비교적 험준한 지형이지만, 오랜 침식작용으로 곳곳에 상당히 넓은 하곡평지와 완경사면이 발달했다. 또한 각 수계를 가르는 분수령에도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과 완경사면이 형성되어 산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고구려도 이러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내면서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고구려 건국지인 혼강 유역과 제2현도군이 위치했던 소자하 사이의 교통로는 현재 육도하(六道河)-횡도하자(橫道河子) 애구(隘口)-차로구(岔路溝)를 경유하는 환인 서북로와 부이강 상류에서 소자하 상류로 나아가는 환인 동북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두 갈래의 교통로는 영릉진 일대에서 합쳐져 소자하와 혼하 하류 방면을 거쳐 요동평원으로 나아간다. 영릉진 일대는 소자하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이에 한(漢)은 이곳에 제2현도군을 건설하여 압록강 중상류를 통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구려는 유리명왕대에 태자하 상류의 양맥(梁貊)을 복속시킨 다음, 소자하 유역의 제2현도군을 공격했다.<sup>16</sup> 고구려가 현재 교통로와

16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명왕 33년 8월조.

달리 혼강 유역에서 소자하 유역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양맥이 거주하던 태자하 상류를 경유하여 제2현도군을 공격한 것이다. 이는 고구려시기에 혼강에서 태자하를 거쳐 소자하 유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환인 서북로의 육도하 상류에는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지만, 태자하 상류의 평정산(平頂山) 일대로 나아가는 경로에는 고검지산성(高檢地山城)이 분포한다. 또한 평정산 일대에는 영릉진으로 나아가는 산간로도 있다.<sup>17</sup> 고구려시기에는 환인 서북 방향을 통해 소자하 유역으로 나아갈 경우 태자하 상류 일대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8</sup> 아니면 현재의 환인 서북로와 함께 태자하 상류를 경유하는 경로도 이용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가 제2현도군에 앞서 양맥을 공격한 것은 이러한 교통로상의 조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고구려가 1세기 중·후반에 국가체제를 확립한 이후 각 지배세력과 제2현도군의 개별적인 교섭을 봉쇄하자, 한이 제2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곽을 쌓아 조북과 의책 등의 위세품을 두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평상시에는 환인 서북로보다 제2현도군 동쪽의 소자하 상류를 경유해 부이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환인 동북로가 더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고 파악된다.

고구려는 1세기 말경에 제2현도군을 혼하 방향으로 몰아낸 이후, 태자

17 현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고검지산성(高檢地山城)이 위치한 고검지촌(高檢地村)에서 소자하 유역의 영릉진(永陵鎭)으로 갈 경우 과거에는 태자하(太子河) 상류의 평정산(平頂山)을 경유했다고 한다.

18 혼강(渾江)-태자하(太子河)-소자하(蘇子河) 일대의 산간로를 답사해 보면, 고검지산성이 위치한 혼강 상류에서 태자하 상류의 평정산(平頂山) 일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은 그다지 험하지 않고, 태자하 상류의 평정산에서 소자하 유역의 유수(楡樹)를 거쳐 영릉진으로 나아가는 산간로도 비교적 평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경로는 육도하(六道河) 상류, 즉 화침자(鑿尖子)-횡도하자(橫道河子) 애구(隘口)를 거쳐 영릉진 일대로 나아가는 것보다 평탄한 편이다.

하 상류와 소자하 유역 등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 일대를 석권했다. 이에 따라 태자하 상류나 소자하 유역은 고구려가 요동평원으로 나아가는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고구려는 혼강 유역에서 소자하 유역을 경유해 혼하 연안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했는데, 이 경로를 따라 한의 제3현도군이나 요동군을 공격하며 요동 진출을 시도했다.

중국 측도 이 경로를 따라 고구려를 침공했다. 121년에 한군이 제3현도군 동쪽의 변새(邊塞)를 출발하여 소자하 유역으로 진입한 다음, 고구려에 복속해 있던 소자하 유역의 예맥거수를 살해한 바 있다.<sup>19</sup> 244~245년에는 조위의 관구검이 제3현도군을 출발하여 혼하와 소자하 연안로를 경유하여 혼강으로 비정되는 비류수(沸流水)까지 진군했다가 비류수전투에서 대패하자, 태자하 상류의 양맥지곡(梁貊之谷)으로 퇴각하여 고구려군을 격퇴하고, 다시 비류수 유역과 정현(楨峴: 小板岔嶺)을 거쳐 도성인 환도성까지 진격한 바 있다.<sup>20</sup>

342년에는 전연이 남도와 북도 두 갈래로 고구려를 침공하여 환도성을 함락했다.<sup>21</sup> 남도와 북도의 경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남도와 북도의 분기점은 혼하-소자하 합류 지점으로 비정된다. 남도는 혼하-소자하 합류 지점에서 동남쪽 협곡(南陝)으로 진입하여 목저성이 위치한 소자하 연안을 거쳐 혼강 유역의 부이강(富爾江)-신개하(新開河)를 따라 고구려 도성으로 나아가는 경로로 비정된다. 북도는 합류 지점에서 비교적 평탄한 혼하 상류와 휘발하(輝發河) 유역을 우회하여 혼강 유역으로 진입

19 『후한서(後漢書)』 권85 동이열전 제75 고구려전.

2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0년조; 『삼국지』 권28 위서28 관구검전; 『양서(梁書)』 권54 열전48 고구려전.

21 『자치통감(資治通鑑)』 권97 진기19 성제 함강8년 10월조; 『진서(晉書)』 권109 모용황제기.

한 다음 고구려 도성으로 나아가는 경로이다(여호규, 2014).

이상과 같이 고구려가 태자하와 소자하 유역을 장악한 이후, 이 지역은 중국 측과의 전쟁로로 자주 이용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에 성곽을 축조하여 군사방어를 강화하면서 지방통치를 도모했다(지도6 참조).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양곡(梁谷)’과 ‘양성(梁城)’에서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를 징발했다고 한다. 양맥이 거주하던 태자하 상류 일대를 ‘양곡’과 ‘양성’이라는 두 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거점성인 ‘양성’을 축조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태자하 상류의 태자성(太子城)이 ‘양성’으로 비정된다(임기환, 1998; 여호규, 1999).

소자하 유역의 경우에도 제2현도군의 치소였던 영릉진고성을 재활용하는 한편, 그 남쪽에 포곡식산성인 비아랍성(費阿拉城: 二道河子舊老城)을 축조하여 평지성·산성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335년(고국원왕 5)에 혼하 북안에 신성(新城: 撫順 高爾山城)을 축조하여 요동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는 한편, 소자하 연안에는 남소성(南蘇城)과 목저성(木底城) 등을 축조하여 군사방어를 강화하고 지방통치를 도모했다. 남소성과 목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남소성은 혼하-소자하 합류 지점 동쪽의 철배산성(鐵背山城), 목저성은 목기진 서쪽의 하서촌고성(河西村古城)으로 비정된다(孫進己·馮永謙, 1989b; 여호규, 2014).

압록강 하류 방면은 태자하 상류나 소자하 유역과 마찬가지로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에 속하지만, 요동평원 진출보다는 서해로의 진출과 관련된 수로로 활용되었다. 전술했듯이 압록강 하류의 수로는 20세기 전반 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고구려가 손오나 후조와 교섭할 때 압록강 하구의 안평구를 활용했다. 안평구는 한의 요동군 속현인 서안평을 지칭하는데, 애하(愛河)와 압록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단동 애하첨고성으로 비정된다(曹汎, 1980).

애하첨고성 북쪽의 애하는 ‘대수(大水)’로 불린 압록강에 대비하여 ‘소수(小水)’라고 일컬어졌는데,<sup>22</sup> 원고구려인과 동일한 계통의 소수맥(小水貊)이 거주했다(여호규, 2002a). 고구려가 2세기 초에 천산산맥 동부 산간 지대를 석권한 다음 145~146년에 서안평현을 공격했는데, 이 무렵 고구려가 압록강 하류 방면을 장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311년에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현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 서북한의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점령했다(313~314년).

서안평현이 위치했던 압록강 하구 일대는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에서 압록강 수로를 통해 서해 방면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요동 지역과 서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상의 요충지이다. 이에 고구려는 서안평을 점령한 다음 압록강 수로상의 요지인 이곳을 계속 사용하는 한편,<sup>23</sup> 애하·압록강 합류 지점 동쪽에 박작성(泊灼城: 寬甸 虎山山城)을 축조하여 군사 방어 기능을 보완했다. 이러한 전통은 발해시기까지 이어져 서경압록부(西京臨江市)를 출발해 압록강 수로와 서해를 거쳐 산둥반도에 위치한 당의 등주(登州)에 이르는 조공도(朝貢道)를 형성했다.

이처럼 압록강 하구 일대는 국내성시기에는 압록강 수로를 통해 서해로 나아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다. 다만 평양 천도 이후에는 요동 지역과 서북한을 연결하는 육로상의 요충지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7세기에는 압록강을 수와 당의 침공을 막기 위한 천연해자로 활용했는데, 『한원(翰苑)』 권30 변이부 고려전에 인용된 『고려기』의 “압록수는 너비가 300보로 … 그 나라는 이 강을 천연 해자(天塹)로 믿고 있다”라는 기사는

22 『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전.

23 단동(丹東) 애하첨고성(纓河尖古城)에서는 한대 토성과 함께 고구려시기의 붉은색 기와와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曹汎, 1980, 566~567쪽).

이를 반영한다. 이에 고구려는 압록강 남안에 의주 백마산성을 축조해 압록강 하류 일대의 군사방어를 강화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1세기 말경에 제2현도군을 점령한 다음,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해 나갔다. 특히 고구려는 111년 후한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 요동고새를 국경선으로 확정하고, 요동 동부 산간지대를 확고하게 장악했다. 실제 고구려는 120년대 이후 태자하 상류나 소자하 유역, 압록강 하류 방면의 소수맥, 원산만 일대의 동예 등을 예속시켜 나갔다. 고구려가 후한의 요동군이나 낙랑군을 여러 방면에서 환상(環狀)으로 포위하며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만주 중남부의 자연지리와 환경

#### 1) 자연지형과 기후환경의 특성

고구려는 4세기 이후 만주 각지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4세기 전반에 요동평원으로의 진출 시도는 실패했지만, 전연의 내분을 틈타 북류 송화강 중류의 원부여 중심지를 장악하고(333~336년), 이 무렵 요하 중상류 동안(東岸) 지역으로도 진출했다. 광개토왕대에는 후연의 내분을 틈타 요동평원-요동반도 일대를 석권하고, 목단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읍루(挾婁:肅慎)를 예속시켰다.

지도1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4세기 이후 진출한 요동반도-요동평원 일대, 요하 중상류 동안 지역, 북류 송화강 유역, 목단강 유역 등은 고구려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방사상(放射狀)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 양상으로 인해 고구려는 만주 각지로의 진출을 거의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만주는 지리적으로 서북의 대흥안령산맥, 동북의 소흥안령산맥, 동남 쪽의 장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다(지도1 참조). 만주 한복판에는 송료대평원(松遼大平原)<sup>24</sup>이 남북으로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데, 요하와 송화강의 분수령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평탄하다. 만주를 흔히 광활한 대평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흥안령산맥은 해발고도가 1,500~2,000m에 이르지만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며, 소흥안령산맥도 남단의 평정산은 해발고도가 1,429m에 이르지만 좌우로 충적평원과 침식구릉이 넓게 발달했다. 대흥안령산맥과 소흥안령산맥은 교통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만주와 중원(中原)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요서 지역에는 연산산맥(燕山山脈)이 발해만 해안까지 뻗어 있고, 요하 하류에는 넓은 늪지대가 발달하여 육로로 내왕하기가 쉽지 않다.<sup>25</sup>

이로 인해 청동기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만주 지역은 대흥안령산맥 너머의 몽골초원이나 소흥안령산맥 너머의 시베리아 지역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고, 중원대륙과는 원활하게 교류하기 힘들었다. 만주 지역의 신석기 문화나 청동기문화가 중원대륙과는 상이한 반면, 한반도 지역을 비롯해 몽골초원이나 시베리아 지역과 공통성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만주 남쪽에 동서로 뻗은 장백산맥은 해발 1,500~2,000m의 준봉이

24 중국에서는 ‘동북대평원(東北大平原)’으로 부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요하(遼河)와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대평원(大平原)이라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송료대평원(松遼大平原)’으로 지칭한다.

25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요택(遼澤)’이라 불린 요하 하류 늪지대의 너비는 200리 약 100km에 이르렀다(『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5월조, “帝至遼澤, 泥淖二百餘里, 人馬不可通. 將作大匠閻立德布土作橋, 軍不留行, 度澤東”).

즐비하며, 서북쪽으로 장광재령산맥(張廣才嶺山脈), 용강산맥(龍崗山脈),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 대흑산맥(大黑山脈) 등이 동북-서남 방향으로 겹겹이 뻗어 있다. 지질구조상 장백산맥-장광재령산맥 일대는 협준한 침식 중산지대, 용강산맥-길림합달령산맥 구간은 침식 저산지대, 길림합달령산맥-대흑산맥 구간은 침식 구릉지대를 이룬다. 대흑산맥 서북쪽의 송료대평원은 오랜 퇴적으로 형성된 충적평원지대이다(劉明光 주편, 1998).

이처럼 장백산맥과 송료대평원 구간은 장기간의 침식과 퇴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산맥 사이에는 오랜 침식에 따른 하천 지형이 발달했다. 장백산맥-장광재령산맥 사이에는 목단강이 동북쪽으로 흘러 동류 송화강으로 합류한다. 용강산맥-길림합달령산맥 구간의 경우, 동북쪽에는 휘발하가 북류 송화강으로 흘러들고, 서남쪽에는 혼하가 요하로 유입한다. 길림합달령산맥-대흑산맥 구간에는 요하 중상류의 지류들이 서쪽으로 흘러 요하에 합류한다.

그런데 만주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어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만주 지역은 몽골초원에 가까운 서북 방향으로 갈수록 연강수량이 줄어든다. 길림합달령산맥 동남쪽은 연강수량이 700mm 이상이지만, 그 서북쪽으로는 대흑산맥을 따라 연강수량 600mm선이 지나가고, 송료대평원 중앙으로는 연강수량 500mm선이 관통하는데, 연강수량 500~600mm선은 전업농경의 한계선에 해당한다(劉明光 주편, 1998).

대흥안령산맥과 장백산맥 사이에는 중국에서 가장 넓은 송료대평원이 펼쳐져 있지만,<sup>26</sup> 기후상 농경지구에서 초원-사막지구로 전환되는 접이지대인 것이다. 이로 인해 만주 서북부 지역은 산맥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지형이 아니라 연강수량에 의해 주민집단의 분포구역이 달라졌다. 가

령 송료대평원을 관통하는 연강수량 500mm선을 기준으로 그 서북방에는 오환과 선비 등 동호계의 유목민, 그 동남쪽에는 부여나 고구려 등 예맥계의 농경민이 거주했던 것이다.<sup>27</sup>

장광채령산맥 동쪽의 만주 동북부 지역은 연강수량은 600mm 이상이지만, 7월 평균기온이 20℃ 이하로 낮고, 연간 동토일수(凍土日數)도 160일 이상이다(劉明光 주편, 1998). 연강수량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여름철 기온이 낮고 동토일수가 길어 농사짓기에 열악한 기후조건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주로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하는 읍루계의 수렵민이 거주했다.

이처럼 만주 지역은 기후에 따라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중남부에는 예맥계의 농경민, 강수량이 적은 서북부에는 동호계의 유목민, 날씨가 추운 동북부에는 읍루계의 수렵민이 거주했다. 이 가운데 농경지대인 중남부 지역은 해발고도에 따라 기후가 조금씩 달라진다. 남쪽의 장백산맥-용강산맥 일대는 해발고도가 높아 연평균기온이 낮고 무상일수도 적다. 반면 서북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연평균기온은 높아지고 무상일수도 많아진다.

가령 장백산맥의 주맥이 지나가는 정우현(靖宇縣)은 연강수량이 800~900mm에 이르지만, 연평균기온은 2.4℃이고, 7월 평균기온도 21℃이다. 무상일수도 평균 120일인데, 서부 지역은 100일에 불과하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b). 반면 용강산맥 서북쪽의 유하현(柳河縣)은 연평균기

26 동북평원이라 불리는 송료대평원은 화북평원(華北平原, 31만 km<sup>2</sup>), 장강(長江) 중하류평원(中下流平原, 20만 km<sup>2</sup>) 등과 함께 중국의 3대 평원으로 꼽히는데, 총면적은 약 35만 km<sup>2</sup>로 가장 넓다(焦華富 주편, 2007, 77쪽).

27 연강수량 500~600mm선이 지나는 이통하(伊通河) 유역 일대를 반농반렵(半農半獵)의 통구스족과 유목을 영위하던 몽골·돌궐족의 경계선으로 인식하기도 했다(池內宏, 1960, 449~450쪽; 日野開三郎, 1991, 32~33쪽).

온 5°C, 무상일수는 평균 126~140일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a). 대흑산맥 서북방의 농안현(農安縣)은 연평균강수량은 507.7mm에 불과하지만,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기온은 4.6°C, 무상일수는 평균 145~158일에 이른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c).

만주 중남부 가운데 장백산맥과 송료대평원 사이의 침식 저산지대와 침식 구릉지대가 농경에 가장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4세기 이후 고구려가 진출했던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고구려가 연강수량 500mm 이하인 송료대평원 서북방 일대를 영역화했던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구려는 광활한 만주 지역 가운데 주로 연강수량 600mm 이상으로 전업농경이 가능한 장백산맥과 송료대평원 사이의 침식 저산지대와 구릉지대로 진출했던 것이다.

## 2) 요하 유역과 요동반도 일대

고구려는 일찍부터 요동평원을 중심으로 하는 요하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요하는 송료대평원 한복판을 가르면서 2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류와 합류하여 큰 물줄기를 이루며 요동만으로 흘러든다. 전체 길이 1,430km, 유역 면적 5만 9,074km<sup>2</sup>로서 예로부터 중국 6대 하천으로 일컬어졌다.<sup>28</sup> 요하 유역은 크게 상류 지역과 중하류 지역으로 나뉘며, 상류 지역은 다시 발원지에 따라 서요하와 동요하로 양분된다(지도 7 참조).<sup>29</sup>

28 요하와 관련된 문헌기록에 대해서는李文信 編, 1962; 馮季昌·孫進己·馮永謙 編, 1987, 440~442쪽의 '遼河' 및 譚其驤(주편), 1988, 364~372쪽의 '關於遼河中下流的變遷' 등을 참조했다.

29 요하 유역의 지형 특성에 대해서는 傅馬利·楊守一 책임편집, 1996; 劉明光 주편, 1998; 劉



서요하는 대흥안령산맥 서남단의 송림지대(松林地帶: 克什克騰旗白岔山)에서 발원한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를 중심으로 칠로도산맥(七老圖山脈)-노로야호산맥(老魯兒虎山脈)에서 발원한 남쪽의 노합하(老哈河)·교래하(教來河), 대흥안령산맥 동쪽 산기슭에서 발원한 북쪽의 오이길무렌하(烏爾吉木倫河)·호호이하(呼虎爾河)·신개하(新開河) 등이 합류하면서 큰 물줄기를 이룬다. 서요하는 처음에는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쌍료(雙遼) 부근에서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흐른다. 서요하 일대는 요하 유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 평지와 저지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다만 서요하 유역은 연평균강수량 500mm 이하로 사막지대와 함께 늪지·초원지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선비(鮮卑)나 거란(契丹) 등 주로 유목민이 거주했다. 고구려도 395년에 이곳까지 진격하여 거란 8부의 하나인 패려(裨麗: 匹黎部)를 정복했고, 654년에도 거란의 신성(新城)을 공격한 바 있다.<sup>30</sup> 그렇지만 고구려가 서요하 일대를 영역화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고구려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서요하 유역을 공격했지만, 직접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요하의 또 다른 발원지인 동료하는 요원분지(遼源盆地)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가다가 대흑산맥을 가로질러 송료대평원과 만나게 된다. 송료대평원에서 활처럼 둥그스름하게 유로(流路)를 꺾으며 서요하와 합류한 다음 남쪽으로 유유히 흘러나간다. 동료하는 서요하에 비해 유역 면적이 좁다. 또한 요원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광활한 송료대평원을 가로지르는 구간인데, 대평원을 따라 축조된 노변강유적(老邊崗遺蹟)은 고구려 후기의 천리장성(千里長城) 유적으로 추정된다.

威 책임편집, 1998 등을 참조했다.

30 <광개토왕릉비> 영락5년조 및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보장왕13년 10월조.

요하 중하류 지역도 서쪽과 동쪽의 자연지형이 확연히 구별된다. 서쪽 지역에는 동서 방향의 과이심사막(科爾沁沙漠)이나 남북 방향의 의무려산맥(醫巫閭山脈) 등이 요하 서안까지 뻗어 있어서 지류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반면 동쪽 지역에는 대흑산맥, 길림합달령산맥, 용강산맥, 천산산맥 등에서 발원한 지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 지류 연안에는 오랜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하곡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지역이 연평균강수량 600mm 이상, 7월 평균기온 23~24℃로 농사짓기에 충분하다. 특히 각 지류 연안의 하곡평지는 폭 1~2km, 길이 수십 km로 지형적 특성이 압록강 중류의 하곡평지와 유사하다.

이처럼 요하 중하류 가운데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농경에 적합하며, 지류 연안에는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류 연안과 유사한 하곡평지가 발달해 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일찍부터 요하 동쪽의 지류 연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요동평원의 중국 세력이나 서요하·대룡하(大凌河) 방면의 유목민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고구려가 일찍부터 진출을 시도했던 요하 중하류 동안 지역은 길림합달령산맥 서남단을 기준으로 두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길림합달령산맥 서남단 위쪽의 요하 중류 지역에는 대흑산맥과 길림합달령산맥에서 발원한 구하(寇河), 청하(淸河), 시하(柴河), 범하(汎河) 등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송료대평원을 가로질러 요하로 유입된다. 이 지역에는 길림합달령산맥의 지맥이 요하 동안(東岸) 가까이 뻗어 있기 때문에 각 지류는 대부분 길림합달령산맥이나 그 지맥 구간을 흐른다. 특히 요하 본류가 철령(鐵嶺)을 중심으로 활처럼 휘어져 흐르며, 길림합달령산맥의 지맥도 철령 부근에서는 요하 직전까지 뻗어 있다. 이로 인해 철령 일대는 송료대평원 가운데 폭이 가장 좁은 병목 구간으로 요하 하류의 요동평원과 그 북쪽의 경계를 이룬다.<sup>31</sup>

길림합달령산맥의 지맥은 해발 500m 이하로 험준하지 않은 편이며, 각 지류 연안에는 폭 1~2km, 길이 수십 km의 하곡평지가 기다랗게 펼쳐져 있다. 더욱이 하곡평지가 각 지류의 발원지 직전까지 펼쳐져 있고, 야트막한 구릉을 통해 다른 지류 연안의 하곡평지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는 각 지류를 잇는 교통로뿐 아니라 길림합달령산맥을 넘은 다음 송화강이나 혼하 유역을 거쳐 압록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많이 발달했다.

특히 이 지역은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요하 상류나 요서 지역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sup>32</sup> 요서 지역의 유목민이나 요동평원의 중국 세력이 송화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중간지대이기도 하다. 이에 고구려는 4세기 초·중반에 이 지역으로 진출한 다음, 곳곳에 성곽을 축조했다. 특히 송료대평원에는 성곽을 축조하지 않은 반면, 송료대평원에서 각 지류 연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포곡식산성을 축조했다. 이러한 산성은 각 지류 연안로의 길목을 봉쇄하는 군사방어적 성격과 아울러 그 안쪽의 하곡평지 일대를 통치하기 위한 거점성의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여호규, 2002b; 지도7 참조).

길림합달령산맥 서남단 아래쪽의 요하 하류 지역에도 길림합달령산맥~용강산맥에서 발원한 혼하, 천산산맥에서 발원한 태자하 등이 서남

31 한대(漢代) 요동 지역의 군현(郡縣) 가운데 가장 북쪽의 망평현(望平縣)은 철령(鐵嶺) 지역에 비정되며(和田清, 1955, 4~5쪽; 孫進己·馮永謙, 1989a, 274~299쪽), 연(燕)·진(秦)·한(漢)대의 요동장성(遼東長城)이 철령 맞은편의 법고시(法庫市) 일대를 통과한다는 사실(馮永謙, 1991, 21~33쪽) 등은 이러한 지형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한대까지 철령 일대는 요동평원의 중국 군현지역과 그 북쪽의 새외(塞外)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지역이었다.

32 고구려가 요하(遼河) 상류로 나아가 서요하(西遼河) 일대로 언제 진출했는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1세기 중반에 선비(鮮卑) 만리(萬離) 집단을 예하집단으로 거느렸고, 2세기 전반에는 선비족과 연합하여 한 군현을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이 지역과 관련을 맺었다고 파악된다. 고구려는 요동평원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이미 요하 중류를 통해 요하 상류로 나아가 서요하 일대의 유목민과 통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쪽으로 흘러 요하로 유입되고 있다. 혼하·태자하 중상류는 해발 500~1,000m의 산악지대로 비교적 험준하기 때문에 하천 연안의 충적평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분지를 이루며 단속적(斷續的)으로 발달되어 있다. 태자하 중상류의 경우, 상류에만 하곡평지가 발달되어 있고, 중류는 하안 단애(河岸斷崖)로서 접근조차 힘든 정도이다. 반면 혼하·태자하의 하류 구간에는 송료대평원 가운데 흔히 ‘요동평원(遼東平原)’이라 불리는 대평원이 형성되어 있다. 요하 하류 지역은 지형상 요동평원과 동부 산간지대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태자하 상류, 소자하 유역, 혼하 상류 일대에는 고구려 초기 중심부와 요동평원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발달했다. 다만 고구려가 요동평원을 장악한 것은 400~402년경이고, 427년에 평양 천도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요동평원과 그 주변의 성곽을 축조하고, 군사방어체제와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했다. 요하 하류 일대는 거대한 늪지대여서 특정 지점으로만 건널 수 있었다. 요동반도의 천산산맥도 해발 1,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즐비할 정도로 험준한데, 오랜 침식으로 협곡이나 분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산맥을 관통하는 횡단로가 발달했다.

이에 고구려는 요하 도하로(渡河路)나 천산산맥 횡단로를 고려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 방어나 지방통치를 도모했는데, 성곽의 분포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지도 7). 요하 도하로는 신민(新民) 고대산(高臺山)-심양(瀋陽)의 북로(北路), 대안(台安) 손성자(孫城子)-안산(鞍山)의 중로(中路), 반산(盤山)-고평(高平)-우장(牛莊)-해성(海城)의 남로(南路) 등 세 갈래가 있었다(王綿厚, 1986; 王綿厚·李建才, 1990). 이 가운데 북로를 통해 요하를 도하한 다음 심양을 거쳐 천산산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심양 탑산산성(塔山山城)이 자리 잡고 있다. 중로를 도하한 다음 천산산맥으로 진입

할 경우에는 북쪽의 요양이나 남쪽의 해성을 통과하는 두 경로가 있는데, 북쪽에는 요동성, 남쪽에는 영성자산성이 있다. 남로를 도하하여 천산산맥으로 나아가는 경로에는 마권자산성, 고려성산성 등이 위치했다.

이들 성은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을 넘어 압록강으로 향하는 교통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천산산맥 횡단로는 본계(本溪)–봉성로(鳳城路: 細河–草河路), 해성(海城)–수암로(岫岩路: 沙鐵河–大洋河路), 개주(蓋州)–장하로(莊河路: 大清河–碧流河路) 등 세 경로가 있다. 본계–봉성로의 진입 코스는 남과 북 두 갈래로 나뉘는데, 북쪽의 심양–본계로에는 탐산산성(蓋牟城)과 변우산성(磨米城), 남쪽의 요양–본계로에는 요동성·백암성·고수산성이 각각 위치했다. 해성–수암로의 길목에는 영성자산성(安市城), 개주–장하로의 길목에는 고려성산성(建安城) 등이 각각 위치했으며, 대청하에서 수암으로 나아가는 산간로 입구에는 마권자산성이 위치했다(여호규, 1999; 임기환, 2015; 양시은, 2016).

이처럼 고구려는 요하 도하로와 천산산맥 횡단로를 따라 성곽을 축조해 군사방어와 지방통치를 도모했다. 특히 천산산맥 횡단로에는 입구뿐 아니라 초하(草河) 연안(本溪–鳳城路), 대양하(大洋河) 연안(海城–岫岩路), 벽류하(碧流河) 연안(蓋州–莊河路) 등에도 성곽을 조밀하게 축조했다(孫進己·馮永謙, 1989b; 王禹浪·王宏北, 1994; 王綿厚, 2002). 고구려가 요하에서 천산산맥을 넘어 압록강으로 향하는 지역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여호규, 1999).

요하는 유역 면적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구에서 800km 떨어진 쌍료시(雙遼市: 鄭家屯)까지 선박 항행이 가능했다. 20세기 전반에도 요하 수운의 거점인 영구항(營口港)에는 해성, 요양, 심양, 신민, 법고(法庫), 철령, 개원(開原), 창도(昌圖), 정가둔(쌍료) 등에서 운송한 각종 물산이 집하되었다고 한다(仲摩照久 편, 1930). 고구려도 요하 수로를 활용했

을 텐데, 238년 조위의 군대가 공손씨(公孫氏) 정권을 공격할 때 배가 ‘요구(遼口)’에서 요하와 태자하를 거슬러 양평성(襄平城: 요양)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sup>33</sup>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王綿厚·李建才, 1990).

### 3) 북류 송화강과 목단강 유역

고구려사와 관련해 만주에서 요하 다음으로 중요한 하천이 송화강이다. 송화강의 유역 면적은 55만 7,200km<sup>2</sup>로서 요하의 약 10배에 이른다. 송화강도 요하처럼 대흥안령산맥 동북단에서 발원한嫩江(嫩江)과 백두산에서 발원한 북류 송화강 등 두 개의 발원지를 갖고 있다.嫩江을 기준으로 한 송화강의 유로는 2,309km이고, 북류 송화강을 기준으로 한 송화강의 유로는 1,927km이다.

이 가운데 고구려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북류 송화강이다. 북류 송화강의 유로는 958km인데 백두산에서 발원해 서북 방향으로 흘러 송원시(松原市) 일대에서嫩江과 합류한다. 송화강의 상류인 정우현이나 무송현(撫松縣)은 만주 남부에 위치하여 연강수량은 상당히 많지만, 해발고도가 높아 연평균기온은 낮고 무상일수도 적은 편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b;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a).

다만 장광재령산맥과 용강산맥 구간을 지나면서 북류 송화강의 주변 지형은 침식 저산지대로 바뀌고, 길림(吉林) 지역을 지나면 평탄한 충적평지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연강수량은 줄어들지만,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연평균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무상일수도 많아진다. 북류 송화강 중류

33 『삼국지』 권8 위서8 공손탁(公孫度)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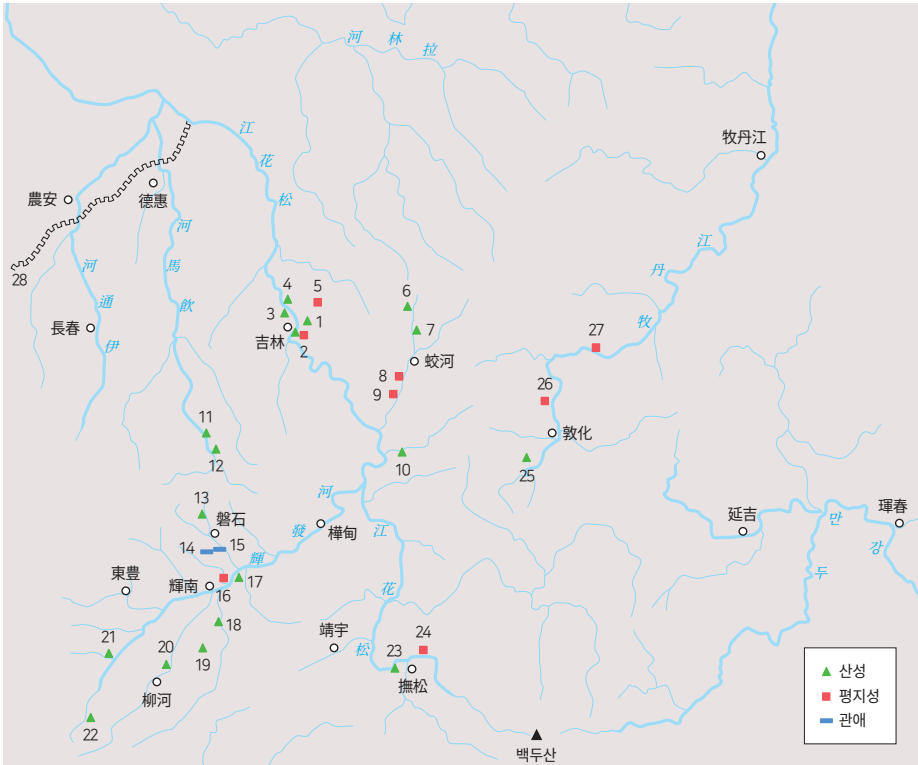
의 반석시(磐石市)는 해발 200~1,000m로 평원과 산지의 접이지대를 이루는데, 연평균강수량은 680~850mm이고, 연평균기온은 4.1°C, 무상일수는 130~145일에 이른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b).

북류 송화강 하류의 지류인 이통하(伊通河) 유역에 위치한 장춘시(長春市)는 해발 185~406m 전후의 저지대인데, 연평균강수량은 593.5mm로 적지만,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기온은 4.6°C, 무상일수는 142~159일에 이른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c). 이에 따라 북류 송화강 지역은 장광재령산맥과 용강산맥에서 대흑산맥에 이르는 침식 저산지대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농경이 크게 발달했고, 고구려도 주로 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류 송화강 유역은 고구려 중심부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크게 상류인 휘발하 유역과 북류 송화강 본류 연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휘발하 유역은 고구려 초기 중심부에서 송화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늦어도 4세기 전반 부여의 중심지를 점령할 무렵에는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고 추정된다.

휘발하 유역에서는 고구려성으로 거론되는 성곽 총 12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산성이나 보루성, 차단성이다. 송화강 중하류나 두만강 유역에서 평지성이 다수 확인되는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휘발하 유역에는 중심지에 위치한 유하 나통산성(羅通山城)을 중심으로 각 권역에 위치한 중형산성이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이루며 분포한다(지도8).

북류 송화강 본류 유역은 다시 최상류인 정우현-무송현, 중류인 길림시-교하시(蛟河市), 하류인 덕혜시(德惠市)-농안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류인 정우현과 무송현은 고구려가 연변 지역이나 두만강 하류 방면으로 나아가던 교통로의 경유지로 주목하기도 한다(이성제,



지도8 북류 송화강-목단강 유역의 지형과 고구려 성곽 분포도

- [북류 松花江 중류와 拉法河 유역] 1. 吉林 龍潭山城 2. 東團山山城/南城子古城  
 3. 三道嶺子山城 4. 架子山城 5. 三家子古城 6. 蛟河 六家子東山山城  
 7. 拉法小砬子山城 8. 新街古城 9. 福來東古城 10. 橫道河子南山山城  
 [輝發河 유역과 飲馬河 상류] 11. 磐石 後虎嘴子山城 12. 炮臺山城 13. 大馬宗嶺山城  
 14. 城子溝關隘 15. 紙房溝關隘 16. 輝南 小城市古城 17. 輝發城 18. 釣魚臺古城  
 19. 柳河 羅通山城 20. 釣魚臺古城 21. 東豐 城址山城 22. 清原 南山子山城  
 [북류 松花江 상류] 23. 靖宇 榆樹川古城 24. 撫松 大方頂子城址  
 [牧丹江 유역] 25. 敦化 城山子山城 26. 橫道河子古城 27. 大甸子古城  
 [飲馬河-伊通河 유역] 28. 德惠-農安 老邊崗遺蹟

2009; 이성제 기획, 2010). 다만 정우현과 무송현에서는 겨우 2기의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는데, 정우 유수천고성은 둘레 약 1.5km인 산성이며, 무송 대방정자성지는 소형 평지성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분포한 성곽의 수가 매우 적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류 송화강 중류의 길림시 일대는 부여의 도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이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림 지역은 지질상 침식 저산-구릉지대와 충적평지의 경계지대로서 동남쪽으로는 구릉성 산지가 펼쳐지고 서북방으로는 광활한 충적평지가 이어진다.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하며 넓다”는 『삼국지』 부여전의 기사는 이러한 지형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고구려는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길림 등 중류 일대를 가장 중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북류 송화강 중류의 길림시와 교하시 일대에는 총 13기의 성곽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부여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길림시 동쪽 일대에는 용담산성, 동단산성, 남성자고성 등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지성인 남성자고성은 부여의 도성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다음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지도8).

북류 송화강 하류의 농안현과 덕혜시 일대에는 송료대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연강수량은 500~600mm로 전업농업의 서쪽 한계선을 이룬다. 이 지역에서는 천리장성 유적으로 추정되는 노변강유적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고구려성이 발견된 바 없다. 다만 문헌사료상 농안 서남쪽 일대에 고구려 후기 부여성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안 일대는 기후상 농경지구에서 초원-사막지구로 전환되는 접이지대에 해당하는데, 고구려가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안 일대를 서북방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여성을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송화강의 수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화강은 수량이 매우 풍부하여 11월 10일~4월 15일의 결빙기 이외에는 운항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는 흑룡강(黑龍江)과의 합류 지점에서 북류 송화강의 길림까 지나 눈강 유역의 치치하얼(齊齊哈爾)까지 대소 기선이 운항

했고, 상류 약 96km를 제외하면 전 유역에 걸쳐 목선(木船)이 항운했다고 한다(仲摩照久 편, 1930).

실제 475년에 물길(勿吉) 사신이 배를 타고 동류 송화강과 눈강(難河)을 거슬러 조아하(洮兒河:太瀾河)에 도착한 다음, 육로로 북위의 화룡(和龍:朝陽)에 도착한 바 있다. 이때 물길의 사신인 을력지(乙力支)는 “백제와 함께 모의해 물길(水道)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취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sup>34</sup> 5세기 중·후반에 송화강 수로가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반영한다.

고구려도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송화강 수로를 적극 활용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북방의 두막루(豆莫婁), 오락후(烏洛侯), 실위(室韋), 물길 등은 동류 송화강이나 눈강의 지류 연안에 분포했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송화강-눈강 수로를 통해 이들과 교섭했을 것으로 보인다. 6세기 말경에 고구려가 눈강 하류 일대의 남실위(南室韋)에 철을 수출했다고 하는데,<sup>35</sup> 송화강-눈강 수로를 이용해 무거운 철을 운송했을 것이다(여호규, 2018).

북류 송화강 동쪽에는 목단강이 서남에서 동북 방향으로 흘러 동류 송화강에 유입된다. 목단강과 북류 송화강 사이에는 동북-서남 방향의 험준한 장광재령산맥이 분수령을 이루고, 목단강과 두만강 유역 사이에는 노아령산맥이 분수령을 이룬다. 이로 인해 목단강 유역은 부여의 중심지였던 북류 송화강 유역이나 북옥저의 중심지였던 두만강 유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화권을 이루었는데, 대체로 읍루계 주민집단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4 『위서(魏書)』 권100 물길국(勿吉國)전.

35 『수서(隋書)』 권84 실위(室韋)전.

다만 장광재령산맥-위호령산맥(威虎嶺山脈)이나 노아령산맥-목단령산맥(牧丹嶺山脈) 일대에는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 발달하여 북류 송화강에서 목단강 유역을 경유해 두만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발달해 있다. 지금도 장춘-연길의 간선 교통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고구려도 이러한 자연지형을 고려해 이 지역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다만 목단강 상류의 중심지인 돈화(敦化) 지역에 상당히 넓은 충적평원이 펼쳐져 있지만, 해발고도가 높고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당히 춥고, 무상일수도 아주 짧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목단강 유역에서는 상류의 돈화 지역에서만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고 있다. 돈화 지역은 목단강 하류 방면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송화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가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목단강 하류 방면의 물길이나 말갈 등 읍루계 주민집단을 통제하거나 이들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돈화 지역에 군사방어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류 송화강 방면과 두만강 방면을 모두 장악한 다음, 두 지역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 가교에 해당하는 돈화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파악된다.

## 4. 한반도 중북부의 자연지리와 환경

### 1) 자연지형과 기후환경의 특성

고구려는 4세기 이후 만주 각지로 진출하는 한편, 한반도 방면으로의 남진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311년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을 장악한 다음, 313년에 낙랑군, 314년에 대방군을 점령하여 한반도 서북 지역을 석권했

다. 4세기 후반에는 재령강-예성강의 분수령인 멸악산맥 일대에서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광개토왕대에 예성강-임진강 일대를 장악하는 한편, 내륙 지역에서는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475년 백제 도성을 함락하여 한강 유역 전역을 장악하고, 481년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도성 북방까지 진군했다.

이로써 신라와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접하고, 백제와는 차령산맥 북쪽의 아산만 일대 및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고구려가 만주 중남부와 더불어 한반도 중북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만주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각지로의 진출을 시도한 반면, 한반도 방면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점령하면서 남진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진출 양상이 달랐던 것인데, 주변국과의 역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함께 자연지형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반도는 동서 폭은 좁은 반면, 남북으로 기다랗다. 한반도의 산줄기는 남북으로 뻗은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이 기본 뼈대를 이루며, 여기에서 갈라진 지맥들이 서해를 향해 달리는 양상을 띤다. 고구려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낭림산맥이나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등이 겹겹이 놓여 있고, 그 사이로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의 하천이 흐르는 형상이다. 고구려가 남진할 때 각 하천의 분수령을 이루는 산맥을 하나씩 넘으며 순차적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지형 조건이다.

지질학상 한반도 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좁은 반면, 서쪽 사면은 경사가 완만하며 넓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지형을 경동지형(傾動地形)이라 일컫는데, 동해 쪽에 치우친 요곡융기(攙曲隆起)에서 기인한다.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 이래 평

탄하게 되었다가 신생대 제3기 중엽부터 융기하여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 신생대의 요곡운동과 단층운동으로 한반도가 융기하면서 태백산맥, 낭림산맥, 소백산맥 등 1차 산맥이 조성되고,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형성된 것이다(권혁재, 2003).

1차 산맥의 지맥(支脈)인 2차 산맥은 구조선을 따라 진행된 차별침식에 의해 만들어졌다. 2차 산맥 발달에 영향을 준 구조선은 중생대 대보조산운동의 결과로 발달했던 라오둥(遼東) 방향, 중국 방향의 구조선이다. 이들 구조선은 지각변동에 의해 땅속 부분이 약해져 쉽게 침식될 수 있었다. 2차 산맥을 추가령구조곡을 경계로 북쪽의 라오둥 방향 및 남쪽의 중국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차 산맥은 융기의 중심축에 놓여 있어 연속성이 강하지만,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2차 산맥은 연속성이 약하다(권동희, 2006). 이로 인해 1차 산맥은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반면, 2차 산맥은 구조선을 따라 진행된 침식작용에 의해 하곡이 파이면서 곡간산지의 형태로 생겨났기 때문에 서해로 근접할수록 고도가 낮아지고 산줄기도 흩어져 분명하지 않다(김중욱, 2008). 2차 산맥인 광주산맥이나 차령산맥이 남한강에 의해 단절되는 것은 이러한 차별침식의 결과이다(권동희, 2006).<sup>36</sup>

이에 따라 지도1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주요 하천은 1차 산맥인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서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2차 산맥 사이를 흐르는 양상을 띤다. 가령 청천강은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 대동강은 묘향산맥과 언진산맥, 재령강은 언진산맥과 멸악산맥, 예성강은 멸악산맥과

36 2차 산맥은 고위평단면이 차별침식(開析)되는 과정에서 주요 하천의 분수계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지반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산맥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권혁재, 2003,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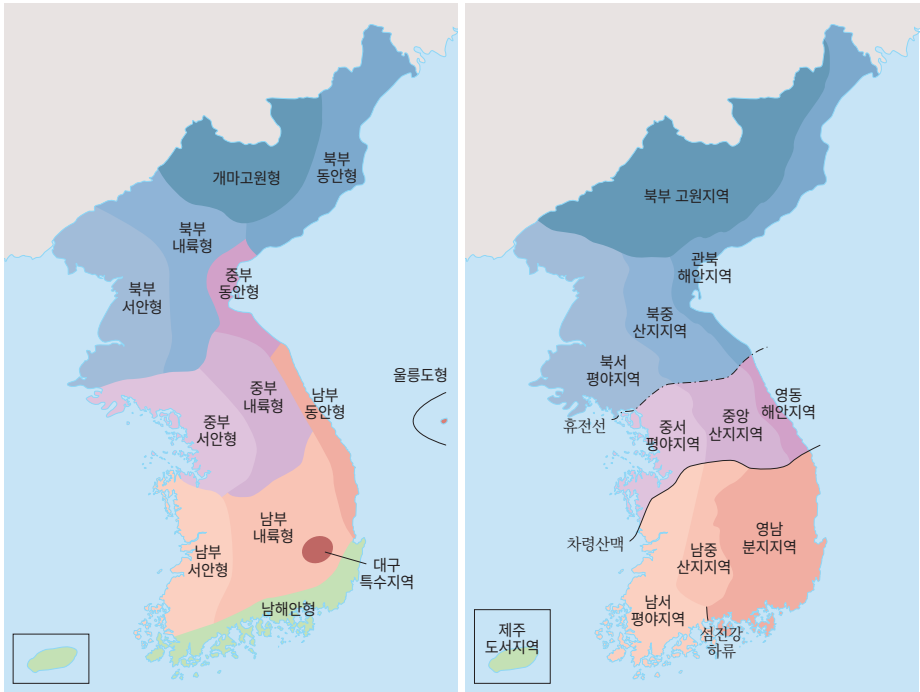
마식령산맥, 임진강은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한강은 광주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사이를 흐른다.

다만 한반도 중부지역의 경우, 충주와 원주를 기준으로 그 동쪽에는 장년기의 험준한 산지가 많은 반면, 그 서쪽에는 고도가 낮은 노년기의 구릉지가 널리 분포한다(권혁재, 2003). 특히 서해에 근접할수록 고도가 낮아지고 산줄기도 흩어지면서 평탄하고 넓은 침식평야나 충적평야가 펼쳐진다(권동희, 2006). 이로 인해 서해안을 따라서는 해발고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이 펼쳐지는 반면, 내륙 산간지대에는 비교적 험준한 지형이 이어진다.

한반도는 좁은 면적에 비해 지역 간의 기후 차이가 심한 편인데, 중위도 대륙의 동안(東岸)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산지가 많아 육지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기후 구분은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위도와 더불어 해안과 내륙, 산지 등 지형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라우텐저(Lautensach)의 경우 개마고원과 함께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의 산줄기를 별도의 기후대로 분류하여 산지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실제 연평균기온은 위도에 따라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가 높고,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지만, 내륙 산간지역도 동위도(同緯度)의 해안지역보다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연평균기온의 등온선은 전반적으로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동쪽에서는 해안을 따라 뻗어 있고, 태백산맥 일대의 산악지역에서는 남쪽으로 깊숙이 휘어 있다. 같은 위도라면 내륙이 해안보다 기온이 낮은 것이다(권혁재, 2003; 박병익, 2008). 이처럼 등온선이 내륙에서 남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양상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심하다(권혁재, 2003).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한반도의 기후를 위도에 따라 남부, 중부, 북부



지도9 | 한반도의 지역 구분(왼쪽: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오른쪽: 임덕순, 1992b)

로 구분한 다음, 다시 동해안의 동안형, 서해안의 서안형과 함께 내륙 산간지대의 내륙형 등으로 세분한다(지도9 참조). 특히 라우텐저는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의 산줄기 일대를 개마고원과 동일한 유형의 기후대로 분류하기도 한다(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형과 기후를 고려하여 멸약산맥을 기준으로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을 구분하는데(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멸약산맥은 그루갈이의 북한계선을 이룬다(강철성, 2008).

이와 관련해 고구려가 313~314년에 낙랑군·대방군을 점령하여 멸약산맥 이북을 석권했지만, 백제와 거의 1세기 가까이 멸약산맥을 경계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6세기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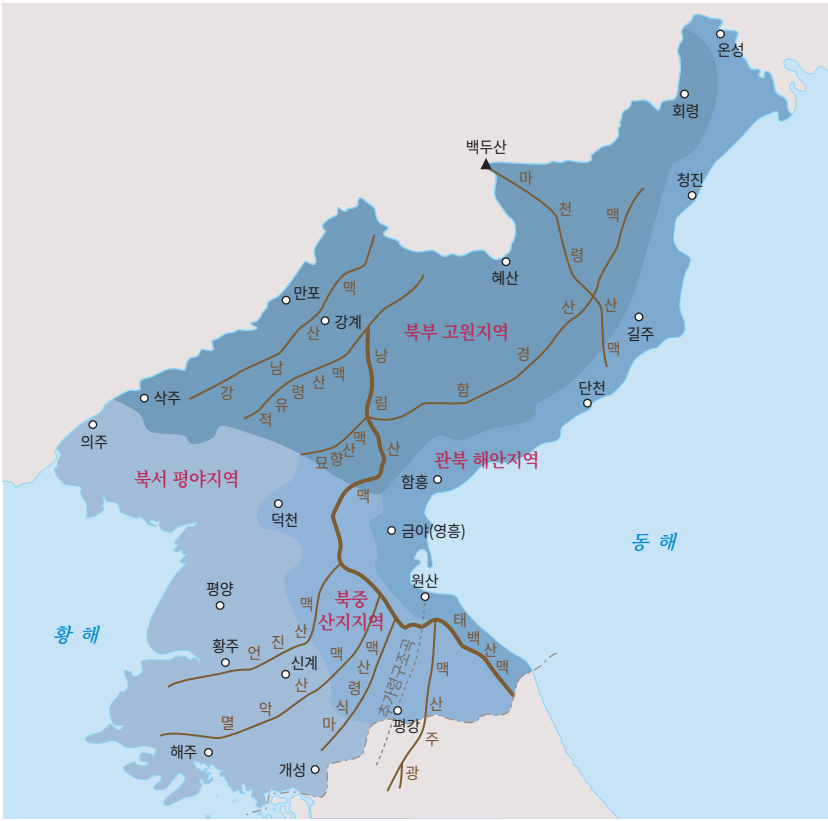
나·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한 다음, 7세기에는 멸악산맥 남쪽의 임진강 유역에서 신라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로 진출하거나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자연 지리와 기후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 2) 한반도 북부지역

한반도 북부지역은 지형이나 기후상 멸악산맥 이북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루갈이가 어려운 지역이다. 북부지역은 크게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으로 나뉘며, 다시 관서지방은 북부 서안지역(북서 평야지역)과 북부 내륙지역(북중 산지지역), 관북지방은 함경도(관북) 해안지역(북부 동안형)과 북부 고원지대(개마고원형) 등으로 세분한다(지도9, 지도10 참조). 이 가운데 관북지방은 제2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관서지방만 다루고자 한다.

관서지방의 서쪽인 북부 서안지역(북서 평야지역)은 낭림산맥의 서쪽 사면 가운데 평안북도 삭주에서 황해도의 신막을 잇는 선의 서쪽이다. 낭림산맥에서 갈라진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의 말단부 및 이들 산맥 사이를 흐르는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의 중하류 유역이다. 침식이 많이 진행된 노년기의 구릉지 지형으로서 서해안을 따라 청천강 하류의 안주평야, 대동강 하류의 평양평야, 재령강 유역의 재령평야 등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은 비교적 낮지만, 여름철 기온은 높다. 다만 연평균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데, 청천강 지류인 대령강 유역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연강수량이 1,300mm에 이를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만, 대동강 하류 일대는 700~1,000mm로 한반도에서 개마고원 다음으



지도10 | 한반도 북부지역의 소지역 구분(임덕순, 1992b)<sup>37</sup>

로 적다. 다만 이 지역은 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고, 여름철 기온도 높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를 이룬다(임덕순, 1992b;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북부 내륙지역(북중 산지지역)은 낭림산맥 동서 사면의 산지로 이루어

<sup>37</sup> 이 지도에서는 현재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멸악산맥 이남의 예성강-임진강 유역도 북부지역에 포함시켰지만, 이 글에서는 통설에 따라 멸악산맥 이북만 북부지역으로 설정하고 서술한다.

져 있다. 낭림산맥과 함께 여기에서 갈라진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을 따라 높고 험준한 산지가 이 지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아직 침식이 덜 진행된 장년기의 험준한 산간지대로 인구밀도가 낮고 주로 밭농사를 짓는다. 다만 낭림산맥 남쪽 구간은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 발달하여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을 잇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기후는 해발고도가 높고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북부 서안 지역보다 대륙성이 훨씬 강하다. 여름철 기온은 해안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겨울철 기온이 많이 낮아 연교차가 크게 난다. 연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00mm 이상으로 해안지역보다 많은 편인데, 청천강 중상류는 대표적인 다우지역이다(임덕순, 1992b;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관서지방은 크게 북부 서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뉘는데, 서안지역은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여 북부지역 나아가 만주-한반도 일대의 정치적 중심지로 부상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에게 서방 영토를 빼앗긴 다음, 북서 평야지역의 중심지인 평양 일대를 도성으로 삼았다. 이때 대동강 남쪽의 재령강 유역에는 진번(眞番), 낭림산맥 산지와 영흥만 일대에는 임둔(臨屯) 등의 정치세력이 성장했는데, 기원전 2세기에 위만(衛滿)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들을 복속시켰다. 이에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그 중심부였던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하는 한편, 재령강 유역에는 진번군, 낭림산맥 산지와 영흥만 일대에는 임둔군을 설치했다(이병도, 1975; 윤선태, 2010).

기원전 82년 임둔군과 진번군 폐지 이후, 한의 지배범위는 낙랑군으로 축소되고, 영흥만 일대나 낭림산맥 산지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이에 고구려는 1세기에 함흥평야의 동옥저를 점령한 다음, 2세기에는 영흥만 일대의 동예를 거의 대부분 장악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313~

314년 낙랑군·대방군 점령에 앞서 그 외곽의 북부 내륙지역부터 먼저 장악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평야지대인 북부 서안지역으로 진출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가 이 지역의 자연지형 및 그에 따른 정치세력의 분포 양상을 활용해 서북한(관서지방) 일대를 석권했던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는 427년에 평양 천도를 단행하여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중북부에 걸친 광활한 판도를 경영하는 중심지로 삼고, 동북아 각국과 국제 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처럼 평양 지역이 고구려의 중심부 나아가 국제 교섭의 거점으로 부상한 데에는 고조선 이래 이 지역에 축적된 선진문화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북한 지역의 산맥 가운데 북쪽의 강남산맥과 적유령산맥 및 남쪽의 멸악산맥은 서해안 가까이까지 산줄기가 뻗어 있다. 반면 이들 사이의 묘향산맥과 언진산맥은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해 북부 서안지대에서는 구릉이나 저지대로 변모한다. 이로 인해 요동 지역이나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서북한으로 진입하려면 강남산맥-적유령산맥과 멸악산맥의 협곡로나 산간로를 통과해야 했다.

반면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의 경우, 중상류는 묘향산맥이나 언진산맥에 의해 수계가 나뉘지만, 하류의 평야지대는 서로 이어져 쉽게 내왕할 수 있었다. 특히 재령강은 정방산-구월산 사이의 저지대를 통과해 대동강과 합류한 다음 서해로 흘러나간다. 재령강과 대동강 유역이 하나의 수로망으로 연결되었던 것인데, 20세기 초까지도 내륙수로가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가령 대동강은 평양까지 서해의 조수(潮水)가 들어와 재령강 합류 지점까지는 대형 기선, 재령강 합류 지점-이포 구간은 3,000톤급 기선, 이포-만경대 구간은 350톤급 기선, 만경대-평양 구간은 소형 기선 등이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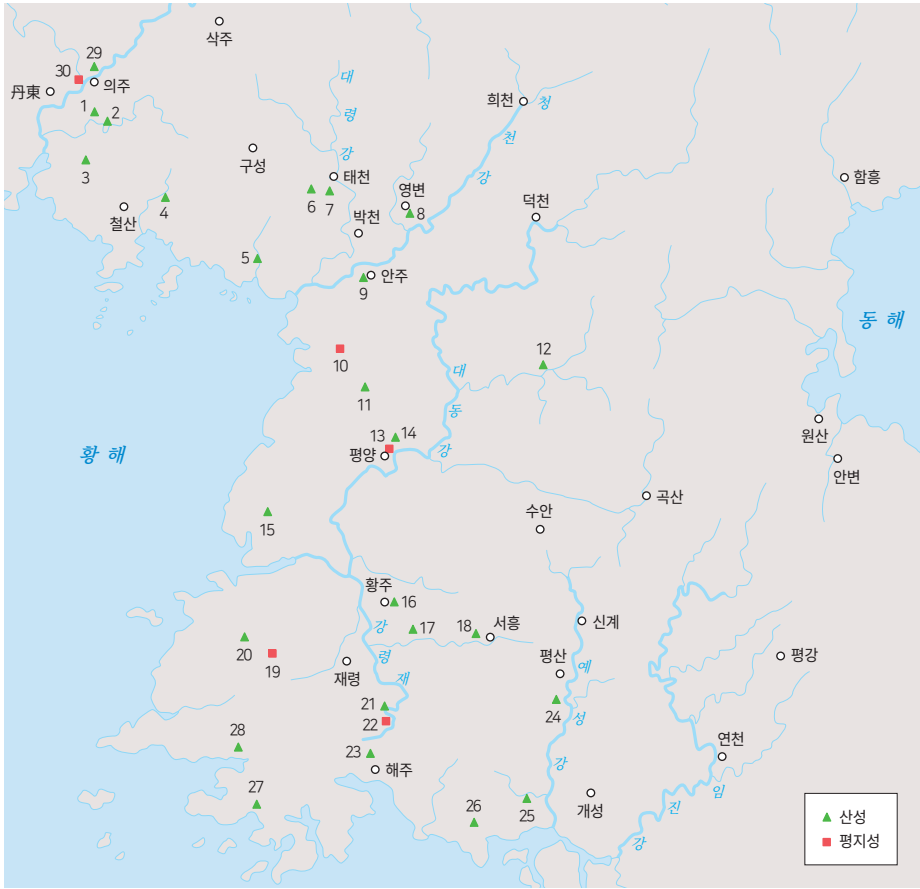
항할 수 있었다. 평양은 서해를 다니던 배들이 기항(寄港)할 수 있는 항구였던 것이다. 평양보다 상류 구간은 적재량 50석 내외의 목선만 운항할 수 있었지만, 가항 중점은 덕천으로 총 가항 거리는 260km에 이르렀다(朝鮮總督府, 1920). 재령강도 본류는 재령군 삼지강면 청류포(靑柳浦),<sup>38</sup> 서흥강은 어지둔보(於之屯洑) 하류, 서강은 신천군 삼가포(三街浦) 등이 가항 중점이었다(朝鮮總督府, 1920; 朝鮮總督府, 1929; 강석오, 1971).<sup>39</sup>

이처럼 서북한의 평야지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대동강과 재령강 유역은 하나의 수로망을 이루었다. 이에 고구려는 427년에 평양 천도를 단행하여 서북한의 평야지대를 도성의 배후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서해 해로와 연결된 평양을 거점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활한 판도를 경영하는 한편, 동북아 각국과도 활발하게 교섭했다. 이와 함께 고구려는 서북한(관서지방)의 자연지형과 교통로를 고려하여 도성 중심의 방어체제도 구축했다(지도11 참조).

먼저 고구려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환상(環狀)의 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서쪽의 황룡산성은 서해로부터 평양으로 진격하는 적군, 서북쪽의 청룡산성은 청천강 하류에서 서해안 평야지대를 통해 남진하는 적군, 동북쪽의 흘골산성은 청천강 유역에서 내륙 방면의 대동강 중류 연안로를 따라 남진하는 적군이나 동해안에서 낭림산맥을 넘어 서진하는 적군, 남쪽의 황주성은 한반도 중부에서 북상하는 적군 등을

38 청류포(靑柳浦)는 재령군 삼지강면 청룡리(靑龍里)에 위치했는데, 1930년대에 재령과 봉산을 연결하는 재령강교가 가설되었다(朝鮮總督府, 1931).

39 청천강 지류인 대령강(大寧江)의 경우, 박천(博川)까지는 외양 범선이 운항했고, 소형 목선은 태천군(泰川郡) 덕봉리(德峰里)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朝鮮總督府, 1920, 657~658쪽). 청천강 본류는 상류의 희천읍(熙川邑)까지 30석 조선선이 항행하기도 하지만, 여울이 많아 보통 100석 이상의 조선선은 안주군(安州郡) 원일리(元一里)를 중점으로 하고, 30석 이상의 배는 개천군(价川郡) 구장(舊場)까지만 항행했다(朝鮮總督府, 1920, 542~544쪽; 강석오, 1971, 107쪽).



지도11 서북한 지역의 주요 고구려 성곽

[압록강-청천강 유역] 1. 백마산성 2. 걸망성 3. 용골산성 4. 동림산성(통주성)  
 5. 능한산성 6. 니성 7. 농오리산성 8. 철웅성 9. 안주성 29. 관천 호산산성  
 30. 단동 애하첨고성

[대동강 유역과 그 주변] 10. 속천읍성 11. 청룡산성 12. 흘골산성 13. 평양성  
 14. 대성산성 15. 황룡산성

[재령강 유역] 16. 황주성 17. 휴류산성 18. 대현산성 19. 고현리성 20. 구월산성  
 21. 장수산성 22. 신원도시유적

[황해도 해안과 예성강 유역] 23. 수양산성 24. 태백산성 25. 치악산성 26. 봉세산성  
 27. 웅진고성 28. 오누이성

방어했다(지승철, 2005).

위성방어체계 바깥에는 외곽 방어성을 겹겹이 구축하여 서북한의 평야지대를 방어했다. 북쪽의 경우 청룡산성을 지나 숙천읍성, 안주성 등을 구축했다. 남쪽으로는 황주성을 지난 20km 지점에 봉산 휴류산성, 휴류산성 동남쪽에 서흥 대현산성(오곡성),<sup>40</sup> 서남쪽으로는 신원 장수산성(한성) 등을 축조해 2중 3중의 방어망을 구축했다. 이들 성곽은 대부분 중대형 포곡식 산성으로 지방 거점성의 역할도 수행했다. 394년과 409년에 축조했다는 국남(國南) 7성과 국동(國東) 6성을 이러한 외곽방어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최창빈, 1990).

오동 지역에서 서북한으로 진입할 경우 서해안 가까이 뺨은 강남산맥과 적유령산맥을 통과해야 했는데, 연해의 의주-곽산-박천로와 내륙의 삭주-태천-영변로 등 두 경로가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두 경로를 따라 중심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연해의 중심방어선은 압록강 대안의 백마산성을 출발해 용골산성·동립산성·능한산성 등을 거쳐 청천강 하류의 안주성에 이르러 도성의 외곽 방어선과 연결된다. 내륙의 중심방어선은 니성·농오리산성·철웅성 등을 거쳐 안주성으로 연결되거나 계속 내륙 교통로를 따라 흘골산성으로 이어진다(박창수, 1990; 남일룡, 1995; 손영종 2008).

평안도의 내륙 산간로와 관련해 국내성과 평양을 잇던 교통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말기에는 도성인 평양과

40 평양과 서흥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두 개가 있는데, 고려키기에는 평양-황주-자비령(절령)-서흥로, 조선시기에는 평양-황주-극성-봉산-서흥로 등이 각각 이용되었다. 고려시기에는 북방의 군사방어를 위해 험준한 자비령로를 이용한 반면, 조선시기에는 명과의 외교관계가 안정되면서 평탄한 극성-봉산로를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정요근, 2008, 192~195쪽). 고구려시기에는 봉산 휴류산성과 서흥 대현산성 등이 확인되므로 평탄한 황주-극성-봉산 경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인 국내성 사이에 17개 역이 있었다고 한다.<sup>41</sup> 이 교통로는 대동강-청천강 중상류를 거슬러 적유령산맥을 넘은 다음 독로강 유역을 거쳐 국내성에 이르던 경로로 추정되는데, 현재 만포선 철로가 지나간다. 조선 초기에 압록강 중상류를 개척하면서 이 교통로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정요근, 2008), 조선시기에도 이 교통로에 총 17개의 역참을 설치했다(조범중, 2011).

서북한에서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멸악산맥의 고개길을 통과해야 했는데, 수안-신계로, 서흥-신계로, 서흥-평산로, 재령-해주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산간 내륙의 수안-신계로는 재령강 유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동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며, 이천-평강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흥-평산로는 해발고도가 170m에 불과한 지소고개를 통과하는데, 서북한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코스로 지금도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다. 재령-해주로는 가장 평탄하지만, 서북한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육로보다는 해로와 더 깊이 연관될 것으로 추정된다(서영일, 2006; 정요근, 2008).

각 교통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가령 예성강 중류의 신계에서는 서북쪽으로 멸악산맥을 넘어 수안이나 서흥, 동남쪽으로 마식령산맥을 넘어 임진강 중상류의 이천-평강이나 토산-삭령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성강 하류를 따라 평산-개성을 지나 임진강 하류로도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신계에서 이천-평강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고구려가 한강 하류를 장악하기 이전에는 이 경로를 통해 영서지역으로 진출하고 신라와 교섭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계 일대는 여러 교통로가 만나

41 『삼국사기』 권37 지리4 고구려, “目錄云 鴨綠以北已降城十一, 其一國內城, 從平壤至此十七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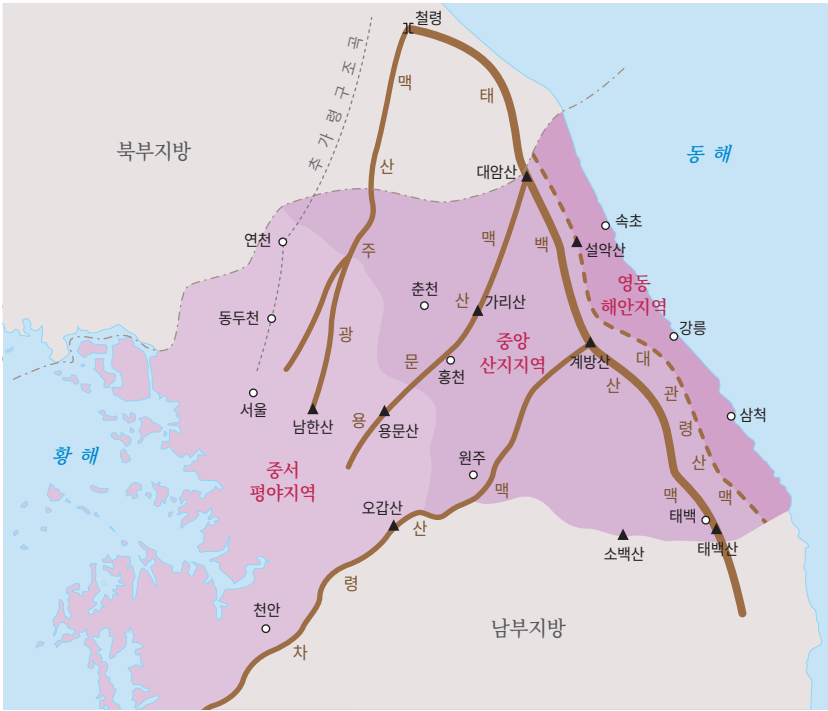
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고구려와 백제의 격전지였던 수곡성(水谷城)으로 비정된다(서영일, 2000; 장창은, 2014).

한편,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역을 석권한 다음, 이 지역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한강 수로와 서해 해로를 통해 도성인 평양으로 운송했다. 그런데 중부지역에서 평양으로 나아가는 서해 해로 가운데 장산곶 일대는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장산곶을 경유하지 않기 위해 멸악산맥에서 가장 평탄한 재령-해주로를 활용해 서해 해로와 재령강-대동강 수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이 교통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재령강 상류에 물류의 중간 집하장(集荷場)으로 한성 별도를 건설하여 운영하였다(여호규, 2020).

이처럼 멸악산맥 일대의 교통로는 고구려가 중부지역으로 나아가거나 백제·신라의 북상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고구려는 멸악산맥 일대의 교통로에 여러 갈래의 중심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서흥-평산로에는 서흥 대현산성과 평산 태백산성 등을 축조하여 서북한과 중부지역을 잇는 최단 교통로를 방어했다. 재령-해주로에는 신원 장수산성과 해주 수양산성을 축조하는 한편, 치악산성과 봉세산성을 축조해 연백평야 일대를 방어했다. 황해도 해안을 따라 구월산성, 풍천성, 오누이산성, 웅천고성, 수양산성 등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해안방어체계를 구축했다(김경찬, 1992; 김경찬, 1996; 양시은, 2016).

### 3) 한반도 중부지역

한반도 중부지역은 기후나 지형상 멸악산맥에서 소백산맥-차령산맥에 이르는 지역인데, 부분적으로 그루갈이가 가능한 곳이다. 이 지역도 지리적 특징에 따라 서안지역(중서 평야지역), 내륙지역(중앙 산지지역), 동



지도12 | 한반도 중부지역의 소지역 구분(임덕순, 1992b)<sup>42</sup>

안지역(영동 해안지역) 등으로 세분된다(지도9, 지도12 참조). 다만 영동지방이라 불리는 중부 동안지역은 고구려 영역으로의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고, 고구려 관련 유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서술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부 서안지역(중서 평야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도계(道界) 서쪽에 해당한다.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의 말단부 및 이들 산맥 사이를 흐르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의 중

<sup>42</sup> 이 지도에서는 멸악산맥-휴전선 일대 및 충북 북부지역을 중부지역에서 제외했지만, 이 글에서는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217~218쪽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서술한다.

하류와 안성천 유역이다. 이 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0~12℃ 내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한강 유역은 1,300mm 내외이지만, 예성강 유역은 1,100~1,200mm이며, 해주는 1,000m에 미치지 못하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노년기의 구릉지형으로 경기만을 따라 황해도 남부의 연백평야, 한강 하류의 김포평야, 안성천 유역의 평택평야 등이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 중류 곳곳에도 비교적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는데, 중부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곡창지대이다(임덕순, 1992b;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중부 내륙지역(중앙 산지지역)은 강원도 영서지방과 충청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태백산맥의 서쪽 사면과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등의 산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침식작용이 덜 이루어진 장년기의 산간지대로 주로 밭농사를 지으며 인구밀도도 낮다. 연평균기온은 10~11℃이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평강은 8.7℃에 불과하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다. 연평균강수량은 1,200~1,300mm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임덕순, 1992b;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이 지역은 농경지가 협소하지만, 하천 연안 곳곳에 상당히 넓은 침식분지가 발달했다. 각 침식분지는 산간 협곡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간 협곡로(현재의 중앙고속도로 노선)는 일찍부터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태백산맥은 매우 험준하여 영동지역과 왕래하기 쉽지 않은데, 북단의 추가령구조곡을 통해서 원산만 일대와 비교적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다.<sup>43</sup>

43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43년 10월조에 따르면 남옥저(南沃沮)의 구과해(仇頗解)가 추가령구조곡에 위치한 평강으로 비정되는 부양(斧壤)에 이르러 백제에 내투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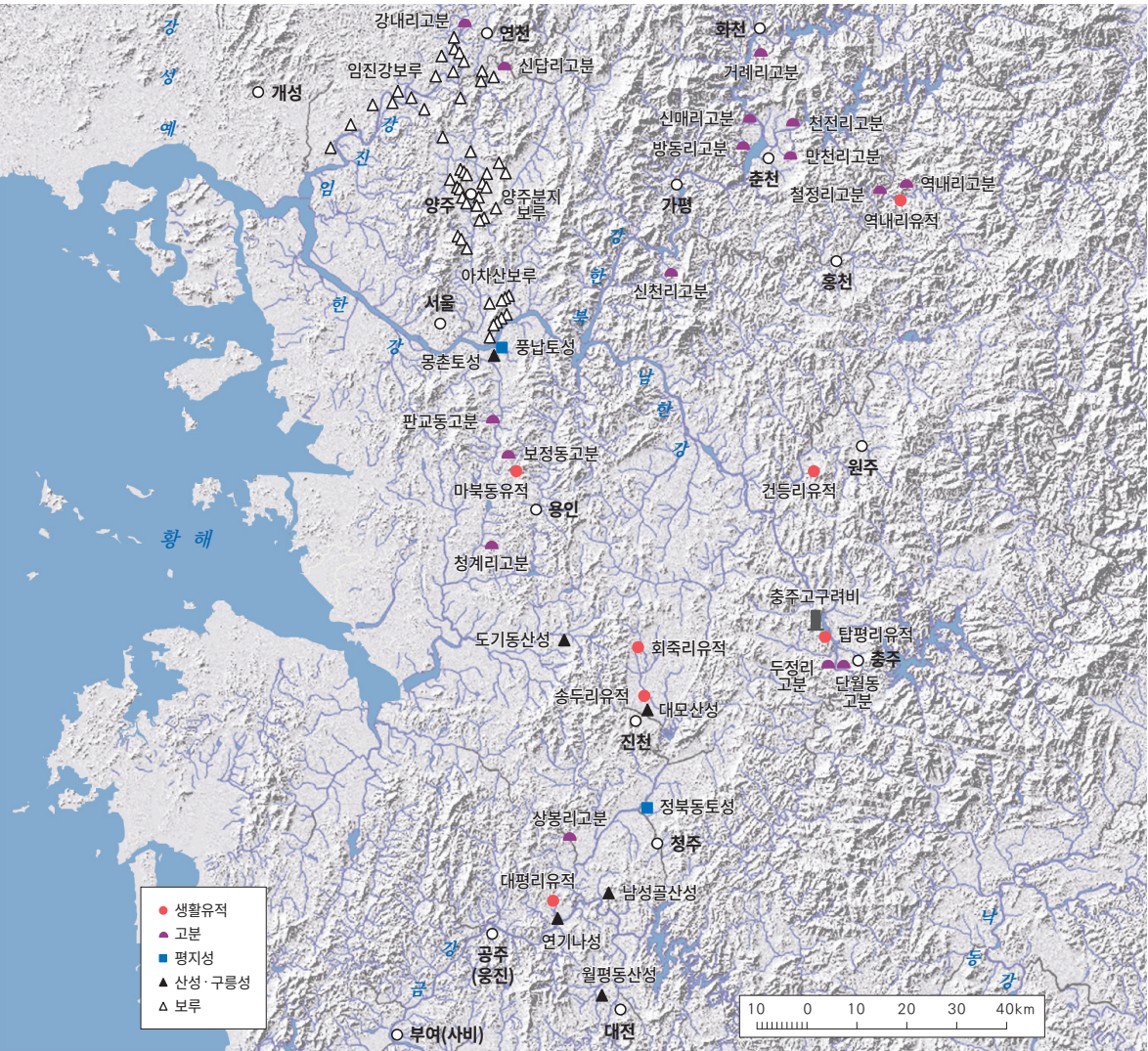
이처럼 중부 서안지역과 내륙지역은 자연환경에서 큰 차이가 났는데, 주민집단의 계통도 달랐다. 고구려 진출 이전에 중부 서안지역에는 주로 마한계 주민집단이 거주한 반면, 내륙지역에는 마한계와 함께 예계(위말갈) 주민집단이 잡거하는 양상을 띠었다(김창석, 2008).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집단의 분포 양상을 고려하여 남진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 멸약산맥을 경계로 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는 한편, 임진강 상류 방면에서는 원산만 일대의 동예를 동원하여 추가령구조곡의 교통로를 통해 백제를 압박했다(여호규, 2012). 광개토왕대에는 서해안을 따라 한강 하류 방면으로 진격하는 한편, 내륙에서는 신계-이천-평강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통해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마한계 주민집단뿐 아니라 예계 주민집단도 복속시켰는데, ‘한(韓)’과 ‘예(穢)’로 구분하여 파악했다(서영일, 2006; 여호규, 2012).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481년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도성 북방까지 진격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석권하고, 신라와는 소백산맥, 백제와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근래 백제가 웅진시기에 한강 유역을 수복했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김현숙, 2009). 그렇지만 고구려가 512년과 548년에는 차령산맥 북쪽의 아산만 일대, 487년과 550년에는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백제와 각축전을 벌인 사실이 확인된다. 고구려가 475~551년에 중부지역을 장악한 것은 거의 명확하다(여호규, 2013).

---

하는데, 추가령구조곡이 일찍부터 원산만 일대와 한반도 중부지역을 잇는 교통로로 이용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지도13 |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최종택, 2016)

중부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 지역에서는 서북한이나 요동 지역과 달리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중대형 포곡식 산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13에서 보듯

이 임진강-한강 북안에서는 소형 보루가 대거 확인되었는데,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전략적 요충지에 밀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고구려가 중부지역 전역을 지배하지 않고, 전략적 거점만 장악했다고 보기도 한다(심광주, 2002; 임기환, 2002; 신광철, 2011; 이정범, 2015).

그런데 근래 경기 남부의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 등에서 고구려 고분이 대거 조사되었다(안신원, 2010; 최종택, 2011). 경기 남부와 금강 유역에서는 안성 도기동산성, 진천 대모산성, 청주 정북동 토성, 청원 남성골산성, 연기 나성리토성, 대전 월평동산성과 월평동유적 등 성곽이나 주거 유적도 다수 확인되었다(최종택, 2014; 2016). 이 가운데 안성 도기동산성, 진천 대모산성, 연기 나성리토성 등은 넓은 분지나 소규모 평야의 독립 구릉에 위치하는데, 군사방어뿐 아니라 거점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했다고 파악된다(노태돈, 2005; 김현숙, 2008; 최종택, 2008; 양시은, 2010). 다만 지도13에서 보듯이 평야나 분지가 넓게 펼쳐진 중부 서안지역에는 보루성이나 성곽이 조밀하게 분포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춘천-홍천 일대의 고분을 제외하면 고구려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가 중부지역 각지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지방 지배를 도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부지역의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은 내륙 수로가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한강은 유역면적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상류까지 항행할 수 있었다. 남한강의 경우 가항 종점은 상류의 영월이다. 단양-영월 구간은 중수기(重水期: 雨期)에만 항행할 수 있었지만, 단양까지는 평수(平水) 시에 상시 항행이 가능했다. 북한강의 가항 종점은 화천(분류)과 양구(소양강)인데, 춘천까지는 상시 운항이 가능했다. 홍천강도 홍천까지는 상시 항행이

가능했다(朝鮮總督府, 1920; 강석오, 1971; 한주성, 2010).

이처럼 한강 유역은 상류까지 수로망이 발달했고, 중하류인 서안지역 뿐 아니라 내륙지역인 단양, 홍천, 춘천까지도 상시 항행이 가능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한강 유역이 수로망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에 20세기 초까지도 한강 수로망은 소금이나 목재 등을 운송하는 교통망으로 활용되었는데(최영준, 1987; 최영준, 2004), 고려나 조선시기에는 한강 수로를 통해 각지에서 거둔 세곡을 도성으로 운송했다(최완기, 1976; 한정훈, 2013).

이로 보아 고구려는 한강을 비롯하여 임진강이나<sup>44</sup> 예성강<sup>45</sup> 등의 수로망을 활용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를 도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백제 한성을 함락시켜 한강 유역을 장악한 다음 백제의 몽촌토성을 재활용하는 한편 한강 북안에 남평양을 건설했고, 남한강 수로의 거점인 충주에 국원성을 설치했다. 이러한 남평양이나 국원성은 도성에 버금가는 별도(別都)로 추정되는데, 한강 수로망을 활용해 지방 지배를 도모하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여호규, 2002c; 2020).

다만 한강 수로망은 단양, 홍천, 춘천 등까지만 상시 운항이 가능했고, 이보다 상류 방면은 수량이 풍부한 중수기에만 항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강 수로망을 통해 지방 지배를 도모할 경우, 단양-홍천-춘천보다 상류 방면으로는 통치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단

44 예성강의 가항 종점은 금천군(金川郡) 서북면(西北面) 청룡포(靑龍浦)(분류), 연백군 유곡면(柳谷面) 한교동[漢橋洞(漢橋川)], 서면(西面) 심교동[深橋洞(江西後川)] 등이다(朝鮮總督府, 1920, 685~687쪽; 강석오, 1971, 107쪽).

45 임진강의 가항 종점은 이천군(伊川郡) 안협면(安峽面) 포촌(浦村)(분류)과 연천군 영근면(嶺斤面) 명천리(明川里)(한탄강)인데, 저수(低水) 시에는 장단군(長湍郡) 장남면(長南面) 고랑포(高浪浦), 평수(平水) 시에는 마전까지만 항행이 가능했다(朝鮮總督府, 1920, 448~450쪽; 강석오 1971, 107쪽).

양-홍천-춘천은 중부 내륙지역(영서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로가 지나는 주요 거점이며, 그보다 상류 방면으로는 험준한 산간지대가 펼쳐진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산간지대에는 마한계와 구별되는 예계 주민집단이 다수 거주했다. 이에 고구려는 광개토왕대에 이 지역을 복속한 다음 ‘한’과 ‘예’를 구분하였는데, 548년에도 ‘예’를 집단적으로 동원해 백제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sup>46</sup> 고구려가 6세기 중반까지도 중부 내륙 산간지대의 예계 주민집단을 그 서쪽의 주민집단과 구별하여 별도로 편제하였던 것이다. 고구려가 한강 수로망을 비롯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며 지방 지배를 도모했던 것이다.

---

4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7 양원왕 4년 1월, “以濊兵六千攻百濟獨山城”;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9년 2월, “高句麗與穢人攻百濟獨山城.”

## 참고문헌

- 강석오, 1971, 『신한국지리』, 새글사.
- 권동희, 2006, 『한국의 지형』, 한올아카데미.
- 권혁재, 1995,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 \_\_\_\_\_, 2003, 『한국지리-우리 국토의 자연과 인문』(제3판), 법문사.
- 기상청 기상연구소, 2004, 『한국의 기후』.
- 金在鎬 편, 1980, 『厚昌郡誌』, 후창군민회.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남일룡, 1995,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손영중, 1996,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_\_\_\_\_, 2008, 『조선단대사(고구려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8, 『高句麗 城』 I, 國防軍史研究所.
- \_\_\_\_\_, 1999, 『高句麗 城』 II, 國防軍史研究所.
- \_\_\_\_\_,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이병도, 1975, 「제2편 한사군 문제의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이성제(기획), 2010, 『고구려성 사진자료집』(중국 길림성 동부), 동북아역사재단.
- 임덕순, 1992a, 『우리 국토 전체와 각 지역(I)』, 법문사.
- \_\_\_\_\_, 1992b, 『우리 국토 전체와 각 지역(II)』, 법문사.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전경·임철호·이광·유충걸·심혜숙·장삼환, 1995, 『두만강 하류 자연자원과 이용』, 백산출판사.
- 지승철, 2005, 『고구려의 성곽』, 사회과학출판사.

- 楚山郡誌編纂委員會 편, 1983, 『楚山郡誌』, 초산군민회.
-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 \_\_\_\_\_,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증보판 재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한주성, 2010, 『교통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한정훈, 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 惠山郡誌編纂委員會 편, 1999, 『惠山郡誌』.
- 강철성, 2008, 「제10장 기후와 생활문화」, 『한국의 자연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혁재, 2000, 「한국의 산맥」, 『대한지리학회지』 36.
- 김영하, 1985, 「고구려의 순수제」, 『역사학보』 106.
- 김경찬, 1992, 「황해남도 지방의 해안방어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4.
- \_\_\_\_\_, 1996, 「황해남북도 지방의 중심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6-2.
- 김종욱, 2008, 「제2장 산지지형」, 『한국의 자연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창석,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한국고대사연구』 51.
- 김현숙,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 支配」, 『國史館論叢』 88.
- \_\_\_\_\_, 2008,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
- \_\_\_\_\_, 2009, 「475~551년 한강유역 영유국 논의에 대한 검토」, 『향토서울』 73.
-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 박병익, 2008, 「제7장 기후요소」, 『한국의 자연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창수, 1990, 「고구려의 성분포와 서북방어체계」, 『역사과학논문집』 15.
- 서영일, 2000,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관방체계」, 『고구려발해연구』 10.
- \_\_\_\_\_,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 신광철, 2011,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한국상고사학보』 74.
- 심광주, 2002,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발해연구』 12.
-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 \_\_\_\_\_, 2012,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
- 여호규, 2000, 「高句麗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배경」, 『진단학보』 91.
- \_\_\_\_\_, 2002a,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 \_\_\_\_\_, 2002b,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의 고구려 성과 지방지배」, 『역사문화연구』 17.

- \_\_\_\_\_, 2002c,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강좌 한국고대사(제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_\_\_\_\_, 2008,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고구려 성곽과 동해로」, 『역사문화연구』 29.
- \_\_\_\_\_,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현실』 84.
- \_\_\_\_\_,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 \_\_\_\_\_, 2015, 「2세기 전반 고구려와 후한의 관계 변화」, 『동양학』 58.
- \_\_\_\_\_, 2017, 「두만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현황과 지방통치의 양상」, 『역사문화연구』 29.
- \_\_\_\_\_, 2018, 「5세기 후반 고구려·물길의 충돌과 북방 접경공간의 변화」, 『중앙사론』 47.
- \_\_\_\_\_, 2020,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 윤선태, 2010,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吳允珍 편, 1933, 「水通及通信」, 『江界總觀』, 동아일보사 강계지국.
- 이성제,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4.
- 이승호, 2002, 「우리나라의 산지와 기후환경」,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 이현혜, 2010,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 임기환, 1987,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體制」, 『慶熙史學』 14.
- \_\_\_\_\_, 1998, 「고구려 전기 산성 연구」, 『國史館論叢』 82.
- \_\_\_\_\_, 2002, 「고구려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 \_\_\_\_\_,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동북아역사논총』 38.
- \_\_\_\_\_,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 정요근, 2008,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범중, 2011, 「고구려의 郵驛制와 교통로」, 『한국고대사연구』 63.
- 최완기, 1976, 「朝鮮前期 漕運試考-그 運營形態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0.
-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 \_\_\_\_\_, 2011,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의 구조특징과 역사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81.

\_\_\_\_\_, 2014,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_\_\_\_\_, 2016, 「호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백제연구』 63.  
 최창빈, 1990,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의 국남7성과 국동6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3.

國家文物局 主編, 1992,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a, 『渾江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b, 『汪清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c, 『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d,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e, 『琿春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f, 『和龍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敦化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a, 『雙遼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b,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c,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d, 『延吉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a, 『柳河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b, 『磐石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c, 『長春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a, 『撫松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b, 『靖宇縣文物志』.

羅寶書·邱在官 편, 1935, 『臨江縣志』.

譚其驤 주편,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券), 中央民族學園出版社.

孫進己·馮永謙, 1989a, 『東北歷史地理』(一), 黑龍江人民出版社.

\_\_\_\_\_, 1989b, 『東北歷史地理』(二), 黑龍江人民出版社.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王綿厚·李建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王禹浪·王宏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 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俞榮慶 편, 1925, 『臨江縣鄉土志』.

- 李文信 編, 1962, 『遼寧史迹資料』, 遼寧省博物館.
- 張拱垣 編, 1931, 『輯安縣志』.
- 長白縣志編纂委員會 編, 1993, 『長白朝鮮族自治縣縣志』, 中華書局.
-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87, 『集安縣志』.
- 馮季昌·孫進己·馮永謙 편, 1987, 『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 제1 책.
- 馮永謙, 1991,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 渾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4, 『渾江市志』, 中華書局.
-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 傅馬利·楊守一 책임편집, 1996, 『中和人民共和國地圖集』(제2판), 中國地圖出版社.
- 劉明光 주편, 1998, 『中國自然地理圖集』(제2판), 中國地圖出版社.
- 劉威 책임편집, 1998, 『遼寧省實用地圖集』, 哈爾濱地圖出版社.
- 焦華富 주편, 2007, 『中國地理常識』,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 滿承志, 1987,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 1987-3.
- 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鴨綠江上游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 王綿厚, 1986,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986-1.
- 曹汎, 1980, 「饒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6.
- 中國 國家文物局 主編,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 
- 日野開三郎,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三一書房.
- 箭內互, 1913, 『滿洲歷史地理』(一),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鳥山喜一·藤田亮策, 1941, 『間島省古迹調查報告』, 滿州帝國民生部.
- 朝鮮總督府, 1920, 『治水及水利踏查書』.
- 朝鮮總督府, 1929, 『朝鮮河川調查書』.
- 仲摩照久 편, 1930, 『滿洲地理風俗』, 新光社.
- 池內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 
- 朝鮮總督府, 1931, 「載寧江橋鋼桁製作工事設計ニ關スル件」.





# 고구려의 기원

2장 고구려의 종족 기원

3장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 고구려의 종족 기원

조영광 |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고구려의 종족 기원 혹은 계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예맥계 종족, 그중에서도 맥족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국가로 여긴다. 하지만 다양한 종족이 어우러져 살았던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종족 기원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제기된 고구려 종족 기원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고구려 종족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인 중국 사료에 보이는 예맥의 실체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고구려의 건국과 맥족, 부여계 유이민집단의 이동과 주몽의 고구려 건국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고구려 종족 기원을 둘러싼 제 논의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와 일본 학계의 이해는 한민족 혹은 고조선의 종족 기원 문제와 맞물려 주로 예(濊)·맥(貊)·예맥(濊貊, 穢貊) 등의 명칭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예·맥 동

종설과 예·맥 이종설로 설정된다. 예·맥 동종설은 조선 후기 정약용이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맥은 종족명이고, 예는 지명 또는 물의 이름이라고 보아 예맥은 구맥(九貊)의 일종을 지칭한 것이라 본 것이 시초이다. 미시나 쇼에이는 선진(先秦) 문헌상의 ‘맥’은 북방민족의 범칭이며, 예는 한대에 처음 보이는데, 한대의 범칭적인 예는 부여, 고구려, 동예를 포괄하는 명칭이고, 예맥이라는 호칭은 예라는 현실적 민족명과 북방 종족에 대한 고전적 범칭인 맥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를 지칭한 맥은 민족명인 범예족 내 특정 부족의 이름으로 이해하였다. 곧 한대 이후의 맥은 예와 동일 계통이라는 것이다(三品彰英, 1953). 윤무병은 예맥이라는 명칭은 『사기』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예족과 맥족을 합친 범칭이 아니라 맥족인 고구려를 지칭한 것이었고, 한대 이후의 예와 맥은 동일한 계통 내에서 각각 구분되는 실체로 파악하였다(윤무병, 1966). 김정배 역시 예, 맥은 동일계 족속으로 그 분포 지역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고 보았다(김정배, 1963).

예·맥 이종설을 주장한 학자는 미카미 츠기오가 대표적이다. 그는 예족은 유문토기(有紋土器)문화를 영위하고 생활방식에서는 수렵·어로 비율이 컸던 고아시아 계통으로 이해하였고, 맥족은 무문토기(無紋土器)문화를 남긴 통구스족으로 보았다(三上次男, 1951). 그러나 그의 설은 빗살무늬토기문화와 민무늬토기문화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선후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부정된다.

한편, 이옥은 예족과 맥족은 중국 섬서성, 하북성 방면에 각각 거주하다가 점차 동으로 이동해왔다고 보았다. 기원전 3세기 무렵 길림성 장춘, 농안 방면에 먼저 정착하고 있던 예족은 이후 맥족에 밀려 남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고조선에 의해 쫓겨났는데, 그것이 곧 『한서』 무제기에 등장하는 예군 남려 집단으로, 이 예의 일부가 맥족에 흡수되어 기원전 2세기 무

렵에는 새로운 종족인 예맥이 성립하였으니 그것이 곧 고구려족이라고 하였다(이옥, 1984). 그러나 이와 같은 예족과 맥족의 동천에 근거한 예맥족 성립설은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본래 선진 문헌의 맥과 예라는 별개의 족칭에서 출발해 예맥이라는 연칭에 이르게 되는 예, 맥, 예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근래에는 보다 정치한 문헌 비판과 진전된 고고학 발굴성과를 토대로 문헌에 나타난 예, 맥 등의 용례를 시대별로 분석해 도식적으로 연결하던 과거의 시도들을 극복하고 고구려의 족칭으로 등장한 맥을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해 해석하려는 질 높은 연구성과가 다수 나왔다.

이러한 연구의 필두로 여호규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정리하며 고구려의 기원이 된 주민 집단에 대해 원래 예족 혹은 예맥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 무렵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예맥사회와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하였고, 그들이 기원전 2세기 후반경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 집단(정치세력)이 처음에 구려(句驪)라 불리다가,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점차 맥이라는 종족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여호규, 1996; 2011). 즉 고구려를 지칭한 맥족은 예족과 종족적으로 구분되던 선진시기의 개념이 아니라, 예맥족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구려라는 국명을 대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근래에 예맥의 실체에 대해 문헌과 고고학을 종합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는 송호정 역시 대체로 이와 같은 여호규의 견해에 동의하며, 늦어도 기원전 3세기 말에 독자적 문화를 이룩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주민집단은 ‘구려종족(句驪種族)’, 그리고 고구려의 모체를 이룬 사회라는 의미에서 ‘원고구려사회(原高句麗社會)’<sup>1)</sup>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송호정,

2007). 박경철 역시 적석총의 조영에 주목하며 고구려사회라고 칭하였다(박경철, 2003).

김현숙도 선진 문헌의 맥과 고구려를 지칭하던 맥은 별개라는 견해를 수용하며, 선진시기 이래 요동 지역에 거주해오던 예가 곧 예맥이고 여기서 다시 예와 맥(고구려)으로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초기 고구려의 탄생을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과 유리 집단,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비류수(沸流水) 일대로 내려와 주변의 맥과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며 동화의 길을 걸었던 졸본부여, 그리고 송양(松壤)의 비류국을 위시한 압록강 유역의 토착세력들이 결합한 결과물로 파악한 바 있다(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 고고학적 성과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활발해져 90년대 중반부터는 다수의 단행본까지 간행하며 고구려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해 왔다(김현숙, 2004; 2005). 이는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려 대내적인 결속을 강화하고자 이른바 변강사(邊疆史) 연구가 국가중점사업으로 정해져 진행된 것과 연관이 크다. 특히, 고구려사 연구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심과제로 책정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많은 학자에 의해 행해졌다(耿鐵華, 2000). 근래에는 소위 ‘동북공정’ 이후 중국 동북지역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 관련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연구자인 왕면후는 그간 중국에서 제기된 고구려 종족 기원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며 예맥설, 고이(高夷)설, 고이-맥부(貊部)설, 부여설, 고조선설, 상인(商人)설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王

---

1 고구려의 모체가 되었던 사회 혹은 정치세력에 대해 원(proper)고구려라고 처음 이름 붙인 것은 이병도이다(이병도, 1976).

綿厚, 2006).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종족 기원 관련 문제는 고구려의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고구려의 민족적 원류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4개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구려 종족 기원에 대한 고전적 견해라 할 수 있는 예맥족설로, 1980년대에 출현해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정설로 자리 잡았던 견해이다(張博泉, 1983; 孫進己, 1987; 楊保隆, 1998; 王綿厚, 2002; 李春祥, 2006; 楊軍, 2006). 다음은 부여출자설로, 고구려는 숙신(肅慎) 계통의 통구스족인 부여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金毓黻, 1936; 王健群, 1987; 金岳, 1994). 이러한 견해는 『삼국사기』 기록 등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숙신출자설'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 두 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오고, 기존 북한, 한국, 일본 등의 견해를 수용해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라면, 이제 소개할 두 설은 근래 중국 학계 자체에서 등장해 내부적으로 큰 반향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염제족(炎帝族)설은 고구려와 부여 모두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기원하였고, 중국의 전설적 제왕인 염제 신농씨의 후예라는 견해이다(李德山, 1992; 2003). 이 설은 한족(漢族) 구성체의 하나인 염제 계통의 동이족이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근거를 거의 고구려 명칭의 음운적 변개 고찰에 의존하고 있어 논거가 극히 희박하지만,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중국 정부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완전히 부합되어 많은 지원을 받는 가설이다.

끝으로 상인(商人)설 혹은 고이(高夷)설은 근래 다수의 중국 학자가 수용하고 있는 견해이다(氾黎, 1993; 劉子敏, 1996; 馬大正·楊保隆, 2001). 이 설은 『일주서(逸周書)』 왕회해(王會解), 『관자(管子)』 소광(小匡)편 등을 근거로 은·주 교체기에 주족에게 쫓긴 상족의 일파가 동북으로 진출해 고

구려(기록에는 ‘고이’로 나옴)를 건국하였다고 추정한다. 이 견해도 대내외적으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써 근거를 내세우지는 못하였으나 고구려 문화와 은상(殷商)문화에 관한 연구를 병행해 논지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설 역시 고구려와 은의 연결고리를 문헌이나 고고학 증거를 통해 실증해내지는 못하였다.

위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중국 학계의 고구려 종족 기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연구가 가진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고전적인 견해인 예맥출자설과 부여출자설의 경우,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구려가 부여에서 출자했고, 부여와 고구려가 모두 예(맥 또는 예맥으로도 칭해짐)라는 고대의 민족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료에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 더 들어가보면 이들이 갖는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앞서 본 대로 예맥족이 한민족과는 상관없는 통구스계의 종족인 숙신, 곧 고려, 조선 시대의 여진족과 오늘날 만주족의 조상들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한 오류로, 중국의 정사서들도 숙신이 동이 중에서 유일하게 말과 풍습이 달랐음과 예맥, 부여와 전혀 무관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원시적 수렵민족인 숙신족들이 남긴 유물은 거의 없고, 기록에 나오는 예맥족의 분포지역과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고조선의 것과 대개 일치한다(김정배, 2000).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중국 측의 주장은 일부 사료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운 현실 정치질서의 유지를 위한 억지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가장 근래에 대두한 고구려의 종족 기원이 오늘날의 한족과 직결되는 은상이라는 주장에서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른바 상족출자설로 불리는 이 견해는 논거로 제시하는 기록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sup>2</sup> 시기적으로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기록상의 ‘고이’와 고구

려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더 나아가 다민족국가 중국의 일원으로서 고구려를 파악하던 기존의 견해를 넘어서, 고구려를 중국 한족의 역사로 가져다 붙이려는 건강부회식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역사 해석이 아니다.

고구려 종족 기원에 관한 문제는 고구려사의 귀속은 물론 그와 앞뒤로 연결되는 고조선, 부여, 발해 등 여타 한국 고대국가의 정체성 확립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구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근래 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고구려의 자국사 편입을 위해 고구려사 연구를 진행하며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2. 중국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예맥의 실체

고구려를 구성한 주된 종족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기에 함께 존속한 중국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한서(漢書)』 왕망(王莽)전에는 고구려를 ‘예맥(穢貊)’, ‘맥인(貉人)’이라 칭하고, 『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後漢書)』에서는 기원전 75년 무렵 현도군이 ‘이맥(夷貊)’의 침입을 받아 옮겨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당시 중국인들이 고구려 혹은 고구려인을 예맥, 그중에서도 맥으로 인식하고 기록하

2 이들이 주된 근거로 하는 『일주서』, 『관자』 등의 선진 문헌은 인용에 앞서 엄밀한 사료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나, 대부분 이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 정사인 『사기』의 기록도 동주시대 이상의 것은 매우 세밀한 사료비판을 요구한다. 하물며, 이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해 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고 비객관적인 것이다.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고구려의 종족적 근간으로 인식되는 예맥, 맥(貉, 貊)과 예(穢, 濊)가 중국 사서에 고구려 관련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 무렵이 되어야 등장한 것은 아니다. 종족명으로서 예맥, 맥, 예 등은 이르게는 중국 선진시기의 여러 문헌에서부터 등장한다. 선진 문헌에 등장하는 예맥, 맥 혹은 예가 어떤 실체인지,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관계나 고구려와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선 예와 맥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선진 시기의 예와 맥이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개의 종족이었다는 것에는 대다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족과 맥족의 향방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족과 맥족이 이동 혹은 결합을 통해 후에 예맥족을 형성한다는 것이고(김상기, 1948; 김정배, 1963; 리지린·강인숙, 1976), 둘째는 근본적으로 선진 문헌에 나타나는 맥은 이후 고구려를 지칭한 맥과는 무관한 북방민족의 범칭일 뿐이므로, 예맥은 예족이 예맥으로 불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三品彰英, 1953; 여효규, 1996). 이처럼 예맥 혹은 예와 맥의 실체에 대해 견해가 갈리는 것은 그와 관련된 중국 문헌의 기록들이 매우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시기 문헌에서는 맥이 예보다 빨리 나타나는데, 『시경(詩經)』 한혁(韓奕)편에는 “큰 한성은 연나라 군사에 의해 완성되었다. 선조들이 받은 명으로 지금 여러 오랑캐를 다스린다. 왕이 한후에게 추와 맥을 주었으니 북쪽 나라를 받아 그 수장이 되었다(薄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貊 奄受北國 因以其伯)”라고 하여 가장 이른 시기 맥의 존재를 전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서주(西周)시기 주의 왕이 제후인 한후(韓侯)에게 주변의 종족 혹은 국가적 성격을 띤 정치집단인 추(追)<sup>3</sup>와 맥을 사여

하며 북국을 지킬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일찍부터 한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상고시기 한민족의 이동설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헌 연구의 질적 제고와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이러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곧 위 사료에 보이는 맥을 한민족의 원조(遠祖) 혹은 훗날 고구려를 일컫는 맥과 쉽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에 『시경』 한혁편에 등장하는 맥의 실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견해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해당 기록의 성격상 맥의 활동 영역은 문맥상 만주나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북부지역이나 허북성(河北省)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력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다가 시기의 흐름에 따라 점차 북방의 이종족들을 두루 일컫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선진 시기 중국 문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의 용례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주시기까지만 해도 맥은 주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한후가 통솔할 정도로 작은 정치체의 고유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춘추시대 이후 맥의 용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시기 문헌에 등장하는 맥은 점차 불특정 이종족을 뜻하는 단어, 곧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주변의 오랑캐 세력을 막연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쓰인다. 전국시대 후기부터는 점차 북방 종족을 지칭하는 범칭 혹은 멸칭으로 굳어진다.<sup>4</sup>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계기적 변화로만

3 김상기는 추(追)를 음운적 유사성을 근거로 예(濊)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이러한 용례의 계기적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天官書 其西北則胡貉月氏)나 『한서』(禮樂志 隅辟越遠, 四貉咸福)는 물론 그 후대의 문헌에도 여전히 맥(貊, 貉)은 불특정 이종족, 북방 종족의 범칭, 동북방의 종족(濊貊), 특정 종족(고구려의 貊) 등으로 혼재되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부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조영광, 2010). 맥이 다시금 특정 종족(정치체)에 대한 호칭으로 개념 변화가 생기는 것은 고구려가 건국되는 기원 전후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예(濊)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는 서주 초의 역사를 전하는 『일주서(逸周書)』 왕회해(王會解)에 “성주 대회에서 … 정북방은 숙신씨의 땅으로 예인 전아가 있는데 전이는 원숭이처럼 서서 걷고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成周之會 … 正北方 稷慎大壠 穢人前兒 前兒若彌猴 立行 聲似小兒)”라고 하며 처음 등장한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예는 이미 기원전 12세기에 중국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이 된다. 『일주서』의 사료적 가치는 의고학파의 경우 후세의 위작(僞作)으로 봄이 일반적이지만, 근래 고고학 발굴성과의 진전으로 그 신빙성을 재평가하기도 한다(이성규, 1987). 어찌되었든 이 문헌이 전국시대에서 한대(漢代)에 걸쳐 정리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박준형, 2002), 중국 동북방의 종족으로서 예(濊)의 존재가 늦어도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중국에 알려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관자(管子)』 소광(小匡)편에는 “환공이 이르기를 내가 승거로 회합함이 세 번이고 병거로 회합함이 여섯 번이니, 아홉 차례 제후들을 회합하여 천하를 하나로 바로잡았도다. 북으로는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른다(桓公曰 余乘車之會三 兵車之會六 九合諸侯 一匡天下 北至於孤竹山戎穢貉)”고 하여, 예맥이 연칭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와 맥을 각각 칭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대상으로 통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별이 어렵다. 하지만 앞의 고죽이나 산융 같은 특정 종족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 이 시기 맥은 불특정 이종족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예맥은 요동 지역의 예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생각된다.

『사기』가 정리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예맥이 중국 동북지역의 종족을 부르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송호정은 산융, 동호 등을 모두 맥으로 본 사마천이 예도 맥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중국인들이 동북의 종족들을 맥이라 칭하게 된 것은 동방에 대한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북방 종족들의 범칭인 맥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원인이 크다. 그리고 동시에 흉노가 세력을 확장해 북방을 석권함으로써 차츰 동북방의 종족만 맥으로 칭하게 됐으며, 이후 북방 종족을 맥으로 범칭한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송호정, 2007). 즉 본래 중국 동북방에 위치하던 종족은 예(穢, 蕤)로 불렸으나, 전국시대 이후 맥이 북방 종족의 범칭이 되면서 예에도 접미사적인 맥을 붙여 예맥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맥의 종족적 속성은 어디까지나 예족이라 보는 것이 옳다.

이후 예는 기원전 3세기의 문헌인 『여씨춘추(呂氏春秋)』 시군람(恃君覽) 편에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중국의 동북방에 위치한 예족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사기』와 『한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예맥 역시 예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맥과 예의 용례를 비교해보면, 맥은 원래 주의 변방에 거주하던 종족에 대한 명칭이었다가 불특정 이종족의 범칭(별칭),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그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 반면 예는 큰 개념의 변화 없이 발해만 이동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을 가리키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사기』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주변 정치세력과 주민집단을 통칭할 때 예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원래 중국의 북방 종족에 대한 명칭이었던 맥이 『사기』 이후로 ‘예’라는 명칭과 결합해 중국 동북방에 거주하던 예족 일반에 대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三品彰英, 1953; 황철산, 1963).

그러므로 선진시기의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맥과 압록강 중상류, 혼강

유역의 원고구려민집단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서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예족 혹은 예맥족으로 불린 주민집단과 종족적으로 구분되는 ‘맥족’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를 이룬 주민집단은 본래 예맥으로도 불린 예족의 일원이었다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경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예맥사회와 구별되는 주민집단을 형성하였고, 기원전 2세기 후반경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박경철, 2003). 이 주민집단은 처음에는 ‘구려(句驪)’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고구려라는 국가명으로 고정되면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점차 ‘맥’이라는 종족명으로 불렸던 것이다(여호규, 1997; 2014).

다시 말해 『후한서』나 『삼국지』 등에 등장하는 맥, 곧 고구려는 종족적으로는 예맥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예족에 속하는 일부이며, 다만 주변의 세력들과는 다른 정치체를 구성하고 그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맥이라는 구분되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만약 맥이 예와는 종족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족속이라면 구려 혹은 고구려라는 호칭보다 늦게 등장할 이유가 없다.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 혹은 구려라는 명칭이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말엽에는 확실히 보이는 것에 비해, 맥은 기원 전후 시기부터나 단칭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의 용례 변화가 부여계 계류부에 의해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성립된 이후에 고구려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요컨대 예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 동북방의 종족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다가 맥이 북방 종족의 범칭으로 굳어지자, 이르면 전국시대나 늦어도 전한 무렵에는 이와 결합해 ‘예맥’이라고 전화(轉化)되기도 하였다. 곧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예맥’이라는 연칭은 예와 맥 두 종족의 합칭이 아니라, 종족적으로 예를 일컫는 명칭이었던 것이다. 사실상 고구려가 맥

으로 지칭되는 기원 전후 시기까지 요하 이동 지역에는 예와 구분되는 종족으로서 맥은 존재하지 않았다.

### 3. 고구려와 맥족

압록강 중상류와 혼강 유역에서 적석총을 조성하며 나(那)로 불리던 예맥계 소국 연맹체들은 한에 의한 창해군(滄海郡) 설치 시도와 현도군(玄菟郡)의 설치 등으로 인해 저항을 위한 자각과 결속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그 영향은 고구려의 건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창해군은 기원전 128년 예족의 군장인 예군(歲君) 남려(南閭)가 고조선의 압력으로 한에 투항하자 한 무제가 그의 세력권에 설치하려 한 군현이다. 그 지리적 위치는 예맥족의 주된 분포지역인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 일원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고조선과 한 사이에 위치해 두 세력이 전국시대부터 전한시기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종족 구성은 예맥계였으리라 생각되고, 한과 고조선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이들 세력은 남려를 대표로 하여 결국 고조선의 압력을 피해 한에 투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흉노와의 대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서남이, 남월 등에 대한 정복전쟁을 수행하며 많은 인력과 재력이 고갈된 상황에 처한 한은 이 지역에 창해군을 두려 한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 그리고 흉노를 완전히 굴복시킨 이후 고조선을 멸하면서 요동군 동부도위와 현도군을 해당 지역에 각각 설치해 본격적인 지배를 시도한다.

창해군이 도상의 군현이었던 것에 비해 현도군은 기원전 107년 원고구려 지역에 실제로 둔 군현으로, 그 설치해 해당 지역의 재지집단들에게 상

당한 파급력을 가져왔다. 그리고 현도군 수현(首縣)의 명칭은 고구려현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고구려라고 불린 정치체가 압록강 중류 유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노태돈, 1986). 현도군이 설치될 무렵의 기록인 『한서』 지리지에는 “낙랑과 현도는 무제 때 설치되었는데, 모두 조선, 예맥, 구려만이이다(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라고 전하고 있다. 이 사료의 조선은 고조선, 예맥은 부여를 필두로 한 예맥계 제집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과 구분해 ‘구려만이’로 지칭된 집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압록강 중류 유역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원고구려 세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당시 원고구려 지역의 세력이 고조선, 예맥(부여) 등과 구분되는 집단으로 묘사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 세력인 현도군이 자신들의 영역에 설치되자 원고구려 지역의 재지 세력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집하여 현도군을 퇴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옥저성으로 현도군으로 삼았다. 이후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구려 서북으로 옮기니, 이른바 현도고부로 불리는 곳이다(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徙郡句麗西北今所謂玄菟故府是也)”라고 하여 현도군이 결국 기원전 75년 무렵 이맥(夷貊)으로 불린 토착 세력의 공격으로 군치를 구려(句麗) 서북으로 옮긴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 시기 이러한 항쟁을 주도한 것은 원고구려사회에서 상당 기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류국(沸流國) 세력으로 보인다(김현숙, 2007).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비류국 세력을 중심으로 한 원고구려 세력을 ‘이맥’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이를 고구려의 종족 명칭으로 등장하는 맥과 동일한 용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현도군에 저항하며 성장하기 시작한 이 지역세력들은 서서히 예맥과 구분

되며 고구려(高句麗), 구려(句麗) 등으로 불리다가 이맥으로도 호칭되며 이후 자신들의 종족명이 맥으로 자리 잡게 되는 단계의 과도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비류국을 연맹주로 한 압록강 중상류, 혼강 일대의 적석총 조성 세력들이 서서히 결집하며 주변의 예(예맥)와 구별되는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이후 별도로 맥이라 불리는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맥이 특정 종족명, 곧 고구려를 구성한 주된 종족을 뜻하는 단칭으로 다시 중국 사서에 출현하는 것은 기원 전후부터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를 본격적으로 ‘맥’이라 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여계의 계루부 세력이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해와 새로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강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중국 세력과 대항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부여계 계루부 세력이 도착하여 고구려의 새로운 연맹주로 부상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는 고구려로 불린 세력이 존재하였다.<sup>5</sup> 이 원고구려 세력이 한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초엽 현도군을 퇴축하면서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과의 대결을 개시한 것은 계루부 세력이 부여에서 남하해와 원고구려 세력들을 규합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고구려는 이미 건국 초기부터 중국 세력과 접촉하였고 충돌 또한 있었다.<sup>6</sup> 이후 고구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5 계루부(桂婁部) 이전에 연맹체의 주도권을 장악한 비류국[沸流國(洮奴部)]을 중심으로 한 원고구려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조에는 유리왕의 후궁 중에 한인(漢人)의 딸도 있었고, 한 군현을 습취(襲取)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는 이미 건국 초부터 중국 군현 세력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상쟁도 불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의 역량을 더욱 확대시켜 지속적으로 한 균현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성장 과정에서 중국과 대결을 거치며 중국 세력에 의해 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고구려를 예와 구분해 맥이라 칭한 배경에는 단순히 위와 같은 정치적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원고구려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북방의 부여를 중심으로 한 예족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록강 중류 유역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적석총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강현숙, 2000; 2013).

예족의 일반적 묘제인 토광묘와 확연히 구분되는 적석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이는 분명 부여에서 남하해온 유이민집단인 계루부의 묘제가 아니라 비류국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혼강 유역 토착세력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석총의 조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부여계 세력들이 원고구려 지역으로 내려와 토착세력과 결합하며 그 묘제를 수용, 발전시키면서부터이다. 적석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형태인 무기단석곽적석총의 추정 조영 상한연대가 기원전 2세기 말엽이며, 그 대표적인 유적인 환인(桓仁) 망강루(望江樓)유적에서는 부여계 유물이 발견됐다. 더 발전된 형태인 기단석곽적석총도 1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조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현숙, 2000; 2013). 이것이 부여 계통의 유이민과 토착세력의 결합으로 새로이 도약한 고구려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범예맥계에서 정치·문화적으로 구분되어 독보적인 존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것이다. 결국 맥이라 함은 예맥계 여러 집단 가운데서 고구려가 정치·문화적으로 성장하자 여타 세력들과 구분되며 얻은 호칭으로 볼 수 있다.

## 4. 부여계 유이민집단의 이동과 주몽의 고구려 건국

사료에 고구려의 시조로 나오는 주몽은 부여 출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고구려인이 직접 남긴 기록인 <광개토왕비>나 <집안고구려비> 등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는 그만큼 부여와 초기 고구려의 관계가 밀접하고 인적·문화적 연관성이 공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여는 예맥계 국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선진문화를 이룩하여 주변의 종족과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역시 부여를 자신의 모태로 인식하였다. 부여의 지리적 위치는 오늘날 중국 길림성(吉林省) 중북부 지역의 길림시(吉林市) 부근에 그 초기 중심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림시 지역은 북류 송화강을 끼고 일찍부터 서단산(西團山)문화가 발달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 중심 문화를 영위하였다. 기원전 7세기~기원전 3세기 무렵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서단산문화의 주체는 부여의 선주민인 예맥으로 파악된다(李健才, 1985).

그런데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부여의 지배층은 원래부터 길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1세기경에 정리된 『논형(論衡)』 길험(吉驗)편에는 부여 건국설화인 동명(東明)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여의 시조인 동명이 북쪽의 탁리국(挾離國: 索離國, 藁離國이라고도 함)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와 부여를 세웠음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록이 비록 설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설화는 역사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동명이 북쪽의 모처에서 길림시 지역으로 이동해와 국가를 건립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인다.<sup>7</sup>

그렇다면 길림시 지역으로 이동해와 부여를 건립한 세력의 원주지, 즉 탁리국의 위치는 어디일까?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

지만, 부여 초기 중심지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이른 시기부터 고고 문화가 발달한 북쪽 지역이 유력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길림성 북부지역의 송눈(松嫩)평원 일대이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꽃피운 예맥문화의 원류로 드는 대표적인 것이 흑룡강성(黑龍江省) 조원(肇源)의 백금보(白金寶)문화, 망해둔(望海屯)문화, 그리고 길림성 부여(夫餘), 대안(大安) 지역의 한서(漢書)문화 등이다. 이들 문화는 시기적으로 백금보-한서하층(1기)문화와 망해둔-한서상층(2기)문화로 구분되는데, 모두 백금보유형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동일 계열의 문화로 간주된다(송호정, 1999). 이 문화유형들의 상한은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설정 가능한데, 백금보에서 출토된 토기는 유형별로 보면 서주 중기에 해당되고 주거유적을 탄소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한 결과 약 2,800년 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干志耿, 1984). 하한은 한서2기문화 유적에서 전국시대-전한으로 편년되는 토기 등이 출토된 바가 있으므로 기원전 3세기~기원 전후로 추정된다(張偉, 1997). 그리고 그 분포범위는 북으로는 소흥안령(小興安嶺), 남으로는 길림, 장춘(長春) 지역, 대흥안령(大興安嶺) 동쪽 기슭의 조아하(洮兒河) 유역, 동으로는 동류 송화강 일대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탁리국의 문화로 추정되는 백금보, 한서, 망해둔 문화와 유사한 양상이 길림, 장춘 지구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선부여문화로 알려진 서단산문화이다. 서단산문화와 백금보 문화는 토기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sup>8</sup> 서단산 후기(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

---

7 『삼국지(三國志)』에도 부여인들이 스스로를 도망쳐 온 사람(亡人)으로 칭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동해왔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전승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백금보-한서1기문화의 경우 서단산문화에 비해 하가점상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기)유형과 한서-망해둔문화의 묘제와 유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계통 주민의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일 시기에 병존한 부여 선주민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송눈평원의 북쪽지역에서 발달한 한서-망해둔문화는 탁리국의 문화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주민의 일부가 북류 송화강 중류 유역(길림 지역)으로 남하해 이 지역에서 서단산문화를 발전시키며 살던 부여 선주민과 융합해 부여를 건립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송호정, 1997).

부여의 기원이 된 탁리국의 직접적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아마도 송눈평원 북부를 넘어서기는 어려웠을 법하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문화적 영향력은 송눈평원 북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으로 북류 송화강 중류 유역의 길림 지역은 물론 농안, 장춘 지역과 서남으로 요령성 서풍(西豐) 일대까지 동북에서 서남향으로 뻗은 교통로를 따라 길게 뻗어있었다 생각된다. 이 일대에서 조사된 망해둔, 한서, 백금보, 보산(寶山), 양천(涼泉) 문화 등 예맥계 여러 문화를 원부여문화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내에서 예맥족의 이동 및 교류는 고구려의 건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예(예맥)족 내에서 탁리국 세력과 길림 지역의 부여 선주민 세력 사이의 정치·사회적 변동, 곧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설화의 형태로 반영되어 등장한 것이 동명의 부여 건국설화이다. 동명설화는 예맥계 건국설화의 원형으로서, 고구려 건국 이전에 훗날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세력들의 존재 양상과 역사적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 건국이라는 연쇄 파동을 가져오게 되는 원부여 지역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고고학적으로도

---

으로 드러난다[孫進己·張志立, 1986, 「濊貊文化的探索」, 『遼海文物學刊』(創刊號)].

설명이 가능한데, 기원전 3세기부터 서단산문화의 주 묘제가 이전의 석관묘에서 토광묘로 변함이 그것이다. 이 또한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과 관련해 해석된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송호정, 1997). 부여가 어느 시점에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그 존재가 확실히 확인되므로, 이 시기에는 이미 부여라는 정치체가 길림시 일원에 성립되었음이 확실하다.

주지하듯이 부여의 동명설화는 고구려 건국설화인 주몽설화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고구려의 기원이 부여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설화인 주몽설화는 부여의 동명설화에서 파생해 고구려의 색깔이 가미되면서 건국설화로 정착된 것이다(이복규, 1998). 두 설화의 주인공이 모두 왕의 자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방기된 점, 그 후 동물들이 보호하였다는 점, 활을 잘 쏘았다는 점(善射者), 핏박을 피해도 주할 때 큰 강을 만나 위기에 처했으나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주어 추격군을 따돌릴 수 있었다는 점(魚鼈浮橋) 등이 대표적인 공유 모티프이다. 그리고 두 설화는 원부여 지역과 부여의 정치적 변동이 반영되어 각각 부여와 고구려 건국설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른 시기부터 종족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고구려와 부여를 이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환인 망강루유적이다. 망강루유적은 초기 고구려 유적으로 묘제 양식은 고구려 고유의 적석총이지만 출토유물이 노하심, 서차구 유적과 비슷한 형식의 것이 많다. 따라서 초기 고구려와 부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지룡 등은 서차구와 환인 망강루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망강루유적이 부여와 고구려 문화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보고 고구려 시조가 부여에서 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梁志龍·王俊輝, 1994). 이것은 곧 서차구유적의 주체를 부여로 인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특히 금제이식의 경우 노하심,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그것과 매우 유사해 다수의 연구자가 초기 고구려와 부여를 이어 주는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로 주목하였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주몽에 의한 고구려 건국은 고구려라는 고대국가가 처음 등장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여계 유이민집단인 주몽, 유리 등으로 묘사된 세력이 기원전 1세기 무렵 부여 지역에서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해와 그곳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sup>9</sup> 즉 주몽의 이주 이전에 이미 원고구려 지역에는 초보적인 국가 수준의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국사기』에 주몽의 고구려 건국 연대로 적기된 기원전 37년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의 중국 기록에 ‘고구려’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원고구려 지역 세력들이 결집해 중국 군현인 현도군을 축출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부여계 유이민집단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주해 왔고, 그곳의 재지세력과 융합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고학적으로 기원 전후 시기 부여계 세력이 원거주지에서 최종적으로 환인, 집안(集安) 지역으로 진출하였음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는 환인 망강루유적과 집안의 일부 고분에서 발굴된 부여계 유물들이다. 망강루유적은 중국 요령성 환인현 합달촌(哈達村)의 북쪽 혼강에 면한 언덕에 위치한 6개의 적석총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이다. 이 고분의 입지 및 출토된 금귀걸이가 부여계 유적으로 인정되는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서퐁 서차구(西岔溝) 유적의 것과 흡사해 고

9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계루부 중심의 고구려가 탄생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구려 건국 이전 환인 지역에서 활동한 졸본부여(卒本扶餘)나 부여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梁志龍·王俊輝, 1994; 王綿厚, 2005). 이 유적의 정확한 조성 주체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토착세력과 부여계가 융합한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외에도 환인, 집안 지역에서 부여와 관련된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고분에서 나온 도끼날형 화살촉과 기상참(氣象站)유적에서 나온 좁고 긴 창끝 등은 우수 노하심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매우 흡사하다(리광희, 2005).

그렇다면 환인, 집안 일대에 이러한 고고학적 흔적을 남긴 부여 계통의 사람들은 어디서 어느 경로로 이동해온 것일까? 기록에 주몽, 유리, 졸본부여 등으로 나타나는 부여계 세력들은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 무렵 여러 차례 자신들의 원주지에서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해 왔으리라 생각된다. 그 이동 경로는 환인, 집안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조사된 부여계 문화유적을 통해 주로 세 방면에서 이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요령성 서풍, 길림성 동료현(東遼縣) 일대에서 남하하는 경로이며, 다음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시 일대에서 서남향으로 내려오는 경로로 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경로이다. 길림 지역이 초기 부여의 중심지이며 원부여 지역의 일부였으므로 많은 수의 부여계 유이민들이 이곳에서 고구려로 내려왔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동부여의 소재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에서 통화 방면을 통해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에서 부여로 통하는 교통로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초기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세기 부여의 강역에 대하여 동으로는 장광재령(張廣才嶺)과 위호령(威虎嶺) 이서, 서쪽 경계는 대안(大安), 쌍료(雙遼), 창도(昌圖)를 잇는 선, 남으로는

휘발하(輝發河) 상류와 길림합달령(吉林哈達嶺), 북으로는嫩江(嫩江)과 동류 송화강 이남으로 봄이 일반적이다(송호정, 1997).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와 경계가 되는 남쪽 경계선이다. 여호규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 초기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로를 활용해 교통로를 재구성하였다. 대무신왕이 부여 정벌을 위해 북상하던 경로상의 중요한 자연지물인 비류수를 혼강으로, 이물림(利勿林)을 용강산맥(龍崗山脈)으로 비정하여 1세기 무렵 고구려와 부여의 경계를 용강산맥으로 파악하였다(여호규, 1997; 2014). 고구려는 지속적인 국력 신장으로 3세기 무렵에는 부여와의 경계선을 보다 북쪽의 길림합달령까지 넓힐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휘발하 상류, 용강산맥을 경계로 부여와 접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 지역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그 사이에 있는 성터의 분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길림-휘남(輝南)-류하(柳河)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부여 초기의 중심지이며 고구려까지 사용한 용담산성(龍潭山城), 부여에서 고구려로 가는 교통로상의 중진인 휘발성(輝發城), 남쪽으로 용강산(龍崗山)을 마주한 나통산성(羅通山城),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된 흔적이 있는 조어대산성(釣魚臺山城) 등이 있어 그것을 연결한 선이 부여와 고구려 사이의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방증해 준다(이종수, 2005). 그리고 통화(通化)의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은 한이 교통요지에 설치한 성인데, 용강산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환인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이곳이 고구려에서 부여 지역으로 빠지는 시작 지점이며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역시 이곳을 지나는 경로를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길림-요원(遼源)-서풍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도 고구려 산성인 용수산성(龍水山城),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등이 있다. 해당 성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부여 후기 왕성의 소재지로 추정되기도 한다(李鍾洙, 2004). 이

를 통해 이 지역에 부여계 주민들이 분포하였고, 주요 이동 통로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다. 서풍, 요원 지역은 서남쪽으로는 제3현도군 치소가 있던 무순(撫順)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제2현도군이 있던 신빈을 통해 초기 고구려 중심지인 환인, 집안에 이르는 요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길림 부여계 유이민집단이 고구려 지역으로 진출할 때 따라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지도1과 같다.

다만 부여와 선비계 종족의 거주 접경지이며 내몽고 평원과 요령 북부 산지의 문화적 접이지대인 서풍, 동료 지역이 고구려와 부여를 세운 예맥계 종족의 주 활동무대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 지역이 예맥계 종족집단의 거주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줄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서풍의 서차구유적과 동료의 채람(彩藍)유적이다.

먼저 서차구유적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이 유적이 발견된 요령성 서풍 지역은 길림성 지역에서 중원과 요동반도 남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유적의 편년은 기원전 150~50년 사이로 추정된다(孫守道, 1960). 서풍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미송리식토기나 요령식동검이 출토되는 유적들이 다수 조사되었고(오강원, 2002; 2006), 전국-전한대의 유적에서는 서단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파두(高把豆) 등이 다량 출토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에서 전한대까지 예맥 계통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曹桂林等, 1991).

현재까지 드러난 고고학상의 증거와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지역을 기원전 1세기 무렵 예맥계 종족의 중요한 거주지 중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서차구유적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 중 하나인 동병철검(銅柄鐵劍)의 형식상 특징을 통해 볼 때 노하심, 채람 유적의 철검과 상통



지도1 | 부여계 유민집단의 고구려로의 이동 경로

하며 특히 철검의 촉각식(觸角式)검병의 연원은 부여가 소재한 송화강 유역의 서황산(西荒山)형과 서란(舒蘭)형 검병이 분명하므로, 부여와 같은 예맥계 주민의 문화라 보아도 무방하다(林湮, 1998).

채람유적은 서차구유적에서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료현 채람촌에서 조사된 2개의 수혈식 토광묘이다. 이 고분에서 쌍조회수형 동병철검(雙鳥回首形銅柄鐵劍), 구슬 달린 금은이식(耳飾), 투·부조 수문 동패식(獸紋銅牌飾), 토기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양식상 흉노, 선비와는 거리가 있고, 서차구나 유수 노하심 문



그림1 | 부여계 금제이식

화에 더 가까워 부여 등 예맥 계통의 주민이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田耘, 1987). 그리고 이 유적에서 가까운 용수산성에서 발견된 토기편의 재질과 양식이 노하심유적의 것과 일치한다(李君·蘇洪武 總纂, 1988).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예맥계 종족들의 분포지였음을 알 수가 있다. 고구려를 건국한 집단이 이들 지역에서 발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조영광, 2019).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북방계 유목문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은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와 부여 문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영광, 2017).

특히 서하구, 노하심 유적에서 나온 금제이식은 초기 고구려 유적인 망강루에서 출토된 그것과 형식과 제작기법 등에서 매우 흡사해 고구려와 부여 및 북방계 유목문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한상은 이와 같은 형식의 이식을 부여식이식으로 정의하고, 그 출토지를 부여의 강역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한상, 2013). 그러한 이식은 선비 등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은 분명하나, 모양이 선비의 그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평양(平洋), 모아산(帽兒山), 서차구, 채람, 노하심, 망강루 등에서 출토된 이식은 상호 간 제작 기법과 양식 상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여 중심지인 길림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하는 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양식의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을 부여계 주민의 이동과 분포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서차구와 유사한 유물들은 두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공유하는 특수성을 띠는 것들이 많다. 망강루 발굴에 참여하였던 왕면후(王綿厚)가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이 서차구 형식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sup>10</sup> 이는 유물을 통해 초기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를 알게 해줌과 동시에 망강루유적을 조영한 집단이 서차구유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 외에도 서차구유적이 소재한 길림, 요령 접경 지역은 초기 부여 세력권의 외곽에 위치하여 그 이탈이나 이동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서차구유적이 소재한 서풍 지역과 그 인근의 요원 지역은 부여 후기 왕성의 소재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던 만큼(王綿厚, 1990; 李鍾洙, 2004), 이른 시기부터 부여계 주민들의 이동 경로로 활발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후한서』에 의하면 부여는 본래 현도군에 복속하였다고 한다. 후한대의 부여가 현도군에 속하였던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2세기 말

10 망강루 출토 토기는 대부분 가는 모래로 만든 회갈색으로 태토는 거칠다. 기형은 서차구식의 회갈색 관(罐)과 단경호 위주이다. 그리고 철검이나 차식(車飾), 석주(石珠) 등도 서차구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한다(王綿厚, 2009).

11 서차구유적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형태의 청동방울이 고구려 초기 유적인 망강루에서도 발굴되었다. 앞서 살펴본 금제이식, 석주(石珠) 등과 함께 고구려 초기 지배집단의 출자지를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이다.

공손도가 등장하면서 요동군에 복속하게 되므로, 부여가 현도군과 교류 하였던 시점은 그 이전이 된다. 이것은 현도군치가 신빈(新濱)이나 무순(撫順)에 있었던 제2현도군 혹은 제3현도군 시절이 된다. 서풍, 동료 지역 은 부여 중심지인 길림에서 현도군치인 무순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동선상에 있으며, 신빈 역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부여인들이 현도군과 활발히 교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 부여와 원고구려 지역에서는 중국 세력, 북방 초원 세력, 토착 예맥계 세력들이 서로 교차하는 복잡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된다. 여기서 여러 방면의 압박을 받은 부여계 유이민들은 상대적으로 앞선 문화와 기술을 갖고 원고구려 지역으로 이주해오게 되고, 같은 예맥계로 언어, 문화 등이 유사한 현지 세력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이것이 부여계 계루부가 중심이 된 고구려의 성립이다.

## 참고자료

### 예맥 관련 주요 선진(先秦) 문헌

薄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貊 奄受北國 因以  
其伯 \_ 『詩經』大雅 韓奕

淮夷蠻貊 及彼南夷 莫不率徒 莫敢不諾 \_ 『詩經』魯頌 閟宮

職方氏掌天下之圖 以掌天下之地 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七閩九貉五戎六狄  
之民… \_ 『周禮』夏官 職方氏

貊隸掌役服不氏而養獸而擾養之 掌與獸言 其守王宮者與其守厲禁者 如蠻隸  
之事 \_ 『周禮』秋官 司寇 下

象胥掌蠻夷閩貉戎狄之國使 掌傳王之言而諭說言 以和親之 \_ 『周禮』秋官 象胥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  
乎哉 \_ 『論語』卷9 子罕

晏子曰 嬰聞與君異 今夫胡貊戎狄之蕃狗也

\_ 『晏子春秋』內篇 諫下 景公籍中而獄多欲托晏子晏子諫第一

桓公東救徐州…救晉公 擒狄王 敗胡貉 破屠何 \_『管子』卷8 小匡

鑿爲龍門 以利燕代胡貉與西河之民傳曰 泰山 有道曾孫周王有事 大事既獲 仁人尙作 以祇尙夏蠻夷醜貉 雖有周親 不若仁人 萬方有罪 維予一人…  
\_『墨子』卷4 兼愛篇 中

大王之國 北有胡貉代馬之用 \_『戰國策』秦策

命將軍, 大夫, 適子, 戍吏皆貉服 \_『水經注』河水條 所引『竹書紀年』趙武靈王

告子 白圭曰 吾欲以十而敢一 何如 孟子曰 子之道 貉道也 萬室之國 一人陶則可乎 曰不可 器不足用也 曰夫貉 五穀不生 惟黍生之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饗食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 \_『孟子』告子章下

貉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 \_『山海經』海內西經

桓公曰 余乘車之會三 兵車之會六 九合諸侯 一匡天下 北至於孤竹山戎穢貉  
\_『管子』小匡篇

非濱之東 夷穢之鄉 大蟹陵魚·其·鹿野·搖山·揚島·大人之居 多無君  
\_『呂氏春秋』恃君覽

## 부여 동명설화 관련 사료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侍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我故有娠 後產子 捐於豬中 豬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欲殺之. 東明走南至掩淖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_『論衡』吉驗篇

## 참고문헌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김상기, 1971,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배, 1973,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출판부.
- , 2000,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신서원.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력사연구』, 사회과학출판부.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연구』, 신서원.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 이중수, 2009, 『송화강 유역 초기 철기 문화와 부여의 문화 기원』, 주류성.
- 강현숙, 2000,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기, 1948, 「韓·濊·貊 移動考」, 『史海』 1.
- 김정배, 1963, 「예맥족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5.
- 김현숙, 2004, 「고구려의 민족, 정치분야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 2005, 「고구려의 족원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중국의 한국고대사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 김현정, 1993, 「부여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상명사학』 1.
- 노태돈, 1986, 「고구려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52.
- 박경철, 2003, 「고구려 '민족' 문제 인식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 박준형, 2002,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학림』 22.
- 송호정, 1997, 「부여」,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7, 「고구려의 기원과 예맥」, 『고구려연구』 27.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 “韓奕” 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 여호규, 1996, 「고구려의 기원」,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고구려의 종족기원에 대한 일고찰」, 『사립』 38.
- 오강원, 2002, 「비파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연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오영찬, 1999,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무병, 1966, 「濊貊考」, 『백산학보』 1.
- 이병도, 1976, 「玄菟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복규, 1998, 「부여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의 관계」,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 이성규, 1987, 「중국고문헌의 사료적 가치」, 『아시아문화』 2.
- 이욱, 1984, 「종족의 기원」, 『고구려민족의 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 이중수, 2005, 「고구려의 부여진출 과정 연구」, 『고구려연구』 21.
- 이한상, 2013, 「이식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 49.
-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 \_\_\_\_\_, 2017, 「부여, 고구려 사회의 북방문화적 요소에 대하여」, 『동양학』 66.
- \_\_\_\_\_, 2019, 「고구려 시조 주몽의 출자지에 대한 시론적 검토-주몽 설화의 공간과 역사성」, 『한국사연구』, 186.
- 황철산, 1963, 「예맥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1·2.
- 金毓黻, 1936, 『東北通史』, 五十年代出版社.
- 董學增, 1994, 『西團山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馬大正·楊保隆,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 孫進己, 1987, 『東北民族原流』, 黑龍江人民出版社.
-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 2004, 『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出版社.
- 劉子敏, 1996, 『高句麗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
- 李德山,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 李春祥, 2006, 『高句麗與東北民族疆域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干志耿, 1984, 「古代索離研究」, 『民族研究』1984-2.
- 耿鐵華, 2000, 「我國歷史教科書中對高句麗提法的變化與說明」, 『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 金岳, 1994, 「東北貊族原流研究」, 『遼海文化學刊』1994-2.
- 汜犁, 1993, 「高句麗族探源駁議」,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墳群的發現」, 『文物』1960-8.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1994-2.
- 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1998-4.
- 王健群, 1987, 「高句麗族屬探源」, 『學習與探索』1987-6.
- 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1990-2.
- , 2005, 「西漢時期的高句麗‘五部’與‘第二玄菟郡’—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若干問題之三」, 『東北史地』2005-6.
- , 2006, 「高句麗起源的國內外代表性觀點解析—再論高句麗族源主體為遼東‘二江’和‘二河’上游‘貊’部說」, 『社會科學輯刊』2006-1.
- , 2009,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兼論高句麗起源和早期文化的內涵與分布」, 『東北史地』2009-6.
- 李健才, 1985, 「關於西團山文化族屬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1985-2.
- 李君·蘇洪武 總纂, 1988, 『遼源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李德山, 1992,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 『社會科學戰線』1992-1.
- 李鍾洙, 2004, 「夫餘文化研究」, 吉林大博士學位論文.
- 林雲, 1998,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墓地的族屬」, 『林雲學術文集』, 中

國大百科全書出版社.

張博泉, 1983, 「東北古史研究中幾個問題」, 『東北史研究』 1983-1.

張偉, 1997, 「松嫩平原早期鐵器的發見與研究」, 『北方文物』 1997-1.

田耘, 1987, 「兩漢夫餘研究」, 『遼海文物學刊』 1987-2.

曹桂林 等, 1991,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91-1.

三上次男, 1951, 「穢人とその民族的性格について」, 『朝鮮學報』 2.

三品彰英, 1953, 「濊貊族小考」, 『朝鮮學報』 4.



### 3장

#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동부여(東扶餘)에서 내려온 주몽(朱蒙)에 의해 건국되었다. 부여의 묘제는 토광목곽묘인 데 비해 고구려는 건국 당시부터 적석총을 조영한 것을 보면, 고구려는 혼강(渾江)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삶을 영위해오던 주민들이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 여기에 부여에서 이주해온 주민 일부가 더해져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고구려의 초기 도읍인 환인(桓仁) 오녀산성(五女山城)에서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층이 확인된다. 요동 북부에서 유행하였던 마성자(馬城子) 후기 단계와 유사한 토기 외에도 비파형동검과 동검을 모방한 석검이 출토되고 있어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환인은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므로, 문헌과 고고 자료를 종합해볼 때 이들 지역의 문화적 기반 역시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경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시기는 청동기문화에서 초기철기문화로 전환되는 시점이자,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 진(秦), 한(漢)으로 이어지는 중국 세력이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는 위만조선의 성립 및 멸망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고구려 발흥지인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고고자료를 토대로,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의 요동 지역 진출과 더불어 청동기문화에서 초기철기문화로의 전환 과정, 그리고 이러한 문화 변동이 이들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초기철기시대의 문화 양상이 고구려의 전통 묘제인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된 여러 고고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징과 전개 양상

기원전 2000년기 후반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琵琶形銅劍)을 표지로 하는 청동기문화권이 형성되어, 청동 예기(禮器)가 발달한 중국 중원(中原)지역, 동물 문양과 청동 단검 중심의 북방 초원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비파형동검은 검신(劍身)과 검병(劍柄, 손잡이)을 따로 제작한 후 결합하여 사용하는 조립식 동검이라는 점에서 검신과 검병을 함께 주조하여 사용하는 일체형의 중국 중원 동검이나, 일체형 이되 칼자루 끝에 동물 문양 등을 장식한 단검 형식의 북방 오르도스식 동검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대 문헌에는 중국 동북지역에 예맥(濊貊), 숙신(肅慎), 동호(東胡), 산융(山戎), 발(發) 등과 같은 여러 집단의 명칭이 등장하며, 『관자(管子)』나 『전국책(戰國策)』에 따르면 요동에는 예맥 종족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비파형동검문화

는 종족으로는 예맥, 정치체로는 고조선(古朝鮮)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비파형동검, 미송리식토기, 지석묘(석봉, 대석개묘) 등을 고조선의 고고학적인 지표로 삼기도 하나, 이들 요소의 분포범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고학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일대의 청동기문화를 요서(遼西), 요동(遼東), 송화강(松花江) 유역 등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내몽고(內蒙古)와 요서, 요동 지역을 하가점문화(夏家店文化)<sup>1</sup>로 묶고 이를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하층과 상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각 지역별로 개별 문화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된다.

우선, 영성(寧城) 남산근(南山根)유적과 소흑석구(小黑石溝)유적으로 대표되는 내몽고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기본적으로는 동물 문양과 북방식 단검이 특징인 북방 청동기문화권에 속하며, 변형 비파형동검이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조양(朝陽)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유적으로 대표되는 요서 지역은 중원 청동기문화요소와 북방 청동기문화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심양(瀋陽) 정가와자(鄭家窪子)으로 대표되는 요동 지역은 내몽고, 요서 지역과는 달리 비파형동검과 다뉴경(多紐鏡), 점토탈토기 및 흑도장경호 등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길림(吉林)과 장춘(長春)을

1 하가점문화는 내몽고 적봉시(赤峰市)의 하가점유적을 표지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이다. 하가점유적은 두 문화층으로 나뉘는데, 하층과 상층의 문화적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기원전 2000~기원전 1500년경에 해당하는 하가점하층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청동기문화로, 실제 발견되는 청동기는 무기류가 아닌 소형 장식품 위주이다.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토기류는 역(鬲), 언(甗), 정(鼎)과 같은 삼족기가 발달하고 채도(彩陶)가 주를 이룬다. 기원전 12세기~기원전 5세기경에 해당하는 하가점상층문화는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와 노합하(老哈河)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청동기문화이다. 주된 묘제는 토광묘와 석곽묘이다. 북방계 청동기가 중심을 이루는 용두산(龍頭山)유형과 북방계 청동기가 중심이면서 중원계와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유형의 청동기가 출토되는 남산근(南山根)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진선, 2015,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표1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양상

| 구분           | 기원전 15세기~        | 기원전 12세기~         | 기원전 9·8세기~                            | 기원전 6·5·4세기 |
|--------------|------------------|-------------------|---------------------------------------|-------------|
| 요서~<br>요동 서부 | 고태산(高台山)<br>문화   | 위영자(魏營子)<br>문화    | 십이대영자문화                               |             |
| 요동 북부        | 마성자(馬城子)<br>2기   | 마성자3기             | 신성자(新城子)문화<br>이도하자(二道河子)<br>유형        | 정가와자유형      |
| 요동 남단        | 쌍타자(雙塔子)<br>3기   | 상마석(上馬石)<br>상층    | 강상(崗上)유형<br>쌍방(雙房)문화                  | 윤가촌(尹家村) 상층 |
| 송화강 유역       |                  |                   | 서단산문화                                 | 서단산문화       |
| 두만강 유역       | 흥성(興城)3기<br>호곡1기 | 흥성4기<br>호곡2기      | 흥성4기                                  |             |
| 서북한 북부       | 신암리2기<br>공귀리1기   | 공귀리2기             |                                       |             |
| 남한           | 미사리유형            | 가락동·혼암리·<br>역삼동유형 | 혼암리유형(중부)<br>송국리유형(서남부)<br>검단리유형(동남부) | 송국리문화       |

중심으로 하는 송화강 유역에서는 비파형동검 외에 석관묘와 미송리식토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단산유형 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가 확인된다. 서단산문화의 영위 세력은 이후 부여(夫餘)로 발전하게 된다(한국고고학회, 2015).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개략적인 시기별 양상은 다음과 같다.<sup>2</sup>

기원전 15세기~기원전 12세기경 요서 지역은 고태산문화,<sup>3</sup> 요동 북부

2 연구자마다 시기별 양상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 이 글에서는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5) 중 이청규의 「한국 청동기문화의 전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3 고태산(高台山)문화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부터 하가점상층문화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유흐(柳河)와 서요하(西遼河) 사이의 평원지역을 중심으로 존속한 청동기문화를 지칭한다. 하가점하층문화의 무덤은 이단굴광 목관묘, 하가점상층문화는 석관묘 계열인 데 반해, 고태산문화의 무덤은 토광묘로 양신 혹은 축신 굴지장이고 다리 부근에 토기가 부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하가점하층문화는 채도류를, 위영자문화는 청동예기와 삼죽기를, 하가점상층문화는 청동무기와 예기 및 삼죽기를 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고태산문화의

는 마성자문화2기, 요동 남단은 쌍타자문화3기,<sup>4</sup> 길림 동부 및 동북한(두만강 유역)은 흥성3기<sup>5</sup> 혹은 호곡1기, 서북한 북부에서는 신암리2기와 공귀리1기, 서북한 남부는 신흥동1기문화에 해당한다. 이 시기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청동제 소형 공구와 장신구가 일부 확인될 뿐, 비파형동검과 같은 본격적인 청동기는 출현하지 않는다. 요서의 법고(法庫) 만류가(灣柳家)유적에서 동물머리 장식의 도자를 비롯한 북방계 청동기와 청동부, 요동의 무순(撫順) 왕화(望花)유적에서 청동 환두도자, 요동 남단의 여순(旅順) 타두(砬頭) 적석묘에서 낚시용 청동촉, 대련(大連) 대취자(大嘴子)유적에서 청동제 화살촉과 과(戈) 등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한편, 요서 지역의 고태산문화유형은 단인장의 토광묘, 요동 북부의 마성자문화유형은 단인장의 무덤이 균집을 이루는 동굴묘, 요동 남단은 다

무덤에는 호형토기와 고족발(高足鉢)이 세트 혹은 단독으로 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고족발 대신 천발형토기가 부장되기도 한다. 생활유적에서는 적색을 띠는 분신력(盆式甗)과 통복력(筒腹甗), 소량의 정(鼎), 언(甗), 그리고 호, 분(盆), 천발, 두형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된다(천선행, 2010a, 「고대산문화의 시공간 검토」, 『嶺南考古學』 52).

- 4 쌍타자(雙砬子)문화는 대련 쌍타자유적을 표지로 하는 조기 청동기문화를 지칭한다. 공간적으로는 요동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시간적으로 쌍타자1기문화는 기원전 20세기~기원전 16세기, 2기문화는 기원전 16세기~기원전 14세기, 3기문화는 기원전 14세기~기원전 11세기경에 해당한다. 주요 유적으로는 대련-여순지구의 장군산(將軍山)적석묘, 노철산(老鐵山)적석묘, 왕보산(王寶山)적석묘, 토룡자(土龍子)적석묘, 상마석(上馬石)옹관묘 유적, 강상(崗上)동(東)적석묘, 쌍타자유적, 어가촌(於家村)유적, 대취자(大嘴子)유적, 묘산(廟山)유적, 단타자(單砬子)유적, 고려채(高麗寨)유적, 대구두(大溝頭)유적, 고려산성(高麗山城)유적 등이 있다(趙寶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120쪽). 토기는 호, 관(罐), 발(鉢), 완(碗), 배(杯), 두(豆), 다족기(多足器), 분(盆), 반(盤), 주형기(舟形器) 등이 있는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이기에 해당하는 쌍타자2기문화까지는 산동반도의 특징적인 토기류가 공반한다. 이 밖에도 강상 동쪽 적석묘에서 청동단검, 우가촌(于家村) 타두(砬頭)적석묘에서 동촉과 동포 등이 출토되었다.
- 5 흥성(興城)문화는 길림성 동부지역 흥성유적을 표지로 하는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를 지칭한다. 류정동(柳庭洞)유형과 소영자(小營子)유형을 포함한다. 흥성유적은 신석기시대 문화층(1~2기)과 청동기시대 문화층(3~5기)으로 구분되는데, 29기의 주거지와 3기의 무덤에서 1,100여 점의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篇』). 말각방형계의 주거지에서는 일반 돌대 내지는 각목된 돌대가 부착된 심발형 토기와 함께 삼각만입촉이 주로 발견된다.

인장 무덤이 군집을 이루는 적석묘, 길림 동부와 두만강 유역은 석관묘가 유행하였다. 태자하(太子河) 유역 본계(本溪) 일대의 동굴묘는 동굴 내부에 땅을 파고 1인의 시신을 안치한 다음 다수의 토기와 생활공구를 부장하는 방식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대련 일대의 적석묘 역시 다수의 인골을 매장한 단위분묘를 적석시설로 연결시켜 공동묘역을 조성하였는데, 무덤에 다수의 토기가 부장되었을 뿐 청동무기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무덤의 규모나 구조, 부장유물의 양상으로 보건데, 이 시기는 아직까지 위계화된 복합사회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전 12세기경이 되면 요동 지역에 비파형동검과 표주박모양의 초기 미송리식토기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지역별로는 요동 서부에는 위영자문화,<sup>6</sup> 요동 북부에는 마성자3기, 요동 남단에는 상마석상층,<sup>7</sup> 길림 동부를 포함한 두만강 유역은 흥성4기나 호곡2기, 서북한 북부는 공귀리 2기문화유형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요서부터 요동, 한반도에 이르

- 
- 6 위영자(魏營子)문화는 조양 위영자유적을 표지로 하며, 협사홍갈색토기와 청동예기군을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문화를 지칭한다. 공간적으로는 대릉하(大凌河)와 소릉하(小凌河)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는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 사이에 위치한다. 토기는 대부분 협사홍도 혹은 협사홍갈도인데, 역(鬲), 언(甗), 천발, 대구관(大口罐), 웅(甕), 이중구연 분(盆) 등이다. 일부 승문(繩文)이 있거나, 구연부에 부가되문이 부가되기도 한다. 무덤은 대부분 단인직지장으로 토광묘나 토광목곽묘가 많다. 부장품으로는 토기와 청동예기 등이 있는데, 위영자문화의 중심부에서는 중원계 청동유물이 많고, 주변부에서는 북방계 청동기가 많이 확인된다(최선행, 2010b,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 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이 밖에도 위영자문화 분포 지역에서는 객좌(略左)를 중심으로 상(商)과 주(西周) 교체기의 청동기 매납 유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 7 상마석(上馬石) 상층의 문화유형은 대련의 장해현(長海縣) 상마석유적에서 확인된 집자리와 출토유물을 표지로 한다. 토기로는 호와 관(罐)이 중심이며, 미송리식토기도 함께 발견된다. 유적에서는 집자리와 함께 17기의 웅관묘와 1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두 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쌍타자문화층에서는 웅관묘가, 비파형동검문화층에서는 토광묘가 발견되었다. 2호 토광묘에서는 변형 비파형동검(요령식세형동검) 1점이, 3호 토광묘에서는 비파형동검 1점, 청동검손잡이 1점, 검병두식 1점, 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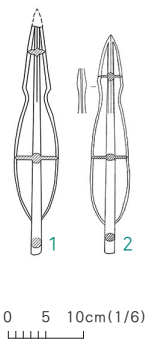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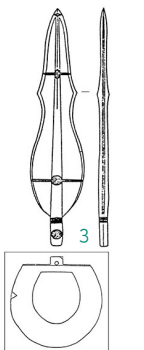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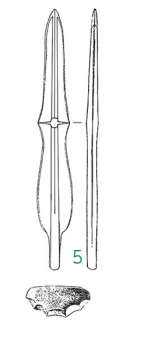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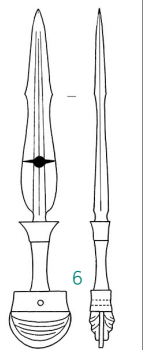
| 쌍방문화(이도하자문화)  |   | 십이대영자문화   |   | 하가점상층문화  |
|---|---|---|---|--|
| 쌍방식   | 이도하자식   | 십이대영자식  | 화상구식  | 소흑석구식  |
|  |  |  |  |  |

그림1 | 요령 지역 비파형동검의 초기 형식과 검파두식(이후석, 2019, 그림1)

1. 철령 대산취자 2. 보란점 쌍방(M6) 3. 요양 이도하자(M1), 청원 대호로구
4. 조양 십이대영자(M2) 5. 객좌 화상구(M6/채집) 6. 영성 소흑석구(M8501)

는 넓은 지역에 걸쳐 비파형동검이 분포하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식의 동검이 확인된다.

그리고 북방식 지석묘(石柵)와 개석묘, 석관묘 등이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게 된다. 이들 지석묘를 축조한 집단은 부장유물로 볼 때 초기복합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요동 지역에는 다종다양하지는 않지만 비파형동검이나 청동도끼 등 일부 기종의 청동기가 제작 및 보급되었는데, 수암(岫岩) 쌍방(雙房) 개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사례가 있다. 다만 청동기의 대량 제작과 보급의 중심지는 요서지역으로, 요동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을 위시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부장되지 않고 있어, 개인적인 위세가 분명한 후기복합사회인 군장사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9세기~기원전 8세기경부터는 중국 동북지역에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보급된다. 요서 지역은 십이대영자문화,<sup>8</sup> 요동 북부는 신성자문

화, 요동 남단은 쌍방유형,<sup>9</sup> 길림을 포함한 송화강 유역은 서단산문화,<sup>10</sup> 길림 동부지역은 그 이전 시기에 이어 홍성4기 유형이 유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요서 지역부터 한반도까지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널리 보급된다. 요서에서는 십이대영자식동검과 번개무늬장식의 청동거울(銅鏡)이, 한반도 남부에서는 송국리식동검이 확인된다.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청동제 손잡이가 유행하면서 그 영향은 요동 지역까지 미치게 되지만,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목제 손잡이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각지에서 다양한 묘제가 채택되었다. 요서의 조양 일대에서는 석곽묘와 토광묘가 축조되었고,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서는 북방식

- 
- 8 십이대영자(十二靈字)문화는 조양 십이대영자 석곽묘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을 포함한 청동유물을 표지로 한 요서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지칭한다. 공간적으로는 대동하와 소동하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9세기~기원전 4세기에 위치한다. 토기는 발견된 수량이 적고 관(罐)이 가장 많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동도, 동과, 동촉 등의 무기류와 부채모양 동부, 동도 등의 공구류가 있으며, 다뉴경과 마구류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靑銅器時代篇』). 십이대영자 문화는 토광묘와 석곽묘가 유행한 점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하지만 공병식동검을 비롯한 북방계 청동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대신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조진선, 2015,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153쪽).
  - 9 쌍방(雙房)유형은 보란점(普蘭店) 쌍방지석묘군을 표지로 하는 청동기문화유형을 지칭한다. 공간적으로는 벽류하(碧流河) 중상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 남서부지역(요동반도 중동부)에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10세기~기원전 5세기에 해당한다. 문화의 중심요소로는 이중구연 발형토기와 돌대문장식의 장경호, 마제석기, 지석묘(석봉, 개석묘)를 들 수 있다. 6호 개석묘에서는 비파형동검과 함께 미송리식토기도 출토되고 있어, 쌍방 유형의 늦은 단계에서는 신성자문화와의 교류가 확인된다.
  - 10 서단산(西團山)문화는 제2송화강 유역에서 유행하던 청동기문화 중 하나로, 길림 서단산 유적을 표지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길림과 영길(永吉) 일대에 관련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13세기~기원전 3세기에 해당한다. 서단산문화의 유적은 무덤유적이 많은데, 초기에는 석관묘가, 후기에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주로 축조되었다. 단인장에 굴신장이 많으며, 부곽에 호와 관(罐) 등을 부장하였다. 가로손잡이가 부착된 토기는 혼하(渾河)와 태자하 일대에서 유행한 미송리형토기와 유사하다. 청동기는 도자, 도끼, 끌 등과 같은 공구류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비파형동검과 동도, 동촉과 같은 무기도 일부 출토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靑銅器時代篇』).

지석묘(석봉)가 대형화되며, 지하에 매장주체부 시설을 마련한 후 지상에 덮개돌을 덮은 대석개묘(大石蓋墓, 혹은 개석식 지석묘)가 나타나고, 석관묘도 역시 지속된다.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적석묘 전통이 이어지지만 대련의 강상(崗上)유적에서는 이전 단계와 달리 적석묘역 내에서 개별 분묘 간 층차가 확인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앞선 시기에 청동기를 소량 부장했던 것과는 달리 비파형동검을 포함한 각종 무기, 공구, 의기, 장신구 등 다양한 청동기를 부장한 무덤이 등장하고 있어 사회 복합화가 한층 더 진전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수장급 무덤으로 비파형동검과 번개무늬장식 다뉴경 등이 함께 부장된 조양 십이대영자유적을 들 수 있다. 조양 일대는 중원 청동기문화권과 북쪽 내몽고 하가점상층문화권이 접하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요하(遼河) 유역에서 중원과 북방 내몽고 지역으로 내왕하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경에는 십이대영자유적을 최상위급으로 하고 그 인근 수km 이내에 그에 버금가는 원대자(袁臺子)유적을 비롯한 다수의 청동기 부장묘가 분포하고 있어, 후기복합사회 혹은 군장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6세기~기원전 4세기경은 요동 지역에 비파형동검이 성행하는 시기로 청동단검문화의 중심은 이제 요서에서 요동과 한반도로 이동하게 된다. 비파형동검은 검신이 좁아지면서 직인화(直刃化)되고 등대의 용기부도 사라진다. 요서 지역의 무덤에서는 다뉴경의 부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과나 제기와 같은 중원계 청동유물의 영향은 증대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요서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가 급격하게 쇠퇴하며, 조양 원대자유적으로 대표되는 전국시대 연(燕)문화가 이를 대체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변두리인 요령성의 건창(建昌)과 객좌(略左) 일대, 내몽고 오한기(敖漢旗) 일대에는 여전히 비파형동검문화의 요소가 남아 있다(조

진선, 2015).

반면, 요동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함께 다뉴경의 출토 사례가 증가한다. 청동기문화로 요동 북부에서는 신성자문화에 이어 정가와자(鄭家窪子)문화유형이, 요동반도 남단은 쌍방유형에 이어 윤가촌상층<sup>11</sup>문화유형이 출현한다. 정가와자유형은 이중구연토기 혹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의 토기상을 갖추고 있는데, 비파형동검과 점토대토기는 그 이전시기 요서 지역의 조양 원대자무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기존 묘제인 지식묘와 대석개묘, 석관묘, 적석묘 외에 목곽묘, 적석목관묘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경에 해당하는 심양(瀋陽) 정가와자 6512호 목곽묘에서는 비파형동검과 함께 다뉴조문경, 마구, 의기 그리고 수백 점의 화살촉이 부장된, 요서와 요동 지역을 아우르는 당대 최상위급 청동기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장급 무덤의 출현은 요서 지역에 이어 요동 지역 역시 후기복합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한다.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동검은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 다뉴경은 번개무늬조문경에서 삼각거치무늬조세문경으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다뉴경과 세형동검을 부장한 무덤은 그 이전 시기의 중심이었던 요동 지역 천산(千山)산맥의 서쪽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

11 윤가촌(尹家村)유형은 요동 남단의 후기 청동기문화인 강상(崗上)유형(상마석상층문화)이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초에 초기철기문화로 전환된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대련시 일대를 중심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초기철기시대이다. 이전 시기에 유행하던 적석묘(적석총) 전통이 사라지고, 십이대영자문화와 정가와자유형으로 이어지는 청동기와 함께 들어온 석곽묘와 북방식 토광묘가 중심이 된다. 검신이 좁아지고 돌기부가 약하게 형성된 윤가촌식변형비파형동검(요령식세형동검)과 나팔좌두(喇叭座豆), 이중구연토기(淺腹鉢) 등의 토착계 유물과 함께 연나라 계통의 전국계(戰國系) 동검과 동과, 고병두(高柄豆), 회색토기와 명도전 등의 유물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한민족문화대전』).

동쪽과 남쪽, 즉 요동 북부의 동쪽인 본계(本溪) 상보촌(上堡村)유적과 압록강 하류인 관전(寬甸) 조가보(趙家堡)유적 등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점토대토기가 요동 전역과 한반도로 확산되는데, 남한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정가와자유형을 조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길림 화전현(樺甸縣) 서황산(西荒山)유적을 포함하여 제2송화강 상류역에서도 세형동검과 조세문경 등이 부장된 수장급 무덤이 확인된다. 무덤은 토광에 판석을 덮었는데, 요동 북부의 태자하 유역에서 유행하던 대석개묘의 전통과 유사하다. 서단산문화의 꼭지가 달린 심발과 바리모양의 토기가 함께 부장된다. 이 밖에도 압록강 중류 유역의 집안(集安) 오도구문(五道溝門)적석묘나 연해주의 이즈웨스트프(Izwestov)에서도 세형동검과 조세문경이 함께 부장된 예가 확인된다. 이들 무덤은 그 이전 시기 심양 정가와자무덤에 비해 부장 양상이 우월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서 고대 정치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주지하다시피 제2송화강 유역은 부여,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고구려, 연해주는 옥저와 관련되어 있다.

## 2. 요동 북부지역의 청동기문화

요동 북부의 청동기시대 초기 문화로는 요하 본류 연안의 고태산문화, 혼하 유역의 신락(新樂)상층문화, 태자하 유역의 마성자문화 등이 있다.

한국 청동기시대 초기 토기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마성자 문화는 태자하 유역 주변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묘(洞窟墓) 출토유물을 표지로 한다. 동굴묘는 토광묘 혹은 석관묘로, 단인장의 여러 무덤이 모여 있는 집단묘의 특징을 보인다. 장가보(張家堡)A동굴유적처럼 50여 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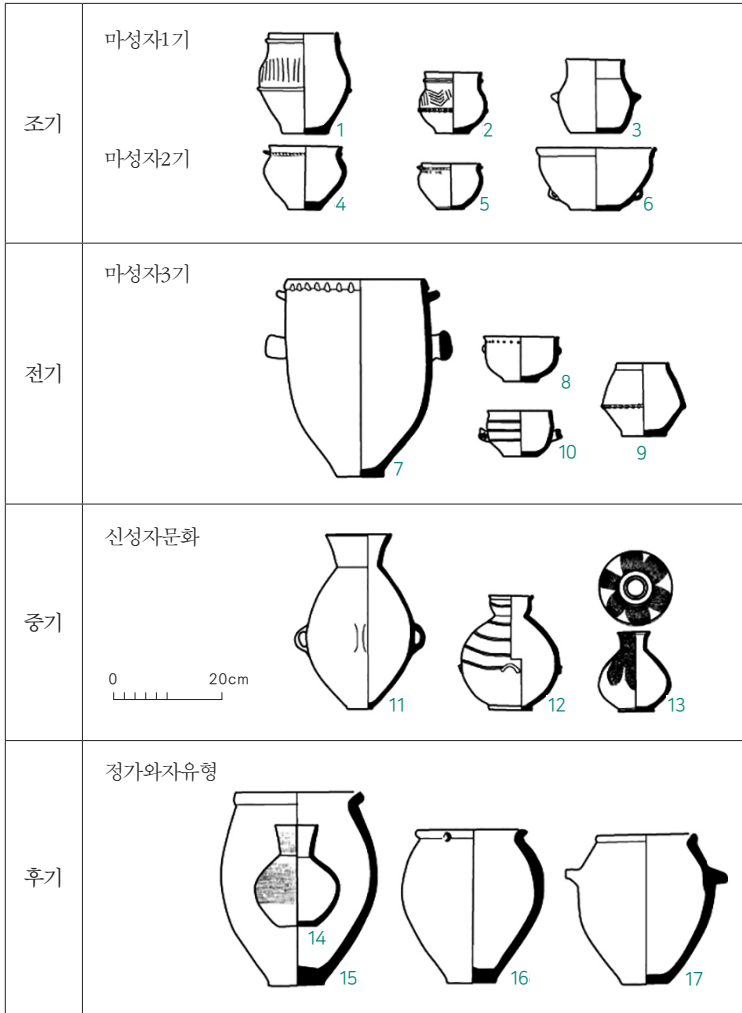


그림2 | 요동 북부권 청동기시대 토기 양상(김승욱, 2015, 그림3.3)

- 1·2. 마성자B동굴 13호묘 3. 마성자B동굴 3호묘 4·5. 대리수구(大梨樹沟)
- 6. 묘후산(廟後山)B동굴 7. 장가보A동굴 M50호묘 8. 장가보A동굴 M52호묘
- 9. 장가보A동굴 M47호묘 10. 장가보A동굴 M45호묘(미송리식토기)
- 11. 산성자(山城子)C동굴 7호묘 12. 산성자C동굴 2호묘(미송리식토기)
- 13. 동승(東昇, 채문토기) 14. 정가와자 6512호묘(흑도장경호)
- 15~17. 공주둔(公主屯, 점토대토기)

무덤이 한 동굴에서 발견된 예도 있지만, 대부분 20기 내외가 균집을 이루고 있다. 주로 토기류가 발견되며, 석부, 석착, 돌자귀와 같은 석기류와 청동환이나 청동귀걸이 같은 소형의 청동제 장식품도 소량 확인된다. 마성자문화는 공간적으로는 태자하 유역과 혼하(渾河) 일대의 본계(本溪)·무순(撫順)·신빈(新賓) 일대를 아우르는 요동 산지에 주로 분포하며, 시간적으로는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에 위치한다.

마성자문화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1기문화층(신석기시대 말~기원전 17세기경)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압인문 계열의 토기가 발견된다. 한국 청동기시대 조기를 대표하는 돌대문토기도 등장하는데, 돌대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형태(一周刻目)이다. 마성자 2기(기원전 17세기경~기원전 13세기경)에는 이중구연토기와 돌대문토기가 유행한다. 이 시기에는 일주각목 돌대문과 각목이 새겨지지 않은 돌대문이 모두 성행한다. 그리고 2기의 토기에는 자돌문과 현문(횡침선)이 시문된다. 석관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3기(기원전 12세기경~기원전 10세기경)에는 각목이 새겨지지 않은 돌대문과 함께 절상돌대문(節狀突帶文)이 주를 이루며, 미송리식토기와 닮은 토기도 확인된다. 마성자문화의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는 압록강 중상류와 하류를 거쳐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臺附)토기나 채문(彩文)토기의 발생 역시 마성자문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김승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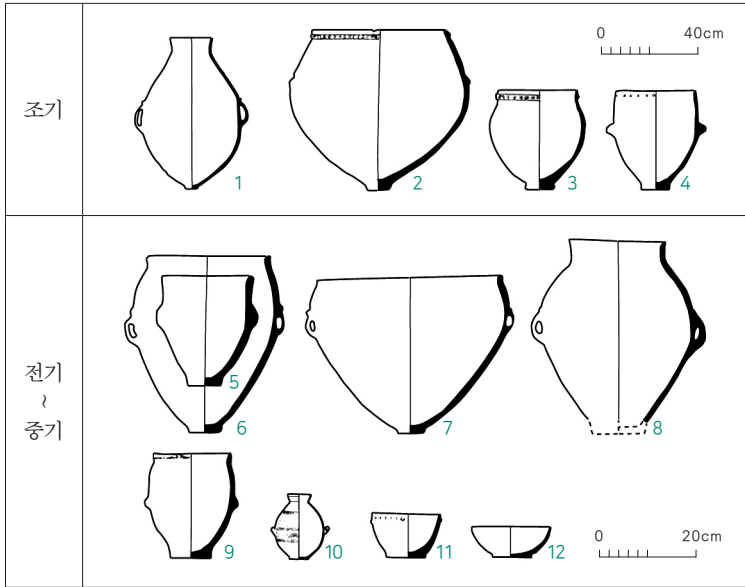
마성자문화와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강계 공귀리(公貴里)유적과 시중 심귀리(深貴里)유적이 있다. 공귀리유적에서는 토광식과 위석식 화덕을 갖춘 장방형 주거지 6동과 석관묘 3기, 심귀리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 3동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층위와 주거구조,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두 시기로 나뉜다. 청동기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공귀리1기문화유형에서는 신암리<sup>12</sup>기 돌대문토기와 마성자3기 이중구연

토기가 함께 발견되지만, 이중구연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짧은 목의 구연부, 배부른 동체, 좁은 저부, 중위상 대상과수를 특징으로 하는 소위 공귀리식토기는 공귀리2기(기원전 12세기~기원전 5세기경)문화유형의 특징인데, 횡주자돌문 혹은 공렬문이 시문된 토기와 함께 발견된다. 한편, 공귀리2기와 비슷한 시기인 중강 토성리유적과 장성리유적에서는 미송리식토기와 묵방리식(墨房里式)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압록강 중상류권의 청동기문화가 요동 남단의 쌍타자문화, 요동 북부의 마성자문화, 두만강 유역의 공렬토기문화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김승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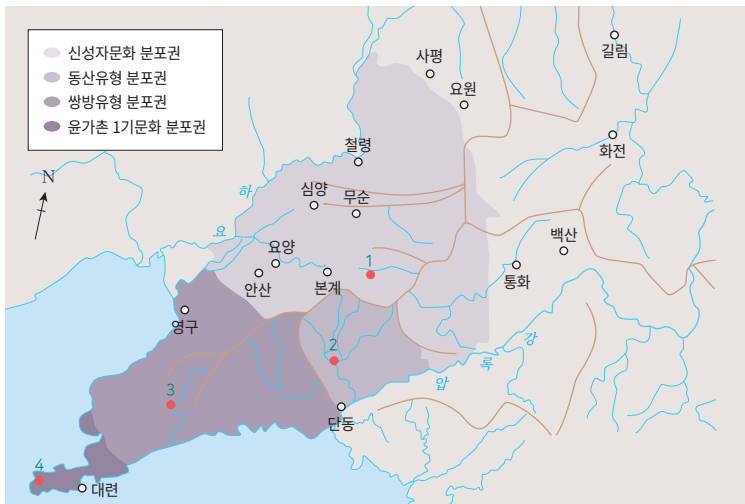
한편, 요동 동부에 해당하는 환인(桓仁) 일대는 석관묘, 대석개묘와 함께 부가퇴문구연토기, 중위대상과수토기, 발행토기, 삼각요저첨입석촉, 마제석검, 다양한 형태의 석도 등이 확인된다. 대석개묘는 동산유형, 석관묘는 요동 북부지역, 토기는 주로 마성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철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까지 급진적인 변화상은 발견되지 않는다(오강원, 2005).

기원전 10세기경이 되면 요동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게

12 신암리(新巖里)문화는 용천 신암리유적을 표지로 하는 압록강 하류 유역 일대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문화 변천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기는 쌍타자1기의 문양인 원형첨부문이 시문된 호형토기에 신석기시대의 뇌문(雷文)이 조합되고 있어,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동 북부의 토기 요소인 돌대문과 돌대문으로 구획된 횡대구획문토기도 발견되고 있어, 재지적인 신석기시대 문화요소에 요동의 다양한 요소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1기의 하한은 기원전 17세기경이다. 2기(기원전 16세기~기원전 12세기)는 일반적으로 쌍타자3기와 병행하는 시기로, 1기와 마찬가지로 요동 남부의 현문(형침선)과 요동 북부의 각목돌대문의 문양 요소가 함께 발견된다. 그러나 각목돌대문과 함께 절상 및 유상의 돌대문이 나타나거나 현문 위아래로 횡주자돌문이 시문되기도 하며,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호형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3기는 돌대문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중구연의 옹형과 호형토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한다. 이중구연토기는 구연부 하단에 각목이나 자돌문이 시문되는 것이 다수이다. 기원전 9세기부터는 현문과 횡위대상과수가 달린 미송리식토기가 유행하게 된다(김승욱, 2015,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51~52쪽).



**그림3** 압록강 중상류 유역 청동기시대 토기 양상(김승욱, 2015, 그림3.6)  
 1·2. 심귀리유적 1호 3. 심귀리유적 4. 공귀리유적 5~7. 심귀리유적2호  
 8·9·11·12. 공귀리유적5호 10. 토성리 퇴적층



**그림4** | 요동 지역의 청동기문화 분포 양상(華玉冰·王來柱, 2011, 도1)  
 1. 분계 신성자고분 2. 봉성 동산고분 3. 보란점 쌍방고분  
 4. 윤기촌 티두석적묘

된다. 물론 이 시기 비파형동검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요동 지역이 아니라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이 함께 출토된 십이대영자유적<sup>13</sup>이 있는 요서 조양(朝陽) 일대이다. 요동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요동반도의 강상(崗上)유형과 내륙산지의 이도하자(二道河子)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강상유형은 요동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안을 따라 압록강 하구까지 분포한다. 주된 묘제는 적석묘이지만 지석묘도 확인된다. 적석묘는 여러 기의 무덤이 함께 조영된 집단묘로, 화장묘가 대부분이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동모, 동촉 등의 무기류, 동부, 동착 등의 공구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각종 청동장식품과 거마구도 출토된다. 물론 십이대영자문화의 출토 양상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비교적 다양한 청동기들이 확인된다. 이도하자유형은 요동 북부부터 길림성 중남부에 걸쳐 있는 요동산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주된 묘제는 지석묘와 석관묘이다. 본계 양가(梁家)유적처럼 다뉴조문경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동촉과 같은 무기류와 동부나 동착 등의 공구류만 출토된다(조진선, 2015).

같은 시기 요동 북부지역에서는 신성자(新城子)문화의 미송리식토기가 유행한다. 미송리식토기는 표주박의 위아래를 잘라버린 단지모양 혹은 구경부가 발형(鉢形)인 토기로, 동체부에 횡침선(현문)이 시문되며 입술모양의 파수 내지는 대상파수가 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토기와 석관묘의 양상으로 볼 때, 신성자문화는 그 이전 시기에 동일 지역에서 유행한

13 조양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유적은 평지성 구릉에 입지하고 있으며, 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1호 석곽묘에서는 부부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머리를 서쪽으로 향한 채 확인되었다. 비파형동검과 검과두식, 동촉, 동부, 동도자, 동착, 동추, 다뉴동경, 청동거마구, 청동장식품 등과 함께 약간의 석기와 토기가 출토되었다. 2호묘와 3호묘에서도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이 수습되었다(조진선, 2015,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154쪽).

마성자(馬城子)문화에서 발전한 것이다. 석관묘에서는 미송리식토기 외에도 비파형동검이 출토된다. 신성자문화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산(東山)문화유형으로 변화하는데, 봉성(鳳城)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동산 유형은 미송리식토기와 대석개묘를 기본 요소로 한다. 동 시기 요동반도 남쪽의 쌍방문화유형에도 미송리식토기와 이중구연심발이 등장한다. 쌍방유형에서는 주로 대석개묘(大石蓋墓, 석개석관묘)에 비파형동검이 부장되지만, 지석묘도 일부 발견된다. 그리고 요동반도 남단에는 재지적 전통의 적석묘에 날이 직인화되고 등대에서 용기부도 찾아볼 수 없는 요령식 세형동검(변형 비파형동검)이 부장되는 윤가촌문화유형이 확인된다. 이처럼 요동 일대에서 발견되는 미송리식토기와 일련의 변형 토기들은 당시의 광범위한 문화 교류 양상을 짐작케 한다.

요동 북부에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청동기시대 후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심양 정가와자(鄭家窪子)유적을 들 수 있다. 정가와자6512호 장방형 토광목곽묘(5×3m)에서는 후기형 비파형동검, 선형동부(扇形銅斧), 지그재그형 디뉴조문경을 비롯하여 끌, 송곳, 청동도자(손칼)와 같은 청동공구, 재갈과 재갈멈치, 나팔형장식 등의 청동마구, 원개형동기, 방패형동기와 같은 청동이기, 단추장식, 비너, 구슬 등과 같은 청동 장신구와 장식, 그리고 화살촉 등 400여 점의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골기(비너, 칩, 재갈멈치), 석기(구슬), 토기(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다.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경 요동 지역의 최상위급 수장묘로 판단된다. 정가와자문화유형은 이전 시기의 십이대영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장급 무덤의 출현은 요동 지역 역시 후기복합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정가와자유적에서는 흑도장경호와 함께 단면 원형에 가까운 점토띠를 부착한 점토대토기도 출토된다. 이들 토기군은 날이 직선화되는 변형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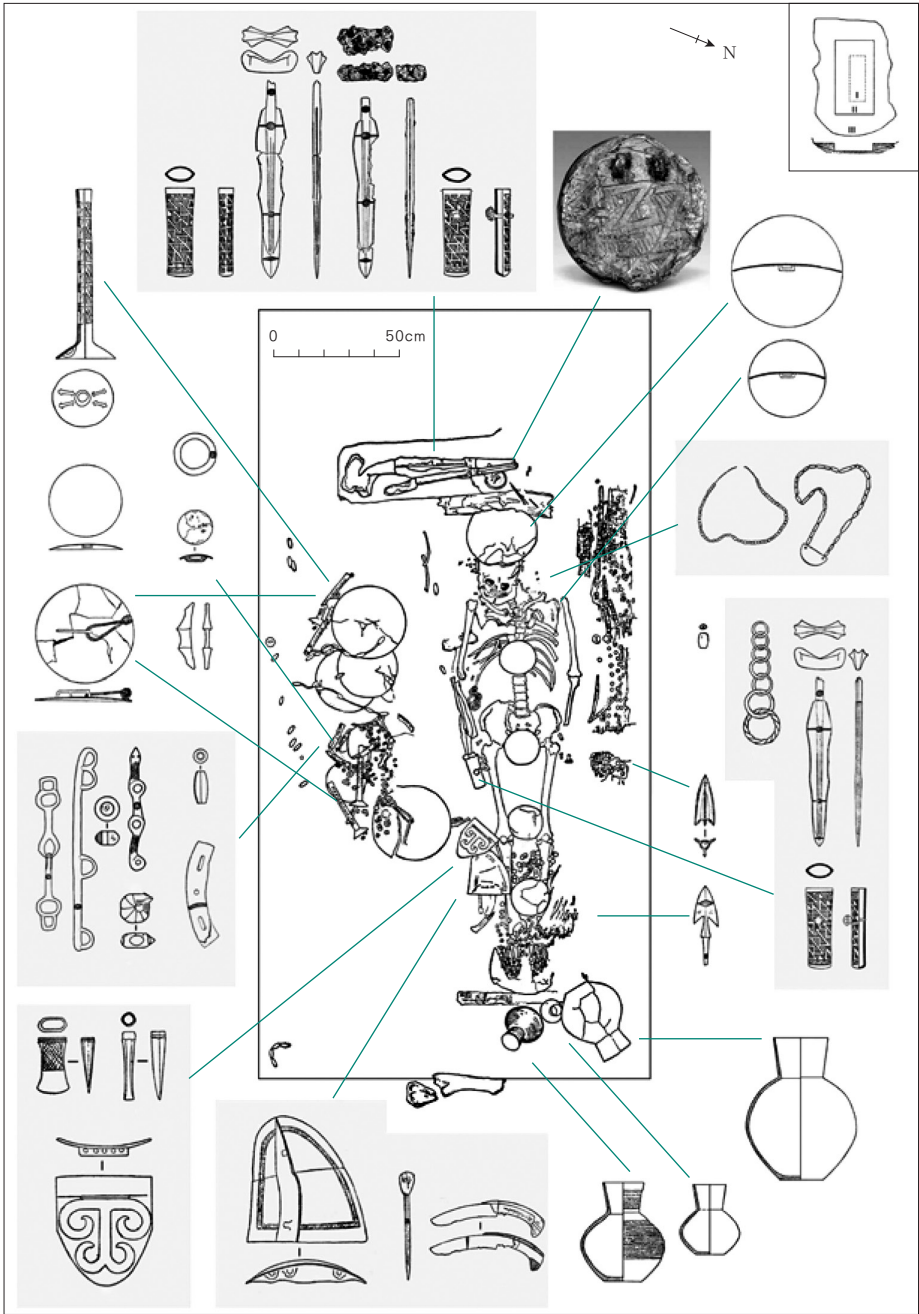


그림5 | 정가와자6512호묘(이후석, 2017a, 도면6)

과형동검 등과 같은 일련의 청동기와 함께 목곽묘에 부장되는 경우가 많다. 관의 위쪽이나 주변에 돌을 쌓거나 돌리기도 하여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로운 묘제(토광목곽묘)의 등장과 비과형동검, 풍부한 마구류와 함께 다양한 청동기의 부장,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의 부장 등은 정가와자유형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요동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동질적인 문화를 영위하는 집단이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 3. 중국 동북지역에서 초기철기문화 도입과 역사적 배경

연나라(燕: 기원전 11세기~기원전 222년)는 전국(戰國)시기 주(周)나라 북방지역에 위치한 제후국으로, 중원과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해주는 교통 구실을 하였다. 기원전 5세기경의 철기가 출토되는 연하도(燕下都)유적의 상황을 보면, 연나라는 일찍부터 강철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철기는 농경지 및 산림 개간, 수리사업 등에 있어 청동기시대 주요 도구였던 석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연나라 역시 발전된 철기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증대하여 북방과 동북지역으로 영역을 급속하게 확장해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에는 “연나라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조양(造陽)으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렀다. 상곡(上穀),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군(遼東郡)을 설치하고

흉노(胡)를 막았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양평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체로 요령성 요양(遼陽)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는 『위략(魏略)』을 인용하여 “연나라가 이에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 그 서방을 공격하여 땅 2,000여 리를 취하고, 만번한(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朝鮮)이 점차 약해졌다. 진(秦)이 천하를 병합한 후, 몽염(蒙恬)을 보내 장성을 쌓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 장성이 한반도 서북한지역까지 확장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홍승현, 2014).

현재 장성과 관련된 흔적은 요서 지역까지만 확인되므로, 장성으로는 연의 요동 점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로 비정되는 조양 십이대영자유적, 객좌 남동구(南洞溝)유적 등에서 비파형동검과 같은 재지적 전통의 유물이 연나라 계통의 중원 청동기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요서 지역은 비교적 일찍부터 연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요동 지역은 지식묘, 석개묘, 비파형동검의 재지적인 문화요소가 강하며, 요서 지역과는 달리 전국시대 연나라와 이후 한나라의 문화요소가 유입됨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재지적인 문화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별로도 지역성이 뚜렷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철기의 유입과 변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김상민, 2017).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연나라의 동쪽 국경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능원(凌源) 안장자(安杖子) 고성지, 조양 원대자유적, 금서(錦西) 소황지(小荒地)고성지, 금주(錦州) 오금당(烏金塘) 동주(東周)무덤, 태안(台安) 백성자(白城子)유적, 여순 고려채(高麗寨)유적, 관전 여명촌(黎明村)교장(窖藏)유적, 무순 연화보(蓮花堡)유적 등에서는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연나라 철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연나라에서

대량생산으로 인해 철기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중국 동북지역 전반에 걸쳐 연나라 주조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시기는 연과 고조선이 상호 경쟁을 하던 때여서, 전쟁 무기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형 철제농공구가 교역 등의 방법으로 요동 지역으로 전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 계층의 무덤에는 여전히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된다.

요동 지역은 요서 지역보다 다소 늦은 기원전 3세기에 철기가 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여순 목양성(牧羊城)과 윤가촌12호묘에서 출토된 연나라의 고배(高杯)를 근거로 기원전 4세기대에 연의 문화가 요동에 유입되었다는 주장(이후석, 2012)이나, 일본에서 발견되는 연계 주조철부(또는 철곽)가 일본 학계의 주장과 같이 기원전 4세기 혹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유통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 지역 역시 기원전 3세기 전반 이전에 동 기층의 철기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규, 2014).

한편, 요동 지역에서 출토되는 연계 철기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분묘는 천산(千山)산맥 서쪽 구릉과 요동반도 대련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천산 일대는 토광묘와 석개묘에서 연계 철기류와 함께 세형동검 등의 재지계 유물이 공반되는 반면, 대련 일대는 패묘(貝墓)에서 철기류와 함께 전한경(前漢鏡), 화폐, 청동기, 토기 등 한나라 계통의 유물이 주로 출토된다. 패묘는 중국 한대 무덤 형식 중 하나로, 습기를 막기 위하여 관 주위에 패각을 두껍게 쌓아 흙으로 덮어 만든 무덤이다. 취락은 주로 천산산맥 서쪽 요하 지류 주변의 구릉대지와 압록강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전자는 요동군(遼東郡)이 설치된 요양 일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상민, 2017).

연나라의 철기는 이후 한반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요동 지역에서는 기존의 비파형동검을 대체한 세형동검이 유행하고 있었고, 한반도에

서도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 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철제농공구, 회색 타날문토기 등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한다. 특히 기원전 3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명도전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한 북부에 대량 확산되는 양상이 눈길을 끄는데, 문헌에 기록된 진개(秦開)가 주도한 연의 동진(東進)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송호정, 2007). 실제로 혼강 중류의 통화를 비롯한 압록강 중류의 자강도 용연동유적, 청천강 중류의 평안북도 영변군 세죽리유적, 두만강 유역의 함경북도 무산군 호곡동유적 등지에서는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 계통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용연동유적과 세죽리유적에서는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明刀錢)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끼와 낫 등 철제농공구와 창끝과 같은 철제무기 등 전형적인 연나라 철기가 함께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계 철기 유물의 분포범위 확대 현상은 관련 유적의 수도 적고 그 분포 역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연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유적 역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서북한 지역까지 연나라가 영역을 확장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보다는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철기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기원전 4세기 말부터 중국 동북지역에 전래되기 시작한 철기문화는 보급 속도와 발전 양상에 있어서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고고학 시대구분에 따르면 초기철기시대인데, 한국에서는 요동 지역과 청천강 이북의 서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죽리-연화보유형, 송화강 유역의 대해맹-포자연유형,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단결-크로노프카유형, 그리고 청천강 이남의 남성리-초포리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는 연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고 철기문화가 시작되지만, 아직까지는 철 소재와 철기의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라 할 수 있다(한국고고학회, 2015). 한반도에서는 철기의 도입과 맞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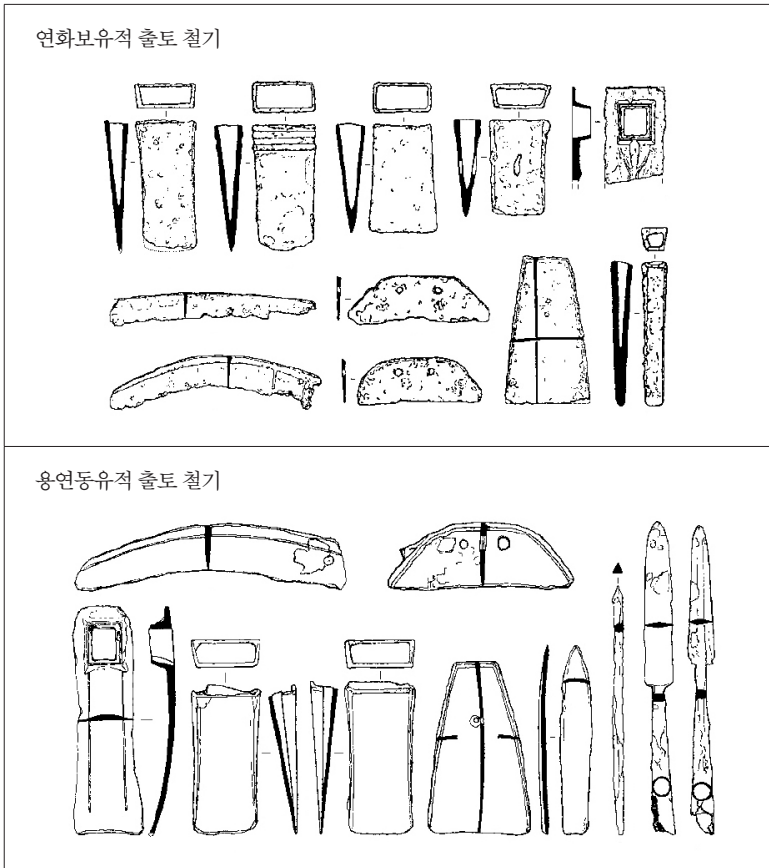


그림6 |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연나라 계통의 철기(白雲翔, 2013, 도9, 도10)

청동기 제작기술 역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비파형동검과 다뉴조 문경에서 세형동검과 다뉴세문경으로 유행이 변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에 해당한다.

실제로, 본계의 상보촌(上堡村) 석관묘유적에는 중국계 주조철기와 회색토기 외에도 고조선 계통의 점토대토기와 요령식세형동검(또는 변형 비파형동검)<sup>14</sup>이 함께 부장되고 있고, 요동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혼강과 압록강 중하류 유역의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 관전 조가보자(趙家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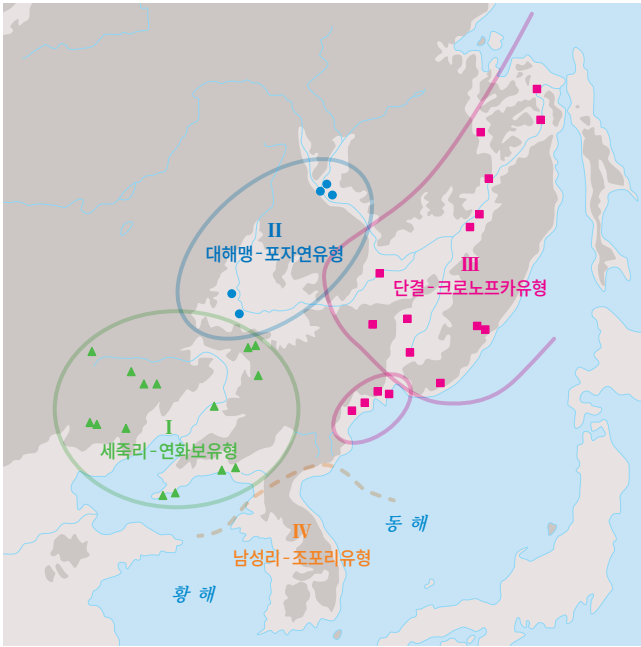


그림7 | 초기철기시대 지역별 문화유형(한국고고학회, 2015, 그림71)

子) 석관묘, 집안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적석묘(또는 적석매납유구) 등에서 요령식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가 다량으로 부장된 무덤이 발견되고 있어 철기문화가 도입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는 재지 세력이었던 고조선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말 진·한 교체기에는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급격한 정세

14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의 철기문화가 전래되는 시점에, 요동 동부에서는 비파형동검의 돌기부나 세형동검의 결입부(挾入部)와 절대(節帶) 등이 없는 대신, 검신의 폭이 비교적 좁고 봉부가 길다는 공통점을 지닌 동검이 확인된다. 불룩한 검신 하단부는 비파형동검의 속성, 직선화된 검날은 세형동검의 속성을 각각 반영한다. 비파형동검의 말기 형식 또는 세형동검의 초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과도기적 동검을 연구자에 따라 변형 비파형동검 내지는 중간형(중세형)동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여호규, 2011, 186 쪽). 다만, 최근에는 변형 비파형동검을 요령식세형동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후석(2018)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변화가 있었다. 연나라의 수도를 공격한 진나라는 요동에 피신한 연왕 세력을 축출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에 의해 기원전 222년 연나라가 멸망하면서, 명도전은 화폐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많은 명도전 퇴장유적이 생겨나게 되었다.

요동 지역은 진한시기에도 연나라 시기와 마찬가지로 요동군을 필두로 한 군현(郡縣)제도가 계속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진과 서한(西漢: 기원전 202~8년) 전기의 철기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수량은 물론 종류도 훨씬 다양하다. 연나라 계통의 대형 주조철부는 더이상 확인되지 않는 대신, 소형의 주조철부가 동병철검(銅柄鐵劍), 철과(戈), 철모 등의 철제무기류와 함께 한경, 반량전(半兩錢), 오수전(五銖錢) 등이 함께 출토된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서한 시기에 해당하는 송눈(松嫩) 평원의 한서(漢書)유적이나 압록강 중상류의 장백현 간구자(干溝子)적석묘에서는 여전히 연나라 계통의 철기가 출토되고 있어, 서한시기 초까지도 연나라계 철기문화가 이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白雲翔, 2013). 이러한 상황은 연-진-한 교체기에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연나라를 비롯한 중원지역의 주민들이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였다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sup>15</sup>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에는 기원전 195년 위만(衛滿)이 이끄는 집단이 요동(遼東)의 요새를 나와 패수(溍水)를 건너 진나라의 옛 공지인 상하장(上下障)에 살

15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 조선왕 만(滿)은 옛날 연(燕)나라 사람이다. … [遼東의]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공지인 상하장(上下障)에 살았다. 점차 진번(眞番)과 조선(朝鮮)의 주민들(蠻夷)과 옛 연(燕)·제(齊)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험(王險)에 도읍을 정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 진한(辰韓)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진(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서, 고역(苦役)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오자,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

다가,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정권을 장악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는 청동단검을 표지로 한 토착문화에 외래에서 유입된 철기문화가 융합된 형태였을 것이다. 실제로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서는 세형동검, 동과, 다뉴세문경 등과 함께 철제농공구나 철제무기를 비롯한 중원계 유물이 함께 발견된다. 소위 ‘세죽리-연화보유형’이라고 부르는 요동과 서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철기문화는 천산산맥 이남 지역에서 압록강 중하류에 이르는 요동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대에 형성되었다. 기원전 2세기대에는 서북한 지역까지 철기문화가 확산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위만조선은 국가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광대한 영역국가를 구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요동과 서북한 지역 전체를 그 영역으로 상정하기는 곤란하다. 기원전 3세기대에 청천강을 경계로 명도전 등 연나라 화폐 출토 유적의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북한 북부와 남부를 동일한 성격의 고조선 영역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당시 고조선의 중심을 청천강 이남이라고 한다면, 위만조선의 북쪽 경계는 요동 남부의 동서부 지역까지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동 남부와 서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고고학적 문화 중에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를 찾아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청동기를 토대로, 연나라 계통의 주조 철기와 한나라에서 유입된 단조철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겠으나, 위만조선의 중심과 경계에 대해서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청규, 2014).

이후 위만조선은 한나라를 배후에서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으나,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패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조선 관할 영역에 낙랑(樂浪), 현도(玄菟), 임둔(臨屯), 진번(眞番)의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면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는 한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

다. 다만 현도군 내에 고구려현(高句麗縣)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구려는 주몽이 국가를 세우기 이전부터 압록강과 혼강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세력을 형성한 정치체로 성장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송화강 유역에는 부여가 성장하고 있었다.

#### 4. 혼강 및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초기철기문화

기원전 4세기대 요동 지역은 비파형동검에 이어 요령식세형동검이 등장함에 따라 청동기문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 압록강 중상류를 포함한 요동 동부지역(천산산맥 동부)과 청천강 이북의 한반도 서북한 북부지역에서는 연-진-한 교체기인 3세기 말경 명도전 유적의 확산 및 유이민 파동과 더불어 본격적인 초기철기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초기철기문화인 연화보-세죽리유형은 무순 연화보유적과 평안북도 영변 세죽리(細竹里)유적을 표지(標識)로 하는데, 세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재지적 청동기문화요소와 주조철부를 대표로 하는 연나라의 철기문화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明’자가 장식된 칼모양의 연나라 동전인 명도전(明刀錢)이 발견된다. 철기류로는 도끼, 팽이, 삽날, 낫, 자귀, 끌, 손칼, 송곳 등의 철제농공구와 창끝, 검, 칼 등의 철제무기가 있으며, 농공구는 주조 방식으로, 무기류는 단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기는 연나라 계통이 대부분이지만, 반월형철도(半月形鐵刀)와 같이 토착 전통에 기반하여 제작된 것도 있다. 토기의 경우에도 재지적 전통의 점토대토기를 바탕으로 연계 토기문화가 도입되어 지역화된 양상이 확인된다. 연에서 유래한 회도(灰陶)나 자비용 토기인 부형토기(燕式釜) 등도 재지화되면서 연하도(燕下都)유적 출토품과

표2 요동 지역과 서북한 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유적 현황표(이청규, 2014, 표3)<sup>16</sup>

| 구분     | 1기         |  | 2기  |                          | 3기               |                 | 4기                                  |  | 5기                          |  |
|--------|------------|--|---|--------------------------|------------------|-----------------|-------------------------------------|--|-----------------------------|--|
|        | 기원전 3세기 전반 |  | 기원전 3세기 후반                                      |                          | 기원전 2세기 전반       |                 | 기원전 2세기 후반                          |  | 기원전 1세기 전반                  |  |
|        | 고조선 후기 후반  |  | 고조선 후기 말  |                          | 위만조선 전기          |                 | 위만조선 후기                             |  | 한 군현 초기                     |  |
| 요서 북부  | 생활         |  | 안산 양초장<br>(鞍山 洋草場)                              |                          |                  |                 | 요양 삼도호                              |  | 요양 삼도호                      |  |
|        | 매납         |  |   |                          | 태안 백성자           |                 |                                     |  |                             |  |
|        | 무덤         | 요양 서왕자묘<br>(徐王子墓)<br>요양 망수대묘<br>(望水台墓) |   | 요양 신성동<br>(新城洞)          |                  |                 |                                     |  |                             |  |
| 요동 북부  | 생활         |  | 무순 연화보  |                          | 무순 연화보           |                 | 철령 구태<br>(丘台)                       |  | 철령 구태                       |  |
|        | 매납         |  | 철령 구태   |                          | 본계 괴석동           |                 |                                     |  |                             |  |
|        | 무덤         |  | 본계 상보촌<br>본계 남분<br>창도 적가촌<br>(昌道 翟家村)<br>본계 유가초 |                          | 본계 박보촌<br>(朴堡村)  |                 | 서풍 서차구                              |  | 서풍 서차구<br>신빈 용두산<br>무순 노동공원 |  |
| 요서 남부  | 생활         |  | 대련 목양성<br>대련 고려채                                |                          | 대련 목양성<br>금주 대령촌 |                 | 대련 목양성<br>금주 대령촌                    |  | 금주 대령촌<br>(錦州 大嶺村)          |  |
|        | 매납         |  | 대련 남산리<br>(南山里)                                 |                          |                  |                 |                                     |  |                             |  |
|        | 무덤         | 여순 윤가촌<br>장해 서가구<br>(長海 西家溝)           |   | 여순 누상<br>대련 후원태<br>(後元台) |                  |                 | 대련 대반가촌<br>(大礪街村)<br>보란점 강둔<br>(姜屯) |  | 대련 이가구<br>대련 대반가촌<br>보란점 강둔 |  |
| 요동 남부  | 생활         |  |   | 봉성 유가보<br>수암 성남          |                  | 봉성 유가보<br>수암 성남 |                                     |  |                             |  |
|        | 매납         |  | 관전 쌍산자  |                          |                  |                 |                                     |  |                             |  |
|        | 무덤         | 단동 조가보                                 |   | 화전 서황산둔<br>(西荒山屯)        |                  |                 |                                     |  |                             |  |
| 서북한 북부 | 생활         |  | 영변 세죽리<br>박천 단산리                                |                          |                  |                 |                                     |  |                             |  |
|        | 매납         |  | 위원 용연동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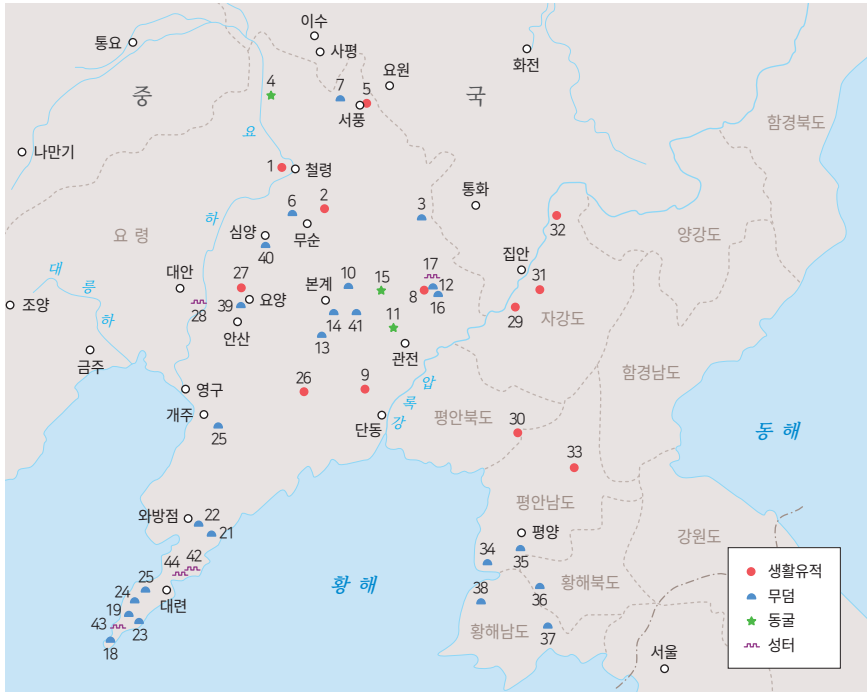


그림8 | 요동-서북한 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분포도(이광명, 2010, 도1)

1. 구태(邱台) 2. 연화보(蓮花堡) 3. 용두산(龍頭山) 4. 적가촌(翟家村) 5. 등산(東山)
6. 유이둔(劉爾屯) 7. 서차구(西岔溝) 8. 추수동(抽水洞) 9. 유가보(劉家堡)
10. 상보촌(上堡村) 11. 쌍산자(雙山子) 12. 대전자(大甸子) 13. 남분(南芬) 화차참(火車站)
14. 괴석동(怪石洞) 15. 적탑보자(滴塔堡子) 16. 망강루(望江樓) 17. 오녀산(五女山)
18. 대침가(大沈家) 19. 이가구(李家溝) 20. 후목성역(後牧城驛) 21. 마산패묘(馬山貝墓)
22. 후원태(後元台) 23. 삼주구(三洞區) 24. 영성자(營城子) 25. 사구자(沙溝子)
26. 성남(城南) 27. 삼도호(三道壕) 28. 백성자(白城子) 29. 위원 용연동 30. 영변 세죽리
31. 시중 로남리 32. 중강 토성리 33. 북장 대평리 34. 감서 태성리 35. 평양 석암동
36. 봉산 솔미골 37. 은파 갈현리 38. 은울 운성리 39. 신성 전국묘(新城戰國墓)
40. 열애 전국묘(熱愛戰國墓) 41. 장가보 전국묘(張家堡戰國墓) 42. 고려채(高麗寨)
43. 목양성(牧羊城) 44. 대령둔(大嶺屯)

16 이청규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출토되는 중국 화폐의 연대를 분석한 古澤義久(2010)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표를 작성하였다(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會).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중국계 화폐의 보급 현황에 따른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기: 명도전-포전(1기), 2기: 명도전-포전-일화전-진 반량(2~3기), 3기: 명도전-명화전-팔수반량전(4기), 4기: 시수반량전(5기), 5기: 오수전(5기 이후).

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요동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산화염 소성의 점토 대토기 역시 일부 기종에서는 연식토기(燕式土器)의 영향으로 기존의 점토대토기와는 다른 독특한 변화가 관찰된다(정인성, 2014).

아마도 기원전 3세기경에 연과 고조선 간에 소형 철제농공구를 중심으로 한 교역이 이루어지다가, 연 장수 진개(秦開)가 동진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서북한 북부까지 명도전 화폐를 비롯한 연계 철기문화가 확산되었고, 결국 고조선 지역을 중심으로 연화보-세죽리문화유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전 지역에 걸쳐 획일화된 유통 시스템이 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성장한 다수의 지역 주체 간에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각 거점별로 화폐와 철기 등의 재화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동 북부의 서쪽지역(요양 신성동유적, 서왕자유적)에서는 다량의 중원계 위세품이 출토되지만, 요동 북부의 동쪽지역(본계 유가초유적)과 요동 남부지역(장해 서가구유적, 단동 조가보유적)에서는 철기 없이 토착계 청동기인 세형동검을 비롯한 무기와 공구를 부장한 목관묘나 토광묘가 확인된다. 연의 철기와 화폐가 중전의 토착 청동기 갖춤새를 전면 대체한 것은 아니며, 외래계인 연나라 주초철기를 기본 갖춤새로 한 연화보-세죽리유형이 등장할 때, 재지계 청동기를 기본 갖춤새로 한 유가초(劉家哨)-조가보(趙家堡)유형의 청동기 부장 무덤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일정 거점에 연의 철기집단이 등장할 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재지 청동기집단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이청규, 2014).

근래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세죽리-연화보유형 내에서 별도의 지역적 구분을 설정하기도 한다(이후석, 2017b). 연·진·한의 요동군(遼東郡)과 관련되는 요중 지역을 세죽리-연화보유형에서 제외한다든지, 요동 산간 또는 동부지역은 상보촌유형, 요동반도 남부지역은 윤가촌유형, 길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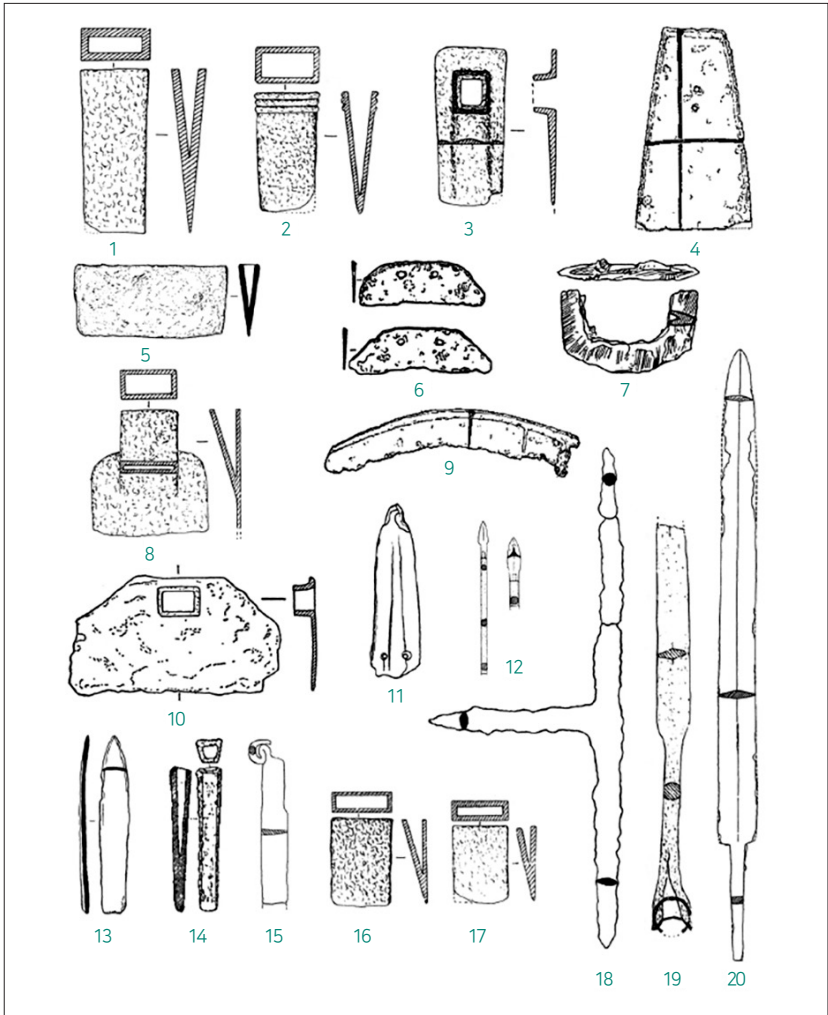


그림9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 지역 출토 철기의 종류(이청규, 2014, 그림2)

1. 괭이/철부(鑿, 괭): 수암 성남
2. 괭이/철부(鑿, 괭): 수암 성남
3. 괭이(鑿, 괭): 수암 성남
4. 호미(梯形鋤, 제형서/鋤板): 무순 연화보
5. 가래(鍬, 삽): 유수 로하심
6. 반월형 철도(半月刀): 무순 연화보
7. 가래(凹口鍬, 요구삽): 운성리 가말미
8. 산(鎗): 수암 성남
9. 낫(鎌, 검): 무순 연화보
10. 호미(六角形鋤, 육각형서): 연화도
11. 괭(戈): 영변 세죽리
12. 화살촉(鏃): 수암 성남
13. 사(鎗/삭, 괭): 위원 용연동
14. 괭(鑿, 착): 무순 연화보
15. 도자(刀子): 본계 괴석동
16. 도끼(斧, 부): 수암 성남
17. 도끼(斧, 부): 수암 성남
18. 극(戟): 평양 석암리
19. 창끝(矛, 모): 수암 성남
20. 검(劍): 대동군 상리

서남지역을 서황산둔유형으로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세형동검 문화단계(초기철기시대)의 중국 동북지역 내 여러 지역문화 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서는 연계 철기가 도입된 이래 기원전 3세기 후반이 되면, 철기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다. 일부 거점지역에 철제농공구의 기종이 다량 보급되며, 검(劍), 창끝(矛), 과(戈)와 같은 철제무기류가 추가된다. 무순 연화보, 철령 구태(邱台), 대련 고려채(高麗寨), 영변 세죽리, 위원 용연동과 같은 생활유적에서 철제농공구와 함께 무기류가 출토된 바 있다. 진나라에 의해 연나라가 멸망하면서, 요동과 서북한 북부 전역에서는 연나라 화폐였던 명도전을 매납한 유구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국계 철기의 도입과 확산은 물론 요령식세형동검, 세문경, 세형동검과 같은 토착 청동기 역시 지속적으로 제작 및 보급된다.

기원전 3세기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 王八脖子)유적과 본계 상보촌(上堡村)유적 등이 있다.

태자하(太子河) 유역의 본계 상보촌 석관묘유적에서는 중원계 주조철기와 회색토기 그리고 고조선 계통의 점토대토기와 요령식세형동검(변형 비파형동검)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앙신직지(仰身直肢) 상태의 인골이 발견된 1호 석관묘(2×1×1m)에서는 세형동검 2점, 원형 청동장식 1점, 점토대토기 1점, 주조 철착 1점, 회색타날문토기 1점 등이 함께 부장되어 있었다(魏海波·梁志龍, 1998).

상보촌유적에서 확인되는 중원계 철기문화와 재지계 청동기문화와의 결합 양상을 표지로 하여, 천산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요동 동부지역의 산간구릉지대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문화단계의 유구와 유물 복합체를 상보촌유형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상보촌유형의 특징적인 유물에는 동대장자(東大杖子)유형<sup>17</sup>에서 처음 확인된 요령식의 검

신 하부가 단이 진 요령식세형동검(상보촌류), 동과, 세형동모(세신형·유엽형) 등의 청동무기를 비롯하여 정가와자유형을 계승하는 다뉴조세문경과 점토대토기발, 평저장경호, 두형토기 등의 토기류가 있다. 즉, 동대장자유형과 정가와자유형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보촌유형이 성립하였으며, 이후 전국 연계 물질문화를 수용하여 더욱 발전한 것이다. 토광묘와 석축묘(석관묘, 대석개묘)가 모두 확인되며, 석축묘의 경우 적석시설이 부가된 점이 특징적이다(이후석, 2017b). 상보촌유형은 십이대영자문화 또는 정가와자유형을 계승하는 청동기문화이면서도 중원계 유물들이 공반되고 있는 점, 분포권이 요동 북부에서 서북한 지역까지 이른다는 점,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설치된 한사군 중 비교적 오랫동안 존속한 현도군과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토대로 진개 침입 이후 고조선 및 위만조선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조진선, 2014).

만발발자유형은 혼강 상류에 위치하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발굴조사 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1기)부터 상주시대(2기), 춘추전국시대(3기), 서한시대(4기), 위진시대(5기)를 거쳐 명대(6기)에 이르는 문화층이 발견되었다. 3기(청동기시대 후기)와 4기(초기철기시대)가 중심인데, 고구려 문화의 성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22기, 무덤 56기, 수

---

17 동대장자유형은 대릉하 상류의 객좌, 능원, 건창 일대에서 확인된다. 이곳은 기원전 1000년 기 전·중엽부터 십이대영자문화가 번성하였던 곳이지만, 중원계 유물들이 자주 공반되어 십이대영자문화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역색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1000년기 후엽이 되면 지역색이 더욱 심화된다. 동대장자유형의 토광목관(곽)묘는 대부분 2단으로 토광을 파고 1단부에는 강자갈을 0.6~0.8m로 깔았다. 출토유물로는 청동기가 대다수이며, 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청동기로는 돌기부와 용기부가 미약해진 비파형동검과 함께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계 청동예기, 전국계 거마구, 그리고 한국식동과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령식동과도 출토되었다(조진선,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동양학』 56,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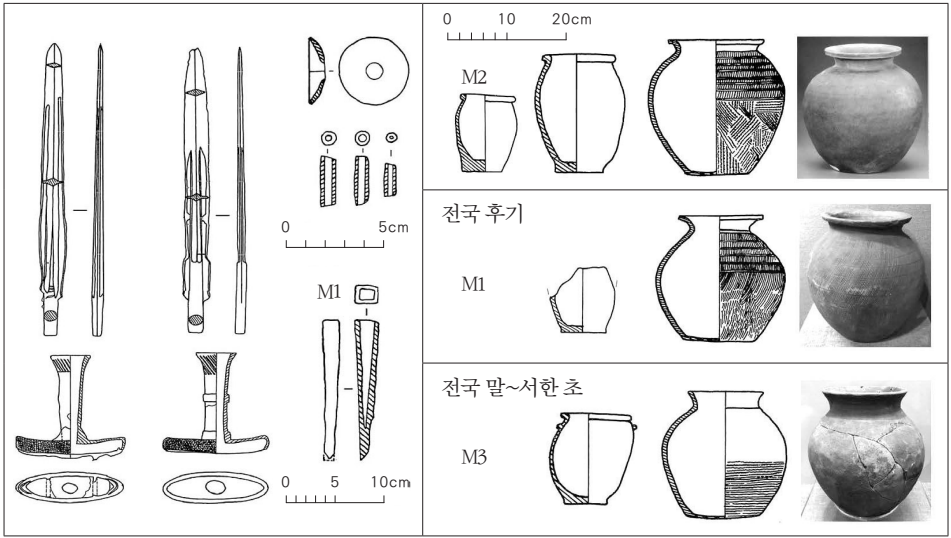


그림10 | 본계 상보촌유적 출토유물(이후석, 2017b, 그림11)

혈 160기, 구상유구 9기 및 환호 1기 등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 묘제는 세장방형의 토광묘, 대석개묘(大石蓋墓), 석관묘 등이며, 출토유물로는 세형동검, 협봉동모, 다뉴조세문경, 선형동부(扇形銅斧), 동환 등의 청동기와 청동거푸집(동검, 동부, 동촉), 돌대문토기와 발형토기, 호, 권족완을 비롯한 토기, 석도, 석부, 자귀, 구슬 등의 석기 그리고 각종 끌기 등이 있다(오강원, 2004).

이 밖에도 환인 대전자(大甸子)석관묘에서는 판석으로 축조한 장방형 단실묘(4×3m)에서 세형동검 1점, 동촉 2점, 명도전 200매와 철삭(鐵削) 1점, 석환과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曾昭藏·齊俊, 1981). 압록강 중류 위원강의 지류인 한백강 유역에 위치한 위원 용연동유적에서는 원형 적석유구에서 수백여 점의 명도전과 동촉, 청동대구 외에도 다양한 철제농공구 [주조철부, 자귀(鐵鏟), 가래(鐵鍬), 낫, 반월형철도 등]와 철제창끝(矛) 2점이 함께 출토된 바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2). 용연동유적에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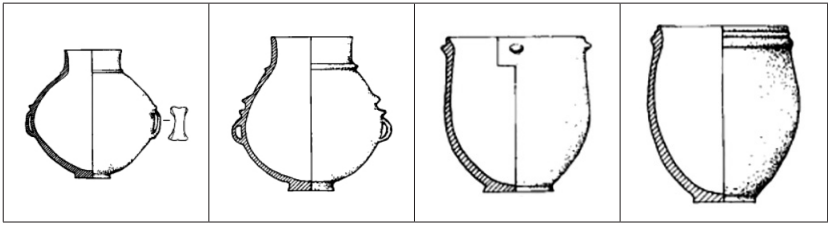


그림11 | 만발발자유적 21호 토광묘 출토 초기철기시대 토기  
(金旭樂·趙殿坤·董峯, 2003, 도4, 도5)

나라 계통의 철기와 함께 반월형철도와 같은 재지 전통의 철기가 공반되는 점은 철기 사용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기원전 2세기 전반이 되면, 요동 전 지역에 농공구는 물론 각종 무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서북한 남부지역에서도 철제농공구의 일부 기종이 확인된다. 요동 지역에서는 무덤에 비해 생활유적에서 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철기의 도입 시점부터 일상생활용 철제농공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사군이 설치되는 초기철기시대 후기부터는 무덤에서도 다양한 철제 무기류와 차마구 등이 출토된다.

기원전 2세기 요동 동부와 서북한 남부지역에서는 토착계 청동무기가 지속적으로 변형 발전하는 양상도 확인된다. 본계 박보(樸堡), 통화 금창진(金廠鎭), 집안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 화전 서황산둔(西荒山屯) 유적 등에서 쌍조형의 검과두식을 한 동병동검(雙鳥形劍把頭飾 銅柄銅劍)이 출토되었다.

한편, 집안 오도령구문적석묘는 그 시기와 묘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적석묘계의 무덤에서 요령식세형동검(변형 비파형동검), 동경, 유엽형 동모, 동부 등이 출토되어 고구려 성립 이전에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거주하던 집단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기원전 2세기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생활유적으로는 환인 추수동(抽

水洞)유적이 있다. 혼강의 지류인 삼도하(三道河) 유역의 북쪽 낮은 구릉 사면에 입지하며, 유적 남쪽에는 대석개묘와 적석묘가 확인된 대전자(大甸子)유적이 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와 수혈 5기, 구상유구 1기, 돌담장 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평면 형태 원형(직경 3.2~3.3m)의 4주식 수혈주거지로, 중앙 남쪽에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토기, 골제비녀, 방추차, 갈판 등과 함께 새모양 철제장식품(鳥形鐵飾)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는 평면 형태 장방형(2.4×2m)의 4주식 수혈주거지로, 주조철부와 철제도자, 그리고 명도전, 일화전(一貨錢), 진대 반량전, 동축 등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수혈과 구상유구 등에서 주조철부, 철촉, 철경동축, 동축과 명도전과 반량전 등이 발견되었다(武家昌·王俊輝, 2003). 반량전이 출토된 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들은 전형적인 연나라 계통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일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요동과 서북한지역에 한나라 단조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원전 1세기에는 한나라 계통 단조철기 전 기종이 고루 분포하게 된다. 다만 요동 북동부와 서북한 남부에는 각각의 전통적인 청동 재질과 디자인 속성에 한나라의 새로운 철기 단조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유물이 등장하는데, 요동 북동부에서는 쌍조형 검과두식의 동병철제장검이, 서북한 남부에서는 별도로 주조하여 결합한 동병동검(단검)이 보급되어 지역성이 나타난다. 동병철검(銅柄鐵劍)은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고분군이나 신빈(新賓) 용두산(龍頭山) 대석개묘, 무순 노동공원(勞動公園)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지역성을 드러내는 유물의 분포는 한사군 설치 이전까지 요동 지역에서 재지세력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동 북동부는 부여, 서북한 남부는 위만조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세기대에 해당하는 서차구고분군에서는 한대의 동경, 화폐, 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孫守道, 1960). 팽이(鑿), 철부, 자귀, 호미(鋤) 등의 농공구류와 장검, 환두대도, 창끝 등의 무기류, 재지적 특성을 보여주는 축각식과 환두동병철검이 확인된다.

동 시기 압록강 중류 유역에는 시중 노남리유적과 중강 토성리유적이 있다. 시중 노남리유적은 자강도 시중군 강계시 독로강 유역에 있는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기와 제철로 1기가 확인되었다. 철제도끼, 철촉, 송곳, 격쇠, 띠고리 등의 철기와 청동팔찌, 청동촉, 명도진, 오수전 등과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성리유적은 토성리토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기와 야철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부형철촉, 철제 도자, 낚시바늘과 함께 오수전과 회색경질토기 등이 출토되었다(리병선, 1961).

이 밖에도 장백현 간구자적석묘와 통화 만발발자유적에서도 한대 철곽(鐵鑊)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계가 있는 간구자적석묘에서는 진대 말기 혹은 한대 초기의 반량전(半兩錢), 한대 철곽과 철제도자 등이 출토되나, 전국 말기에서 서한 시기로 편년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 5. 고구려 성립 전야의 물질문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하여

적석총은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축조되기 시작하여 고구려 멸망까지 전 기간에 지속되었다.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주검을 안치한 후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므로, 지상

에 드러난 분구에 매장부가 위치한 분묘일체형의 무덤이다. 중원이나 주변 다른 국가의 묘제와 구분되는 적석총은 초창기에 압록강과 혼강이라는 일정한 공간범위를 갖고 있어, 고구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원고구려 주민의 묘제라 할 수 있다(강현숙, 2013).

적석총의 여러 구조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구에 있는데, 석재 가공 및 무덤 축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기단, 기단, 계단으로 발전하였다. 1인장을 기본으로 하며, 수혈식에서 횡혈식 방법으로 변화하였다. 처음에는 목관이나 목곽장구를 매장부로 한 석광적석총이었다가, 목곽과 목실 또는 목개석실을 매장부로 한 광실적석총, 이어 석실적석총으로 발전하였다. 적석총의 매장부가 지상에 있다 보니 후대의 교란이나 훼손으로 인해 내부구조가 잘 남아있지 않은 예가 많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매장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동 시기 인접 국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묘제이기에 적석총의 기원 문제는 고구려 주민집단 및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식묘나 초기철기시대 이후의 석관묘에서 적석총의 기원을 찾기도 하였으나, 지식묘나 석관묘 모두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석총과 큰 차이가 있어 직접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요서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인 우하량(牛河梁)에서 확인된 적석묘를 적석총의 기원으로 본 견해(耿鐵華, 2006)도 있는데, 홍산(紅山)문화의 적석묘는 고구려의 적석총과 시간적으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판석을 이용한 석관묘를 반지하에 마련하여 돌을 덮었다는 점에서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하고 석곽(석광) 구조인 고구려 초기의 적석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 동북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던 청동기시대 이래의 돌무덤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 가장 우세한 견해는 요동반도 남단에 위치한 강상(崗上)과 누상(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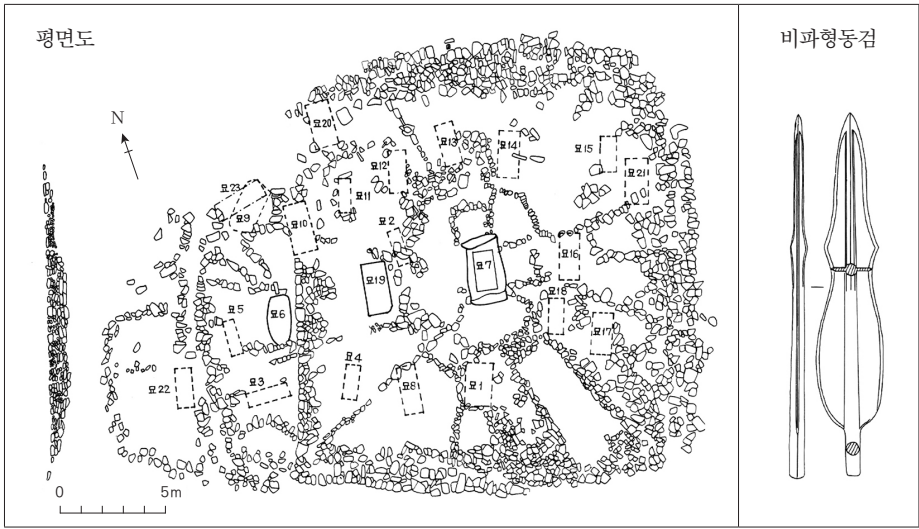


그림12 | 강상적석묘(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그림108, 그림118)

上)으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고구려의 적석총이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요동반도에서는 사평산(四平山), 쌍타자(雙舵子), 강상, 누상, 우가촌(于家村), 노철산(老鐵山), 장군산(將軍山) 등 여러 지점에서 적석묘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적석묘는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공간적으로는 요동반도의 남단인 중국 요령성 대련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적석묘에서는 비과형동검이 출토된다.

1960년대에 강상과 누상 적석묘가 보고되자(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이들 적석묘가 고구려의 적석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정찬영, 1967; 東潮, 1997). 두 묘제 모두 여러 기가 연결하여 군집을 이루고 있고, 지상에 주검이 놓이며,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거나, 매장 후 화장이 행해졌다는 점 등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지상에 돌을 쌓아 묘단을 조성하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총과는 달리 요동반도 남단에 위치한 적석묘는 지표면에 바로 석관묘와 유사

한 형태의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있으며, 단인장 중심의 고구려 적석총과는 달리 다곽식(多槨式)다인장의 집단묘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池炳穆, 1997).

압록강 중하류의 수암(岫巖) 서방신(西房身), 봉성(鳳城) 소진가(小陳家), 관전 포자연(泡子沿)·조가보자(趙家保子)·사평가(四平家), 환인 대전자(大甸子), 집안 오도령구문 등에서는 적석묘 또는 석퇴유구(石堆遺構)가 다수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이들 유적에서는 요령식세형동검과 함께 동모나 동경 등이 출토되며 철제품은 제한적이다. 또 오도령구문에서 발견된 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를 제외한 나머지 압록강 중하류의 적석 유적들은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석관묘라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도령구문적석묘 역시 외형상으로는 계단식적석총에 가깝지만 유구 내에서 동검, 동모, 동부, 동경 등과 같은 청동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일반적으로 철제 농공구나 철제무기가 출토되는 고구려 초기의 적석총과는 확연히 다르다. 통화 만발발자유적의 경우 토광묘, 석관묘, 대석개묘 등의 묘제가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층에서 오도령구문 출토품과 유사한 동검과 동모가 출토된 반면, 철기가 출토되는 고구려 초기문화층에서는 대석개적석묘(석개석광적석묘)와 함께 무기단적석묘(무기단적석총)가 발견되고 있어,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는 청동기시대 후기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호규, 2011).

고구려 초기 적석묘에서 동검이나 동모 등의 청동기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철제 농공구나 무기류가 많이 부장된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압록강 중류 유역의 적석묘는 기원전 3세기 말경 철기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등장하였을 것이다(김중은, 2017).

근래에는 고구려 적석총을 요령성의 혼강 유역과 길림성의 압록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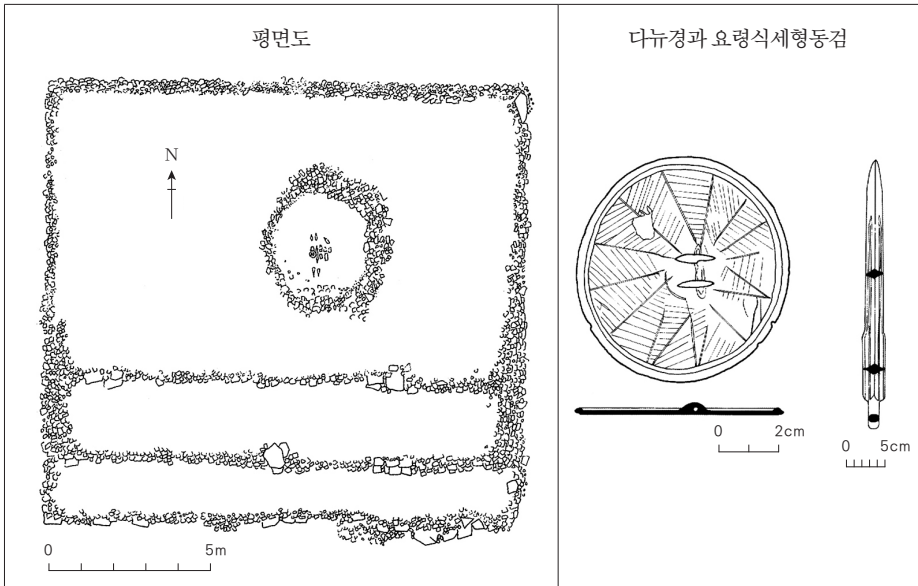


그림13 | 오도령구문적석묘(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원을 설명하기도 한다(李新全, 2009).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 중 가장 이른 장백현 간구자적석묘는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연원한 것으로, 혼강 일대의 적석총은 석개석광적석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혼강 유역(환인 일대)의 적석총(적석묘)은 선행 묘제인 청동기시대의 석봉(石棚)과 석개묘(石蓋墓)가 요동반도 남단에서 확인되는 적석묘의 영향을 받아 적석석봉묘(積石石棚墓)와 석개석광적석묘(石蓋石壙積石墓)로 발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환인의 풍가보자(馮家堡子)5호묘와 같이 석개석광적석묘에서 덮개돌이 사라지면서 망강루(望江樓)고분군과 같은 고구려 이른 시기의 무단석광적석묘(무기단적석총)이 되었다고 본다. 자세히 살펴보면, 혼강 유역 적석총의 연원으로 본 석개석광적석묘(적석석개묘)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를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으로 파악하는 중국 학계의 기존 학설을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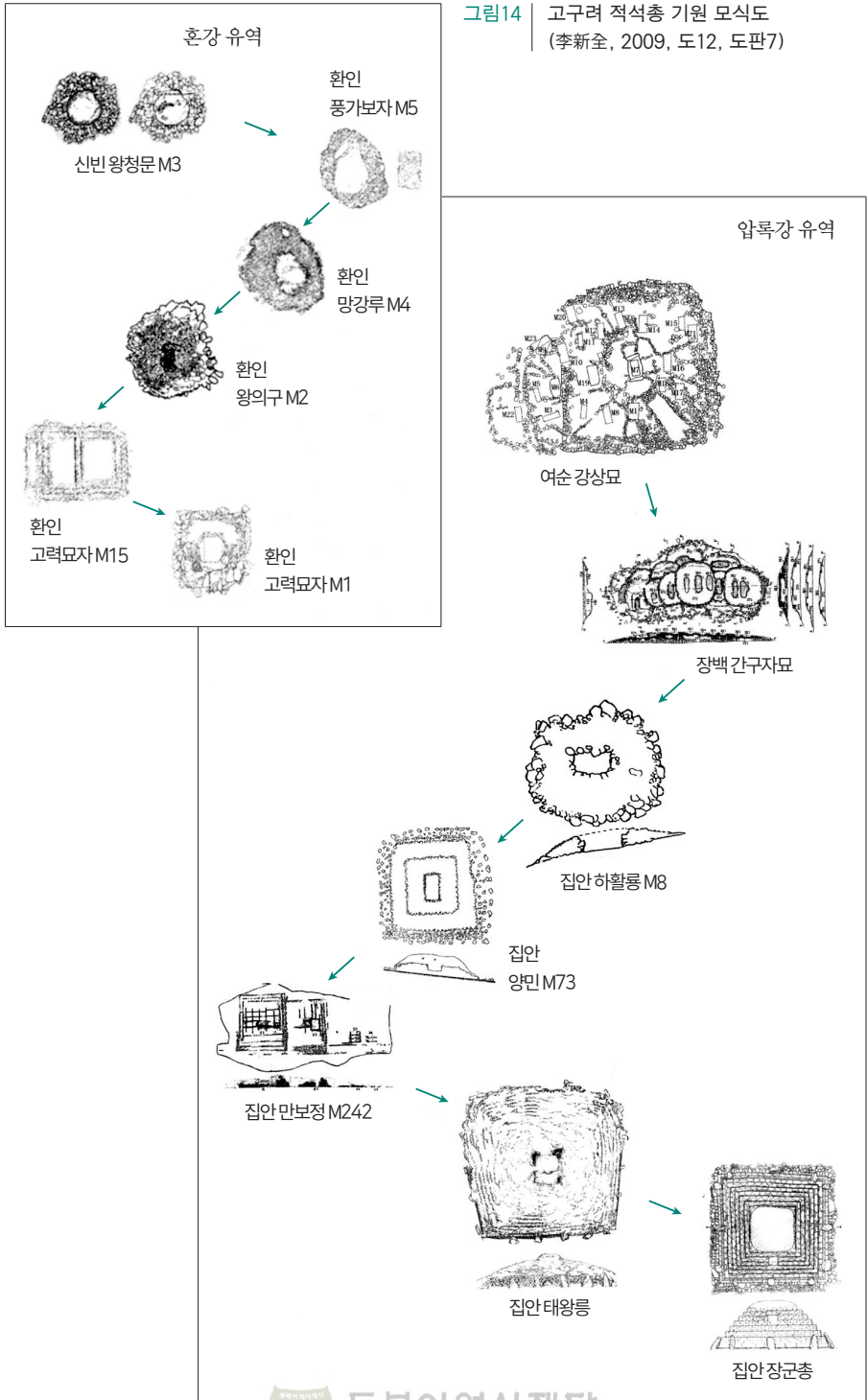
석개석광적석묘는 근래 환인 일대의 풍가보자, 용수산(龍首山), 흑구(黑溝), 노립자(老砬子), 북전자(北甸子), 만룡배(彎龍背), 대전자, 대과(大把) 유적 등에서 발견된 전국 말(초기철기시대)~전한 후기(고구려 초기)로 편년되는 대석개묘(大石蓋墓)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석개묘는 덮개를 큰 돌로 덮은 무덤으로, 덮개돌이 지표에 노출되기도 하고, 지하에 매몰되기도 한다. 덮개돌의 아래에는 토광 혹은 돌로 쌓은 석곽(석광)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대석개묘(석개석광적석묘) 분포 지역에는 고구려 적석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李新奎, 2009). 풍가보자유적에서도 석개석광적석묘 옆에 무단석광적석묘가 확인되는데, 두 유구에서 동일한 유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두 묘제가 병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혼강 유역 청동기시대의 석개(석광)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으로의 연원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석묘와 석개묘가 결합하는 과정, 석개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묘(적석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석개적석묘의 덮개돌이 사라진 시기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북방문화연구원 편역, 2018).

한편, 환인 망강루적석묘는 혼강변의 절벽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총 6기의 적석묘에서 금제이식, 각종 구슬, 청동방울과 청동팔찌를 비롯한 각종 청동장식, 도자, 차축두, 낚시바늘 등과 같은 각종 철기, 그리고 호, 발형토기, 두, 완 등을 비롯한 각종 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금제귀걸이와 청동방울 등은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유적이나 서풍 서차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여 부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망강루적석묘에서 동병철검이 수습되었다는 보고를 참고하면, 망강루적석묘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오강원,

그림14 | 고구려 적석총 기원 모식도  
(李新全, 2009, 도12, 도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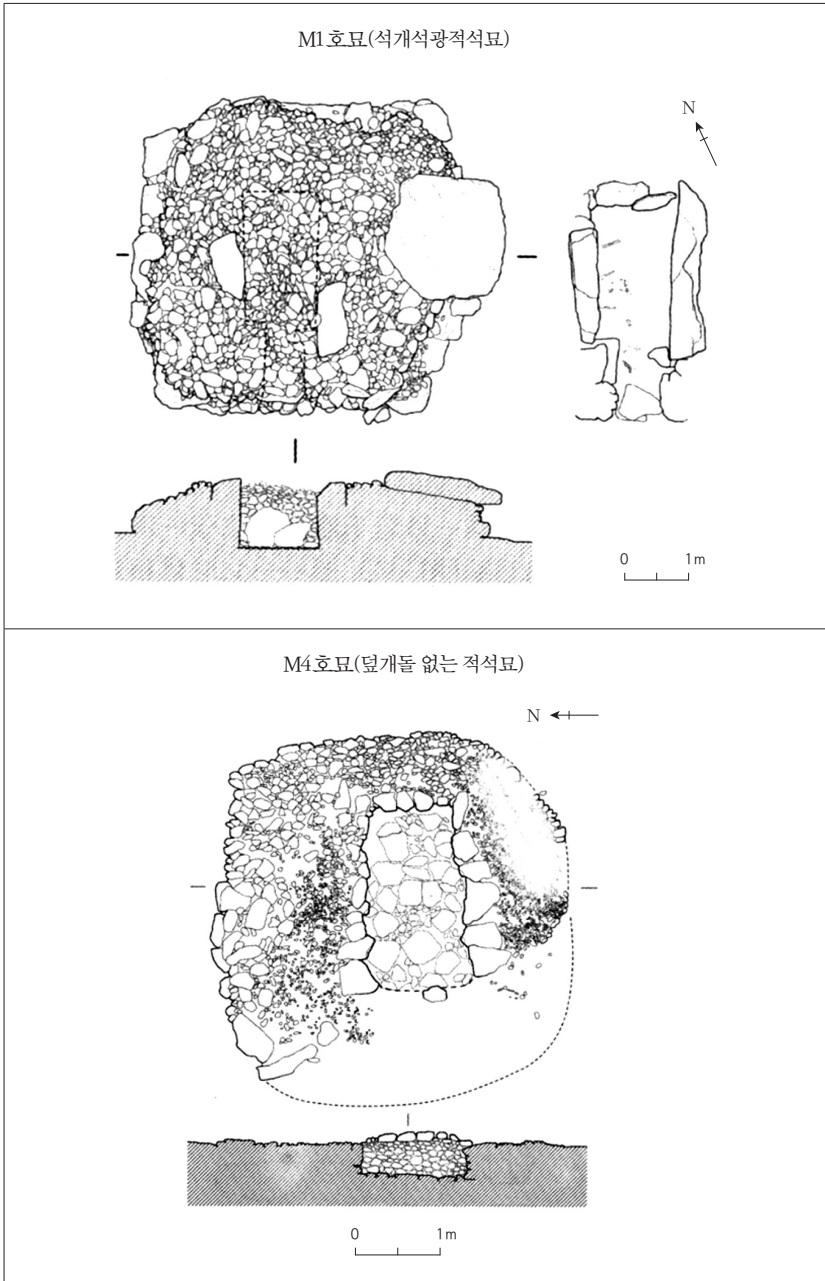


그림 15 | 풍가보자유적의 적석묘(李新奎, 2009, 도4, 도5)

2012), 이러한 양상은 망강루적석묘는 고구려의 무기단적석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적임을 시사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장백현의 간구자(干溝子)적석묘이다. 여러 기의 무덤이 연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유적에서는 모두 52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고구려의 연결 적석총은 방형 평면의 적석총 한 변에 잇대어 연결묘를 구축하지만, 간구자적석묘에서는 중앙부 원형 평면의 적석묘 둘레를 돌아가며 4~6개의 반원형 평면 적석묘가 연결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무덤을 추가하면서 많게는 십수 기가 이어진 집단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연결 적석총의 전체 평면은 원형, 반원형, 부채꼴로 나뉜다. 묘광 평면은 장방형이나 타원형이며, 바닥에는 작은 넷돌을 한층 얇게 깔았다. 인골은 화장 후에 매장하였으며, 깨진 돌로 봉하고 뚜껑을 덮었는데, 목질 장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유적에서는 전국 말기에서 진한 시기에 유행한 화폐인 반량전(半兩錢), 일화전(一化錢) 등과 함께 철곽(鐵鑊), 철도(鐵刀)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오수전과 동한 시기의 화폐는 출토되지 않아, 고분군은 전국 말기에서 서한 즉,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 전후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시점에 조영되기 시작한 간구자적석묘는 집단묘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단위 적석묘의 구조와 철기의 부장, 그리고 유적의 시공간적인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연결되는 묘제로 판단된다.

이신전은 고분군의 입지와 묘광의 구조, 화장 등의 유사성을 들어 간구자적석묘를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를 직접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李新奎, 2009). 그리고 이러한 압록강 유역의 적석묘가 이후 고구려의 초기 무기단적석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압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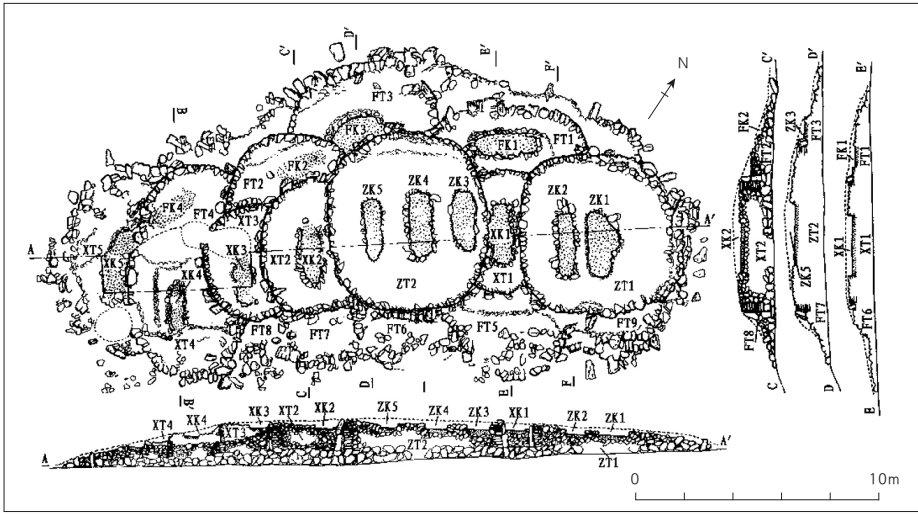


그림16 | 간구자AM2호 적석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5)<sup>18</sup>

유역의 적석묘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는 시공간적으로 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석묘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국가 형성의 핵심 지역인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고구려 성립 직전의 묘제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혼강 유역에서는 환인 일대를 중심으로 대석개묘로도 불리는 석개석광적석묘가, 압록강 중상류에서는 간구자유적에서 연접(석광)적석묘가 확인된다. 석개석광적석묘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주로 발견되며, 간구자적석묘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다. 석개석광적석묘는

<sup>18</sup> 전체적으로는 타원형 평면의 적석 구릉을 이루는 형태이다. 고분의 중심부에 위치한 평면 형태 원형의 주묘단(主墓壇) 2기와 주묘단 바깥쪽 중심선축 방향으로 반원형 형태로 연결된 속묘단(續墓壇) 5기, 주묘단 주위와 속묘단 양쪽에 부채꼴 형태로 연결된 부묘단(附墓壇) 9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분군의 전체 길이는 25.5m, 너비 12.5m, 중심부 높이는 2.1m이다.

구조적으로는 덮개돌이 존재하고 매장주체부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간구자적석묘는 기본적으로 다인장과 연결방식의 측면에서 초기 고구려 적석총과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찾고 있으나, 두 묘제의 시간과 공간적 공백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기원은 고구려 건국 주도 집단의 형성과 건국 과정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인욱,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韓國考古學報』 106.
-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 郭東玖, 2015, 「中國 東北地域 青銅器-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東北亞歷史論叢』 55.
- , 2018, 「東北아시아 鐵器文化의 擴散과 古朝鮮」, 『韓國考古學報』 107.
- 김승욱, 2015,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 김영우,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 1964-4.
- 김정문,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 1964-2.
- 김중은, 2017, 「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61.
- 리병선, 1961,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유적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 1961-5.
- , 1966,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청동기시대 주민의 경제생활」, 『고고민속』 1966-1.
- 白雲翔, 2013, 「연지(燕地) 철기문화의 기원과 발전 및 동점(東漸)」,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송호정, 2007,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와 위만조선의 성장」, 『호서사학』 48.
-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東北亞歷史論叢』 1.
- , 2012, 「高句麗初期積石墓의 出現과 形成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 王綿厚, 2001,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研究(高句麗渤海研究)』 12.
- 이광명, 2010, 「요동~서북한 초기 철기시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청규, 2000, 「遼寧 本溪縣 上堡村 출토 銅劍과 土器에 대하여」, 『考古歷史學志』 16.
- \_\_\_\_\_,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 44.
- \_\_\_\_\_, 2017, 「고고학에서 본 민족·종족의 형성과 고조선」,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 이형원, 2018, 「토기로 본 고조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 『韓國考古學報』 106.
- 이후석, 2012, 「遼東반도 細形銅劍 문화의 양상과 변천-윤가촌유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회』 28.
- \_\_\_\_\_,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東北亞歷史論叢』 44.
- \_\_\_\_\_, 2017a,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고조선의 성장 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38.
- \_\_\_\_\_, 2017b,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 \_\_\_\_\_, 2018,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구 동향-청동무기 연구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41.
- \_\_\_\_\_,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韓國考古學報』 111.
- 정인성, 2014, 「燕式土器文化의 확산과 後期 古朝鮮의 토기문화-細竹里·蓮花堡類型的 이해를 바탕으로」, 『白山學報』 100.
- 정찬영, 1967, 「고구려 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 \_\_\_\_\_, 1983, 「토성리유적」, 『유적발굴보고-압록강·독로강 유역 고구려유적 발굴 보고』 13.
- 조진선,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동양학』 56.
- \_\_\_\_\_, 2015,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 池炳穆, 1997, 「遼東半島와 鴨綠江 中·下流地域 積石墓의 관계-高句麗 積石墓의 기원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53.
- 지병목, 2007, 「高句麗 起源의 考古學的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27.
- 천선행, 2010a, 「고대산문화의 시공간 검토」, 『嶺南考古學』 52.

- , 2010b,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河勇仁, 2017, 「中國 太子河流域 馬城子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승현, 2014,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고구려의 성립

- 4장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한 이해
- 5장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 6장 정치 중심지의 형성과 초기 도성의 성격



## 4장

#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한 이해

조우연 |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사학과 조교수

고구려의 건국 과정은 설화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즉, 고구려 건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현전 텍스트는 설화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어, 고구려 건국설화, 고구려 시조설화, 주몽(朱蒙)설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이 설화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역사 사실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왔다. 하지만 대부분 고대국가의 건국 과정은 다양한 신이(神異)한 요소들로 분식(粉飾)되기 마련이다. 신성한 건국 과정과 국조(國祖)에 대한 부각을 통해 국가 존립의 당위성을 표방하고, 나아가 그 혈통을 계승한 ‘현재’ 지배자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고구려 건국설화는 여타 한국 고대국가 형성 설화에 비해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스스로 남긴 금석문을 비롯해 다양한 문헌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어 고구려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여러 문헌에서 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세부적으로 건국자의 호칭, 출자 등 상이한 부분 또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혈연 계보가 달리 나타나 혼란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기

초 사료에 대한 자세한 유형 구분 및 비교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초기 연구자들은 고구려 건국설화를 일종의 신비화된 고구려 건국사로 보아, 전승에서 신이한 요소를 제거해 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사실상 건국설화는 정치적 목적이 투영되어 있는 일종의 ‘선언문’으로서, 특정 시기 완성되어 변함없이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를 걸쳐면서 전승 주체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가감되기 마련이다. 즉, 고구려 건국설화는 단순히 신성한 시조왕의 탄생과 건국 과정에 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후대의 전승 주체가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창조’해낸 부분이 많다.

고대 설화는 역사 사실로 바로 환원할 수 없으며,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결부시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서영대, 1989). 그러므로 고구려 건국설화가 담고 있는 건국사·초기사 관련 내용도 물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후대 지배층의 정치적 의도 내지는, 전승이 형성될 무렵의 정치적 배경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텍스트인 5세기 고구려 금석문에 보이는 여러 설화적 요소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구려 건국설화는 부여(夫餘) 건국설화(동명설화)와의 유사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혹자는 부여 건국설화를 고구려 건국설화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설화의 관계 규명도 고구려 건국설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고구려 건국설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피고, 그것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해를 정리해내고자 한다.

## 1. 고구려 건국설화 관련 문헌자료의 유형과 원형

현전하는 고대 설화는 대개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던 전승이 문자의 보편화와 함께 특정 시기에 문자로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설화를 담고 있는 문자 자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건국설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 텍스트에는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는데,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금석문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정사(正史)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료로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등 고구려 금석문, 『위서(魏書)』 고구려전을 비롯한 여러 중국 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東明王篇)」,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 고려·조선시대 문헌을 손꼽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고구려 건국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 해석과 더불어 각 문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고구려 건국설화 관련 문헌자료

#### (1) 집안고구려비(4세기 말~5세기 초, 광개토왕대)

---

##### 핵심 내용<sup>1</sup>

---

시조 추모왕의 건국

---

신성한 혈통: □□□의 아들, 하백의 손자

---



그림1 | 집안고구려비(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건국설화 자료는 장수왕(長壽王)대(414년) 건립된 <광개토왕비>였다. 그런데 2012년에 집안시(集安市) 마선구(麻線溝)에서 광개토왕대에 입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sup>2</sup>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좀 더 오래된 건국설화 자료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비문 1, 2행에 걸쳐 시조왕의 건국에 관한 짧은 언급에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쉽다.

<집안고구려비문>은 시작 부분에서 시조 추모왕에 의한 고구려 건국과 시조의 신성한 혈

통 및 그 후손에게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비록 건국설화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으나, 설화의 여러 핵심 요소가 확인된다. 우선은 ‘추모왕’이라는 건국자의 명호(名號)가 등장하며, 다음으로 ‘□□□□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라는 설화 속 건국자의 신성한 혈통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원왕(元王)’이라는 여타 판본의 고구려 설화에는 등장

1 원문 및 번역문은 이 책 225쪽 <참고자료> 참조. 이하 동일.  
 2 <집안고구려비>의 입비 연대와 관련해,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 두 설이 양립하고 있으나, 한국 학계에서는 전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는 않는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두고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 되었다.<sup>3</sup>

한편, “그 후손으로 이어져 계승해왔다”라고 하여 설화의 숨겨진 진정한 의도, 즉 시조왕으로 연결되는 ‘현재’ 왕실의 신성한 혈통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고구려의 건국설화가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설화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의도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 (2) 광개토왕비(414년, 장수왕대)

|   |
|---|
| 핵심 내용                                       |
| 시조 추모왕의 건국                                  |
| 출자: 북부여(北夫餘)                                |
| 혈통: 천제의 아들, 어머니는 하백의 딸                      |
| 기이한 출생: 난생(卵生)                              |
| 남하 도중 엄리대수에 가로막혔으나, 갈대와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어 도강(渡江) |
| 비류곡에 이르러 정도(定都)                             |
| 황룡을 밟고 승천(昇天)                               |
| 세자 유류왕, 대주류왕에 의한 계승                         |

〈광개토왕비문〉의 첫머리에는 고구려 건국설화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앞선 〈집안고구려비문〉에서와는 달리 건국설화의 기본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신성한 혈통을 갖고 있고 기이한 형태로 출생한(난생) 건국자가 북부여에서 나왔는데,南下 과정에 강에 막혔으나, 갈대와 자라가 다리가 되어 건

3 ‘천제(天帝)’를 의미한다고 보거나(여호규, 2013), 계루부(桂婁部)에 앞서 왕을 배출한 연노부(涓奴部)를 지칭할 가능성, 시조모(始祖母) 혹은 해모수(解慕漱)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조우연, 2013; 정호섭, 2014). 또 부여 시조 동명(東明)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장병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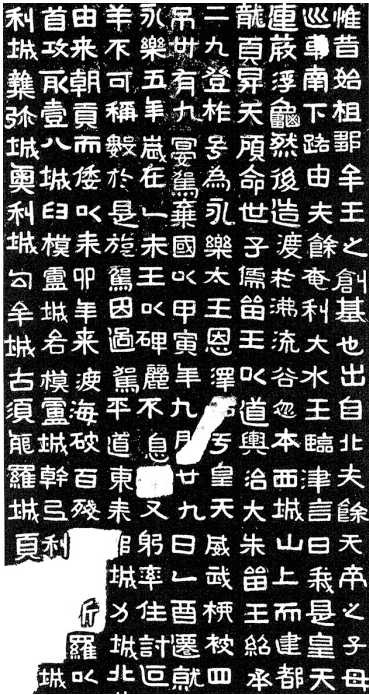


그림2 | 광개토왕비 탁본(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낼 수 있었고, 비류곡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으며, 후에 황룡을 타고 승천하고, 후손들이 그 기업(基業)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집안고구려비문〉에서 전하는 건국설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조 추모왕, 북부여 출자 → 신성한 혈통(천제지자, 하백녀랑) → 기이한 탄생(난생) → 남하 → 기적적 도강(갈대와 거북이) → 건국 → 승천 → 후손에 의한 왕위 승계

〈광개토왕비문〉 역시 금석문이라

는 성격상, 건국자에서 광개토왕에

이르는 국가 권력 계승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로서 건국설화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추모왕’ 명호, ‘북부여’ 출자, ‘천제지자, 하백녀랑’이라는 신성한 혈통, 신이한 도강 등 요소들이 등장해 주목된다.

### (3) 모두루묘지(5세기 전반, 장수왕대)

|                              |
|------------------------------|
| 핵심 내용                        |
| 신성한 혈통: 하박(하백)의 손자, 해와 달의 아들 |
| 명호: 추모성왕                     |
| 출자: 북부여                      |
| 모두루의 조상 또한 북부여에서 성왕을 수행해 도래  |
| 북부여 대형 염모(모두루의 조부로 추정)       |

모두루는 5세기 전반, 즉, 광개토왕-장수왕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부여수사(北夫餘守事) 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묘지에 가문 조상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왕실 시조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가문 조상과 왕실 시조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시조설화에 등장하는 북부여 출자 및 건국에 관한 언급인데, 모두루 가문의 조상이 왕실 시조인 추모왕과 더불어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를 고구려 왕실의 북부여 출자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도는 ‘현재’ 모두루 가문과 왕실의 ‘친밀한’ 관계 강조이다. 즉, 왕실과 동일한 가문 출자, 동반 건국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서술은 결국 ‘현재’적 친근성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조우연, 2010a).

따라서 모두루묘지에는 건국설화의 줄거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다만 여러 관련 요소가 확인될 뿐이다. 그중 주목되는 부분은 ‘추모성왕’이라는 건국자의 호칭, 하박(하백)의 손자이자 해와 달의 아들이라는 신이한 혈통 및 북부여 출자, 이주(혹 탈주) 건국 등 요소이다. 특히 4회에 걸쳐 ‘하박의 손자이자 해와 달의 아들’이라는 수식이 등장해 흥미롭다.

그 외, 고구려 출신인 천남산(泉男産)의 묘지명에서 “옛날에 동명이 기에 감응해 사천(澗川)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해에 감응해 잉태되었으



그림3 | 모두루묘지(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한국금석문)

니, 패수에 임해 도읍을 열었다(昔者, 東明感氣, 踰滌川, 而開國, 朱蒙孕日, 臨溟水, 而開都)”라고 하여, 간략하게 동명설화와 주몽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 (4)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554년)

핵심 내용

출자: 부여

인태: 하백의 딸이 햇빛에 감응해 인태(신성한 혈통-태양의 아들, 하백의 외손)

기이한 출생: 난생(卵生)

왕이 혐오해 유기(遺棄)→개, 돼지, 마소, 새들이 보호→계수용

주인공 명호: 주몽-선사(善射) 능력

부여인들의 모해, 말 사육 위임

동료 2명과 함께 동남쪽으로 탈주

큰 강에 막히자, ‘일자·하백외손(日子, 河伯外孫)’이라는 신분을 밝힘으로써 도움 호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도강(渡江)

보술수에서 세 인물이 합류

고구려 건국

『위서』 고구려전에는 건국부터 양  
원왕 전후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  
다. 이 내용은 장수왕 23년(435년)에  
처음 고구려에 사절로 파견된 북위  
(北魏) 사신 이오(李敖)의 견문(서영대,  
1997) 및 그 후 수차례의 사신 왕래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  
이다. 따라서 당대의 상황과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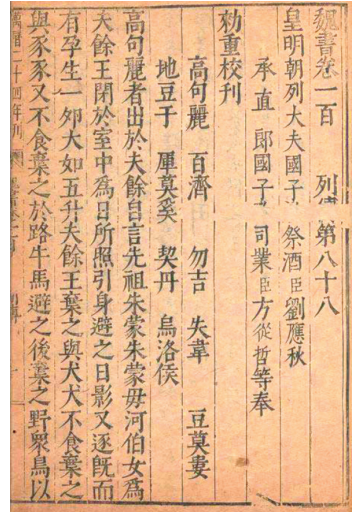


그림 4 『중수21사(重修二十一史)』  
(南京國子監刊本)

『위서』 고구려전은 시작 부분에서  
고구려 건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는데, 설화로 전해지는 주몽의 건국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수록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정사(正史) 자료가  
기도 하다. 즉, 고구려를 처음 전(傳)으로 수록한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  
(三國志)』에는 고구려 건국설화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6세기 중  
반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위서』에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위서』에 수  
록된 고구려 건국설화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주서(周書)』,  
『북사(北史)』, 『수서(隋書)』 등 후대 정사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 외,  
『속일본기(續日本記)』 권40에서도 “백제의 먼 조상 도모왕(都慕王)은 하백  
의 딸이 태양의 정기에 감응하여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 역시 주몽탄생  
설화로 짐작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구려 당대 금석문에서 건국설화가 더 이른 시기  
에 언급되고 있으나, 금석문이라는 특성상 그 내용이 아주 소략하다. 그  
에 비해 『위서』에서는 완전한 줄거리를 갖춘 비교적 자세한 건국설화를

전하고 있어, 이른 시기 전승 형태 내지는 편찬 당시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위서』에서 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 주몽, 부여 출자 → 신성한 혈통(日子, 河伯外孫)과 신이한 잉태(感日) → 기이한 출생(난생) → 혐오·유기 → 짐승 보호 → 재수용 → 선사(善射) 능력 → 부여인의 박해 → 동료들과 동남쪽으로 동반 도주 → 기적적 도강(물고기, 자라) → 세 인물의 합류 → 건국

(5)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시조동명성왕(1145년)

| 핵심 내용                   |   |
|-------------------------|---|
| 동부여<br>금와왕설화 및<br>해부루설화 | 부여왕 해부루(解夫婁)가 신이한 과정을 거쳐 금와(金蛙)를 얻어 후계자로 지정                                     |
|                         | 신탁(神託)을 통해 동해가로 도읍을 옮겨 동부여(東扶餘) 건립  |
|                         |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옛 도읍에 도래   |
|                         | 금와왕이 해부루를 이어 동부여왕에 등극   |
| 고구려 건국설화                | 금와왕이 우발수(優渤水)에서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을 얻음  |
|                         | 유화의 해명: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피어 몰래 사통하므로 하백에 의해 추방                                       |
|                         | 신이한 잉태: 금와왕이 유화를 방에 유폐(幽閉), 햇빛이 비취 잉태   |
|                         | 신이한 출생: 난생(卵生)  |
|                         | 왕이 유기 → 개, 돼지, 소, 말, 새들이 보호, 쫓겨려 했으나 실패 → 재수용                                   |
|                         | 명호: 주몽[선사(善射) 능력으로 인해 득명]   |
|                         | 왕자들의 시기, 말 사육 위임 받고 양마(良馬) 취득   |
|                         | 부여인들의 모해를 피해 동료 3명과 함께 탈주   |
|                         | 엄호수(淹漉水)에 막혀 '천제자, 하백손(天帝子, 河伯孫)'이라는 신분을 밝힘으로써 도움 호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도강(渡江) |
|                         | 모둔곡에 이르러 세 인물이 합류   |
| 졸본(卒本)에 이르러 건국          |   |

| 핵심 내용    |                                   |
|----------|-----------------------------------|
| 고구려 건국설화 | 비류국(沸流國) 송양왕(松讓王)과의 대결을 통해 비류국 병합 |
|          | 아들 유리(琉璃)가 동부여에서 도래               |
|          | 승하(昇遐)                            |

(6)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1193년)

| 핵심 내용                   |  |
|-------------------------|--|
| 동부여<br>금와왕설화 및<br>해부루설화 | 부여왕 해부루가 신이한 과정을 거쳐 금와를 얻어 후계자로 지정   |
|                         | 신탁을 통해 동해가로 도움을 옮겨 동부여 건립  |
|                         |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늘에서 옛 도움으로 강림,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통치                                |
|                         | 웅심연(熊心淵)에서 유화 등 하백의 세 딸과 조우  |
|                         | 해모수가 신이한 능력으로 하백과의 대결에서 승리, 유화와 혼인   |
|                         | 해모수 홀로 승천, 유화는 하백에 의해 우발수로 추방  |
| 고구려 건국설화                | 금와왕이 물속에서 괴물 형상의 유화를 얻어, 자초지종을 듣고 별궁에 유폐                                   |
|                         | 신이한 잉태: 햇빛을 품고 잉태  |
|                         | 신이한 출생: 난생(겨드랑이로 알을 낳음)  |
|                         |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유기→짐승들과 햇빛이 보호→재수용   |
|                         | 명호: 주몽(선사 능력으로 인해 득명)  |
|                         | 금와왕 왕자들의 시기와 모해, 말 사육 위임   |
|                         | 어머니에게 부여 탈출 의사 피력, 도움을 얻어 양마(良馬) 취득  |
|                         | 동료 3명과 함께 남쪽으로 탈주  |
|                         | 엄체(淹滯)에 막혀 '천손, 하백 외손(天孫, 河伯甥)' 신분을 밝힘으로써 도움 호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도강(渡江) |
|                         | 유화가 비둘기를 통해 오곡 종자 전달   |
|                         | 졸본에 이르러 건국   |
|                         | 비류국 송양왕과의 대결에서 승리; 주술(呪術)을 통해 비류국 항복                                       |
|                         | 하늘이 왕을 위해 궁궐과 성 축조   |
|                         | 아들 유리가 동부여에서 도래  |
| 승천하여 옥채찍을 대신 용산(龍山)에 장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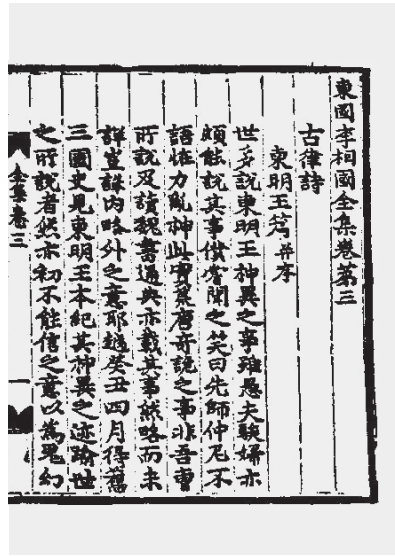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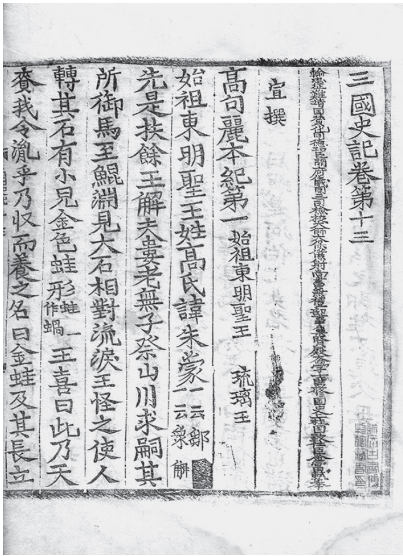


그림5 | 정덕본(正德本) 『삼국사기』(좌)와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병서(并序)(우)

『삼국사기』와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등 고려시대에 편찬된 건국 설화는 앞의 단편적인 자료들과는 달리 아주 장편이며, 내용이 훨씬 더 소상하고 풍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대개 『구삼국사(舊三國史)』 동명왕 본기에 수록된 내용에 근거해 적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규보(李奎報)는 자신은 『구삼국사』를 직접 보고 이에 근거해 찬술한 반면, 김부식은 국사(國史)를 편찬하면서 신이한 요소를 제거하고 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 텍스트 중 내용이 가장 풍부한 자료는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참조한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본문 및 주석문이고,<sup>4</sup>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늦은 시기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하며,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는 「동명왕편」과 맥을 같이

한다(홍기문, 1964).

다만 문제는, 이상 고려시대 및 그 이후 관련 자료들이 파생된 『구삼국사』의 실체이다. 현재 『구삼국사』는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정확한 편찬 시점이나 편찬자에 대해 알 수 없다.<sup>5</sup> 일본이나 중국 학계에서 고려시대 이후 문헌 속 설화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하튼 이들 고려시대 이후 찬술된 고구려 건국설화의 특징은 풍성한 내용 구성인데, 단순히 고구려 건국설화 내용이 소상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설화가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 건국설화에 앞서 동부여 금와왕설화, 해모수설화가 접합된 것이다. 따라서 건국자의 출자, 등장인물과의 관계 설정도 달리 나타나는데, 건국자는 동부여 출자로 되어 있으며, 혈연 계보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의 아들, 즉 천손(天孫)으로 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여 금와왕설화 및 해부루설화] 부여왕 해부루의 신이한 금와왕 취득  
→ 신탁에 의해 동부여 이도(移都) → 천제 아들 해모수의 강림: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혼인(사통) 및 유화의 수난 → [고구려 건국설화] 동부여 금  
와왕이 유화를 얻어 방에 유폐 → 신성한 혈통(天孫, 河伯甥) 및 신이한 잉태  
(햇빛) → 기이한 출생(난생) → 혐오·유기 → 짐승 보호 → 재수용 → 선사  
(善射) 능력 → 금와왕 왕자들의 시기와 박해 → 말 사육 위임, 양마 취득 →

4 「동명왕편」에는 문학적 수식이 가해진 데 비해,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이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이복규, 1979).

5 대개는 고려 초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정구복, 1993), ‘삼국’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시대 역사를 다룬 사서로 짐작된다.

동료들과 동반해 남쪽으로 도주 → 기적적 도강(물고기와 자라) → 건국 → 송양왕과의 대결(혹 신이한 능력) 통해 비류국 병합 → 유리 도래 및 승하 (승천)

## 2)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형과 원형

이상 살펴본 고구려 건국설화를 수록한 주요 문헌 및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중심 요소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듯이,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형은, 우선 자료 성격을 기준으로 고구려 당대 금석문, 중국 정사를 비롯한 중국 문헌, 고려시대 이후 편찬된 한국 전통시대 문헌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출자를 기준으로서는 북부여 출자, 부여 출자, 동부여 출자 등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그다음, 주인공의 명호를 기준으로서는 추모(추모왕), 주몽, 동명성왕 주몽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그다음, 주인공의 혈통을 기준으로서는 크게 천자[天帝之子(皇天之子), 日月之子, 日子], 천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가 복잡한 듯 보이나, 사실 자료 성격에 따라 아주 단순하게 구분된다.<sup>6</sup>

- 유형 I: 4세기~5세기 고구려 금석문에서는 고구려 건국자의 출자를 ‘북부여’로, 그리고 명호는 ‘추모’로, 혈통을 ‘천제지자(혹 일월지자)’로 기술하고 있다.

6 역사학계에서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고구려 당대의 금석문 자료, 그리고 『위서』를 시작으로 하는 중국의 여러 문헌 및 『삼국사기』 등 고려시대 이래의 국내 전승자료로 유형을 구분한다(임기환, 2008a).

표1 고구려 건국설화 수록 주요 문헌에 나타나는 중심 요소

| 유형  | 자료             | 연대     | 자료 성격       | 출자  | 주인공 명호              | 주인공 혈통                             | 잉태 출생                                 |
|-----|----------------|--------|-------------|-----|---------------------|------------------------------------|---------------------------------------|
| I   | 집안고구려비         | 광개토왕대  | 고구려<br>금석문  |     | 始祖鄒牟王               | □□□子<br>河伯之孫                       |                                       |
|     | 광개토왕비          | 414년   | 고구려<br>금석문  | 북부여 | 始祖鄒牟王               | 天帝之子<br>母河伯女郎;<br>皇天之子             | 剖卵降世                                  |
|     | 모두루묘지          | 5세기 전반 | 고구려<br>금석문  | 북부여 | 鄒牟聖王                | 河泊之孫<br>日月之子                       |                                       |
| II  | 위서             | 554년   | 중국 정사       | 부여  | 朱蒙                  | 日子<br>河伯外孫                         | 爲日所照;<br>既而有孕;<br>生一卵                 |
|     | 주서             | 636년   | 중국 정사       | 부여  | 朱蒙                  | 河伯女                                | 感日影所孕                                 |
|     | 수서             | 656년   | 중국 정사       | 부여  | 朱蒙                  | 河伯外孫<br>日之子                        | 日光;<br>感而遂孕;<br>生一大卵                  |
|     | 북사             | 659년   | 중국 정사       | 부여  | 朱蒙                  | 日子<br>河伯外孫                         | 爲日所照;<br>既而有孕;<br>生一卵                 |
|     | 천남산묘지명         | 702년   | 중국<br>금석문   |     | 朱蒙                  |                                    | 孕日                                    |
|     | 통전             | 801년   | 중국 사서       | 부여  | 朱蒙                  | 母河伯女                               | 爲日所照;<br>遂有孕而生                        |
| III | 삼국사기           | 1145년  | 고려시대<br>사서  | 동부여 | 朱蒙, 鄒牟,<br>象解(東明聖王) | 天帝子<br>河伯外孫<br><br>* 실제 계보는<br>天帝孫 | ①解慕漱+柳花;<br>②爲日所照;<br>因以有孕;生一卵        |
|     | 동국이상국집<br>동명왕편 | 1193년  | 고려시대<br>시문집 | 동부여 | 朱蒙<br>(東明王)         | 天孫<br>河伯甥天                         | ①解慕漱+柳花;<br>②懷膈中日曜,<br>因以有娠;<br>左腋生一卵 |
|     | 삼국유사           | 1280년대 | 고려시대<br>사서  | 동부여 | 朱蒙                  | 天帝子<br>河伯孫                         | ①解慕漱+柳花;<br>②爲日光所照;<br>因以有孕;生一卵       |
|     | 제왕운기           | 1287년  | 고려시대<br>사서  | 부여  | 朱蒙                  | 父解慕漱,<br>母柳花;<br>皇天之孫<br>河伯甥       | 五升大卵左脇誕                               |
|     | 세종실록<br>지리지    | 1454년  | 조선시대<br>사서  | 동부여 | 朱蒙                  | 天帝之孫<br>河伯之甥                       | ①解慕漱+柳花;<br>②懷膈中日曜,<br>因而娠;<br>左腋生一大卵 |

- 유형 II: 『위서』(6세기)를 시작으로 하는 중국 문헌에서는 건국자의 출자를 ‘부여’로, 명호를 ‘주몽’으로, 그리고 혈통을 ‘천제지자’와 동일한 의미의 ‘일자’로 전하고 있다.
- 유형 III: 고려시대(12세기) 이후 편찬된 한국 전통시대 문헌에서는 건국자의 출자를 ‘동부여’로, 명호를 ‘주몽(동명성왕)’으로, 혈통을 ‘천손’으로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건국 시점이 기원전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문헌인 4세기~5세기 고구려 금석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화의 원형은 무엇일까? 그리고 원형과 이들 세 유형 문헌 사이의 전승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고구려 건국설화의 원형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부여(夫餘) 건국설화인 동명(東明)설화와의 유사성에 주목해왔다. 부여의 동명설화는 고구려 건국전승에 비해 훨씬 앞선 문헌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후한(後漢) 장제(章帝) 원화(元和) 3년(86년)에 왕충(王充)이 편찬한 『논형(論衡)』 길험편(吉驗篇)에 부여 동명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부여 건국설화는 『논형』을 시작으로 『삼국지』 부여전 소인(所引), 『위략』(3세기), 『수신기(搜神記)』(4세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줄거리가 고구려 건국설화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이 두 설화의 관계가 주목되었으며, 혹자는 두 설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혹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복규, 1991).

사실 전통시대부터 두 설화의 동일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이해가 있어 왔다. 고려시대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두 전승을 동일한 설화로 판단한 데 비해, <친남산묘지명>에서는 별개의 설화로 이해했다. 즉, 『삼국유사』 고구려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림전(珠林傳)』에 수록된 부여 건국설

표2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설화 비교

| 부여 건국설화(『논형』)                                  | 고구려 건국설화(『위서』)   | 비교 |
|--|--|----|
| 출자: 탁리국(挾離國)                                   | 출자: 부여(夫餘)   | 차이 |
| 기이한 잉태: 왕의 시비가 하늘에서 내려 온 기운에 의해 임신(부-신성, 모-평범) | 기이한 잉태: 하백의 딸이 햇빛에 감응(신성한 혈통-태양의 아들·하백의 외손)                                  | 차이 |
| 평범한 출생: 아들 출산, 태생(胎生)                          | 기이한 출생: 난생(卵生)   | 차이 |
| 유기했으나, 돼지, 말이 보호, 하늘의 아들이라 여겨 재수용              | 기왕이 혐오해 유기했으나, 개, 돼지, 말, 소, 새들이 보호, 재수용                                      | 유사 |
| 명호: 동명(東明)                                     | 명호: 주몽(朱蒙)   | 차이 |
| 소와 말 사육 담당                                     | 말 사육 담당  | 유사 |
| 선사 능력  | 선사 능력  | 유사 |
| 부여왕의 모해를 피해 남쪽으로 탈주                            | 부여인들의 모해를 피해 동료 2명과 함께 동남쪽으로 탈주  | 유사 |
| 큰 강에 가로막혔으나,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도강(渡江)  | 큰 강에 막히자, '일자, 하백외손(日子, 河伯外孫)'이라는 신분을 밝힘으로써 도움 호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도강(渡江) | 유사 |
| 부여 건국  | 고구려 건국   | 차이 |

화를 소개하면서, 주석을 붙여 고구려를 ‘졸본부여’라고도 했으므로, 동명설화를 고구려 건국설화로 이해했다. 그에 비해 <천남산묘지명>에서는 “옛날에 동명이 기에 감응해 사천(澗川)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해에 감응해 잉태되었으니, 패수에 임해 도읍을 열었다”라고 하여 동명과 주몽을 별개의 인물로 인식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근현대 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나카 미치요는 『논형』에 수록된 부여 건국설화는 고구려 건국설화가 와전된 것이라고 보았다(那珂通世, 1894). 이병도 역시 『논형』에 수록되어 있는 부여 건국설화는 사실상 주인공이 탁리국을 탈출해 부여를 건국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여를 탈출해 탁리국, 즉 고구려를 건국한 것이라고 보았다(이병도, 1959). 그 후 이 같은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지되었으며(김상기, 1964; 홍기문, 1964; 박두포, 1968), 김육불(金毓黻)을 대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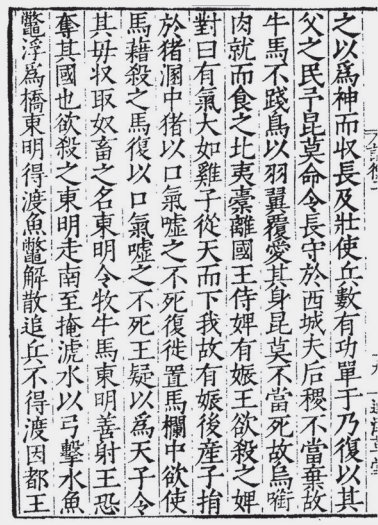


그림 6 | 『논형』 길험편

하는 중국 학계에서도 동일설(同一說)이 제기되었다(金毓黻, 1941; 張博泉·魏存成, 1997; 李大龍, 2005; 李新全, 2010).

이 같은 동일설의 근거는 『논형』에 보이는 탁리를 『위략』, 『수신기(搜神記)』에서는 고리(藁離)로, 『후한서』에서는 색리(索離)로, 『양서(梁書)』에서는 고리(藁離)라고 썼는데, 자형(字型)이나 독음(讀音)이 고구려를 약칭하는 구려(句麗)와 흡사하다는 점,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시조 왕호

를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고 하여 모두 동명으로 호칭되었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양서』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의 조상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논형』의 부여 건국설화만 전제하고, 고구려 건국설화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과는 달리, 시라토리 구라키지는 부여와 고구려 건국설화를 별개의 전승으로 보았다. 부여 시조설화가 먼저 형성되어 있었고, 후대에 고구려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부여 시조설화를 자신들의 건국설화로 개작했다는 것이다(白鳥庫吉, 1936). 이케우치 히로시는 두 설화는 별개의 것이고, 주인공 또한 달리 보아야 한다고 구라키지의 개작설을 비판하기도 했다(池內宏, 1941). 한편, 김정학은 두 설화가 동일 계통임은 인정하면서 부여의 분열과 함께 고구려의 것으로 변형,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김정학, 1948). 이홍직은 부여와 고구려는 이동 건국의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조 신성관념도 비슷하므로, 두 건국설화가 대동소이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각자의 독자성을 강조했다(이홍직, 1959). 그 외,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비슷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박시인, 1966; 이옥, 1972; 김철준, 1975; 이복규, 1979, 1982) 현재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 학계에서도 부여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고구려 건국설화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설화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劉永祥, 1988; 李德山, 1996; 劉子敏, 1996; 魏存成, 2001; 耿鐵華, 2005).

두 설화는 비록 여러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인공의 명호(동명/주모, 주몽), 출생 방식(태생/난생), 사후 승천(昇天) 여부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따라서 현재 학계에서는 두 설화를 엄연히 다른 두 고대국가의 건국을 전하는 별개의 설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서사구조상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두 설화의 선후 순서를 감안해 부여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고구려 건국설화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구려 건국설화는 부여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 설화의 여러 유형은 가장 이른 시기 문헌인 『논형』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문헌 편찬 선후 순서에 따라 고구려 건국설화 계통의 전개를 『논형』→〈광개토왕비문〉→『위서』로 보거나(김정학, 1948), “『논형』→〈광개토왕비문〉→『위서』→『고기(古記)』(『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로 보기도 한다(박두포, 1968). 또 내용의 상세 정도에 따라 『구삼국사』→『삼국사기』→『삼국유사』를 간략형으로, 『구삼국사』→「동명왕편」→『세종실록지리지』를 상세형 계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홍기문, 1964). 한편, 부여와 고구려 건국설화가 별개의 설화임을 전제로 주인공 명호에 따라 동명계(東明系)와 주몽계(朱蒙系)로 문헌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이복

표3 고구려 건국설화 문헌 유형 및 전승 관계

| 유형 및 계승 관계 | 현전 문헌 자료  |
|------------|---|
| 『논형』       | 1세기 『논형』 → 『위략』, 『수신기』 등에 수록된 부여 건국설화   |
| ↓          |   |
| 유형 I       | 4세기~5세기 고구려 금석문(〈집안고구려비문〉, 〈광개토왕비문〉, 〈모두루 묘지명〉)   |
| ↓          |   |
| 유형 II      | 6세기 『위서』 → 『주서』, 『수서』, 『북사』, 『통전』 등 중국 문헌   |
| ↓          |   |
| 유형 III     | 간략형: 『구삼국사』 → 『삼국사기』(12세기), 『삼국유사』(13세기)<br>상세형: 『구삼국사』 → 『동명왕편』(12세기),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

규, 1979).

표2에서 고구려 건국설화를 담고 있는 문헌 계통의 전승 관계를 정리했는데, 사실상 유형 I과 II는 건국자 출자, 명호 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고구려 건국설화로 일관되어 있으며, 혈연관계도 천신(天神) → 건국자라고 하여 비교적 단선적이다. 문제는 유형 II와 유형 III의 전승 관계인데, 고구려 건국설화에 앞서 동부여 금와왕설화와 해모수설화가 접합되어 있어, 건국자의 출자와 혈연계보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건국자의 출자는 동부여로, 혈통은 천신 → 해모수 → 건국자로 설정되어 한 세대 늘어난 형태로 변모된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전승 형태로 미루어 4세기~5세기 금석문이나 6세기 『위서』 찬술 무렵에는 아직 동부여 금와왕, 해모수 설화가 접합되지 않았고, 이들 요소는 후대(고구려당대 설과 고려시대설로 양분)에 접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나, 유형 II와 III의 전승 관계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즉, 『논형』의 부여 건국설화를 원형으로 하여 고구려 건국설화가 창출되었으며, 고구려 금석문과 중국 정사에 수록되어 하나의 계통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나 『동명왕

편」 등 한국 전통시대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는 고려시대 이후에 ‘한국적’인 문화요소들이 터무니없이 접합되어 재창조된 계통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曹德全, 2001). 이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단지 이민족 국가의 연원을 설명하기 위한 간략한 언급에 불과하고, 한국 문헌에 전하는 내용이야말로 스스로 신성한 건국전승을 문헌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서대석, 2004).

그 외, 일각에서는 『논형』 계통을 시초로 후대 여러 전승이 파생되었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기이한 탄생 → 혐오·유기 → 짐승의 보호 → 재수용’이라는 설화 구조는 주(周)나라의 시조 후직(后稷)설화나, 서언왕(徐偃王)설화 등에서도 확인되며, 또 선비(鮮卑) 단석괴(檀石槐)설화나, 신라 석탈해(昔脫解)설화에서도 유사한 모티프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 건국설화에서 공유하고 있는 일부 설화적 모티프를 근거로 양 계통의 전승 관계를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건국설화는 『논형』의 부여 건국설화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계루부(桂婁部) 왕실 시조전승(외래인 출신의 조상 기억) → 4세기~5세기 고구려 금석문(‘부여출자’ 추가) → 『위서』(부여 건국설화와 유사한 구조로 변모) → 『삼국사기』 등 고려시대 이후 문헌(고구려 및 고려시대에 걸쳐 변형된 전승들의 취합)으로 그 유형과 파생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조우연, 2010b).

### 3)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유사 설화

앞서 살펴봤듯이, 『논형』에 수록되어 있는 부여 건국설화는 고구려 건국설화와 줄거리가 유사하며 여러 설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사실 이 두 설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사회에 비슷한 구조나 모티프를 가진 설화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구려 건국설화의 문화적 연원에 관한 일부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7</sup>

| 설화                   | 핵심 내용   |
|----------------------|---|
| 주(周)나라 시조 후직(后稷)설화   | 신이한 잉태(거인의 족적을 밟고 감응) → 혐오·유기 → 짐승들의 보호 → 재수용 |
| 서언왕(徐偃王)설화           | 난생  |
|                      | 신이한 출생 → 유기 → 짐승 보호 → 재수용<br>활[弓]과 호칭의 연관성    |
| 신라 석탈해(昔脫解)설화        | 난생  |
|                      | 유기 → 재수용                                      |
| 선비(鮮卑) 단석괴(檀石槐) 출생설화 | 신이한 잉태(우박을 삼키고 감응)                            |
|                      | 유기  |
| 은(殷)나라 시조 설(契)설화     | 신이한 잉태(알을 삼키고 감응)                             |
|                      | 삼인(三人) 목욕                                     |

은나라 설출생설화는 앞의 설화들에 비해 부여나 고구려 건국설화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나, 사실 알(卵)이나 궁인의 기이한 잉태 등은 부여 건국설화와 닮아 있으며, ‘세 인물의 목욕’은 고구려 건국설화에 등장하는 웅심연가의 해백의 세 딸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은의 기원을

7 원문 및 번역문은 이 책 225쪽 <참고자료> 참조.

만주 지역에서 찾기도 한다(傅斯年, 1933). 한편, 이 설화를 근거로 부여나 고구려의 기원을 은에서 찾고자 하기도 한다(耿鐵華, 2002; 2005). 그의 진(秦)나라 조상설화 또한 마찬가지로 검은 새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설화                               | 핵심 내용                                       |
|----------------------------------|---|
| 청(淸) 태조(太祖) 조상설화<br>[불고륜(佛庫倫)설화] | 선녀 세 자매 목욕<br>신이한 잉태(까치가 물어온 붉은 과일을 삼키고 감응) |
| 몽골 칭기즈칸 조상설화<br>[알랑고아(阿蘭豁阿)설화]   | 기이한 잉태(빛에 감응)<br>혈통: 천자(天子)                 |
| 백제 조상설화                          |   |

사실, 『수서』 등 중국 문헌에서는 백제 역사를 다루면서 그 조상 동명이 고려국(高麗國), 즉 고구려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부여 건국설화와 흡사한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 즉, 부여 시조 주인공의 출자를 탁리국 대신 고려국으로 바꿔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전승이 특정 시기 백제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중국 찬자가 자의적인 이해에 기초해 지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속일본기(續日本記)』에서는 도모왕(都慕王)을 백제 시조라고 전하는데, 이를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왕으로 보아, 백제가 고구려와 동일한 시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도모와 추모는 비록 모두 하백녀가 태양에 감응하여 출생했다고는 하나 별개의 설화로서, 도모대왕설화는 백제의 독자적인 시조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2008b).

이상에서 고구려 건국설화와 유사한 모티프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설화들을 간략하게 살폈다. 신이한 감응(감정) 잉태, 난생, 기아(棄兒) 등 문화적 요소들이 비단 부여나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시대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설화의 원형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여 건국설화 또한 그보다 오래된 문화적 연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것을 특정 집단 고유의 문화적 요소로 취급해 족속 구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집단의 기원을 유추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 건국설화와 은(殷)·주(周) 조상설화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구려의 종족적 기원이나 문화적 뿌리를 중원지역에서 찾고자 한다(姜維東, 2009; 張碧波, 2010). 반면에 한국 학계에서는 설화에 등장하는 일광감정(日光感精)과 같은 몽골, 만주 등 북방지역에서 널리 나타나는 감생 설화적 요소(三品彰英, 1971), 신라, 가야 설화 등에 나타나는 난생 요소를 들어 고구려가 중원과 구별되는 집단임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설화의 유사성에 근거해 부여에 혈연적 내지는 종족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범부여족을 상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유사한 설화적 모티프를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시기, 특정 정치 목적에서 여러 집단들이 부여 계승을 표방하고 또 부여를 공통분모로 일종의 범부여 집단 의식이 형성되면서 설화의 차용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설화에 ‘부여 출자’를 비롯한 부여와 연관된 요소가 등장하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하고, 또 적극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학계에서는 부여, 고구려, 백제의 종족 계통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화적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체성 의식의 형성 시점과 원인, 다시 말해, 고구려나 백제가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에서 부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고구려 건국설화의 단계적 정립과 변형

### 1) 설화의 전개 양상

현재로서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정립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 앞에서 언급한 문헌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후대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가 건국될 무렵인 기원전 1세기경 혹은 조금 늦은 시기에 기록된 고구려 설화 관련 문헌자료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한편 설화의 구전(口傳) 특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설화의 정립 시기를 놓고 연구자들 사이에 인식의 편차가 있어 왔다.

고구려 건국설화의 정립 시점과 관련해 대개 두 가지 학설이 있어 왔다. 하나는 고구려 초기형성설이고, 다른 하나는 4세기~5세기형성설이다. 즉, 전자는 고구려 건국 초기 주몽과 더불어 부여를 탈출한 세력에 의해 신성한 시조왕에 대한 숭배 관념이 형성되고, 그 일환으로 부여 동명설화를 모델로 건국설화가 창출되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고구려 중기에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부여설화를 차용해 창조되었음을 주장한다. 한편, 동부여설화가 접합되어 나타나는 설화 형태(유형 III)에 대해, 고구려 중·후기(서영대, 1991; 노태돈, 1993; 김기홍, 2007) 또는 고구려 멸망 후(津田左右吉, 1922) 혹은 고려시대(중국 학계의 보편적 인식)에 재정립된 것이라고 보는 한편, 정치적 목적에서 후대에 개작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임기환, 1998; 윤성용, 2005).

구체적으로, 초기형성설에서는 제3대 왕인 대무신왕 3년조(20년)의 동명묘(東明廟) 설립 기사를 ‘주몽사당’ 건립으로 해석해, 이를 근거로 고구려 초기에 이미 건국설화의 골격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김기홍, 2001; 이종욱, 2004; 윤성용, 2005). 또 태조대왕대에 주몽 숭상의

식이 대두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거나(이종태, 1990), 태조왕 시기 고구려로 이주해 계루부와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부여인들이 창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範恩實, 2013).

한편, 3세기 문헌인 『삼국지』 고구려전에 수록되어 있는 ‘동맹제(東盟祭)’라는 제천(祭天)의례에 주목해, 이를 신성한 시조설화를 재연한 의식으로 해석하면서(김기흥, 2001; 서영대, 2003; 최광식, 2007) 건국설화가 3세기 고구려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3세기의 제천의례를 건국설화의 재연으로 해석할 만한 논거가 미흡하고(여호규, 2011), 또 당시 비(非)혈연 나부연맹체제하에서 여러 나부 사이의 혈연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혈연을 상징하는 ‘인귀(人鬼)’계 신격이 국가의례의 중심에 표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조우연, 2010c; 2011). 일각에서는 고구려 동맹제를 주몽이 아니라 부여의 동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노명호, 1981; 강경구, 2001; 박승범, 2001; 장병진, 2016), 마찬가지로 연맹체제 속에서 ‘혈연’정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고구려 중기형성설에서는 대개 소수림왕대(371~384년) 체제 정비와 연관시켜 왕실의 권위를 고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건국설화가 정비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노태돈, 1993). 한편, 미천왕대(301~331년) 부여집단에 힘입어 왕위에 등극, 국난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보고, 이 무렵에 부여 출자를 모티프로 하는 시조설화가 창출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李成市, 1989). 또 일찍부터 광개토왕대(391~412년)나 장수왕대(413~491년)에 창출되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白鳥庫吉, 1936; 耿鐵華, 2005). 즉, 고구려는 북쪽의 북부여, 동쪽의 동부여, 그리고 부여 출자를 표방한 남쪽의 백제 등 부여 계통 집단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 부여설화를 개작해 자체 설화를

정립 및 부여계의 ‘종가(宗家)’로 자부했다는 것이다. 한편, 5세기 이후 개작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조우연, 2010b), 왕실 나름대로 독자적 형태의 시조전승이 있었고, 5세기 이후 친(親)왕실집단의 취합을 목적으로 부여의 동명설화와 유사한 형태로 개작되어 『위서』를 비롯한 6세기 이후 문헌에 수록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고구려를 전(傳)으로 기록한 중국 정사(正史)는 280년대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찬술한 『삼국지』인데, 고구려 건국설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그보다 한참 후대인 445년에 완성된 『후한서』 고구려전에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동이의 옛말에 부여 별종이라고 한다(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라는 언급이 있고, 『후한서』 고구려전에는 “동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부여 별종이라고 한다(東夷相傳, 以爲夫餘別種)”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구어(舊語)’란 곧 설화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는 곧 주몽집단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고구려를 건국한 설화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헌에서 고구려를 부여 별종이라고는 했더라도, 고고학적으로 양 지역 문화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송화강 유역의 부여민이 압록강 중류 일대로 남하했다고 직접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田村晁一, 1990).

『삼국지』에서 고구려 제반 사항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건국전승을 누락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에 비해, 부여전에는 『위략』을 인용해 부여의 동명설화(건국설화)를 주석으로 붙였다. 『후한서』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전에 동명설화를 수록했으나, 고구려전에는 건국설화가 누락되어 있다. 즉 앞서 자료 계통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부여 건국설화는 일찍이 1세기 문헌에 이미 수록되어 나타나나, 고구려는 건국된 지 3세기가 경과한 무렵에도 문자로 채록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4세기~5세기 무렵에 이르러 고구려 왕실의 조상 관념, 즉 선왕(先王) 세계(世系)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태조대왕을 정점으로 하던 종묘체계가 장수왕대에는 주몽을 정점으로 정비된다(조인성, 1990; 조우연, 2010a). 그리고 소수림왕대(이기백, 1976; 井上秀雄, 1976), 혹은 그보다 조금 이른 미천왕대에 『유기(留記)』라는 고구려 초기 역사서가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8</sup> 거기에 새롭게 정립된 초기 왕계가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에 앞선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아직 현전하는 형태의 주몽을 시조로 하는 건국설화가 정립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국설화가 언급되어 있는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텍스트는 광개토왕대인 4세기 말~5세기 초에 입비된 <집안고구려비>이다. 이는 4세기 후반, 즉 소수림왕 무렵에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부여의 동명설화를 차용해 고구려 건국설화를 정립했다는 앞선 시기 주장(노태돈, 1999)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건국된 기원전 1세기에서 4세기 후반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 건국 내지는 왕실 조상에 관한 설화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일까?

현재로서는 현전하는 형태의 고구려 건국설화의 정립 시기를 4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건국설화는 문학작품처럼 단기간에 창작 및 배포될 수는 있는 개념은 아닌데, 그에 대한 집단인식의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세기 이전에 ‘외래인(外來人)에 의한 건

---

8 혹자는 미천왕대, 즉 4세기 전반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조우연, 2019).

국'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골조를 갖춘 나뉠대로의 왕실 시조전승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초기의 왕실 조상설화가 고구려를 구성한 연맹체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공인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외래인에 의한 건국’이라는 설화의 기본 줄거리는 고구려 왕실인 계루부집단의 외래적 성격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른 시기 연구에서 이미 계루부의 외래설이 제기된 바 있다(池內宏, 1941). 또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연노부(涓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 등 5부연맹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들 중 계루부만 ‘노(奴)’가 들어가 있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sup>9</sup> 이는 계루부가 외래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노태돈, 1993). 따라서 외래집단인 계루부는 초기부터 본국의 박해를 피해 도주한 ‘외래인 왕자(王子)에 의한 건국’이라는 독자적인 조상전승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조우연, 2010b). 한편, 이 같은 전승 줄거리의 유사성은 훗날 부여의 동명설화를 차용해 건국설화를 재정립할 수 있었던 집단인식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2세기~3세기 고구려 왕실에서는 ‘부여 출자’임을 표방하지 않았으며(노태돈, 1993), 단지 ‘외래 출자’에 대한 역사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왕실에서 전승된 건국설화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무렵에 이르러, 미천왕, 고국원왕대의 적극적인 대외 공략은 왕실 위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천왕은 선대왕 조카의 신분으로 정변세력에 의해 추대되었다는 왕위 계승 적법성의 한계를 지녔고,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투쟁에서 전사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이에 이어지

9 ‘노(奴)’는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형성된 고유의 토착집단, 즉 각 지역별 강변이나 계곡 지대에서 형성된 정치체의 단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三品彰英, 1953).

는 소수림왕대에 제반 체제 정비와 역사서 찬술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고,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건국설화가 새롭게 정비되었던 것 같다.

즉,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앞선 시기 왕실에서 전승되어온 원초적 형태의 설화가 5세기 금석문(유형 I)에 수록된 형태의 설화로 개작되어 비석이라는 ‘항구성(恒久性)’을 지닌 기념물에 문자로 명기(銘記)되어 고구려 구성원 전체에 널리 선양(宣揚)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초적 형태의 설화가 단지 ‘외래인 왕자에 의한 건국’이 기본 줄거리였다면, 이 시기 개작된 설화에는 ‘북부여(北夫餘)’라는 시조의 출자 내지는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며, ‘천제의 아들, 어머니는 하백의 딸(天帝之子, 母河伯女郎)’이라는 신성한 혈통이 강조되었고, 또 기적적인 도강(渡江)과 같은 부여 동명설화와 유사한 설화적 모티프들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당시까지만 해도 부여 동명설화의 적극 차용은 감지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6세기에 편찬된 『위서』에 수록된 설화(유형 II)를 체제 정비 후 새롭게 정립된 건국설화의 내용으로 보아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5세기 금석문의 시조설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2008a). 하지만 양 문헌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여의 동명설화 차용 여부인데, 5세기 금석문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차용 단서가 잘 드러나지 않으나, 6세기 『위서』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모되어 있다. 따라서 두 계통의 설화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금석문이라는 자료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으나, 부여 동명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는 결정적으로 주인공의 출생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태생(胎生)이고, 후자는 난생(卵生)인데, 이는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며(李成市, 1998), 상이한 계열의 설화임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비문에는 ‘협오·유기 → 짐승의 보호 → 재수용’이라는 중요한 설화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5세기 금석문에 수록된 고구려 건

국설화에 ‘도강’ 모티프나 ‘북부여’라는 요소가 등장한다고 해서 당시 이미 부여 동명설화를 적극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부여 동명설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6세기 『위서』에 수록된 설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북부여’ 출자라는 왕실의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강력해진 고구려가 쇠퇴한 부여<sup>10</sup>를 대신해 동북아 지역에서 부여가 지녔던 위상과 지위를 계승하고(李成市, 1989), 나아가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 경쟁관계였던 백제 왕실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표방하기 위해 시조에게 ‘북부여 출자’라는 정체성을 부여, 나아가 부여의 쇠락과 함께 이탈된 집단을 다시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정원주, 2009).

하지만 일각에서는 5세기 당시 약소국으로 전락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여에서 정통성을 찾고 그 계승을 표방했다는 것은 어색하다고 보고, ‘부여 출자’의 의미를 내부에서 찾기도 한다. 즉 고구려 내부의 부여 출신 집단을 왕실 중심으로 아우르기 위해, 그들과 왕실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시조의 ‘부여 출자’를 표방했다는 것이다(조우연, 2010b).

5세기 금석문에 이어 6세기 『위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국설화는 이미 부여의 동명설화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변모되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고구려에 동명설화와 추모왕전승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는데, 북위(北魏) 사신 이오(李敖)가 양자를 결합시켜 『위서』에 수록된 형태의 설화를

10 부여는 285년에 모용외(慕容廆)의 공격을 받아 왕 의려(依慮)가 자살하고, 충실이 옥저로 피신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고(『晉書』 권97 四夷夫餘國傳), 346년에 다시 모용황(慕容皝)의 공격으로 왕을 비롯한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資治通鑑』 권97 晉紀19 穆帝). 이로써 부여는 중흥하지 못하고 근근이 명맥만을 유지해나갔다.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즉, 고구려인 스스로가 적극 부여 동명설화를 차용해 새로운 고구려 건국설화를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 내방한 북위 사신의 소행이라는 것이다(神崎勝, 1995).

여하튼 5세기 금석문에 비해, 『위서』를 비롯한 유형 II 전승에서는 부여 동명설화의 중요한 모티프들이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기이한 출생 → 혐오·유기 → 짐승의 보호 → 재수용’, ‘양마(養馬)’, 그리고 기적적인 도강, 주인공의 ‘선사(善射)’ 능력 등 핵심적인 설화적 모티프들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출자와 관련해, 앞선 시기의 ‘북부여’에서 ‘부여’로 바뀌었는데, 이는 찬자(撰者)의 ‘부여’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듯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북부여와 부여를 동일 실체로 이해하고 있다(노태돈, 1993).

유형 II의 구체적인 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435년 고구려로 사행한 북위 사신 이오의 전문과 연관시켜 보고 있다. 앞서 유형 I이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을 전후한 시기 형성된 것임을 추정했고, 또 5세기 초기 금석문에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5세기 중반 이후가 아닐까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에서 ‘부여 출자’라는 정체성이 왕실뿐만 아니라 여타 귀족층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한 정체성 인식의 움직임을 잘 드러내주는 자료가 바로 5세기 <모두루묘지명>이다. 이 묘지명에 따르면 모두루는 ‘북부여수사(北夫餘守事)’라는 관직을 지냈으며, 그 가문 조상은 주몽을 수행해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한다(聖王奴客祖先□□□北夫餘隨聖王來).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같은 서술의 핵심은 역사 사실 자체보다는 현재적 의미이다. 이는 북부여 출자라는 왕실 정체성에 대한 모방이며, 먼 조상과 왕실 시조의 군신(君臣) 관계 설정을 통한 현재 가문과 왕실의 친밀성 강조이다(조우연, 2010a).

즉, 이 무렵에 고구려에서 ‘북부여 출자’라는 정체성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 같은데, 이는 494년 몰락한 부여 왕실에서 고구려로의 내투(來投)를

최종 선택했던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즉, 부여가 고구려를 귀순 대 상국으로 선택했던 것은 물론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강력한 국력 때문일 수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부여 출자’라는 정체성이 고구려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확산 및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554년 『위서』에 수록된 부여 동명설화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변형된 유형 II 설화 계통은 대개 5세기 중·후반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동부여가 등장하는 유형 III 설화의 형성 시기와 관련해 앞서 언급했듯이 병존설과 개작설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전자는 동부여설화가 북부출자설화와 함께 애초부터 존재했으나, 6세기 『위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찬자가 고구려 건국설화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해 생략한 것으로 이해한다(윤성용, 2005). 한편, 해부루 등 설화적 내용이 애초부터 동명설화의 원형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다(임기환, 2008b). 이 같은 견해는 근래 <집안고구려비> 연구나 고구려 시조 출자 전승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정호섭, 2014; 임기환, 2016).

그럼에도 유형 III 설화의 도입 부분에 등장하는 해모수, 금와왕 등 내용이 이른 시기 문헌에 보이지 않고, 고려시대 이후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은 개작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해모수, 금와왕 설화가 접합된 유형 III 형태의 설화는 후대에 첨삭을 거쳐 개작된 것일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島田好, 1934), 일각에서는 『삼국사기』, 「동명왕편」의 건국설화는 고구려 당대의 것이 아니라, 신라인 혹은 고려인들에 의해 재창조된 설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津田左右吉, 1922). 그 구체적인 형성 시점과 관련해서, 5세기 이후 어느 시점에 부여족 위무 목적에서 창출되었다고 보거나(서영대, 1991), 6세기 중반 이후 동부여계 출신들이 유력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면서 동부여설화가 접합된 것으로 보고, 또 『신집(新集)』 편찬과 연관시키기도 한다(노태돈, 1999). 적어도 해모수

라는 신격이 주몽의 부계로 설정되면서 시조의 신분이 앞선 시기 ‘천자(天子)’에서 ‘천손(天孫)’으로 변모된 것은 고구려 6세기 이후 후기의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일권, 2005; 박기범, 2011). 그럼에도 후자는 큰 틀에서 유형 III 설화 또한 유형 II(《광개토왕비문》 등)와 마찬가지로 4세기 후반에 정립된 건국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여호규, 2010b).

유형 III 설화에서 시조의 출자가 ‘북부여’ 혹은 ‘부여’에서 ‘동부여’로 바뀌었다는 점과 더불어, 건국자의 신분이 ‘천자(天子)’에서 ‘천손(天孫)’으로 변형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천자나 천손 모두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혈통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sup>11</sup> 시조의 부(父)가 삼입되어 있다는 점은 시조의 신분이 격하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다만 이러한 변형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배경을 짚어낼 만한 단서가 결여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시조왕의 신분 격하는 결국 그 혈연 후손인 ‘현재’ 왕권의 격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후여 6세기 전반 안원왕(安原王) - 양원왕(陽原王) 시기 권력 투쟁으로 인한 왕권 약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1988년에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절터(梧梅里寺址)에서 양원왕 2년(546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銘文) 금동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천손’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원하옵건대 왕의 영령이 도솔천으로 올라가 미륵(彌勒)을 뵈고, 천손(天孫)이 함께 만나며, 모든 생명(四生)이 경사스러움을 입으소서(願王神昇兜率查勤彌勒天孫俱會四生蒙慶).

11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천제’와 ‘천손’ 관념이 한 가지로 정립되지 못한 채 혼용되고 있는데, 천자는 양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이상에서 장황하게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초기부터 계루부 왕실에서 외래인 조상의 건국에 관한 원초적 형태의 설화가 전승되다가,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이르러 시조 주몽을 정점으로 하는 왕실 조상 계보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시조가 구체적으로 ‘북부여’에서 출자한 형태로 개작(4세기~5세기 금석문에 수록된 판본)되었고, 5세기 중·후반 이후 정치적 목적에서 ‘부여 출자’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본격 부여의 동명설화를 차용해 아주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었으며(6세기 『위서』에 수록된 판본), 6세기 이후 동부여설화, 즉 해모수, 금와왕 설화가 접합된 형태의 설화(『삼국사기』 및 「동명왕편」 판본)가 등장한다.

## 2) 시조의 ‘부여’ 출자와 신성한 혈통

〈광개토왕비문〉의 첫머리에 시조왕의 신성한 출신을 강조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바로 “북부여에서 나왔고,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出自北夫餘, 天帝之子母河伯女郎)”이라는 문구이다. 그런데 전통시대 문장 서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앞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이다. 즉, 부여 출자가 천제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혈통보다 앞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부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흥한 고대국가로서 장기간에 걸쳐 주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고대사에서 부여계승의 식이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부여 출자’ 인식이 그것이다. 고구려 건국설화를 전하는 여러 문헌에서는 시조의 출자를 북부여, 부여 혹은 동부여로 다양하게 전하고 있으며(유형 I·II·III), 또 졸본부여로 호칭되기도 했다. 백제는 ‘남부여’를 칭했고, 왕성(王姓) 또한

‘부여씨’를 칭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부여와의 혈연적·종족적 연관성을 반영한 역사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의도에서 ‘창조’된 역사 인식인지 여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특정 역사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없다.

현재 학계에서는 부여의 동명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와의 유사성에 착안해, 부여족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확산하면서 동명설화가 부여-고구려-백제로 변형 및 재생산되었다고 보고 있으며(김철준, 1973; 노명호, 1981; 박승범, 2009), 부여 계통에서 출발한 정치세력인 고구려 왕실에서 부여 시조 동명 계승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장병진, 2016). 한편, 고구려 건국설화를 고구려로만 한정하지 말고, ‘동명’을 연결고리로 ‘범부여’ 계통의 설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이장웅, 2008). 그럼에도 관련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모순점도 적지 않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학계에서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정립 시기와 더불어 설화 속에 등장하는 건국자의 출자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여(북부여, 동부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헌별로 부여뿐만 아니라 북부여, 동부여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이들 제(諸) 부여와 관련해, 대개는 세 가지 이해가 있다. 첫째는 북부여와 부여를 동일시하고 동부여와 달리 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북부여, 부여, 동부여를 모두 별개로 보는 견해이며, 셋째는 이들 셋을 동일 실체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송기호, 2005). 그런데 <광개토왕비문>에서 고구려인 스스로 북부여와 동부여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어 셋을 동일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몽의 출자국으로 설정돼 있는 5세기 금석문

(유형 I)에 보이는 ‘북부여’와 6세기 『위서』(유형 II)에 언급되어 있는 ‘부여’는 동일한 실체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보고 있다(노태돈, 1993; 송호정, 2005). 즉, 부여가 고구려의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구려 천하관(天下觀)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북쪽에 위치한 부여를 ‘북부여’로 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인들이 남긴 문헌인 <광개토왕비문>에서도 ‘북부여’와 ‘부여’를 혼용하고 있는데, 시조 출자를 ‘북부여’라고 하면서, 남하 과정에서 ‘부여 엄리대수(夫餘奄利大水)’를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1세기 후반 『논형』을 시초로 하는 이른 시기 부여 건국설화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후대 문헌에서 고구려 건국설화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북부여 해모수설화와 전혀 달라 공유하는 모티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또 북부여가 과연 부여와 동일한 실체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문헌에 보이는 북부여가 곧 부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부여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2016).

동부여는 중국 문헌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광개토왕비문>과 고려시대 이후의 고구려 건국설화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기록에서 동부여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피정복국가로, 후자의 경우 시조왕의 출자국으로 기술하고 있다.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이 친정에 나서 동부여를 공취(攻取)했다고 하는데, 비문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실체에 대해 대개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해부루가 동해 바닷가의 가섭원(迦葉原)으로 옮겨 동부여를 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옥저(沃沮) 지방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가 모용씨의 공격을 받아 옥저로 도피한 사실이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즉, 학계에서는 285년 모용외(慕容廆)의 침입으로 부여왕 의려(依慮)가 자살하고, 잔여 세력들이 옥저로 피신하였다가 서진(西晉)의 도움을 받

아 의라(依羅)가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데, 당시 옥저 지역에 잔류한 세력이 세운 나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북옥저(池內宏, 1932; 박경철, 1992), 두만강 유역(노태돈, 1989), 동해안(공석구, 1990),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孫進己, 1996), 교하(蛟河) 일대(이성제, 2008)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12</sup> 물론 이 주장들이 최종 설득력을 가지려면 고고학상의 발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 해당 지역에서 이렇다 할 만한 유적·유물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한편, 『삼국사기』의 갈사국(曷思國, 22~68년)에 주목해, 이는 부여의 대소왕(帶素王) 피살 후 그 일파가 세운 국가로서, 바로 ‘동부여’일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이 집단이 스스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해부루→금와왕→대소로 이어지는 전개를 동부여의 역사로 분식하고, 고구려 시조의 출자 또한 동부여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입장에서 자국의 북쪽과 동쪽 동해안의 부여집단을 각각 북부여와 동부여로 구분했다고 보고 있다(노중국, 1983).

어찌됐든, 가장 이른 시기 고구려인들이 남긴 5세기 금석문에서는 시조의 출자가 북부여로 되어 있고, 동부여는 시조의 속민(屬民)이자, 광개토왕의 정벌 대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동부여의 해부루, 금와왕 설화에 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 5세기 문헌뿐만 아니라, 6세기의 『위서』 등 유형 II에 해당하는 문헌에서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시조의 부계로 설정되는 북부여 해모수설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조의 부계(父系)로 등장하는 해모수나 동부여의 해부루, 금와왕 설화가 등장하는 유형 III 문헌은 특정 시기 접합된 후대의 변형된 설

12 그 외 여타 주장들은 송기호의 관련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송기호, 2005).

화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고구려 건국설화에서 시조왕의 출자가 왜 부여일까? 다시 말해, 왜 시조왕에게 토착적 성격보다 외래적 성격이 부여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다.

그 해답은 대개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고구려가 실제로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 시기 지배자가 정치적으로 ‘부여’ 출자의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 입증에 주력해왔던 것 같다. 이른 시기 고구려 건국설화 속 시조 주몽의 출자국은 부여(북부여)로 되어 있고, 또 『삼국지』를 비롯한 이른 시기 기록에서 고구려를 ‘부여 별종(夫餘別種)’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설화에 주몽집단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한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화강 유역의 부여와 압록강 중하류 지역에서 흥기한 고구려는 고고학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그 일례가 바로 가장 보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묘제(墓制)인데, 전자가 토광묘(土壙墓) 위주라면, 후자는 적석총(積石塚)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계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부여 출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고학적으로 부여와 고구려가 완전히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 첫 도읍인 환인(桓仁) 남부에 위치한 망강루고분군(적석총)에서 부여 계통의 금제귀걸이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들 고분 피장자를 고구려로 남하한 부여계 유민으로 보거나(梁志龍·王俊輝, 1994; 여호규, 1996), 직접 주몽집단과 연관시키기도 한다(王綿厚, 2005). 실제로 다양한 부여 출신 집단(夫餘之屬)들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이주해 현지 토착세력과 결합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왕실인 계루부 또한 그들 중 하나로서, 부여 유이민과 졸본부여계를 주축으로 형성

된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김현숙, 1994).

다만, 주몽집단의 외래적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이 선진문물을 소유한 외래집단으로서 압록강 중류의 토착집단 정복을 통해 왕권을 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지』 고구려전 기록에서 계루부에 앞서 왕을 배출한 연노부(涓奴部)가 존재했고, 별도로 왕실설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여호규, 2011). 즉, 계루부는 토착세력과 결합해 나가면서, 장기간 5부(部)라는 연맹정치형태를 유지했고, 후대에 이르러서야 점차 왕실 세력의 신장과 함께 확고한 계루부 왕권을 정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설화에서 시조 주몽에게 부여한 ‘부여 출자’라는 정체성이 단지 계루부 왕실의 부여 출자가 객관적 역사 사실이기 때문일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따라서 권위를 표방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심성이 작용하는데,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곧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곳으로 상정된다. 천하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국(中國)’이라는 표현이 바로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이른바 ‘지구중심설(천동설)’이라는 우주관에 그러한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고구려의 천하관 속에도 그러한 관념이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세계의 중심은 고구려이고, 신라는 그 동쪽에 있는 오랑개(東夷)로 설정된다.

그럼에서 왕실의 정체성이라는 핵심 이념 속에 외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조화롭지 못하다. 이 같은 정체성은 역사 사실과는 무관하다. 설화는 결코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인들이 건국의 진실한 역사를 기록해 후세에 전해주려는 목적에서 건국설화를 창출하고 기록했던 것이 아니다. 설사 계루부 왕실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그러한 정체성이 현실정치에 득이 되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망각’과 ‘전통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고구려 건국설화에 등장하는 ‘부여 출자’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해 대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 부여라는 고대국가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니 온 위상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다음으로 백제 등 부여 출자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설화 텍스트의 형성 시기에 주목하여 4세기~5세기 무렵에 약소국으로 전락한 부여로부터 왕실의 우월한 정체성을 확보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시조왕의 ‘부여 출자’는 고구려 내부의 부여 관련 세력을 왕실 중심으로 취합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 왕권의 신장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조의 신성한 혈통에 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라는 시조왕의 신성한 혈통에 대한 언급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5세기 금석문에 공히 등장한다. <집안고구려비문>에서는 “□□□아들, 하백의 손자(□□□子, 河伯之孫)”라고 했고, <광개토왕비문>에서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天帝之子, 母河伯女郎)”, “황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皇天之子, 母河伯女郎)”이라고 했으며, <모두루묘지명>에서는 “하백의 손자요, 해와 달의 아들(河伯之孫, 日月之子)”, “하백, 해와 달의 손자(河伯日月之孫)”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왕은 ‘천명(天命)’만으로도 권력의 정당성을 표방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최고지배자에게 천자(天子) 성격만 부여할 뿐 모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천자는 천신과의 직접적 혈연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천명을 받들어 다스린다는 의미가 짙다. 그에 비해, 고구려 금석문에서 시조 주몽은 혈연적으로 천신과 직접 닿아 있으며, 더불어 신

성한 모계까지도 병기되고 있다.

즉, 고구려에서 왕실 혈통 수식에서 부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모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백’은 황하(黃河)의 신을 지칭한다고는 하나, 동이계(東夷系) 설화에 연원을 두고 있는 강의 신(神)으로서, 고구려에서는 시조 주몽의 외조부로 설정되고 있다. 고구려의 수신제(隧神祭)가 물가에서 거행한 시조모를 대상으로 한 의례(서영대, 2003)라는 주장이 있는데, 강의 신 하백이라는 외가의 신성한 혈통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신성한 부계와 모계를 함께 언급한 것은 아마도 앞선 시기 신앙이나 관념의 잔재일 가능성이 많다. 혹 고구려 서옥제(堵屋制) 풍속이나 여러 대에 걸쳐 왕실과 통혼한 이른바 ‘왕비족’의 존재를 감안하면 왕실 외척(外戚)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조의 외조부로서 하백이 지속적으로 그 신성한 혈통 분식에 등장하였던 것 같다(조우연, 2010a).

한편, 현재 발견된 4세기~5세기 건국설화 자료에서, 공히 ‘천제지자, 하백외손’을 시조왕의 신성한 혈통에 대한 수식 문구로 붙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권력자에게 부여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식의 관용 수식과도 같다. 이는 당시 이 같은 수식이 일종의 관용구로 정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조우연, 2013).

### 3. 4세기~5세기 금석문 자료에 수록된 건국설화와 태왕권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고구려 건국설화는 5세기 금석문이다. 물론 그에 앞서는 문자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280년대에

편찬된 『삼국지』 고구려전을 비롯한 비교적 이른 시기 고구려 관련 기록에 건국설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그럴 가능성을 회의적이게 만든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형 I의 정립 시기를 소수림왕대, 즉 4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그 앞선 시기의 설화 판본은 고구려 구성원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왕실에 한정된 전승이었던 것 같다.

4세기~5세기 왕권설화의 정립과 대형 금석문 조성을 통한 대내외 공표는 해당 시기 정치적 변화에 동반된 움직임으로 이해되며, 결국 신장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력정당화이론의 일환일 것이다. 고구려 건국설화 속에 역사상이 투영되어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건국의 역사를 복원해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설화의 성격상,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정당화이론 장치로서의 역할이다. 즉, 설화가 지니는 정치적 기능에 착안해 왕권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세기~5세기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 왕권과 관련해 어떤 특이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태왕(太王)’호의 사용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문자자료 중, ‘태왕’이라는 문자가 확인된 것으로는, 〈광개토왕비문〉, 〈모두루묘지명〉, 〈충주고구려비문〉, 호우총(壺杆塚) 출토 호우(壺杆), 서봉총(瑞鳳冢) 출토 은합우(銀盒杆), 태왕릉(太王陵) 출토 문자벽돌(銘文磚) 및 청동방울(銅鈴) 등 7종이 있다. 이들 자료에 보이는 영락태왕(永樂太王), 호태왕(好太王), 성태왕(聖太王) 등 표현은 단순한 미칭(美稱)이나 특정 군주만 사용한 이질적인 왕호만은 아니었다. 대개는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혹 4세기 전반 미천왕)대부터 적어도 6세기 말 평원왕대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篠原啓方, 2004).

전통시대 한자문화권에서는 군주를 흔히 왕(王)으로 칭했는데, 제왕(諸王) 난립 상황에서 더 높은 지위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호칭 변경이 필요했고, 이에 중국의 경우 황제(皇帝)라는 새로운 호칭이 고안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4세기~5세기 무렵 고구려왕은 ‘태왕’호를 칭했다. 태왕호 성립의 이면에는 대내외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즉, 주변국을 향한 우월성 과시와 더불어 내부 귀족세력들을 향해 왕권을 정당화하려는 이중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태왕’호로의 개칭은 대외적으로 고구려 국력의 신장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위상의 상승, 그리고 대내적으로 왕권의 신장과 직결되어 있다. 대외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단순히 대내적으로 봤을 때, ‘태왕’호는 여타 귀족들에 비해 격상된 왕의 초월적 위상을 표출하기 위해, 즉 고구려 국내 정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여호규, 2010b). 4세기~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태왕교조(太王敎造)’에 주목해 도량형 제작을 통한 권력의 집중 시도가 감지된다고 보기도 한다(조우연, 2017).

‘태왕’이라는 새로운 왕호는 앞선 시기에 비해 강력해진 왕권을 전제로 하는데, 고구려 왕권의 전개와 일치한다. 4세기에 들어와 미천왕 시기에는 낙랑군·대방군을 공취하여 서북한 일대를 점령하였고, 광개토왕-장수왕대에는 남쪽으로 백제를 제압하며 평양으로 천도하고, 마침내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서쪽으로 요동(遼東)을 확보하는가 하면, 북연(北燕)의 풍홍(馮弘) 세력을 취하면서 왕권은 앞선 시기에 비해 훨씬 비대해졌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이 바탕이 되어 ‘태왕’호로 개칭함으로써, 앞선 시기 유력 귀족세력들에 비해 초월적인 존재임을 과시하고자

13 고구려 ‘태왕’호 관련 선행연구는篠原啓方(2004), 여호규(2010)의 관련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했던 것이다.

‘태왕’의 의미에 대해 ‘천(天)’의 정통성, 혈통에 의해 보장되는 호칭으로서 ‘천’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된 바 있다(篠原啓方, 2004). 이는 마치 고구려 건국설화를 연상시킨다. 사실상 ‘태왕’호와 마찬가지로 설화를 통한 왕실 시조에 대한 분식(粉飾)은 곧 그 혈통을 계승한 ‘현재’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태왕’호의 등장 시기와 거의 겹치는 시점에 유형 I 건국설화가 등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건국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고사(故事)가 아니라, ‘태왕’의 신성한 혈연 조상에 대한 서술이며, ‘태왕’권의 정당화 이론인 것이다.

한편, 거대한 금석문에 ‘천제지자(天帝之子)’라는 왕실 시조의 신성한 혈통 강조를 통해 ‘현재’ 태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역설적인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하나는 당시 왕권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 시조의 건국에 관한 설화가 고구려 전반에 걸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해, 만약 왕권이 충분히 강력하고, 또 건국설화가 고구려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구태여 편폭이 제한적인 금석문에서 시조왕의 건국설화를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전면 1행]

□□□□치세에 하늘의 도가 내려지니, 스스로 원왕을 이어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여셨다.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전면 2행]

□□□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로서, 신령스러움□□□□나라를 열고 땅을  
넓히니, 그 후손으로 이어져 서로 계승해왔다.

□□□\*\*\*子河伯之孫神靈□□□□開國辟土繼胤相承

- \* 耿鐵華, 2017, 『集安高句麗碑研究』에 수록된 윤용구, 여호규를 비롯한 국내 연구자와耿鐵華, 徐建新을 비롯한 중국 학자들의 대표 관독문을 참조해 옮겼다.
- \*\* 비석 우측 윗부분이 절단되어 해당 부분의 비문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11행에 “聖太王之世”라는 문구가 있으므로(노태돈(관독), 1992; 李樂營, 耿鐵華 主編, 2016 참조), 필자는 ‘聖太王之’世로 추독한 바 있다(조우연, 2013). 그 외, 耿鐵華는 ‘惟太王之’世로 추독해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耿鐵華, 2013).
- \*\*\* 비문이 훼손되어 관독 불가 상태인데, 〈광개토왕비문〉이나 〈모두루묘지〉를 통해 추독 가능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天帝之’子 혹은 ‘皇天之’子라고 했고, 후자는 ‘日月之’子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어, 학계 의견도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지고신(至高神)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1면 1행]

생각건대 옛날에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여셨다. 북부여에서 나왔고,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내려오니, 태어나서 성스러움이 있었다. □□□□□□(관독 불가) 명하시어 수레를 타고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  
□□□□□□命駕

[1면 2행]

남하 순행하다가 길이 부여의 엄리대수에 다다랐다. 왕께서 나루에 임하여 이르기를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어머니가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잇고 거북이를 떠오르게 하라” 하시니, 그 소리에 응해 즉시  
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  
連葭浮龜應聲卽爲

[1면 3행]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들이 떠올랐다. 이에 강을 건너 비류곡 홀본 서쪽에 이르러, 산위에 성을 쌓아 도읍을 세웠다. 세상의 지위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니, 이에 황룡을 내려 보내 왕을 맞이했다. 왕께서 홀본 동쪽 언덕에서  
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  
王王於忽本東岡履

[1면 4행]

용머리를 밟고 승천했다. 세자 유류왕에게 고명하여 도로써 나라를 흥성하게 다스리도록 하니, 대주류왕이 그 기업을 이었다.  
龍頁(負)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

\* 노태돈(1992), 王健群(1984), 朴眞爽(2001) 등 관독문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 [3행] 하박(하백)의 손자요,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河泊之孫日月之子鄒牟)
- [4행] 성왕은 원래 북부여에서 나왔다. 천하 사(聖王元出北夫餘天下四)
- [5행] 방이 이 나라가 가장 성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方知此國郡最聖□□□)
- [6행] 이 고을을 다스리니□□□ 성(治此郡之嗣治□□□聖)
- [7행] 왕의 노객인 조상□□□북부(王奴客祖先□□□北夫)
- [8행] 여로부터 성왕을 따라 왔다. 노객□□□(餘隨聖王來奴客□□□)
- [24행] 하박의 손자요, 해와 달의 아들이 태어난(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
- [25행] 고장으로 오니, □북부여 대형 염(모)(之地來□北夫餘大兄冉)
- [38행] □하박, 해와 달의 손자인□□□(□河泊日月之孫□□□)
- [48행] (하)박의 손자, 해와 달의 아들인 성왕(□泊之孫日月之子聖王□)

\* 노태돈(1992), 勞榦(1944), 武田幸男(1981), 耿鐵華(2000) 등의 관독문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 『위서(魏書)』 권100 열전88 고구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는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의 어머니 하백의 딸로서, 부여왕에 의해 방에 유폐되었는데, 햇빛이 비추기에 몸을 이끌어 피했으나 햇빛이 다시 쫓아왔다. 곧 임신해 알 하나를 낳았는데, 다섯 되(升)만큼 컸다. 부여왕이 그것을 버려 개에게 주었으나, 개가 먹지 않았고, 돼지에게 주었으나, 돼지 역시 먹지 않았다. 길에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했다. 후에 들에 버렸으나, 못 새들이 깃털로 감쌌다. 부여왕이 쪼개려 했으나 깨뜨릴 수 없자,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감싸서 따뜻한 곳에 놔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장성하자 자

(字)를 주몽이라고 지었는데, 그 속언(俗言)에 ‘주몽’이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부여사람들은 주몽이 사람 소생이 아니므로 장차 탄 뜻을 품을 것이라 하여 그를 없애기를 청했으나,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 기르기를 명했다. 주몽이 항상 사사로이 시험해, 어떤 말이 좋고 나쁜지를 알고, 준마는 먹이를 줄여 여위게 하고, 굵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부여왕은 살찐 말을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사냥터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쏜다 하여 화살 하나만 주었다. 주몽은 비록 화살이 적었으나 많은 짐승을 잡았다. 부여의 신하들이 다시 모의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주몽의 어머니가 몰래 알고는 주몽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장차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는 사망으로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주몽은 오인, 오위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도중에 큰 강을 만났는데, 건너려 했으나 다리가 없었고, 부여 사람들이 급박하게 추격해왔다. 주몽이 강물에 고하기를 “나는 태양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이다. 오늘 도망가고 있는데, 추격하는 군사가 거의 쫓아오니, 어찌하면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함께 떠올라 그를 위해 다리가 되어 주니,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지므로, 쫓아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마침내 보솔수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마의(麻衣) 입었고, 한 사람은 남의(衲衣)를 입었으며, 한 사람은 수조의(水藻衣)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주몽과 더불어 흘승골성에 이르러 마침내 정착하니,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이로써 성씨를 삼았다.

高句麗者，出於夫餘，自言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閉於室中，爲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既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夫餘王棄之與犬，犬不食，棄之與豕，豕又不食，棄之於路，牛馬避之。後棄之野，衆鳥以毛茹之。夫餘王割剖之，不能破，遂還其母。其母以物裹之，置於暖處，有一男破殼而出。及其長也，字之曰朱蒙，其俗言朱蒙者，善射也。夫餘人以朱蒙非人所生，將有

異志，請除之，王不聽，命之養馬。朱蒙每私試，知有善惡，駿者減食令瘦，驚者善養令肥。夫餘王以肥者自乘，以瘦者給朱蒙。後狩于田，以朱蒙善射，限之一矢。朱蒙雖矢少，殪獸甚多。夫餘之臣又謀殺之。朱蒙母陰知，告朱蒙曰，國將害汝，以汝才略，宜遠適四方。朱蒙乃與烏引·烏遼等二人，棄夫餘，東南走。中道遇一大水，欲濟無梁，夫餘人追之甚急。朱蒙告水曰，我是日子，河伯外孫，今日逃走，追兵垂及，如何得濟。於是魚鼈並浮，爲之成橋，朱蒙得渡，魚鼈乃解，追騎不得渡。朱蒙遂至普述水，遇見三人，其一人著麻衣，一人著衲衣，一人著水藻衣，與朱蒙至紇升骨城，遂居焉，號曰高句麗，因以爲氏焉。

\_ 1974, 『魏書』, 中華書局 참조

### 『논형(論衡)』 권제2 길험편(吉驗篇)

북이 탁리국왕의 시비가 임신하게 되어 왕이 죽이려 했다. 시비가 대답하기를 “계란 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 후 아들을 낳자, 돼지우리에 버렸더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구간에 옮겨 말에 깔려 죽게 했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 여겨, 그 어미에게 거두어 종처럼 키우게 했는데,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말과 소를 기르게 했다. 동명이 활을 잘 쏘므로, 왕은 그 나라를 빼앗아갈까 두려워 그를 죽이려 했다. 동명이 도망해 남쪽의 엄호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가 되어, 동명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해온 군사들은 건널 수 없었다. 도움을 정하고 부여의 왕이 되니, 그런 까닭에 북이 중에 부여국이 있게 되었다.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王欲殺之。婢對曰，有氣大如鷄子，從天而下，我故有娠。後產子，捐於猪溷中，猪以口氣噓之，不死。復徙置馬欄中，欲使馬藉殺之，馬復以口氣噓之，不死。王疑以爲天子，令其母收取，奴畜之，名東明，令牧牛

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淲水, 以弓擊水, 魚鱉浮爲橋, 東明得渡, 魚鱉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_ 1990, 『論衡校釋』, 中華書局 참조

### 주나라 시조 후직(后稷)설화

주나라 후직(后稷)의 이름은 기(棄)이다. 그 어머니는 유태씨(有邰氏)의 딸로서, 강원(姜原)이라고 한다. 강원은 제곡(帝嚳)의 원비(元妃)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환하게 기뻐 그것을 밟고 싶어져서 밟았더니 임신한 것처럼 몸이 움직였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상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골목에 버렸으나, 지나가던 말과 소가 모두 피해서 밟지 않고, 그것을 숲속으로 옮겼으나, 마침 숲속에 사람이 많으므로 옮겨서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덮어 감싸주었다. 강원이 신(神)이라고 여겨, 마침내 받아들여 키웠다. 처음에 버리려 했으므로 이름을 '기(棄)'라고 했다.

周后稷, 名棄. 其母有邰氏女, 曰姜原. 姜原為帝嚳元妃. 姜原出野, 見巨人跡, 心忻然說, 欲踐之, 踐之而身動如孕者. 居期而生子, 以為不祥, 棄之隘巷, 馬牛過者皆辟不踐, 徙置之林中, 適會山林多人, 遷之, 而棄渠中冰上, 飛鳥以其翼覆薦之. 姜原以為神, 遂收養長之. 初欲棄之, 因名曰棄.

\_ 『史記』卷第4 周本紀第4

### 서언왕(徐偃王)설화

『서언왕지』에서 이르기를, 서(徐)나라 임금의 궁인(宮人)이 임신해 알(卵)을 낳으니,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물가에 버렸다. 독고모(獨孤母)에게 곡창(鵠蒼)이라는 개가 있어, 물가에서 사냥하다가 버려진 알을 얻어, 그것을 물고 동쪽으로

로 돌아왔다. 독고모가 신기하게 여겨 그것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더니, 곧 알을 깨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면서 반듯하게 누워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이름 하였다. … 붉은 빛 활과 화살을 얻었는데, 하늘에서 내린 상서로움을 얻었다 하여, 마침내 그로 인해 이름을 궁이라 하고 스스로 서연왕이라 칭했다.

徐偃王志云，徐君宮人娠而生卵，以爲不祥，棄之水濱。獨孤母有犬名鵠蒼，獵於水濱，得所棄卵，銜以東歸。獨孤母以爲異，覆暖之，遂煇成兒，生時正偃，故以爲名…得朱弓矢，以已得天瑞，遂因名爲弓，自稱徐偃王。

『博物志』卷7 異聞

### 신라 석탈해(昔脫解)설화

(석)탈해는 본래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다. … 그 나라 왕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임신한 지 7년이 되어 큰 알[卵]을 낳았다. 왕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으니 상스럽지 못하다.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 여자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 알을 비단으로 감싸 보물과 함께 궤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 아무 곳이나 가도록 했다. … 바닷가의 노모(老母)가 … 거두어 기르니, 장성하여 키 9척에 풍채가 흰하고, 지혜와 식견이 뛰어났다.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有娠七年乃生大卵，王曰，人而生卵，不祥也，宜棄之，其女不忍，以帛裹卵并寶物，置於櫝中，浮於海，任其所往…海邊老母…取養之，及壯，身長九尺，風神秀朗，智識過人

『三國史記』卷第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 선비 단석괴(檀石槐)출생설화

선비의 단석괴라는 자는 그 아버지가 투록후(投鹿侯)이다. 처음에 3년 동안 흉노에 종군하였는데, 그 아내가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투록후가 돌아와 이상하게 여겨 죽이려 하자, 아내가 말하기를 “낮에 길가다 천둥소리를 듣고 하늘 쳐다보는데, 우박이 입안에 들어오므로 삼키니 곧 열 달을 임신해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신이함이 있을 것이니, 장성하는 것을 지켜봄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투록후는 듣지 않고 곧 버렸다. 아내가 몰래 친정에 보내 기르게 하고, 이름을 단석괴라고 지었다. … 그리하여 부락들이 두려워 복종했다. … 곧 대인(大人)으로 추대되었다.

鮮卑檀石槐者，其父投鹿侯，初從匈奴軍三年，其妻在家生子，投鹿侯歸怪，欲殺之。妻言嘗晝行聞雷震，仰天視，而雹入其口，因吞之，遂妊身十月而產，此子必有奇異，且宜長視。投鹿侯不聽遂棄之，妻私語家令收養焉，名檀石槐 … 由是部落畏服 … 遂推以為大人。 \_ 『後漢書』卷120 列傳第80, 烏桓鮮卑傳

### 은나라 시조 설(契)설화

은나라 설의 어머니는 간적(簡狄)인데, 유옹씨(有娥氏)의 딸로서, 제곡(帝嚳)의 둘째 비(妃)이다. 세 사람이 함께 목욕하다가,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간적이 그것을 가져다 삼켰더니,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되어 설을 낳았다. 殷契，母曰簡狄，有娥氏之女，爲帝嚳次妃。三人行浴，見玄鳥墮其卵，簡狄取吞之，因孕生契。 \_ 『史記』卷第3 殷本紀第3

## 청 태조 조상설화(불고륜설화)

처음에 하늘에서 세 선녀가 호수에 내려와 목욕했는데, 장녀 이름은 은고륜, 차녀 이름은 정고륜, 삼녀 이름은 불고륜이다. 목욕을 마치고 언덕에 올라오니, 신비한 까치(神鵲)가 붉은 과일을 물어다가 불고륜의 옷 위에 놓았다. 색 짙어 아주 고와 불고륜이 아까워 손에서 놓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에 넣고 옷을 입던 중에, 그 과일이 뱃속으로 들어가 곧 감응하여 임신하였다. … 불고륜이 후에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서부터 말할 수 있었고, 금세 장성하였다. 어미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너를 낳았으니, 실로 너에게 나라의 분란을 평정할 것을 명함이다. … 나는 천녀 불고륜의 소생으로서, 성은 애신각라이고 이름은 포고리웅순이다. 하늘이 그대들의 분란을 평정하라고 나를 내려보냈다. … 그 국호를 만주라고 정하니, 그가 바로 시조이다.

初天降三仙女浴於泊，長名恩古倫，次名正古倫，三名佛庫倫。浴畢上岸，有神鵲銜一朱果置佛庫倫衣上，色甚鮮妍，佛庫倫愛之不忍釋手，遂銜口中甫著衣，其果入腹中，即感而成孕…佛庫倫後生一男，生而能言，旣爾長成。母告子曰，天生汝，實令汝以定亂國…我及天女佛庫倫所生姓愛新覺羅名布庫哩雍順，天降我定汝等之亂…其國定號滿洲乃其始祖也。

— 中華民國 23年(1934), 『滿洲實錄』卷1, 北平文殿閣書莊 참조

## 몽골 칭기즈칸 조상설화(알랑고아설화)\*

매일 밤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이 천창(天窓)에서 빛처럼 비쳐 내려와 내 배를 어루만졌는데, 그 빛이 내 뱃속으로 스며들어갔다. 그이는 해와 달빛을 따라 마치 누런 개처럼 솟아올라 가버렸다.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냐? 하늘의 아들처럼 보이니, 어찌 일반인과 비교한단 말이나? 훗날에 천하의 황제

가 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 도리를 알 것 이니라. 『蒙古秘史』第1章 第21節

\* 중국어 번역본(策·達木丁蘇隆 編譯, 謝再善 譯, 1956, 『蒙古秘史』, 中華書局)을 참조해 옮겼다.

## 백제 조상설화

백제 조상은 고려국(고구려)에서 나왔다. 그 나라 왕의 한 시비가 갑자기 임신하여 왕이 죽이려고 했다. 시비가 이르기를 “계란처럼 생긴 물건이 와서 나에게 감응하므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내버려두었다. 후에 사내에 하나를 낳았는데, 뒷간에 버렸으나, 오래 지나도록 죽지 않자, 신이라고 여겨 키우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이라고 지었다. 장성하자, 고려왕이 시기하므로 동명이 두려워 엄수(淹水)에 도망갔는데, 부여 사람들이 함께 받들었다.

百濟之先, 出自高麗國. 其國王有一侍婢, 忽懷孕, 王欲殺之. 婢云, 有物狀如雞子, 來感於我, 故有娠也. 王捨之. 後遂生一男, 棄之廁溷, 久而不死, 以爲神, 命養之, 名曰東明. 及長, 高麗王忌之, 東明懼, 逃至淹水, 夫餘人共奉之.

— 『隋書』卷81 列傳第46 百濟

백제의 먼 조상 도모왕이라는 자는 하백의 딸이 일정에 감응되어 태어났다.

百濟遠祖都慕王者, 河伯之女感日精而所生

— 『續日本紀』40, 桓武 延曆8年(789년) 12月條

백제 태조 도모대왕이라는 자는 일신의 정령이 강림해, 부여에서 나와 나라를 열었다. 천제가 녹을 주어 여러 한(韓)을 다스리고 왕을 칭하게 했다.

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授錄 總諸韓而稱王

— 『續日本記』40, 桓武 延曆9年(790년) 7月條

## 참고문헌

-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 노태돈 외, 199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이기백, 1976,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史大討論 1』, 삼성문화재단.
- 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 이종욱, 2004, 『한국사의 1막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 홍기문, 1964, 『조선신화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강경구, 2001, 「고구려 동명왕묘의 성립과정」,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숭배』, 학연문화사.
- 공석구, 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夫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研究』 70.
- 금경숙, 2015,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 변용」, 『국학연구』 28.
- 김구진, 2006, 「고구려 건국신화의 성립 배경: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6.
- 김기홍, 2001,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 , 2007, 「고구려의 건국신화」,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김두진, 1995, 「고구려 건국신화의 영웅전승 성격」, 『국사관논총』 62.
- 김상기, 1964, 「국사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 건국대학교(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석형, 1984, 「고구려시조 동명왕 주몽의 출생설화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4-1.
- 김선민, 2006, 「고구려건국신화에 대한 廣開土王陵碑와 中國正史의 비교 연구」, 『동방학지』 134.
- 김일권, 2005, 「고구려 건국신화의 신화 계보 변동-天子에서 天孫으로」, 『다시 보는 고구려사』, 고구려연구재단.

- 김정학, 1948, 「조선신화의 과학적 고찰(1)」, 『사해』 1.
- 김철준, 1973, 「百濟社會와 그 文化」,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 김현숙, 1994,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대구사학』 47.
- 김화경, 1998, 「高句麗 建國神話의 研究」, 『진단학보』 86.
- 노명호,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歷史學研究』 10.
- 노중국, 1983, 「東扶餘에 關한 몇 가지 問題에 대하여」, 『韓國學論集』 10.
- 노태돈,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국사관논총』 4.
- \_\_\_\_\_, 1993, 「주몽의 출자전승과 계부부의 기원」, 『한국고대사논총』 5.
- \_\_\_\_\_, 1999, 「주몽설화와 고구려 초기의 왕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白山學報』 40.
- 박기범, 2011,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三國遺事』 북부여조 인용 ‘古記’에 대한 분석을 실마리로 하여」, 『동북아역사논총』 34.
- 박두포, 1968, 「민족영웅 동명설화고」, 『국문학연구』 1.
- 박승범, 2001, 「고구려 국가제사」, 『史學志』 34.
- \_\_\_\_\_, 2009, 「夫餘國의 신화적 변동과 東明神話의 시·공간적推移」, 『한국사학보』 37.
- 박시인, 1966, 「동명왕 난생이주설화의 연구-알타이계 시조신화」, 『논문집』 12.
- 서대석, 2004, 「고구려신화의 성립과 민족신화적 성격」, 『역사민속학』 18.
- 서영대, 1989, 「韓國原始宗教研究史 小考」, 『韓國學報』 9.
- \_\_\_\_\_, 1991,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고구려 왕실 시조신화의 유형」, 『晚耕李忠憲先生華甲紀念 東西文化論叢』 II.
- \_\_\_\_\_, 2003, 「高句麗의 國家祭禮-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 篠原啓方, 2004, 「高句麗의 太王號와 太王家認識의 確立」, 『한국사연구』 125.
- 송기호, 2005, 「부여사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 송호정, 2005, 「扶餘의 國家形成 過程과 文化 基盤」, 『北方史論叢』 6.
- 신종원, 2006,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동이양상」,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 여호규,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21.
- \_\_\_\_\_, 2010a,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원리와 고추가」, 『동방학지』 150.
- \_\_\_\_\_, 2010b, 「高句麗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 \_\_\_\_\_, 2011, 「高句麗의 種族 起源에 대한 일고찰-夫餘別種說과 貊族說의 정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史林』 38.
- \_\_\_\_\_,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구성과 내용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 윤성용, 2005, 「고구려 건국신화와 제의」, 『한국고대사연구』 39.
- 이복규, 1979, 「朱蒙神話」의 文獻記錄 檢討, 『국제어문』 1.
- \_\_\_\_\_, 1982, 「夫餘建國始祖神話考」, 『人文科學研究』 1.
- \_\_\_\_\_, 1991, 「東明神話와 朱蒙神話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 『국제어문』 12·13.
- 이성제, 2008,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사에서 보이는 몇 가지 쟁점」,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이옥, 1972, 「朱蒙 研究」, 『韓國史研究』 7.
- 이은창, 1985, 「高句麗神話의 考古學的 研究-三國遺事의 朱蒙神話を 中心으로」, 『韓國傳統文化研究』 창간호.
- 이장웅, 2008, 「百濟 系統 資料로 본 卒本扶餘의 東明神話」, 『白山學報』 81.
- 이종태, 1990, 「高句麗 太祖王系의 登場과 朱蒙國祖意識의 成立」, 『北岳史論』 2.
- 이지영, 2000, 「고구려 건국신화의 문헌전승 양상」, 『덕성어문학』 10.
- 이흥직, 1959, 「고구려의 흥기(1)」,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8,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百濟研究』 28.
- \_\_\_\_\_,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 \_\_\_\_\_, 2008a, 「高句麗 初期 建國說話 관련 자료의 계통과 성격-일본부여를 중심으로」, 『일본시기의 고구려 역사 연구』(학술회의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8b, 「동명신화의 전개와 변용」,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扶餘, 東扶餘」, 『고구려발해연구』 54.
- 장병진, 2016, 「고구려 출자 의식의 변화와 「집안고구려비」의 건국설화」, 『인문과학』 106.
- 정구복, 1993, 「高麗 初期의 《三國史》編撰에 대한 一考」, 『國史館論叢』 45.
- 정원주, 2009,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고구려발해연구』 33.
- 정호섭, 2014,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비교 연구」, 『한국사연구』 167.
- 조영광, 2006, 「河伯女 신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상황」, 『북방사논총』 12.
- 조우연, 2010a, 「고구려의 왕실조상제사-4~5세기 '始祖 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0.

- \_\_\_\_\_, 2010b,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나는 ‘夫餘出自’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22.
- \_\_\_\_\_, 2010c,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1, 「고구려 제천의례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 41.
- \_\_\_\_\_, 2013,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 \_\_\_\_\_, 2017, 「‘太王敎造」,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 재검토』 57.
- \_\_\_\_\_, 201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修辭의 표현과 사료 구성」, 『한국고대사탐구』 32.
- 조인성, 1990,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4.
- 주승택, 1993, 「北方系 建國神話의 文獻的 再考察 - 解夫妻神話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9.
- 채미하, 2006, 「高句麗의 國母信仰」, 『북방사논총』 12.
- 최광식, 2007, 「고구려의 신화와 국가제사」,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耿鐵華, 2002, 『中國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박창매 역, 2004, 『중국인이 쓴 고구려사』,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17, 『集安高句麗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金毓黻, 1941, 『東北通史』, 三臺東北大學(1944 再版, 五十年代出版社).
- 劉子敏, 1996, 『高句麗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朴眞爽, 2001, 『好太王碑拓本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李德山, 1996, 『東北古民族與東夷淵源關係考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李樂營·耿鐵華 編, 2016, 『高句麗石刻資料匯編』, 通化師範學院.
- 張博泉·魏存成, 1997, 『中國古代民族 - 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 孫進己, 1996, 「夫余史研究」, 『東北民族史研究』 1, 中州古籍出版社.
- 姜維公·姜維東, 2013, 「高句麗始祖傳說研究」, 『東北史地』 2013-4.
- 姜維東, 2008, 「高句麗日光受孕傳說」, 『東北亞研究論叢』 2.
- \_\_\_\_\_, 2009, 「高句麗卵生傳說研究」, 『東北史地』 2009-3.
- \_\_\_\_\_, 2010, 「高句麗始祖傳說中河伯女內容探源」, 『東北史地』 2010-4.

- 耿鐵華, 2000, 「冉牟墓及其墓誌」, 『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 , 2005, 「高句麗神話解析」, 『吉林師範大學學報』, 2005-3。
- , 2013, 「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新華文摘』14。
- 勞榦, 1944,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 『歷史語言研究所集刊』11,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76, 『勞榦學術論文集』甲篇 上冊, 藝文印書館印行)。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1994-2。
- 劉永祥, 1988, 「朱蒙與東明—高句麗始祖問題探索」, 『遼寧大學學報』1988-6。
- 範恩實, 2013, 「高句麗祖先記憶解析」, 『東北史地』2013-5。
- 傅斯年, 1933, 「夷夏東西說」,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1種『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2003, 『傅斯年全集』3, 湖南教育出版社)。
- 楊軍, 2009, 「高句麗朱蒙神話研究」, 『東北史地』2009-6。
- 王綿厚, 2005, 「西漢初期的高句麗“五部”與“第二玄菟郡”」, 『東北史地』2005-6。
- 魏存成, 2001, 「夫餘·高句麗族源傳說考」,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李大龍, 2005, 「高句麗建國神話蘊涵的歷史資訊」,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李新全, 2010, 「高句麗建國傳說史料辨析」, 『東北史地』2010-5。
- 張碧波, 2010, 「感日卵生高句麗族源神話兼及《東明王篇》的解析」, 『東北史地』2010-4。
- 曹德全, 2001, 「高句麗建國神話的本源及演變—兼駁柳花爲東北亞聖母論」, 『高句麗史探微』, 中華國際出版社。
- 高寬敏, 1999, 「扶餘·高句麗·百濟の建國神話」, 『社會科學研究』7。
- 今西龍, 1915, 「朱蒙傳說及老獺稚傳說」, 『藝文』6-11。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第四章 高句麗考, 『史學雜誌』第5篇 第9號, 東京帝國大學史學會(이복규 역, 1995, 『국어교육』87·88)
- 內藤湖南, 1919, 「東北亞細亞諸國の感生帝說」, 『民族と歴史』1-4。
- 島田好, 1934, 「東夫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說」, 『青丘學叢』16, 大阪屋號書店。
- 李成市, 1989, 早稻田大學史學會編, 「高句麗の建國伝説と王權」, 『史觀』121。

- \_\_\_\_\_,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説」,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99・100合集.
- 白鳥庫吉, 1936,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服部先生古稀祝賀紀念論文集』(1970, 『白鳥庫吉全集』5, 岩波書店).
- 三品彰英, 1953, 「高句麗五部について」, 『朝鮮學報』6.
- \_\_\_\_\_, 1971, 「神話と文化境域」, 『神話と文化史』(三品彰英論文集 第3卷), 平凡社.
- 神崎勝, 1995, 「夫餘・高句麗の建國傳承と百濟王家の始祖傳承」,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張承斗, 1939, 「朱蒙傳説の民俗學的考察」, 『朝鮮』286.
- 田村晃一, 1990, 「高句麗の積石塚」,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六興出版社.
- 井上秀雄, 1976, 「神話に現われた高句麗王の性格」, 『朝鮮學報』81, 朝鮮學會.
- 池内宏, 1932, 「夫餘考」,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3.
- \_\_\_\_\_, 1941,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東洋學報』28-2(1951, 『滿鮮史研究』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 津田左右吉, 1922,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9.





#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현도군은 한(漢)이 고조선을 공략한 뒤 기원전 107년에 설치한 4군의 하나로, 낙랑군과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다만 고조선의 수도였던 곳에 군의 치소를 두고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낙랑군과는 달리 현도군은 주변 정치세력과의 역관계에 따라 그 치소가 요동 방면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치소 이전에 따라 제1현도군, 제2현도군, 제3현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97~105년 무렵에 옮긴 제3현도군의 치소는 지금의 요령성 무순시 노동공원고성으로, 기원전 75년에 옮긴 제2현도군의 치소는 지금의 요령성 신빈시 영릉진고성으로 비정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제1현도군, 즉 현도군이 처음 설치된 당시의 치소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는 초기 현도군과 고구려 세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도군 치소의 이동은 본래 현도군이 설치된 지역에서 퇴축되는 과정이며, 이에 따라 당연히 현도군의 통치 영역과 군현 구성 및 기능의 변화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현도군 치소의 이동을 강제하는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 과정과 맥락을 같이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즉 압록강 중상류와 혼강 유역에 자리한 고구려사회는 현도군의 통제력을 물리치고

현도군의 분리조종책을 막아내면서, 여러 나(那)집단을 결속하여 국가를 형성하고 성장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철준, 1975). 즉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에 따라 현도군이 변천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 국가 형성에 대한 직접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도군의 설치 및 퇴축 과정을 통해 고구려의 국가 형성 및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은 유효하다. 이 글에서도 고구려의 국가 형성 일면을 현도군의 설치 배경 및 변천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 1. 고구려의 국가 형성 관련 자료

고구려의 등장이나 국가 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상황은 상당히 영세하다. 약간의 문헌자료 및 적석총 관련 고고자료가 고구려의 국가 형성에 대한 단서를 줄 뿐이다. 문헌기록으로는 우선 고구려 자체 전승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건국설화를 비롯한 초기 기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주몽설화로 알려져 있는 건국설화는 설화적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 설화상의 건국 기년이 기원전 37년 무렵으로서 이 기년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전 시기의 상황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물론 고구려 초기 등장 과정에서 고구려사회의 내부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중국 측 문헌자료이다. 고구려라는 존재가 중국 측 기록에 등장하는 계기는 중원 왕조 한(漢)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 고구려 혹은 고구려를 포함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예군(濊

君) 남려(南閩)로 대표되는 28만 구 집단 및 한의 창해군(滄海郡) 설치 관련 기록이다. 그리고 현도군의 설치 및 군현 운영도 고구려 정치세력의 존재 방식 및 국가적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창해군, 현도군 관련 문헌자료가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 및 국가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헌자료의 영세함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고고자료이다. 고구려의 세력기반인 압록강 중상류, 혼강(渾江) 일대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고고자료 현황을 고구려의 등장과 국가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주변 주민집단과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고고자료의 지표는 적석묘(積石墓)의 축조이기 때문에 적석묘 관련 고고자료가 고구려의 국가 형성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이상의 자료 중에서 본 장에서 주되게 살펴보려는 자료는 현도군 관련 문헌자료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도군 관련 자료는 고구려의 성장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자료라서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적석묘 관련 고고자료를 통해 대략이나마 고구려의 국가 형성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현도군의 동향을 통해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묘제상에서 고구려 적석묘는 하나의 문화 범주, 종족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지상에 돌을 쌓아 묘단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덮는 형태로 축조되었는데, 지상의 묘단에 매장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석묘나 석관묘, 토광묘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 적석묘의 분포범위가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세력범위에 해당한다(여호규, 2014).

그런데 고구려 초기 적석묘에서는 동검, 동모, 동경 등 전형적인 청동

기시대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는 반면, 청동제 장식품과 생활용구 및 철제 농공구와 무기가 많이 출토된다. 대표적으로 통화 만발발자유적이거나 환인 오녀산성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층과 고구려 초기문화층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어, 고구려 초기 적석묘가 철기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등장이나 국가 형성의 문화적 기반이 철기문화임은 분명하며, 이는 고구려의 등장 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sup>1</sup>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포함한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에서는 요동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은 기원전 3세기 말경부터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위원 용연동 명도전(明刀錢) 유적과 장백 간구자고분군은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동일한 축조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전 2세기 초경으로 편년되고 있다. 즉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초기 단계에 압록강 중류와 상류에 거의 동시에 적석묘가 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적석묘는 기원전 3세기 말 명도전 유적의 확산 및 철기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조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적석묘는 외부에서 이주하거나 유입된 묘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토착 주민들이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조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범위는 대체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문헌상에 보이는 고구려의 지리적 범주와 일치한다. 시기상으로는 후대이지만 『삼국지』 동이전에 서술된 고구려의 공간범위, 즉 요동군의 동쪽, 부여의 남쪽, 동옥저의 서쪽, 낙랑군의 북쪽이라는 지리

1 적석묘에 관한 고고학적 접근 및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본 총서 고고자료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적 범위 내에서 적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라는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3세기 말경에 문화적으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적석묘라는 독자적인 묘제를 갖추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이 주민집단은 종족상으로는 주변의 예맥사회와 동일하지만, 3세기 말 무렵에는 문화적·정치적으로 주변 예맥사회와 구분되어 ‘고구려’ 혹은 ‘구려’로 불리게 되었다. 이 주민집단이 고구려를 구성하는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원(原)고구려사회’로 지칭하기도 한다(여호규, 2014).

이처럼 적석묘 등 고고자료를 통해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고구려의 등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철기문화의 보급에 따른 사회 변화와 정치적 성장을 통해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보급된 철제농공구를 기반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이른바 읍락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 또한 읍락과 읍락 사이의 분화를 초래하고 촉진시키면서 원고구려사회에 계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공간 범주를 갖는 지역 단위정치세력집단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적석묘 자료가 바로 기단적석묘의 등장이다. 무기단적석묘에서 기단적석묘로의 발전은 고분 축조기술의 발전과도 연관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계층화, 신분화, 위계화의 물질적 표현으로 파악된다. 즉 기단적석묘 축조 집단의 등장은 읍락사회 내부의 주민에 대한 통제, 주변 읍락이나 지역집단을 통솔, 장악해가는 지배집단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역 단위 읍락사회를 기반으로 등장하는 정치세력들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나(那), 곡(谷) 집단이다. 고구려본기 및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이른바 5부(部)의 이름, 즉 나부(那部)의 나(那)와 노부(奴部)의 노(奴)의 존재를 통해 고구려의 국가 형성 기반으로서 읍락사회가 어떻게 결속되어 가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본기에는 나(那), 나국(那國), 나부(那部)의 용례가 등장한다. 나(那)는 노(奴)와 통하고 지(地), 양(壤) 또는 내(川)나 천변(川邊)의 평야를 뜻하는 말로서, 곧 ‘나’란 명칭의 집단은 대개 천변 또는 계곡의 어떤 지역 집단을 뜻하며, 그것은 씨족공동체가 붕괴된 이후 각 지역별로 성립된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노태돈, 1975).

물론 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나(那)’의 역사적 실체는 이러한 어의적인 이해와는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고구려본기의 ‘나’는 부(部)의 원형 내지는 구성 단위로서의 ‘나국’과 부(部)로서 성립된 이후에 나타나는 ‘나부’로 구분된다(임기환, 1992). 고구려본기에서 독립된 정치체로서 나국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조왕대에 복속되는 조나(藻那)와 주나(朱那)를 들 수 있다. 이들 나국과 나부가 ‘나(那)’라고 하는 지역집단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나부’를 구성하는 집단 역시 고구려의 하부 단위정치체로 편제되기 이전에는 ‘나국’이라는 독자적인 정치체로 존재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나국의 존재는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조나, 주나가 나타나는 1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가 그 하한이 된다. 즉 1세기 중엽 태조왕대까지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공간 범주 내에서 고구려의 국가 통합이 완료되어 갔음을 뜻한다.

한편,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독자적인 나국을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일정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집단으로서의 ‘나’, 즉 나국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고구려본기에는 이러한 집단을 ‘나’라고 칭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모습은 많이 등장하는데, 천(川)·원(原)·곡(谷) 등으로 표현되는 집단들이다. 그래서 이들 집단을 ‘곡(谷)집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고(임기환, 1987), ‘나(那)집단’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는 견해도 있다(여호규, 1992). 그리고 고구려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정치 집단으로서의 곡집단 혹은 나집단의 성격을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읍락(邑落)에 비견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임기환, 1987).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위서 한전(韓傳)에 보이는 삼한(三韓)의 소국이 국읍(國邑)을 중심으로 다수의 읍락이 결합된 정치적 통일체이듯이, 고구려 나국의 구성 역시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압록강·혼강 유역의 각 지역에 분산적으로 성립되어 있던 단위정치집단인 곡집단 혹은 나집단인 ‘나(那)’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나’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나국’을 구성하고, 이들 나국이나 읍락들의 상호통합 과정의 결과 최후로 5개의 단위정치체인 5나부가 성립되고, 이들이 하나의 고구려연맹체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이들 5개의 단위정치체 중에서 더 강대한 세력기반을 가진 자가 고구려연맹체의 영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소노부, 즉 비류나부가 연맹왕권을 차지하였다가, 그 후 새로 성장하는 계루부가 연맹장의 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루부는 연맹왕권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면서 이들 5개의 단위정치체를 나로 편제하여 태조대왕대에는 5나부연맹체를 확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나부의 내부 구조인 ‘나(那)-나국-나부’를 통해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과정을 투사할 수 있다(임기환, 2004; 여호규, 2014).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초기 적석묘 자료를 통해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원고구려사회가 형성되었고,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단위정치체의 양상을 통해 이들이 나(곡집단, 나집단), 나국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5나부로 편제, 구성되는 고구려를 성립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강변이나 계곡에 존재하는 초기 적석묘군의 분포 양상을 통해 ‘나’ 또는 ‘나국’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위정치체가 성장해가면서 어느 시기부터 고구려가 국가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측 문헌자료 특히 현도군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도 현도군의 개편 과정과 고구려의 성장 과정을 연관하여 정리한다. 고구려의 국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도군의 변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구려의 성장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도군 관련 문헌자료는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현도군의 설치 배경으로서 그 이전 창해군의 설치에 대해 살펴본다. 즉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28만 구 집단이 한의 요동군으로 귀속하고, 이를 계기로 한이 창해군을 설치하고 폐지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그 후 현도군의 설치 및 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28만 구 집단에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고구려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1현도군의 설치 과정 및 그 기능과 관련하여 군현의 지리적 위치, 군현의 치소와 각 현의 위치 등이 주요한 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군과 고구려 지역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즉 현도군의 관할 대상은 누구였으며 그 중심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와 그 근거를 살펴본다.

셋째, 제2현도군으로의 변천 및 그 배경으로 사료에 보이는 “이맥소침(夷貊所侵)”의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현도군 군치를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는 기록은 고구려 세력의 성장과 동향이 현도군의 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제2현도군의 군현 구성 및 위

치를 파악하여 고구려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2현도군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도군에 대응하는 고구려 세력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넷째, 현도군의 퇴축 과정과 더불어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이른바 책구루(幘溝婁)의 설치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해 왔다. 다만 근래에 책구루의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분분하다. 책구루의 설치가 고구려의 정치적 중심점의 성장 및 국가체제로서 5나부 체제의 성립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책구루의 설치 시점은 고구려의 국가 형성 시점과 맞물려 있어 중요한 논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한다.

## 2. 고구려의 등장과 한의 현도군 설치

### 1) 예군 남려의 내속과 창해군 설치

『한서』 권6 무제기와 『후한서』 권85 동이전 예조에 의하면,<sup>2</sup> 기원전 128년에 예군 남려가 28만 구를 거느리고 한의 요동군에 투항하였고, 한은 이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는데, 교통로를 개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126년에 창해군을 폐지하였다.<sup>3</sup>

2 『한서(漢書)』 권6 무제기(武帝紀)6, “東夷薺君南閩等 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 … 罷蒼海郡”; 『후한서(後漢書)』 권85 동이열전(東夷列傳)75 예로(濊條), “元朔元年 濊君南閩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 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한서』 권24 식화지4하, “彭吳穿穢狔朝鮮 置滄海郡 則燕齊之間 靡然發動 … 東置滄海郡人徒之費疑於南夷.”

3 창해군에 대한 1980년대까지의 연구동향은 노태돈의 다음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노태돈, 1986, 「高句麗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편, 1987,

당시 흉노 정벌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한은 멀리 동쪽에 새로 군을 설치해 운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예군(濊君)’이라는 명칭 및 28만 구라는 대규모 주민집단의 범위를 고려하면 지역적으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고구려 세력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예군 남려를 대표로 하는 28만 구에 해당되는 정치집단들이 요동군에 투항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고조선을 통한 한과의 간접 교역에서 벗어나서 직접 한과의 교류, 교역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의 개설적인 이해를 기초로 좀더 구체적인 논점을 짚어보자. 먼저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28만 구라는 정치세력의 성격과 그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주된 논점이 되어 왔다.

첫째, 28만 구가 위치했던 지역범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송화강 유역의 부여 지역(박정철, 1997)이나, 천산산맥-청천강 일대로 보는 견해(권오중, 2000), 요동반도와 압록강 중류 일대로 보는 견해(조영광, 2011)도 있지만, 대체로 요동군의 동부 산간지대에서 동해안 함흥 방면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8만 구라는 세력집단을 대상으로 설치된 군현의 이름이 ‘창해군’이란 점에서 동해안 지역이 포함되었음은 분명한데, 동해안 지역만으로는 28만 구의 세력 규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당 압록강 중상류 지역까지 포함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4</sup>

둘째,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28만 구 세력집단의 정치적 성격 문제가

---

『고구려사연구』 재수록.

4 예군 남려가 거느린 28만 구라는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삼국지(三國志)』동이전에 의하면 3세기 중반경에 고구려 3만 호, 동옥저 5,000호, 동예 2만 호를 합치면 대략 30만 구 전후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예군 남려 28만 구의 지역적 범위는 요동군 동쪽부터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거쳐 동해안 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여효규, 2014).

다. 예군 남려는 28만 구가 거주하는 지역적 범주를 아우르는 연맹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고조선의 우거왕에게 반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 견해는 한과 교섭을 행할 수 있는 대외교섭권을 가진 연맹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치체들이 결집하고 각 정치체 내부도 여러 읍락으로 구성된 누층적 구조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예군 남려가 그 연맹장이라고 보는 것이다(김미경, 2002). 이러한 견해는 『사기』, 『한서』 등 사서에 나타나는 예맥(濊貊)의 존재를 흉노, 오환, 부여, 조선, 진번 등과 같이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의 상황이지만 압록강 중상류 및 동옥저 지역의 발전 수준에서 편차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연맹체로 보기는 어렵다(이준성, 2020).

후자 견해는 우거왕의 봉쇄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주변 세력들이 한의 선진문물, 특히 철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요동군에 내속하였는데, 그중 사회 분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주민집단이 주도하였다고 이해한다(여호규, 2014). 압록강 중상류 일대 세력과 동해안 일대 세력 사이에는 요동군과의 관계 설정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세력집단들이 어떻게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28만 구 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군 남려 등 28만 구 세력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는 점이다. 28만 구의 지역범위를 고구려와 옥저, 동예를 아우르는 지역에 설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중심지 위치, 즉 대표자로 거론된 예군 남려의 세력기반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즉 동해안의 동옥저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池內宏, 1951; 和田清, 1955;

三上次男, 1966; 김미경, 2007)와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주민집단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병도, 1976; 盧泰敦, 1986; 여호규, 2005)로 나뉜다.

후대의 상황이지만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고구려에 비하여 동해안 일대의 동옥저 지역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예군 남려의 세력기반을 동해안 일대로 보는 전자의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1958년 평양의 정백동1호분에서 “부조예군(夫租葦君)”이란 인장이 출토되었는데, 이 ‘부조(夫租)’는 낙랑군 소속의 부조현(夫租縣)으로서 곧 옥저성을 가리킨다. 즉 옥저 지역의 수장을 “葦(濊)君”으로 칭했던 자료로서, 예군 남려의 칭호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의할 자료이다. 다만 ‘예(濊)’와 관련된 칭호는 『삼국지』 부여전에서도 “예왕지인(濊王之印)”, “예성(濊城)”이란 사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군’이 동옥저라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리적 상황을 보면 동해안 일대 세력이 고조선을 거치지 않고 한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경유하는 교통로 밖에 없다. 따라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 세력집단의 적극적인 중간 역할 없이 동해안 일대의 세력이 한과 직접 교역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예군 남려 28만 구가 요동군으로 내투하는 데에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 세력집단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가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이후 설치되는 현도군의 군치 위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압록강 중상류 세력집단과 동해안 일대 세력집단이 함께 요동군으로 내속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후한서』 권85 예전(濊傳)에 의하면, 예군 남려 등 세력은 고조선의 우거왕을 이반하고 요동군에 내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기』 권115 조선전에 의하면 본래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외신(外臣) 관계를 맺고(권오중, 1992), 주변 세력과 한 사이의

중계교역을 담당하면서 진번(眞番)과 임둔(臨屯) 등 주변 소국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sup>5</sup> 그런데 우거왕대에 이르러 고조선은 한의 유망민을 대거 받아들이며 한 왕조에도 더이상 입조하지 않았으며, 진번과 임둔 등 주변 세력들이 한과 교류하는 것도 막았다.<sup>6</sup> 그동안 고조선을 중계자로 한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문물을 수용하고 있던 주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한과의 교섭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예군 남려 등 세력이 우거왕에게 반기를 들면서 한의 요동군에 내속하여 직접적인 통교를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한의 입장에서 고조선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동방정책이 필요했다. 『사기』 권112 공손홍전에는 기원전 134~기원전 129년에 엄안(嚴安)이 올린 상서 중에 “남이(南夷)를 부르고 야랑(夜郎)을 조회시키며, 강(羌)과 북(黠)을 투항하게 하고, 예주(濊州)를 공략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흉노(匈奴)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농성(龍城)을 불태우고자 합니다”<sup>7</sup>라는 내용이 있다. 즉 한이 동서남북 주변 여러 세력에 대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펼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중 ‘예주(濊州)를 공략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그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요동군에 내항한 남려를 “예군(濊君)”이라고 호칭하였다. 이 두 기사를 연관시켜 보면 기원전 2세기 중·후반 무렵에 한 왕조가 동방사회의 어떤 세력에 대하여 그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예군(濊君, 葦君)’으로, 그 중심지를 ‘예주(濊州)’라고 일컬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엄안의 상서에서 보듯이 한 정

5 『사기(史記)』 권115 조선전(朝鮮傳), “會孝惠高后時 天下初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 … 以聞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傷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6 『사기』 권115 조선전,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關不通.”

7 『사기』 권112 공손홍전(公孫弘傳),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黠 略濊州 建城邑 深入匈奴 燔其龍城 議者美之.”

부도 새로운 동방정책을 구상하고 있던 차였으며, 이때 예군 남려 등이 28만 구를 이끌고 내항해오자 한은 신속하게 이들을 대상으로 창해군의 설치를 결정하였던 것이다(이성제, 2011).

한편, 『한서』 권24 식화지(食貨志)4에는 한의 상인 “팽오(彭吳)가 예맥조선(穢貊朝鮮)을 개척하여 창해군을 두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무렵에 예맥 지역까지 처음으로 교역로가 개척되었고, 이를 토대로 창해군이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창해군의 설치를 이끌었던 상황은 예군 남려 28만 구가 요동군에 내속한 사실 및 팽오라는 상인이 한으로부터 예맥조선, 즉 예맥사회까지 이어지는 교역로를 개척한 사실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과 직접 교역하려는 예맥사회의 요구, 그리고 위만조선을 통하지 않고 예맥사회 및 동해안 일대까지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한 정부의 정책,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창해군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창해군의 설치 배경과 관련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유사한 조건 아래에서 파촉(巴蜀) 지역에 한의 건위군(犍爲郡)과 야랑현(夜郎縣)이 설치되었는데, 이 사례는 창해군의 설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건위군과 야랑현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겠지만, 창해군 설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당시 한 정부는 군현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군현 설치 지역세력에게 한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예군 남려 등 28만 구를 대상으로 창해군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종록, 2018).

다음으로 창해군 설치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보자.<sup>8</sup> 첫째, 창해군의 위치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주로 창해군 이후에 설치된 현도군의 위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동해안의 함경도로 보

는 견해(白鳥庫吉, 1912), 압록강 중상류 유역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1976), 혹은 요남(遼南)지구로 보는 견해(權五重, 2000) 등이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창해군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창해군이 3년여 만에 재정 문제 등 교통로 개설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교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창해군이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견해 중 요남지구 및 압록강 중상류와 독로강 지역 등에서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대 명도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통로가 개설되어 고조선 및 연(燕)과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김미경, 2002).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동해안 일대가 남는다. ‘창해’라는 표현에서 바다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 또 새로운 교통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해안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 창해군 설치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위만조선은 한에 낙랑단궁(樂浪檀弓), 과하마, 바다표범가죽, 담비가죽, 표범가죽 등을 수출하였는데, 그중 바다표범가죽은 함경남도 덕원에서 산출되며, 과하마는 동예의 특산물이다. 이 점에서도 한의 요동군과 동해안 일대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로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위만조선이 중계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동군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까지는 기존의 교통로가 개설되었다고 본다면, 이곳에서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로 개척이 창해군 설치의 주된 목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창해군이라는 명칭에서 동으로 창해군을 설치함으로써 사해(四海)를 통치하는 황제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한 한 무제의 천하관이 내포되어

---

8 창해군 관련 연구사에 대해서는 박대재, 2017 참조.

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김미경, 2002; 이성제, 2011). ‘창해(滄海)’라는 명칭에서 그런 측면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창해군의 뒤를 잇는 현도군의 명칭에는 그런 이념적 요소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더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창해군의 폐지 배경이다. 『한서』 권24 식화지에 의하면 창해군까지 교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창해군을 폐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창해군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단지 비용 문제뿐이었을까? 혹 교통로가 경유하고 있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 세력집단이 한의 창해군 설치에 대해 반발하지는 않았을까? 직접적인 근거 자료는 없지만, 후일 창해군 뒤를 이어 설치된 현도군이 “이맥(夷貊)이 침략”하여 퇴축되었음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창해군을 혁파하게 되는 원인 중에 압록강 중상류 지역 정치세력의 동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하여 교통로 개설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지 도로 개설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정치세력을 포섭, 회유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 건위군과 야랑현 개설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한나라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혹은 교역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도로 개설 비용뿐만 아니라 압록강 중상류 지역 세력의 요구에 따른 여러 형태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군 남려 등의 요동군 내투에서부터 창해군의 설치 및 폐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지역 정치세력의 움직임이 역동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이 군사적 공세로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도군의 설치가 다른 군현 설치에 비해 1년 늦어진 이유도 창해군 치폐의 상황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 창해군과 현도군의 설치 지역이 겹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예군 남려를 대표로 하는 28만 구 집단에 대한 검토에서 아직 해명해야 할 의문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먼저 28만 구에 압록강 중상류 지역 세력 집단과 동해안 일대 세력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양자를 연결하는 교통로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창해군의 폐지 이유가 교통로 개설의 비용 문제라면 창해군이 폐지될 때까지도 압록강 중상류 세력집단과 동해안 일대의 세력집단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개설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이 교통로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동해안 일대 세력집단을 포괄하는 28만 구의 광범위한 지역의 연합이 가능했을까? 만약 이미 기존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통로 개설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창해군이 불과 3년여 만에 폐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창해군 이후 다시 이 지역에 설치된 현도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현도군 설치 및 초기 중심지

현도군의 설치 및 변천과 관련된 기사는 『삼국지』 권30 동옥저조, 『후한서』 권85 고구려조, 동옥저조, 예조, 『한서』 권28 지리지 현도군조 등에 실려 있다.<sup>9</sup> 이들 기사를 종합하여 현도군의 설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9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30 동이전30 동옥저, “漢武帝元封二年伐朝鮮殺滿孫右渠分其地爲四郡以沃沮城爲玄菟郡後爲夷貊所侵徙郡句麗西北今所謂玄菟故府是也”; 『후한서』 권85 동이전75 동옥저, “武帝滅朝鮮以沃沮地爲玄菟郡後爲夷貊所侵徙郡於高句麗西北更以沃沮爲縣屬樂浪東部都尉”; 『후한서』 권85 동이전75 예,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玄菟復徙居句麗. 自單單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후한서』 권85 동이전75 고구려, “武帝滅朝鮮以高句麗爲縣使屬玄菟賜鼓吹伎人”; 『한서』 권28 지리지8하1,

같다.

기원전 109년에 한이 고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이듬해에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3군을 설치하고, 다시 1년 뒤인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옥저전에 의하면 그때 현도군을 옥저성(沃沮城)에 두었다고 한다. 그 뒤 기원전 82년에 임둔군과 진번군을 과하여 임둔군은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진번군은 낙랑군에 병합시켰다. 그리고 다시 뒤에 이맥(夷貊)에게 침략을 받게 되어 현도군을 고구려 서북으로 옮겼으며, 이때 옥저(沃沮)는 현(縣)으로 다시 삼아서 낙랑군 동부도위(東部都尉)에 소속시켰다.

이러한 현도군의 설치 및 변화 과정에서 처음 설치된 현도군을 통상 제1현도군, 이맥에게 침략을 받아 고구려 서북으로 옮긴 현도군을 제2현도군으로 부른다. 그 후 다시 현도군의 치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를 제3현도군이라고 부른다. 제2현도군, 제3현도군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볼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설치 당시의 현도군, 즉 제1현도군에 대해 살펴본다.

제1현도군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점은 셋이다. 첫째는 왜 현도군이 4군 중 다른 군현보다 1년 늦게 설치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현도군이 설치된 지역범위, 즉 현도군의 관할범위 및 현도군의 군치(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다른 세 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현도군의 군현 편성 문제이다.

한이 고조선을 침공하고 세운 4군 중에서 현도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1년 정도 늦게 설치된 이유나 배경을 알려주는 문헌자료는 없다. 다만 앞

---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遼水所出 西南至遼隊 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上殷台 莽曰下殷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도군이 창해군의 뒤를 이어 설치된 군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창해군의 설치 및 폐기와 관련된 상황이 현도군의 설치가 1년 늦어진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리란 추정은 가능하다.

낙랑군 등 3군은 고조선과 그 복속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정복의 결과로 설치되었다면, 현도군은 이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과거 창해군을 설치하는 방식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한 정부에 의해 또다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이나 동해안 일대 세력집단들에 대한 회유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지역 세력집단 역시 한의 요구에 항거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타협한 결과 현도군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본래 이 지역 세력집단이 고조선에서 독립한 세력이었고,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 회유와 타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도군의 설치에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김기홍, 1987). 그리고 이러한 설치 배경으로 인해 제1현도군의 관할 영역과 치소가 낙랑군 등 다른 군현들과 구분되는 이질적인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제1현도군의 관할 영역과 군치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 후기 고증학풍 실학자들 사이에 현도군에 대한 역사지리적 관심이 높았는데, 한진서(韓鎭書), 안정복(安鼎福), 정약용(丁若鏞) 등은 제1현도군이 함경남도 함흥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일제 관학과 학자들은 『삼국지』 동이전의 기사를 취신하는 입장에서 조선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도군이 옥저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동해안 일대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樋口隆次郎, 1911·1912; 白鳥庫吉, 1912; 池内宏, 1912; 稻葉岩吉, 1915; 瀨野馬熊, 1923·1924; 稻葉岩吉, 1928; 池内宏, 1941). 『후한서』와 『삼국지』 관련 기사에서 현도군이 옥저(성)에 설치되었다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가장 유력하였다.

그런데 그 뒤 이병도는 이를 비판하고 현도군 설치 당시의 영역을 요령

성 흥경(興京) 일대에서부터 압록강 유역으로 비정하면서, 제1현도군의 치소는 집안에 설치된 고구려현으로 보아야 하며, 옥저는 본래 임둔군에 속하였는데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현도군에 통합되었다가, 이후 현도군이 고구려 서쪽으로 축출되자 옥저현이 낙랑군으로 이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병도, 1930; 1976 재수록). 이후에는 이러한 이병도 견해가 한국 학계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다(金基興, 1987; 李賢惠, 1997, 여호규, 2005). 즉 『삼국지』, 『후한서』 동옥저전에 보이는 현도군이 옥저성에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된 당시 임둔군 소속 영동 7현이 일시적으로 현도군에 합속되었던 시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이해한다(이현혜, 2010; 여호규, 2005).

이 주장의 개요는 이렇다. 후일 낙랑 동부도위를 설치한 영동 7현은 동이(東隴), 불이(不而, 동부도위의 치소), 잠대(蠶臺), 화려(華麗), 사두미(邪頭昧), 전막(前莫), 부조(夫租)인데, 영흥만 일대로 비정되며 지리적으로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 영동 7현이 하나의 지역 단위를 이룬 사실은 ‘초원 4년(기원전 45년) 낙랑군 현별 호구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윤용구, 2009). 그런데 본래 ‘부조(夫租)’로 불렸던 동옥저 지역은 고조선 멸망 직후에는 동일 지역권을 이루는 영흥만 일대의 다른 지역과 함께 임둔군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는데,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을 폐지하고 이 일대를 분할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의 관할로 재편할 때, 서북한 지역에 가까운 영흥 이남 지역은 낙랑군에 배속한 반면, 압록강 중상류에 가까운 함흥 지역에 위치한 동옥저는 현도군에 배속하였다고 파악한다. 즉 동옥저 지역이 제1현도군의 관할에 편입된 때는 기원전 82년 임둔군 폐지 이후라는 것이다.

한편, 『후한서』의 관련 기사는 후한서 편찬자가 『한서』 지리지의 고구려현 기사를 잘못 읽은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손영중, 1990; 기수연, 1998).

또한 『삼국지』 동이전의 기사는 현도군 재편 과정에 나타난 변화의 시차를 무시하고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후한서』 예전의 “다시 구려로 옮겨 설치하였다(復徙居句驪)”라는 기사를 근거로 처음에는 고구려현이 현도군의 치소였으며, 그 뒤 일시적으로 옥저성이 현도군의 치소가 되었다가, 제2현도군 시점에 다시 고구려현으로 옮겨졌다고 보기도 한다(기수연, 2007). 하지만 분명하게 현도군이 옥저성에 설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들을 부정할 사료적 근거는 아직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도군이 고구려 서북으로 옮겼다는 기사에서 고구려 지역이 현도군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도군을 함흥 일대 동해안 지역에 한정하여 보는 견해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도군의 지역적 범주를 압록강 유역과 동해안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여러 기사들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도군에 앞서서 예군 남려 28만 구세력의 지역범위 및 창해군의 설치범위가 동해안 일대까지 포괄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현도군의 설치 초기에는 옥저 등 동해안 일대와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모두 그 관할대상에 포함되었으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도군 설치 시 관할범위를 함흥 일대의 동해안과 압록강 중상류 지역 그리고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공로(孔路)로 보는 견해가 현재 가장 유력하다. 다만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낭림산맥 등으로 격절되어 있으며, 더욱 옥저성이 위치한 함흥을 포함한 영흥만 일대에는 이미 임둔군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중 함흥 지역만 따로 분리해서 현도군의 소속으로 파악하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현혜, 2010)도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

현도군의 관할범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 사이에도 현도군의 중심지

를 놓고 차이가 있다. 제1현도군의 치소를 집안의 고구려현으로 보는 견해(和田清, 1951; 1955 재수록)와 옥저성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田中俊明, 1994; 김미경, 2002; 윤용구, 2008; 윤선태, 2010; 이성제, 2011; 이종록, 2018; 장병진, 2019; 이준성, 2019).

현도군의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삼국지』 및 『후한서』의 관련 기사 등 몇몇 논거가 있다. 하지만 이들 기사에 의해 옥저(성)을 현도군의 관할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만으로는 옥저성이 군치(郡治)인지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문장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도군 설치에 앞서 일어난 사건인 예군 남려 28만 구 세력의 중심지와 현도군의 군치를 일치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한 군현의 편제가 어느 정도 기존 세력집단의 존재 양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하지만 예군 남려 세력의 중심지는 이 지역 정치세력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창해군이나 현도군 설치 시에 군현 운영의 중심지인 군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한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현도군의 경우 양지를 동일하게 파악할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군 남려로 대표되는 중심 세력의 근거지가 동해안 일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해군이나 현도군의 군치는 한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 옥저(성)에 둘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이 점에서 한의 동방 진출 및 군현 지배의 방향과 이 지역 예맥 세력의 존재 방식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현도군의 군현 편성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현도군의 범주를 광역의 지배범위가 아니라 공로상의 지배범위로 파악한 이유는 현도군 소속 군현 수가 소수였을 가능성 때문이다. 현도군 설치 초기에 현이 몇 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맥의 침공으로 현도군치를 고구려 서북으로 옮긴 제2현도군 시기 현의 수는 3개에 불과하다. 군치의 이

동에 따라 다수의 현이 폐지되어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도 잔존한 현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애초에 설치된 현의 밀도가 낙랑군 등 다른 군현과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사적 정복지를 군현으로 편제한 다른 3군과는 달리 현도군은 예맥집단의 수장들과 한의 타협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현도군의 호구 수에 비해 현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은 군현 관할 아래 독립적인 고구려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기홍, 1987). 이와 달리 고구려와 한의 타협설을 수용하면서도 당초부터 고구려 세력은 현도군 군현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원전 75년 이전 어느 시점까지 고구려는 현도군에 협조적이었기에 요동군에서 고구려 지역을 통과하여 동해안 옥저 지역까지 교통로가 연결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이성제, 2011).

이와 관련하여 제1현도군 설치 시에 현 수가 어느 정도였을지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는 제2현도군 때 현의 수가 3개에 불과한 점, 그리고 제1현도군의 관할범위와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제1현도군의 현 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군현 설치 초기 다른 3군의 경우를 보면 임둔군과 진번군은 각각 15개 현이 있으며, 낙랑군도 11개 현으로 구성되었다.<sup>10</sup> 그런데 제1현도군의 관할범위에 옥저현(옥저성)이 포함되고, 또 제2현도군 때의 3현을 합하면 최소 4개의 현 수는 확인된다. 그러면 4개 이외의 현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일까?

10 임둔군과 진번군의 속현 수는 『한서』 권6 무제기6 원봉(元封) 3년 기사에 보이며, 낙랑군의 속현수는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통합 25현에서 구 진번군 7현과 구 임둔군 7현을 제외한 11현이 설치 초기의 낙랑군 속현 수로 볼 수 있다(李丙燾, 1976).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臣瓚曰 茂陵書臨屯郡治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眞番郡治營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후술하듯이 제2현도군 때의 고구려현, 서개마현(西蓋馬縣), 상은대현(上殷台縣)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디에 비정하든 압록강과 강계 이북 지역으로, 이들 3개 현과 함흥 일대로 비정되는 옥저현과는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관련되어 여러 현들이 분포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이성제, 2011; 김미경, 200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단지 추정일 뿐이다. 요동군에서 현도군을 경유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현까지 이어지는 긴 교통로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중간중간에 현이 설치되어야 했을까? 현의 설치 없이 교통로를 연결하면서 현도군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사료상으로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교통로상의 현을 가상하기보다는, 왜 교통로 중간중간에 현을 설치하지 않고도 어떻게 교통로를 유지하면서 현도군 운영이 가능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제2현도군 시절의 현도군치는 고구려현인데 지금의 신빈 일대로 비정된다. 제1현도군 시절의 고구려현 위치가 어디인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지금의 신빈 일대가 현도군의 가장 서쪽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 지역과 동해안 일대의 옥저현을 교통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고구려 세력과 모종의 타협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창해군 설치 시에는 교통로 개설 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년 만에 창해군을 폐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도군을 설치할 때에는 이런 어려움 없이 현도군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은 곧 창해군 설치 시에 봉착했던 어려움이 단지 지리적인 교통로 개설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 현도군 역시 기원전 75년 시점에서 고구려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창해군을 폐지하게 된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설명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창해군의 설치 시에는 위만조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거쳐 동해안까지 교통로를 연결하여 창해군을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뒤에는 낙랑군에서 기존부터 있었던 교통로를 통해 동해안 일대와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도군을 설치하면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동해안의 옥저성 일대를 연결하려는 정책을 취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소홀한 부분이다.

물론 현도군의 설치 초기에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만이 대상이었고, 그 뒤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옥저성 등 임둔군의 일부가 현도군에 편입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도 임둔군을 폐지하면서 기존의 교통로가 있는 낙랑군에 소속시키지 않고 왜 굳이 교통로 개설 여부가 불투명한 현도군에 소속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어느 견해이든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동해안 옥저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격절되어 있고, 종족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을 하나의 군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 3. 현도군 개편과 고구려의 성장

#### 1)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성장

『후한서』 권85 동이전 예(濊)조에는 기원전 82년에 진번군, 임둔군을 폐지하고 그 속현들을 낙랑군과 대방군에 병합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진번군과 임둔군이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기원전 82년에는 진번군만 폐지되고 그다음 변혁기인 기원전 75년에 임둔군이 폐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삼국지』 권30 동옥저전에는 현도군이 ‘이맥(夷貊)’의 침략을 받아 고구려의 서북 방향으로 옮기고 현도군 군치였던 옥저성을 낙랑군에 소속시켰다고 기록하면서, 이때 옮긴 현도군치를 『삼국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현도고부(玄菟故府)”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삼국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제3현도군으로 군치는 지금의 무순 지역에 있었다. ‘현도고부’는 곧 제2현도군의 군치를 가리킨다.

그리고 『한서』 권26 천문지(天文志)에는 기원전 75년 정월에 요동(遼東)과 현도성(玄菟城)을 축조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때 현도성의 축성은 이맥(夷貊)의 침입에 따라 현도군 군치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단지 군치 이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옮긴 현도군치에 군사적 방어책이 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현도군은 대략 기원전 82~기원전 75년 사이에 고구려 서북 방향으로 퇴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현도군이 이들 고구려 세력의 공세에 대해 군사적으로 적극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성제, 2011).

이러한 현도군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은 처음 설치되었던 한의 4군체제가 크게 변동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한의 지배력 약화

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고 그 속현들을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하는 과정은 비록 2개 군이 소멸되었지만, 그 속현을 편입한 낙랑군과 현도군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이성제, 2011). 물론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단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임둔군과 진번군 지역의 어떤 사정이 한의 군현정책에 변화를 초래한 것은 틀림없다. 더욱 임둔군을 편입한 현도군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군치를 고구려 서북 방면으로 이치할 정도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랐기 때문에, 낙랑군을 제외하고는 한의 군현지배정책을 변화시키는 어떤 상황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기원전 82년부터 기원전 75년 사이 현도군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군현 지배에 대한 토착세력의 저항만이 아니라, 이 무렵 한의 대외정책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원전 87년에 무제(武帝)가 죽은 후 한은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였다. 염철논쟁(鹽鐵論爭)이나 유가(儒家)를 중심으로 신흥 정치세력에 의해 주요 외교정책론으로 제기된 이이제이론(以夷制夷論) 등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 한 군현의 잦은 변동 원인을 한의 대외정책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현도군 군치의 이동이 ‘이맥(夷貊)’의 침공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기사에서 보듯이 토착세력의 강력한 반발이 군현 지배체제 변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여기의 이맥은 고구려를 건국하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정치세력으로 파악되며(여호규, 2002), 현도군치가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이맥이 침입한 지역은 아마도 현도군 관할 아래에 있던 고구려 지역일 것이다(田中俊明, 1994).

즉 이맥에 의하여 요동군에서 동해안의 옥저성까지 이어지는 교통로가

차단되자, 부득이 한 정부는 옥저성을 낙랑군 소속으로 재편하고, 현도군의 군치는 고구려의 서북 방면인 고구려현으로 이전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도군은 고구려에 대한 견제라는 기능을 맡게 되었을 것이며,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동성과 현도성을 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의 대응 양상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 세력이 현도군에 대해 가하는 압박이 매우 강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75년 무렵에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는 ‘이맥’이라 불리우며 주변 세력과 구분되고, 동시에 현도군 세력을 퇴축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치적 통합과 군사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정치체가 등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여호규, 2005). 이 ‘이맥’이 초기 고구려를 구성하는 세력 집단일 것이다. 이를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초기 왕실인 소노부(消奴部) 중심의 연맹체가 형성된 결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준성, 2019).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듯이 늦어도 제2현도군에 고구려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기원전 75년 이전 혹은 현도군의 설치 이전에 ‘고구려’라는 이름의 정치체 혹은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뜻한다. 현도군을 퇴축시킨 이맥이 고구려라는 이름과 깊이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통해 늦어도 기원전 75년경에는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갖추고 주위의 국가들과 연합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구려의 국가 형성 시기를 현도군 설치 이전으로 올려보기도 한다(이기백, 1986).

그러면 기원전 75년 무렵에 현도군의 군치를 고구려현으로 옮기고 옥저현을 낙랑군에 이관시킴에 따라 현도군의 관할범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제1현도군 시기에 현도군의 관할범위나 지배방식을 광역의 지배범위가 아니라 공로상의 지배로 파악한 이유는 현도군의 설립 초기 현 수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제2현도군 시기에 현 수가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제 현도군의 운영 및 중심지(군치) 문제와 관

련하여 현도군의 군현 문제를 살펴보자.

『한서』 권28 지리지에는 현도군의 속현으로 고구려(高句驪), 상은태(上殷台), 서개마(西蓋馬) 3개 현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원전 75년 무렵 현도군이 고구려 서쪽으로 이치된 이후인 제2현도군에 소속된 현의 수로 파악된다. 다만 현도군의 호구 수는 2만 5,006호(戶)에 22만 1,845구(口)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3개라는 현의 수에 비하여 호구 수가 매우 과도하다. 같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낙랑군의 경우 25개 현에 인구는 40만 6,748명으로 1개 현당 평균 약 1만 6,000명이며, 요동군은 18개 현에 27만 2,539명으로 1개 현당 평균 1만 4,000명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에 비해 현도군은 1개 현당 평균 7만 3,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서 1개 현의 인구가 평균 7만 명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중원 지역만 해당되며, 이 외에는 대체로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함이 일반적이다. 낙랑군 치소가 위치한 조선현(朝鮮縣)의 경우 6만 명에 가까운 인구수이지만, 본래 고조선의 수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낙랑군의 나머지 속현들도 대부분 인구수 2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종록, 2018). 따라서 속현은 제2현도군 시기의 기록이며, 호구 수와 인구수는 제1현도군 시기의 호구수 기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李丙燾, 1976), 또는 호구 수는 왕망(王莽)대 이전으로, 속현은 왕망대 이후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末松保和, 1961). 그러나 『한서』 지리지 현도군조의 현 수 및 호구 수가 시기 차이가 큰 기록이 혼재되어 있다는 앞의 추정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서』 지리지의 군국(郡國)별 호구적은 원시(元始) 2년(2년) 상계부(上計簿)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군국별 소속 현목은 원연(元延)-수화(綏和) 연간(기원전 9~기원전 8년)에 작성된 것이다(肥後政紀, 1998). 그렇다면 현

도군의 경우에만 굳이 호구 수와 현 수 기록이 시차를 크게 달리한다고 파악할 근거는 없다. 호구 수나 현 수 모두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윤용구, 2007).

그러면 현 수와 호구 수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불균형의 배경은 무엇일까? 호구 수에는 현도군 관할 외부에 있는 고구려사회의 주민 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또는 이 호구 수를 실제 현도군이 관할하던 속민으로 보며 속현의 수가 적은 것은 변군에 고구려를 제압해야 하는 입장인 현도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이성제, 2011). 또는 제2현도군 설치 당시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규 모 사민(徙民)의 결과로 이와 같은 과대한 인구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박대재, 2017).

이러한 현 수와 호구 수의 불균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제2현도군의 군치인 고구려현 및 상은태현, 서개마현 세 현의 위치를 비정해보자. 『한서』 지리지에는 이들 세 현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高句驪), 요산(遼山)에서 요수(遼水)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 또 남소수(南蘇水)가 있는데 서북쪽으로 흘러 새외(塞外)로 나간다. 상은태(上股台), (왕)망이 하은(下殷)으로 고쳤다. 서개마(西蓋馬), 마자수(馬訾水)가 있는데 서북쪽으로 흘러 염난수(鹽難水)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흘러 서안평(西安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두 군을 지나는데, 길이가 2,100리이다. (왕)망이 현도정(玄菟亭)으로 고쳤다.<sup>11</sup>

먼저 고구려현은 소요수(小遼水), 즉 혼하(渾河)가 그 경내에서 발원한

다고 하였으니 이는 제2현도군 때의 상황으로서 소자하 상류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신빈현 영릉진고성으로 비정하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제1현도군 때 고구려현의 위치이다, 그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던 현 길림성 집안(集安)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였다. 이는 현도군의 중심지와 고구려의 중심지를 동일한 곳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초기 현도군의 군치를 옥저현으로 보는 견해에서도 제1현도군 시기 고구려현의 위치를 중국 길림성 집안으로 비정하고 있다(田中俊明, 1994). 즉 제1현도군에서 제2현도군으로의 변화에는 군치(郡治)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구려현도 이동하였다고 파악한다.

사실 그동안 집안에 현도군 고구려현이 있었다는 논거가 없지 않았다. 집안시문물보관소는 국내성을 조사하면서 고구려시기의 석축 성벽 아래층에서 판축(版築)으로 쌓은 토축 성벽을 발견하였고 이를 한대 고구려현성의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閻毅之·林至德, 1984). 이러한 한대 토성지의 존재는 집안 지역을 고구려현의 소재지로 비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였다. 집안 지역만이 아니었다. 중국 요령성 환인(桓仁)현에 있는 하고성자(下古城子) 고성지(古城址)유적 역시 한의 현성이었던 것을 고구려가 전용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였다(魏存成, 1985). 이렇게 고구려 세력의 중심지에 현도군의 현치가 자리잡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으로서 그동안의 주류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의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집안 국내성유적에서 보고되었던 토축 성지는 한대의 토성지로 볼 수 없고, 고구려시기 축성 방식의 일

11 『한서』 권28 지리지8하1, “高句驪 遼山遼水所出 西南至遼隊 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上殷台 莽日下殷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日玄菟亭.”

부로 파악하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마찬가지로 환인의 하고성자성지 유적도 근래의 조사에서는 한의 축조법을 이용하여 고구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新奎, 2004). 이러한 근래의 고고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와 이해에 따라 고구려 세력의 중심지인 환인 지역과 집안 지역에서 한 군현 치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현의 위치가 처음부터 신빈 영릉진(永陵鎭) 한대 고성(古城)으로서,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의 고구려현의 위치는 동일한 곳이었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이성제, 2011).

그러면 제2현도군의 고구려현으로 비정되는 신빈 영릉진고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영릉진고성은 큰 성인 남성(南城)과 작은 성인 북성(北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2008년에 걸쳐 북성을 발굴한 결과 북성의 성벽은 세 차례에 걸쳐 축조되었고, 내부에는 5개 문화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제1기는 청동기문화층, 제5기는 요금대(遼金代)문화층이고, 그 사이의 제2~4기 문화층이 한(漢)이나 고구려와 연관된 문화층이다. 그중 제2기 문화층은 전한시기, 제3기 문화층은 후한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제4기 문화층은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발굴보고자들은 전기는 후한 봉괴 이후 요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공손씨(公孫氏) 정권과 연관되며, 후기는 고구려나 전연(前燕)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그중 제2기 문화층이 현도군 시기와 겹치는데, 보고자들은 북성이 제1현도군 시기에 처음 축조되었고, 기원전 75년에 개축되었다고 보았다. 더욱 5기 문화층에서 봉니(封泥) 잔편이 출토되었는데, 윗면 왼쪽에 ‘馬’번, 아랫면에 ‘丞’자가 남아 있다. 잔존 글자와 자획으로 보아 이 봉니는 ‘고구려승(高句驪丞)’이라는 네 글자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봉니는 교란에 의해 제5기 문화층에 들어간 한대 유물로 영릉진고성의 북성이 고구

려현의 치소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발굴보고의 견해에 근거하면, 제1현도군 시기의 고구려현도 영릉진고성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제1현도군을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두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소자하 유역에 위치한 영릉진고성의 북성이 기원전 75년경에 처음 축조했다고 추정하고 있다(여호규, 2020). 현재의 고고자료가 이 정도 시차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1현도군 고구려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성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북성을 현도군의 수현(首縣)인 고구려현 치소로 본다면, 이웃하고 있는 규모가 큰 남성은 적어도 제2현도군 시절 근처로 추정할 수 있다. 북성과 남성의 축조 시기 및 유적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뒤에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다음 제2현도군의 또 다른 현인 서개마현과 상은태현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 서개마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현재의 혼강과 부이강(富爾江)의 합수처(李丙燾, 1976), 신빈 목기토성(田中俊明, 1994), 현재의 강계 지역(和田清, 1951), 위원(渭原)에서 초산(楚山)으로 나가는 일대(윤용구, 2008)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문헌 기사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서개마현의 관내에 흐른다고 하는 염난수와 마자수를 어디로 비정할 것인지, 그리고 왕망 대에 ‘현도정’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현도군에서 요동군으로의 입경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병도, 1976)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치 비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마자수를 강계에서 서북쪽 만포진으로 흐르는 독로강으로, 염난수를 압록강으로 비정하게 되면(和田清, 1951) 서개마현은 독로강 유역과 압록강 중류 지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집안, 강계, 위원에서 초산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현도군과 요

동군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였다고 본다면 신빈이나 소자하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서개마현이라는 이름으로 보아도 압록강 중류 지역에 비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집안은 근래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한대의 치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부정되었으므로, 일단 후보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계 혹은 위원에서 초산 일대로 보는 견해가 교통로상에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상은태현은 그 위치를 짐작할 만한 기록이 없지만, 기사(紀事)의 기술 순서에서 고구려현과 서개마현의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대략 그 위치를 추정하고 있다. 서개마현을 압록강 중류 지역 또는 집안현 일대로 보면서, 상은태현을 고구려현과 서개마현을 연결하는 위치인 혼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1999).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상은태현의 유력한 후보지로 통화(通化)의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을 고려할 수 있다(邵春華 外, 1987; 李健才, 1990; 노태돈, 1999). 이외에 영릉진 고성으로 비정되는 고구려현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서 고구려현을 방어하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은태현을 신빈의 백기보고성에, 서개마현을 신빈현 목기진 부근의 목기토성에 비정하는 견해(田中俊明, 1994)가 있다.

상은태현을 비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통화의 적백송고성은 한대 현성(縣城) 유지(遺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근래의 발굴조사 결과가 유의된다(王義學, 2008). 즉 적백송고성에서는 두 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아래층인 1기는 전한(前漢) 중후기로 편년되며, 위층인 제2기는 후한(後漢) 초로 편년된다. 두 문화층 가운데 아래층인 제1기는 비교적 장기간 사용했는데, 전한 중후기로 편년된다. 반면 제2기는 단기간 사용했는데, 후한 초로 편년되며 미완성 상태에서 폐기된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제2기 건물군이 미완성 상태에서 폐기된 것은 고구려가

후한의 유희책을 틈타 이곳을 공격하여 점령했기 때문으로 본다(여호규, 2020). 어쨌든 적백송고성이 전한 말 나아가 후한 초까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고고자료의 정황은 제2현도군의 속현인 상은태현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2현도군의 서개마현과 상은태현의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만큼 여기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서개마현과 상은태현 2개 현은 제1현도군에서 제2현도군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현치가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1현도군 고구려현과 제2현도군 고구려현의 위치를 어디로 파악하느냐는 현도군의 성격이나 관할범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자료로서 고구려 세력의 중심지역 즉 집안이나 환인 지역에서 한대 현도군의 군현 치소가 설치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구려현의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1현도군의 고구려현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여호규, 2005)가 있고, 아니면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 고구려현은 그 위치가 동일하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이성제, 2011). 전자의 경우에는 고구려 세력의 중심지를 벗어난 곳에 현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구려세력권을 벗어난 곳에 설치한 현을 왜 고구려현이라고 명명했는지가 의문이다. 현재까지의 문헌자료나 고고자료로서는 제1현도군의 고구려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데, 만약 후자의 견해처럼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의 고구려현이 동일한 곳 즉 신빈 영릉진고성이라고 한다면, 현도군과 고구려 세력집단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여러 견해와는 상당히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현의 위치 비정 문제는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현도군 때에 고구려현과 현도군 군치는 영릉진고성 일대임은 분명하고, 상은태현은 통화 적백송고성에 비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개마현의 위치를 강계 혹은 위원에서 초산 일대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들 3개 현의 지리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 발흥지의 중심부인 환인이나 집안 지역을 외곽에서 감싸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당연히 현도군을 서쪽으로 이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성장하는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윤용구, 2008).

그런데 상은태현과 서개마현은 제1현도군 때부터 설치되었던 현이며, 고구려현의 경우 제1현도군 때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고구려 세력의 핵심지역인 집안이나 환인 지역이 아니었음은 고고자료의 현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분명하다. 고구려현이라는 이름을 갖는 현이 고구려 세력의 핵심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혹 제1현도군 시기에 위 3현 외에도 다수의 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구려의 세력범위 외곽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 시기 현도군의 기능을 교통로상의 몇 개 거점을 중심으로 현성을 설치하고 이를 잇는 지역을 관할하면서, 토착사회인 고구려의 중심지와는 유리된 위치에서 고구려 세력을 감시, 견제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낙랑군이 토착사회의 세력집단별로 현성을 설치한 반면, 현도군은 몇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현성을 설치하고 관할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윤용구, 2006). 이런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면, 현도군 설치 당시의 관할범위나 성격, 그리고 현도군의 기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 교통로의 운영 양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견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제2현도군이 불과 3개의 소속 현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세력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식에 유의하는 연구도 있다. 우선 기

원전 75년에 현도군치를 옮기는 시기를 전후하여 군국의 무리를 모아 요동성과 현도성을 축조했다는 『한서』 권7 소제기(昭帝紀)의 기사가 주목된다. 즉 군치 이전을 전후하여 ‘이맥소침’에 대응하여 이 지역 군사력 강화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축조된 현도성은 새로운 군치 즉 영릉진 한대고성으로 종래의 현성을 군치로 전용하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개축한 것을 뜻한다. 특히 군국의 무리를 모아 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성곽을 쌓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요동성도 함께 축성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이 요동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들은 단지 고구려 세력의 성장만이 아니고 요동의 서북방에서 흥기하고 있던 오환(烏桓)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권오중, 1995; 여호규, 2005).

당시 요동 지역에서 오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요동군의 약체화에 따른 것으로 도요장군(度遼將軍)이라는 중앙의 원정군이 출격해야 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이는 소제(昭帝)대의 긴축정책 때문이었다. 또한 도요장군이 출정했다는 것은 요동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이 동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권오중, 1995). 오환의 위협에 더하여 압록강 중류 일대의 주민집단인 이맥(夷貊)이 제1 현도군을 공격하였다. 즉 당시 한은 동북방에서 오환과 고구려 양 지역에서 동시에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일단 더 큰 위협인 오환을 토벌하는 데 한의 군사력을 집중하였고, 이맥에 대해서는 현도군치의 이전과 현도성 축조로서 대처한 것이다(여호규, 2005).

한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도군의 군사적 방어체제로서 중국 요령성 무순(撫順) 일대에서 조사 보고된 한대 봉수선(烽燧線)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 봉수선은 무순을 중심으로 그 서쪽으로는 십양까지, 동쪽으로는 소자하 연안을 따라 동남쪽으로 신빈 영릉진고성

과 왕청문(旺淸門) 일대까지 이른다. 이 봉수선의 수효는 약 60여 기로 약 150km의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蕭景奎, 2000). 그런데 이 봉수열은 지역적으로 혼하와 소자하의 연안선에 집중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가도(街道)를 따라 설치된 ‘도상수(道上燧)’이며, 제2현도군 시기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현도군에 새로 설치된 군사적 역량강화정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이성제, 2011). 이 봉수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한 현도군이 고구려 세력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적백송고성의 발굴결과에서 보듯이 후한 초에 적백송고성이 폐기되었다. 특히 미완성 건축유지를 보면, 이러한 폐기 과정이 매우 돌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현도군의 최전방 현치의 퇴축은 곧 고구려 세력의 공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도군과 고구려 세력 사이의 국경선 중 하나는 지금의 통화에서 신빈 사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 2) 책구루의 설치 시기

제2현도군 때에 고구려와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는 거의 없는데, 다음 기사는 양자 관계의 맥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현도군 자체가 두 번이나 치소를 옮겨서 제1현도군에서 제3현도군으로 변천하는 데다가 이 기사에는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현도군과 고구려 관계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책구루의 설치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삼국지』 권30 고구려조의 관련 기사를 제시한다.

① 한나라 시기에 북·피리·악공(伎人)을 하사했는데, 항상 현도군에 와서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아갔으며, 고구려령(高句麗令)은 그 명적을 관리했다. ② 그 뒤에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다. ③ 이에 동쪽 경계에 작은 성곽을 쌓아 안에 조복과 의책을 두면 세시(歲時)에 와서 가져갔다. ④ 지금도 오랑캐들은 여전히 이 성곽을 책구루(幘溝婁)라 부르는데, ‘구루’는 구려에서 성곽을 일컫는 말이다.<sup>12</sup>

이 기사에서는 모두 네 개의 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네 개의 시점 중 그 시기가 비교적 명료한 시점은 ④이다. 즉 『삼국지』가 편찬되는 3세기 중엽이다. 여기서 오랑캐는 아마도 산상왕 때에 고구려에 투항한 호(胡), 즉 선비집단일 것이다. 고구려는 이들 선비집단을 책구루 지역으로 사민시킨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책구루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3세기 중엽까지도 고구려와 위(魏) 사이의 완충지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그런데 ④를 제외한 ①, ②의 시점이 모두 명확하지 않으며, ③의 시점, 즉 책구루가 설치된 시기 또한 불분명하다. 각 기사의 시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① 기사는 ‘한시(漢時)’라고 표현된 시점인데, 한이 북·피리·악공(伎人)을 하사하고, 고구려령(高句麗令)이 명적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제1현도군 때의 상황인지 아니면 제2현도군 때의 상황인지, 아니면 양 시기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12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고구려, “漢時賜鼓吹伎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溝婁者 句麗名城也.”

②“그 뒤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라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진다. 즉 이를 기원전 75년 현도군의 군치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된 “이맥소침(夷貊所侵)”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당연히 그 앞의 ‘한시(漢時)’의 상황을 제1현도군 때의 내용으로 파악하게 된다(박경철, 1998).

그러나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라는 표현은 “이맥소침”에 따른 군치의 이동과 같은 매우 적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당 기사의 전후 맥락을 볼 때 ① 시기에서부터 ③ 시기에 이르기까지 현도군에서 고구려와의 동계(東界)를 설정할 수 있는 동일 지역에 위치한 현도군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지적대로(여호규, 2005), 사료에서는 특별히 현도군의 위치가 변경된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① ‘한시(漢時)’의 상황 역시 제2현도군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② 기사의 내용 즉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다”라는 기술은 어떠한 상황을 뜻하는 것일까?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고구려 계루부 왕권의 강화 및 부체제(部體制)의 등장과 관련하여 설명되어 왔다. 즉 ① 단계에서는 고구려사회의 ‘나(那)’ 등 소집단 수장들이 개별적으로 외교권과 무역권을 행사하여 현도군과 교섭하였으나, ② 단계에서는 고구려 계루부 왕실이 등장하면서 현도군에 의한 분리조정책을 차단하고 고구려사회 내 세력집단의 독자적인 외교 교섭을 통제하면서 이들을 결집시킨 결과로 이해하였다(노태돈, 1976).

그리고 이러한 양자 관계의 변화, 고구려사회 내부의 정치적 결집은 최종적으로 현도군의 동계에 책구루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책구루의 존재는 고구려 계루부 왕권이 대외무역권과 교섭권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즉 고구려의 대외교섭창구의 일원화를 뜻하는 것으로, 바로 계루부 왕권의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였다.

그러면 책구루가 설치된 시점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

가 제기되었다. 기원전 75년 전후설(윤용구, 2006; 이성제, 2011), 유리왕설(이종욱, 1999), 유리왕 말기에서 대무신왕대설(김미경, 2007; 김현숙, 2007), 태조왕대설(노태돈, 1975; 김기홍, 1987; 김창성, 2004; 여호규, 2005) 등이다.

먼저 태조대왕설은 책구루가 계루부 왕실이 대외교섭권을 일원화한 결과로 파악하고, 이를 고구려의 5부체제 성립과 동일한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5부체제가 성립된 태조왕 무렵에 책구루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주류적 견해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고구려사회의 내부 문제인 5부체제의 문제와 대외관계의 결과인 책구루 설치가 반드시 연계된다는 점이 충분히 논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구루의 설치 시점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책구루의 시점을 당시 전한, 왕망, 후한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국제정세 및 중국 왕조의 대외정책, 동방정책 등과 관련시켜 검토하는 연구가 나왔다. 즉 제2현도군 등장의 배경으로 오환의 흥기에 주목하면서, 오환 문제가 안정되자, 한은 압록강 중류 지역 주민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삼국지』 기사에서 고취기인(鼓吹技人) 사여하고 고구려현령이 명적(名籍)을 관장하였다는 기사라고 파악하고 있다(여호규, 2005).

하지만 책구루는 고구려가 현도군만을 교섭 상대로 하던 시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태조왕대의 대외관계를 보면 이미 현도군을 넘어 요동과 요서 일대의 군현 및 선비(鮮卑) 등 주변 유목세력과의 활발히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태조왕대를 책구루의 설치 시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용구, 2006). 또한 책구루 설치의 의의를 현도군과의 교섭 창구 일원화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태조왕대로 보아야 하느냐

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나타났다. 고구려는 기원전 75년 무렵 ‘이맥소침’ 사건이 증명하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조왕대 이전에 이미 고구려가 현도군과의 교섭을 단일화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이성제, 2011).

이러한 입장에서 근래에 책구루는 전한 소제 말에서 왕망(王莽)이 등장하기 이전에 설치 운용되었다는 견해가 등장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거나 비슷한 입장에서 논증하는 견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들 견해에서는 다시금 ②의 단계를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이맥의 현도군 침략, 곧 당초 현도군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하여 양자 교섭이 단절되었던 사건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윤용구, 2006; 이성제, 2011; 박노석, 2015). 이처럼 책구루의 설치 시기를 왕망대 이전으로 본다면 제2현도군으로 이전한 기원전 75년에서 9년 사이에 해당한다(이종욱, 1987). 책구루의 설치 시기를 이렇게 앞당겨 본다면, 기존의 주류적 견해인 태조왕대설과는 상당히 다르게 고구려 초기 역사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 주장의 문헌적 근거는 비교적 후대에 등장하는 사서인 『북사(北史)』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고구려조 관련 기사에서 책구루 관련 기사에 이어서 왕망에 의한 고구려병의 징발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사의 기술 순이 연대기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보고, 책구루의 설치를 왕망대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조왕대에는 고구려와 한의 접촉 지점이 현도군만이 아니라 요동군 등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도 깊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북사』 등 후대 사서의 기사에 보이는 기술 순은 연대기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기사는 대체로 『삼국지』 고구려조의 관

런 기사를 전제하고 있는데, 『삼국지』 고구려조의 내용을 보면, 책구루 관련 기사가 기술되고 이어서 관등이나 풍속 등 민족지적인 내용이 기술되고 있으며, 그 뒤에 왕망 초기에 고구려병 징발 관련 기사 등 기년 기사가 연대기순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삼국지』 고구려조 기술 순서를 고려하면 후대 사서 편찬자들이 책구루 기사와 왕망 초기 기사 사이에 있는 민족지적인 기사를 생략하고 관련 기사를 전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구루 기사가 왕망 초 기사 앞에 기술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북사』 등 후대 사서에 보이는 책구루 기사의 기술 순서를 연대기순으로 파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음 태조왕대 후한과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현도군을 넘어 요동 일대를 유린하고 이에 대해 요동군이 대응하고 나서는 상황 역시 하나의 정황일 뿐이며, 현도군과 고구려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후한의 입장에서 고구려와의 군사적인 충돌에 대응하더라도, 현도군을 통하여 책구루 설치 등 보다 유화적인 교섭창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삼국지』의 책구루 관련 기사를 보면 일단 기사 ①~③에서 현도군치의 이동을 고려할 만한 정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기사 ②의 내용 역시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49년 이후 105년까지 고구려와 제2현도군의 교섭 기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기사 ②의 내용이 이 시기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책구루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이맥소침’ 이후인 제2현도군 단계에서도 ①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현도군은 고구려를 대상으로 조복과 의책을 사여하였으며, 이후 고구려가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군에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현도군에서는 책구루라는 성을 쌓아가면서까지 교섭을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 즉 조복과 의책 사여 및 책구루 설치가 고구려보다는 현도군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이종록, 2018). 이러한 상황을 한이 동방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중국 문물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군(郡)에 속하게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파악하기도 한다(이준성, 2019).

그러면 조복의책의 사여나 책구루의 설치를 통해 현도군이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고구려 현령에 의해 관장되는 ‘명적(名籍)’이란 조복의책의 수여 대상이 기재된 명부(名簿)로 파악하고, 한 군현이 이민족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호시(互市)’를 개설하였는데, 호시 출입은 군현이 제공한 조복의책을 소지한 자만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현도군 고구려현도 고구려를 상대로 한 호시를 개설하였다고 파악했다(이성제, 2011). 책구루의 설치 시기를 기원전 75년 무렵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도군이 책구루라는 호시를 통해 고구려사회에 대한 분리조종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윤용구, 2006; 이성제, 2011). 한편, 책구루의 성격에 대해 호시가 아니라 외교적 위세품을 두던 곳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석, 2004; 여호규, 2005).

또는 한 관인들의 공식 복식인 조복의책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를 사여하는 것은 한나라 측에서 해당 지역의 대표자임을 공인해주는 일종의 책봉 행위로 파악하기도 한다(장병진, 2015). 하지만 조복의책에 특정한 책봉 관작(官爵)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또 조복의책을 하사받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책구루에서 서로 접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구루를 통한 조복과 의책 사여를 현도군에 소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하사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석, 2004; 장병진, 2015).

그런데 현대의 호시는 군현 외부의 이민족을 상대로 하여 개설되었다. 기사 ①에서 조복의책과 명적을 단서로 당시에 한이 고구려와 사이에 호시를 개설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책구루를 호시로 보면서 책구루의 설치를 기원전 75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기원전 75년 이전, 즉 제1현도군 시기에도 현도군의 영역 외부에 새외(塞外)의 고구려 세력이 존재하게 된다(이성제, 2011). 12년 무렵 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왕망의 신(新) 왕조와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다. 『후한서』 고구려전에 의하면 12년에 왕망이 흉노 정벌에 고구려 병사를 강제로 동원하자, 고구려 병사들이 모두 ‘새외(塞外)’로 도망쳐서 오히려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이에 요서대윤(遼西大尹) 전담(田譚)이 이들을 추격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자 군현이 고구려에게 허물을 돌리게 되었고, 왕망은 엄우(嚴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여 엄우가 고구려후 추(騶)를 사로잡아 살해하였으며, 이에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下句麗)로 이름을 바꾸어 포고했다고 한다.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에 전하는데, 여기에는 유리왕의 장수 연비(延丕)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독자적 전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만 고구려본기의 기사 내용은 대체로 중국측 사서의 기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 전승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엔가 연비라는 이름만 전해지는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당시 고구려사회와 현도군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을 전해 주고 있다. 군현의 징발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구려인이 있는데, 이들이 군현의 동원을 거부하고 새외로 도망쳤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새내(塞內) 즉 현도군 경역 내에 거주하는 고구려인이었다. 이외는 달리 새외에 거주하는 고구려인의 존재도 살필 수 있는데, 군현이 허물을 고구려후 추에게

돌렸다는 점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이병도, 1975; 윤용구, 2006).

즉 고구려인의 거주지역 중에서 현도군의 관할 대상이 된 지역과 현도군의 관할범위 밖에 있는 존재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2현도군에 소속된 새내의 고구려인 및 새외에 거주하는 고구려인에 대한 파악은 제2현도군의 관할범위 및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도군 소속의 3개 현인 고구려현, 서개마현, 상은태현은 고구려사회의 외곽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3개 군현에 소속된 고구려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즉 새내의 고구려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도군의 경우 현 수와 호구 수에 불균형한 내용을 보이는 것은 현 수는 현도군 소속이지만, 호구 수는 현도군의 관할 주민만이 아니라, 관할 밖의 고구려 주민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겠다.

『삼국지』 고구려조의 책구루 관련 기사에서 ①의 시기에 고구려현령이 고구려의 명적을 관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구려현령이 주관하는 명적에는 현도군 관할 밖의 고구려사회의 주민 수도 파악하여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현도군의 호구 수 상황을 보여주는 작성 시점이 2년(원시 2년)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바로 ①의 고구려현령이 명적을 주관하는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새내의 고구려인 및 새외에 거주하는 고구려인이 구분되는 왕망대에는 책구루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책구루가 설치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교섭을 중단하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유화책으로 책구루가 설치되었음을 고려하면 한의 대외정책 변화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41년에 요동태수로 파견된 제융(祭彤)은 부임 초기에는 선비와 오환의 침공을 무력으로 방어하다가, 49년경부터 무력보다 재리(財利)와 은신(恩信)으로써 주변 족속을 위무하였다. 이러한 제융의 유화책은 개인적인 정책이 아니라 후한 조정 차원에

서 구체화된 대외정책이었다. 후한은 46년경 극심한 자연재해로 흉노가 쇠퇴하자, 변군의 정후(亭候)와 이졸(吏卒)을 혁파하는 한편 재리(財利)를 앞세워 주변 국가나 족속을 회유했다(여호규,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보자면 책구루의 설치도 이 무렵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책구루가 위치한 현도군의 ‘동계’는 어디였을까? 동계는 제2현도군의 입장에서 기술한 표현이므로 영릉진고성에서 동쪽 방향 곧 소자하 상류 방면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영릉진고성에서 소자하 상류 방면으로는 신빈현 소재지를 지나 백기보(白旗堡) 일대까지 상당히 넓고 평탄한 하곡평지가 이어진다. 백기보 동쪽에는 소자하와 부이강을 가르는 분수령지대가 남북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곳을 통과하면 부이강 유역으로 진입해 고구려 건국의 중심지인 환인분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로 보아 동계는 소자하-부이강의 분수령지대를 지칭한다고 파악된다(여호규, 2020).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한대 고성(古城)의 분포양상을 고려하면, 책구루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백기보고성(白旗堡古城)을 들 수 있다(曹德全, 2001; 여호규, 2020). 백기보고성은 소자하 유역의 한대 고성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그 앞쪽으로 소자하-부이강의 분수령 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혼강과 소자하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환인 동북의 전략지점으로 여겨진다(여호규, 2020). 물론 백기보고성을 상은대현 혹은 고구려현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田中俊明, 1994).

책구루의 존속 기간은 영릉진고성에 위치한 제2현도군이 존재할 때까지이다. 그러면 제2현도군은 언제 무순으로 군치를 옮긴 제3현도군으로 바뀌었을까? 『후한서』 권33 군국지(郡國志) 현도군조에 인용된 『동관서(東觀書)』에는 후한 안제(安帝) 즉위년에 새로 요동군에 소속된 고현(高顯), 후성(候城), 요야(遼陽) 3개 현을 현도군에 분속시켰다고 하였다. 『동관한기(東觀漢記)』 권7 지리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그동안 많은 연

구자들이 이 기사를 근거로 고구려가 106년(후한의 안제 즉위년)을 전후해 제2현도군을 혼하 방면으로 퇴축했다고 보았다(箭內互, 1913). 또는 고구려가 요동군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던 105년에 제2현도군을 점령했다고 보기도 한다(池內宏, 1941; 和田清, 1951).

그런데 후한은 1세기 말경에 이미 내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강족(羌族)과 선비의 침공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97년경부터 선비가 후한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때 요동태수 제삼(祭參)은 선비의 비여(肥如) 침공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주살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동방 지역에 대한 후한의 지배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이를 틈타 제2현도군을 점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선비가 후한을 공격하기 시작한 97년을 전후하여 고구려가 제2현도군을 공격해 점령했으며, 이때는 요동태수 제삼이 주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도군을 재정비할 겨를이 없었고, 106년에 요동군의 고현·후성·요양 등을 현도군에 분속시킨 사실은 후한이 다시 현도군을 재정비한 결과로 파악한다. 즉 105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한 기사에 현도군은 보이지 않고, 요동태수인 경기(耿夔)가 방어에 나선 것도 제2현도군에서 퇴축된 이후 아직 현도군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여호규, 2005).

105년 고구려의 요동 공격 이후 후한은 현도군을 복구하기 위해 106년에 요동군의 고현·후성·요양 등을 현도군의 속현으로 재편하면서, 혼하 남안의 무순에 제3현도군의 치소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치소가 지금의 무순 노동공원고성이다. 그리고 고구려현, 상은태현, 서개마현 등 종전의 속현도 혼하 일대로 이치하고, 혼하와 동주하(東洲河)를 따라 설치되었던 요동고새(遼東故塞)를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이를 통해 후한은 제3현도군의 중심부인 무순 일대를 감싸는 요동고새를 최전방 방어선으로 삼아 고구려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추 수 있었다(여호규, 2005).

신빈 영릉진고성을 군치로 하는 제2현도군에서 무순의 노동공원고성을 군치로 하는 제3현도군으로의 변천은 고구려 세력에 의한 현도군의 퇴축 과정이었으며, 이는 제2현도군 시기, 즉 기원전 75년부터 1세기를 전후한 무렵까지 대략 120여 년 동안에 고구려가 현도군으로 대표되는 한의 군현 지배와 대외정책을 어떻게 제압하면서 국가적으로 성장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과 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은 대외적으로는 제2현도군과의 길항 관계, 퇴축 과정이었다.

## 참고문헌

- 安鼎福, 『東史綱目』.  
柳得恭, 『四郡志』.  
丁若鏞, 『我邦疆域考』.  
韓鎭書, 『海東釋史』.
-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일조각.  
金哲垞,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春秋文庫 001)』, 韓國日報社.  
金翰奎, 1982,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一潮閣.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종욱, 1999, 『한국의 초기국가』, 아르케.
- 權五重, 1995, 「前漢時代の遼東郡」, 『人文研究』 17-1, 영남대학교.  
\_\_\_\_\_, 1996,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_\_\_\_\_,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기수연, 2007, 「현도군과 고구려의 건국에 대한 연구」, 『高句麗研究』 29.  
金基興, 1985, 「夫租歲君에 대한 고찰-漢의 對土着勢力 施策의 一例-」,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1987, 「고구려의 成長과 대외교역」,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미경, 2002,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  
\_\_\_\_\_, 2007,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석, 2004, 「고구려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 노태돈, 1975,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 『韓國史論』 2.
- , 1986, 「高句麗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編, 1987, 『고구려사연구』 재수록).
- 박경철,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의 統合 努力」, 『한국고대사연구』 14.
- 여호규, 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 ,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韓國古代史研究』 25.
- , 2005,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 『軍史』 54.
- 윤선태, 2010,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일고찰」, 『歷史學報』 162.
- , 2007, 「고구려의 흥기와 幟溝淩」,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 ,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 2009, 「평양출토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연구」, 『목간과문자』 3.
- 이기백, 1985, 「고구려의 국가 형성문제」,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 이병도, 1930, 「현도군及臨屯郡考」, 『史學雜誌』 41-4(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재수록).
- 이성제, 2010, 「낙랑의 군현 재편과 예(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 2011, 「현도군의 개편과 고구려」, 『한국고대사연구』 64.
- 이종록, 2018, 「高句麗와 玄菟郡의 관계와 幟溝淩 설치 배경 검토」, 『선사와 고대』 55.
- 이종욱, 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역사학보』 94·95합집.
- 李鍾旭, 1987, 「高句麗 初期의 政治의 成長과 對中國關係의 展開」, 『東亞史의 比較 研究』, 一潮閣.
-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20, 「滅君 南閩의 동향과 滄海郡, 현도군 설치」, 『백산학보』 116.
- 李賢惠, 1997, 「동예와 옥저」,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 통치 체제」, 『朴性鳳回甲紀念論叢』.
-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광, 2011, 「고구려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永陵鎮古城』.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2000-3.

邵春華 外, 1987, 「赤柏松漢城調查」, 『博物館研究』1987-3.

孫守道, 1992, 「漢代遼東 長城列燧遺跡考」, 『遼海文物學刊』1992-2.

閻毅之·林至德,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1984-1.

王義學, 2008 「赤柏松古城考古發現及其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1985-2.

李健才, 1990, 「玄菟郡的建置和遷移」, 『東北地方史研究』1990-1.

李新全 外, 2004, 「關於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 『東北史地』2004-3.

高橋匡四郎, 1941, 『蘇子河流域における高句麗と女眞の遺蹟』, 建國大學研究院.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靄山明, 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那珂通世, 1958, 「朝鮮樂浪玄菟帶方考」, 『外交譯史』, 岩波書店.

大原利武, 1932, 「玄菟郡考」, 『朝鮮』206.

稻葉岩吉, 1915, 「玄菟郡の名稱について」, 『歴史地理』25-1.

———, 1928, 「漢四郡問題の考察」, 『朝鮮』154.

瀨野馬熊, 1923·1924, 「朝鮮廢四郡考(上·中·下)」, 『東洋學報』13-1·3·4.

末松保和, 1961, 「玄菟郡の戶口數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 東洋史論叢』(1996,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高句麗と朝鮮古代史)3, 吉川弘文館 재수록).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2-1(『白鳥庫吉文集』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재수록).

肥後政紀, 1998, 「漢書地理志所載の戶口統計の年代について」, 『明大アジア史論集』3, 明治大學 東洋史談話會.

首藤丸毛, 1979, 「玄菟·臨屯·眞番三郡についての一私見」, 『朝鮮學報』93.

市川任三, 1968, 「前漢邊郡都尉考」, 『立正大學教養部紀要』2.

箭內互,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歷史地理』(제1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1, 東京大學文學部朝

- 鮮文化研究室, 1994.
- 池内宏, 1912, 「遼東の玄菟郡と其の屬縣」,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6(1951, 『滿鮮史研究』 上世1冊 재수록).
- \_\_\_\_\_, 1940, 「樂浪郡考」,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6(1951, 『滿鮮史研究』 上世1冊, 吉川弘文館 재수록).
- \_\_\_\_\_, 1941, 「前漢昭帝の四郡廢合と後漢書の記事」, 『加藤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說』.
- \_\_\_\_\_, 1941, 「漢魏晉の玄菟郡と高句麗」, 『史苑』 14-3(1951, 『滿鮮史研究』 上世1冊 재수록).
- \_\_\_\_\_, 1951, 「玄菟郡の屬縣高顯の遺址」, 『滿鮮史研究』 上世1冊.
- 樋口隆次郎, 1911・1912, 「朝鮮半島における漢四郡の疆域及沿革考」, 『史學雜誌』 22-12, 23-2~5.
- 和田清,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1951(1955,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재수록).



# 정치 중심지의 형성과 초기 도성의 성격

권순홍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후연구원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역사가 어느 공간을 무대로 하여 출발했는지, 또 어떤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가늠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국가형성기 취락의 입지, 정치 중심지의 형성 과정, 초기 도성인 졸본과 흘승골성, 국내 위나암의 위치와 그 성격을 둘러싼 논의 등을 서술한다.

국가형성기의 취락과 관련한 문헌사료는 거의 없지만, 초기 적석총의 분포 양상 등을 분석하면 대략적인 추이는 확인할 수 있다. 1절과 2절에서는 고고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가형성기의 취락 입지 및 정치적 중심지가 형성되는 양상을 서술한다.

초기 도성에 관한 문헌사료를 보면, 고구려는 졸본에서 건국하고, 유리왕대에 국내 위나암으로 천도하였다고 전한다. 졸본과 국내 위나암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졸본의 위치는 대체로 중국 요령성 환인으로 비정하지만, 국내 위나암의 위치에 관해서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 집안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와 환인 일대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치 비정에 따라서 환인에서 집안 지역으로의 천도 시기에 대한 해석도 유리왕대설, 태조왕대설, 신대왕대설, 산상왕대설 등 다양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인 만큼, 3~5절에서는 관련 쟁점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를 몇 가지 견해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거를 자세히 비교한다.

마지막 6절에서는 국가형성기에 만들어진 고구려 초기 도성의 경관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성+평지성’이라는 오랜 통설에 대한 비판과 경관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소개가 중심이다. 이로써 고구려 역사가 전개된 구체적 위치와 고구려인들이 만들어간 공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 1. 국가형성기의 취락 입지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취락과 관련된 문헌사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삼국지』에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원택(原澤)이 없어서 사람들이 산과 골짜기를 따라서 거주한다고 전할 뿐이다. 따라서 초기 적석층의 분포 양상이나 몇몇 주거유적의 입지 등 고고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추이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형성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은 다섯 곳 정도인데, 발굴 보고가 자세하지 않은 까닭에, 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운 통화(通化) 강연(江沿)유적군과 입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중(時中) 노남리(魯南里)유적 등을 제외하면 환인(桓仁) 추수동(抽水洞)유적과 왕의구(王義溝)유적,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 세 곳이다. 이들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인 추수동유적이다. 이 유적은 중국 요령성 환인현 대전자촌 북쪽, 혼강의 지류인 삼도하자(三道河子)가 흐르는 골짜기의 산기슭에 위치한 취락유적으로, 수혈주거지 2기, 회갱(灰坑) 5기 등이 확인되었다. 또

한 주거지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축조된 석장(石牆)이 확인되었는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시설일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2011). 이곳에서는 전국시대 명도전 280매와 진대(秦代) 반량전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상한 연대를 진·한 교체기로 추정하였다(武家昌·王俊輝, 2003). 단, 한대(漢代) 화폐가 출토되지 않는 점을 주목하여 연·진 교체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으로 조금 더 소급하기도 한다(여호규, 2011). 한편, 추수동유적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 대전자석관묘와 대전자서(大甸子西)고분군의 M6호묘에서 전국시기 유물들이 출토됨에 따라 양자가 공히 기원전 3세기경에 조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梁振鼎, 2005),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추수동유적과도 거리상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전자서고분군의 북쪽에 위치한 대전자(大甸子)고분군에서도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梁志龍·李新奎, 2009), 취락유적인 추수동유적 주변으로 동 시기에 조영된 다수의 적석총들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통화 만발발자유적이다. 이 유적은 중국 길림성 통화시 남쪽 약 3km 거리의 약진촌 뒷산에 위치하는데, 혼강과 그 지류인 금창하가 만나는 합류 지점에 조성된 강안(江岸) 충적대지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구릉 정상부에 자리한다. 취락유적과 고분군이 복합된 유적으로, 주거지 22기와 회갱 160기, 고분 56기 등이 발굴되었다(中國國家文物局, 2001). 총 6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되는 4기 문화층에서 비로소 무기단적석총과 대석개적석총 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확인된다(오강원, 2004). 특히, 이 문화층에서는 구릉 정상부를 방어하는 환호가 확인되어,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취락 가운데 환호취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적석총에 대한 보고가 자세하지 않아서, 4기 문화층을 고구려 초기로 확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강현숙, 2015).

셋째는 환인 왕의구유적이다. 이 유적은 혼강 지류인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강안 충적대지에 돌출된 구릉 기슭에 위치한 주거유적으로, 수혈주거지 25기, 회갱 22기 등이 발굴되었다(樊聖英, 2008; 樊聖英, 2009). 전국시기 또는 한대 토기와 유사한 니질승문회도와 초기철기시대 이래 고구려 토기에서 보이는 특징인 수교이(豎橋耳)와 봉상이(棒狀耳)를 가진 심발 등이 출토됨으로써,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취락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철기의 조합이 전국시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무순 연화보유적에서도 확인되므로, 왕의구유적 역시 비슷한 시기로 비정하기도 하지만(강현숙, 2015), 왕의구유적의 출토품들을 오녀산성 3기 문화층의 출토품들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기원전 1세기로 비정하기도 한다(金旭東, 2011). 한편, 이 유적 부근에도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무기단적석총(M1호묘)와 기단적석총(M2호묘), 대석개적석총(산두자1호묘) 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분포한다(梁志龍·李新全, 2009). 특히, M1호묘에서는 왕의구주거유적 출토품과 거의 유사한 수교이심발이 출토되어 고분군과 주거유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데(樊聖英, 2009), 무기단적석총의 조영 시기를 고려하면 왕의구주거유적의 연대 역시 늦어도 기원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김종은, 2017).

요컨대,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취락유적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 취락의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입지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강줄기의 충적대지라는 사실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고구려 사람들이 골짜기를 따라 거주한다는 『삼국지』 기록과 일치한다. 다른 하나는 취락 인근에 무기단적석총 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군집한 고분군이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비록 현재는 취락유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강안의 충적대지에 위치하

는 고구려 초기 적석총 고분군의 존재와 그 분포를 통해서 국가형성기 고구려 취락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2. 정치 중심지의 형성

고구려 초기 적석총은 매장주체부가 지표 위에 있다는 점에서 요동의 적석총과 분명히 구분되며, 압록강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압록강 상류, 북쪽으로 용강산맥, 서쪽으로 충만강, 남쪽으로 청천강과 대동강 중상류를 포괄하여 분포한다. 이들 초기 적석총 축조 집단은 독자적 세력권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여, 이후 고구려의 성립을 주도했으므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압록강 중류 일대에 존재했던 이 세력집단을 원고구려사회(原高句麗社會)(池炳穆, 1987) 혹은 구려종족사회(句麗種族社會)(여호규, 1996), 고구려사회(高句麗社會)(朴京哲, 1998)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군집한 고분군의 분포는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된다. 취락과 고분군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고분군의 권역 구분에 따라 취락의 권역도 구분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고분군이 압록강의 본류 및 지류의 수계를 단위로 구분 및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혼강의 지류인 육도하(六道河)를 따라 조성된 대전자고분군과 풍가보자(馮家堡子)고분군, 상고성자(上古城子)고분군 등을 육도하권역으로 묶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혼강의 지류인 부이강(富爾江)을 따라 조성된 왕의구고분군과 대황구(大荒溝)고분군 등을 부이강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종은, 2017). 권역 내 각 고분군들은 강줄기를 따라 놓인 교통로를 통해서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권역 내의 개별 취락들을 수계를 따라 하나의 정치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계를 따라 분류된 권역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곡(谷)’ 혹은 ‘천(川)’에 대응시키기도 한다(김중은, 2017). 주몽이 졸본으로 남하하던 중 모둔곡(毛屯谷)의 3인을 만났다가거나 대무신왕대 매구곡(買溝谷)의 3인이 항복해왔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당시 ‘곡’을 골짜기를 단위로 하는 정치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임기환, 2004). 한편, 『삼국사기』에는 ‘곡’ 외에도 ‘국(國)’ 혹은 ‘나부(那部)’ 등 다양한 층위의 정치집단들이 등장하는데, ‘곡’ 단위의 정치집단을 ‘국’의 하위 정치단위로 보느냐(임기환, 2004), 아니면 ‘국’과 같은 위상의 정치단위로 보느냐(여호규, 2014a)에 따라서 이견이 있지만, ‘나부’는 ‘곡’의 상위 정치단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임기환, 2004; 김현숙, 2005; 여호규, 2014a). 『삼국지』에서 부(部)로 표기되기도 하는 나부는 결국 여러 ‘곡’집단이 모여 이룬 정치단위인 셈이다. 만약 수계에 따라 분류된 고분군의 권역이 사료상의 ‘곡’집단에 대응한다면, 몇 개의 가까운 권역들로 구성된 대권역이 나부에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육도하권역과 부이강권역, 대아하권역 등을 묶은 대권역으로서 환인권역을 설정할 수 있고, 통구분지권역, 장천권역, 유수림하권역 등을 묶은 대권역으로서 집안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로써 대권역을 환인, 집안, 압록강 상류, 압록강 이남의 4개로 구분하거나(朴京哲, 1998), 환인, 집안, 압록강 이남, 임강, 장백의 5개로 구분하고(姜賢淑, 2000), 나아가 사료에 나오는 5개의 고구려 부/나부를 5개의 대권역에 각각 비정하기도 한다(姜賢淑, 2000; 조영광, 2010). 다만, 2000년대 이후 발굴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새로 확인된 고분군이 많아짐으로써, 권역에 대한 재구분이 불가피해져 환인, 통화, 집안, 서북한, 임강·장백의 5권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중은, 2017).

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치단위로서 ‘곡’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별 취락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곡’집단의 상위 정치단위로서 부/나부의 등장 역시 여러 ‘곡’집단의 중심 취락들보다 상위의 정치 중심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심취락의 등장, 정치 중심지의 형성을 알려주는 문헌사료는 없지만, 고고학적 정황을 통한 짐작은 가능하다. 초기 적석총의 분포 양상을 보면 각 권역 내에서 고분군의 규모와 개별 고분의 크기, 출토유물의 수준 등에서 다른 고분군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닌 고분군이 확인된다. 이는 기원전 2세기경 이루어진 ‘나’집단의 성장(여호규, 1996) 혹은 ‘지역집단’의 성립(朴京哲, 1998)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러한 고분군을 조영할 만한 우월한 지위를 지닌 사람들의 등장일 수 있고, 그들이 사는 우월한 취락, 곧 정치 중심지의 등장이기도 하다. 즉 위계화를 통한 중심 고분군의 등장은 정치 중심지의 등장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중심 고분군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고분이 100여 기 이상 군집하는 대규모 고분군의 형성이다. 고분군을 구성하는 고분의 수를 통해서 고분 축조 집단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별 고분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되는 대형고분의 출현이다. 고분 축조에 소용된 비용과 피장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단적석총의 등장이다. 고분 축조기술의 고급화는 비용의 상승을 동반함과 동시에 피장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고구려 초기 적석총 분포범위 내 중심 고분군을 추리면, 환인대권역에서는 육도하소권역의 상고성자고분군, 혼강분류소권역의 고려묘자고분군 등, 집안대권역에서는 유림하소권역의 대고려묘구고분군, 통구분지소권역의 우산하고분군 등, 서북한/압록강이남대권역에서는 독로강소권역의 노남리고분군 등이다. 만약 앞서 언급한 대로 대권역과 소권역이 각각 사료상의 부/나부와 곡집단에 대응한다면, 위

의 중심 고분군들은 부/나부 내지는 곡집단의 지배자들이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 고분군 인근에 정치 중심지가 위치했을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육도하 하류에 위치하는 상고성자고분군의 경우, 초기 적석총만 200여 기가 넘는 대규모 고분군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m에 육박하는 대형 무기단적석총이 조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변 길이가 12m 이상의 대형 기단적석총도 조영되었던 중심 고분군이다. 따라서 상고성자고분군은 육도하소권역, 나아가 환인대권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이 고분군에서 남쪽으로 1.5km 거리에는 평지성 유적으로 하고성자성유적이 위치하고, 다시 그 남쪽으로 위계 높은 부여계 지배집단의 무덤으로 망강루고분군이 확인됨에 따라 이 일대를 계루부(姜賢淑, 2000) 혹은 소노부(이준성, 2019; 임기환, 2019)의 정치 중심지로 비정하기도 한다.

요컨대, 고구려의 국가형성기에 형성된 정치 중심지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까닭에 몇 가지 정황을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곡, 국, 부/나부 등 여러 층위의 정치집단을 사료에서 포착한 후, 각각의 집단에 존재했을 정치 중심지를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중심 고분군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고구려 초기 적석총은 압록강의 분류와 지류의 수계를 따라 분포하였고, 그 수계를 기준으로 권역-대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의 권역-대권역은 사료상의 곡-부/나부에 대응할 수 있고, 그렇다면 권역-대권역의 중심 고분군은 곡-부/나부의 정치 중심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몇 개의 중심 고분군을 통해 고구려 국가형성기 정치 중심지의 위치와 경관을 상상할 수 있다. 다만, 사료에 등장하는 5개의 부/나부 혹은 여러 곡 집단을 특정 대권역 혹은 소권역에 비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고분군을 포함한 압록강 중상류 유역 전반에 걸친 발굴성고가 보다 많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 3. 졸본과 흘승골성의 위치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료 계통이 전한다. 하나는 주몽(朱蒙)이 건국한 곳을 졸본(卒本)으로 전하는 사료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경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곳을 첫 도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고구려인들의 기록인 <광개토왕비>에서도 시조 추모가 흘본(忽本) 서쪽 산 위에 도성을 세웠다고 전하는데, 이때의 추모, 흘본은 『삼국사기』의 주몽, 졸본과 같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 도성을 흘승골성(紇升骨城)으로 전하는 사료이다. 『위서(魏書)』에 따르면, 주몽이 이른 곳은 흘승골성이고 그곳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주서(周書)』에서는 흘승골성을 흘두골성(紇斗骨城)으로 전하기도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주몽이 아니라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곳을 흘승골성(訖升骨城)으로 전하는 등 흘승골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일찍이 김부식은 졸본과 흘승골성을 같은 곳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였지만,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 수는 없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평양을 제외한 고구려 도성의 위치는 모두 잊혀졌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이래로 간헐적인 위치 비정이 시도되었지만, 추정 이상은 아니었다. 17세기 청(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조선 지식인들은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경계의식의 일환으로 고구려 초기 도성의 위치 비정을 시도하였다. 단, 현지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정에 추정을 거듭할 뿐이었다.

고구려 초기 도성의 본격적인 위치 비정은 19세기 말 이래, 일본 연구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을 현지 조사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래 중국의 발굴성고가 축적됨에 따라 고구려 첫 도성이었던 졸본 및 흘승골성

은 중국 요령성 환인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여전히 두 가지 논쟁점이 남아 있다. 하나는 졸본과 흘승골성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환인 지역 내 평지 중심지의 위치이다. 논쟁점을 정리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흘승골성의 위치에 관해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흘승골성은 일찍이 환인의 오녀산성<sup>1</sup>으로 비정된 이래(白鳥庫吉, 1914), 지금까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흘승골성의 ‘골(骨)’이 『삼국사기』 및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고구려의 신성처로 등장하는 골령(鶻嶺)의 ‘골(鶻)’과 통하므로, 흘승골성은 신성처인 골령에 세워진 산성일 가능성이 다. 둘째,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시조 추모(주몽)의 건도지는 환인 지역 내의 산성이었다. 셋째, 뷰트(butte) 지형의 전형인 오녀산성의 경관은 신성처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김현숙 외, 2005),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물질자료도 출토되었다. 특히, 고구려시기의 대형 건물지 3기와 주거지 12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1호 대형 건물지는 길이 13.8m, 너비 6~7.2m의 초석 건물지로서, 전한대의 반량전과 오수전, 왕망대의 대천오십전 등이 출토되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이로써 고구려의 건도지로 전하는 흘승골성은 환인의 오녀산성으로 비정된다.

한편, 흘승골성을 오녀산성이 아닌, 환인의 하고성자성<sup>2</sup>으로 비정하기도 했는데(魏存成, 1994; 耿鐵華, 2001), 흘승골성이 산성이라는 기록이 없

- 
- 1 오녀산성은 중국 요령성 환인현에 위치한 산성으로, 환인현 시가지의 동북쪽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산의 정상부에 자리하며, 남북 600m, 동서 110~200m의 평탄한 개활지와 샘까지 갖춘 요새에 축조되었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고구려시기와 요·금대를 아우르는 다섯 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 2 하고성자성은 환인현 시가지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훈강 건너편에 있는 평지 토성으로, 성의 북쪽 1.5km 거리에 상고성자고분군이 위치하며, 오녀산성과는 약 10km 떨어져 있다. 평면은 전체 둘레 1km 내외의 장방형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북벽 240m, 서벽 170m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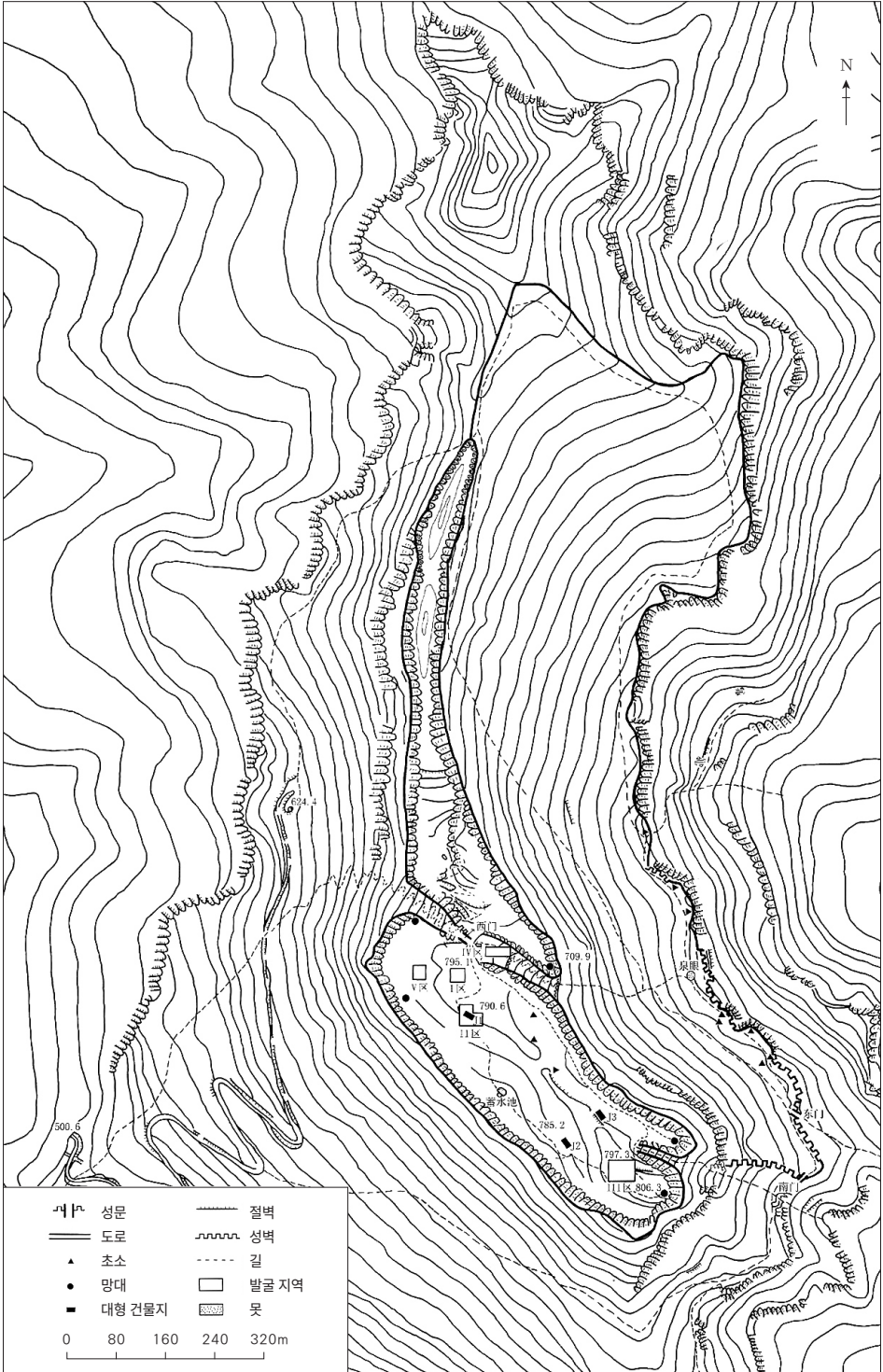


그림1 | 오녀산성 유적 분포도(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다는 점을 근거로, 한대 토성이었던 하고성자성을 고구려가 도성으로 재 활용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지표 조사만으로 하고성자성을 한대 토성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였다. 1998년 발굴조사 결과 하고성자성의 남벽 아래 수혈에서 고구려 전기 토기가 출토됨으로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그 축조 연대가 고구려 건국 시기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성벽 축조 시 만들어진 층이 아닌 다른 층(남벽 아래 수혈)이 남아 있다면, 양자 간의 시차는 장시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고성자성은 흘승골성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흘승골성을 오녀산성으로 비정한 후 다시 논쟁점으로 돌아오자. 먼저 졸본과 흘승골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부식과 마찬가지로 졸본과 흘승골성을 동일한 곳의 다른 이름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었다. 다만, 김부식이 추정에 그쳤다면, 여기서는 음운학을 동원하였다. 같은 지명을 『삼국사기』와 <광개토태왕비>에서 각각 졸본과 흘본으로 달리 표기하였듯이, 당시 고구려어 지명은 한자로 전환되어 전래되는 외중에 여러 가지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전제였다. 곧 졸본과 흘승골은 동일한 고구려어 지명이었는데, 전래 과정에서 한자어 표기만 달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지 않았는데, 흘승골/흘두골의 ‘골’이 성(城)을 뜻하는 고구려말 ‘구루(溝婁)’라면, 흘승골/흘두골은 흘승/흘두에 위치했던 성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흘승/흘두는 흘본의 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白鳥庫吉, 1914)과 흘승골을 승흘골(升紇骨)의 오기로 볼 수 있다면, ‘승흘골=卒忽(솔골)=졸본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까’라는 추정(李丙燾, 1959)이었다. 대체로 후자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가받지만, 전자의 경우 졸본/흘본은 흘본(紇本)과 통할 수 있고, 또 전사하는 과정에서 ‘흘본(紇本)’이 ‘흘승(紇升)’으로 잘못 베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기도 한다(기경량, 2017b).

반면, 흘승골성과 졸본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흘승골성과 졸본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첫째, 광의의 졸본을 환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범칭으로 보면서, 흘승골성과는 구별되는 평지의 중심지로서 협의의 졸본을 상정하는 경향이다. 산성으로서 흘승골성은 평상시의 거주처가 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 위에서 평지의 졸본을 고구려 왕의 상시 거주처로 본 것이다. 이는 다시 평지 졸본의 경관에 따라 평지성설과 평지거점설로 구분되는데, 두 번째 논쟁점인 환인 지역 내 평지 중심지 위치 문제를 정리하면서 후술하겠다. 둘째, 졸본은 서쪽의 흘승골성과 동쪽의 용산을 포함하는 성소(聖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기경량, 2017b)이다. 『삼국사기』 유리왕대에 수차례 등장하는 이궁의 존재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며, 따라서 평지에 정치적 위상이 높은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평지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할 평지거점설과 같지만, 평지거점조차도 도성으로서의 위상을 갖진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의 유일한 정궁이자 왕성은 흘승골성이었다. 단, 주몽이 비류수가에 살았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나 흘본과 산성을 구분했던 <광개토왕비>의 기록 등을 통해 드러나는 평지 중심지의 존재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셋째, 흘승골성은 실제의 건도지가 아니었고, 신성지로서 골령이자 두 번째 도성으로서 국내 위나암성이었던 오녀산성을 후대에 각색하여 건도지로 재설정했다는 해석(노태돈, 2012; 권순홍, 2015; 李道學, 2015)이다.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인 국내 위나암성을 오녀산성으로 비정함에 따라 똑같이 오녀산성으로 비정되는 흘승골성을 실제의 건도지로 볼 수 없었던 자구책이었다. 다만 그렇더라도, 건도지가 흘승골성으로 각색된 시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 경우 비록 졸본과 흘승골성의 관계



그림2 | 환인 지역 고구려 도성 관련 유적 분포도(구글어스, 1990년 12월)

에 대해서는 해석이 같지만, 졸본의 위치 비정은 나합성(노태돈, 2012; 李道學, 2015)<sup>3</sup>과 고령묘자촌(권순홍, 2019a)<sup>4</sup>으로 다르다. 단, 나합성에서는 고구려시기의 물질자료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구려시기의 고분군도 없다는 약점이 있고, 고령묘자촌은 국내 위나암으로 비정한 오녀산성과 너무 가깝다는 약점이 있다.

이상에서 고구려 첫 도성인 졸본과 관련된 첫 번째 논쟁점, 졸본과 흘승골성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졸본과 흘승골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보는 견해, 둘째, 환인 지역 전

3 나합성은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평지성으로, 오녀산성의 동쪽 약 15km 거리에 있다. 1960년대 환인댐의 건설로 인해 현재는 수몰되었다.

4 고령묘자촌은 오녀산성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혼강 연안에 위치한다. 그 남쪽으로 고령묘자고분군이 자리하는데, 1956년 조사 당시 24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무기단적 석총과 기단적석총, 계단적석총까지 모두 확인되는 등 환인 지역의 중심 고분군 중 하나이다. 고분군의 남단에는 대형 적석총 80여 기가 집중 분포한다. 고령묘자촌과 고령묘자고분군 역시 수몰되었다.

체를 가리키는 광의의 졸본 안에 산성으로서 흘승골성과 그에 대응하는 평지 중심지로서 협의의 졸본을 포함시키는 견해, 셋째, 평지 중심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의의 졸본마저도 건도지로서 흘승골성과 주몽의 장지로서 용산을 포괄하는 성소로 보는 견해, 넷째, 흘승골성은 후대에 각색된 건도지일 뿐 졸본은 평지 중심지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음, 두 번째 논쟁점은 환인 지역 내 평지 중심지의 구체적인 위치 문제이다. 환인 지역의 유일한 왕성을 흘승골성으로 보면서 평지 중심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白鳥庫吉, 1914; 李丙燾, 1959; 기경량, 2017b), 다음의 두 사료를 고려하면 평지 중심지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서 주몽이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기록과 <광개토왕비>에서 시조 추모가 ‘홀본 서쪽 산 위에 도성을 세웠다’는 기록이다. 전자는 주몽이 살았던 곳이 비류수가 즉 혼강가의 평지임을 보여주고, 후자는 서쪽 산성과 구분되는 평지 홀본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평지 중심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위치와 경관에 따라 견해는 둘로 구분된다.

첫째는 평지성설이다. 산성과 평지성이 하나의 도성을 이룬다는 고구려 고유의 도성 구조가 이미 이 시기에도 마련되었다고 보면서 환인 지역 내 평지성 유적 가운데 하나로 비정하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는 하고성자성으로 보는 견해(魏存成, 1985; 車勇杰, 1993; 王綿厚, 2002; 민덕식, 2006; 朴淳發, 2012)와 나합성으로 보는 견해(田中俊明, 1994; 千田剛道, 2015)로 구분된다. 그러나 양자 공히 약점을 안고 있다.

먼저 평지 졸본을 하고성자성으로 볼 경우는 비록 흘승골성으로 비정되는 오녀산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평지성 유적이라는 거리상의 강점이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방위상의 약점이다.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홀본/졸본의 서쪽 산 위에 도성이 있으므로, 오녀산성의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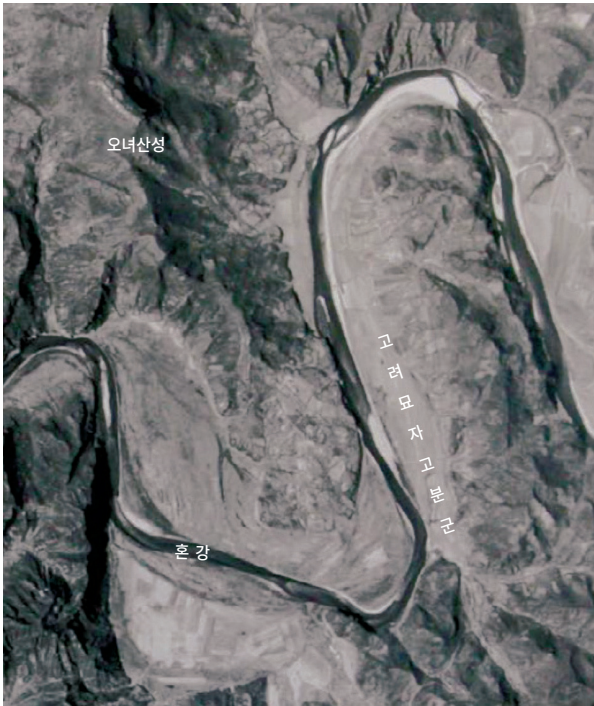


그림3 | 고려묘자촌과 고려묘자고분군(서울대학교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2008; 梁志龍, 2008)

에 졸본이 위치해야 하는데, 하고성자성은 오녀산성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방위상 전혀 맞지 않는다. 둘째, 고고학적 약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발굴결과 하고성자성의 축조 연대는 고구려 건국 시기로부터 멀어졌으므로, 졸본의 평지도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반면에 평지 졸본을 나합성으로 볼 경우는 오녀산성의 동쪽에 위치하여 방위상의 강점은 있지만, 역시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거리상의 약점이다. 직선거리만 약 17km에 달하고 교통로상으로는 약 35km 떨어져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둘째, 고고학적 약점이다. 나합성에서는 축성 시기를 고구려대로 판단할 만한 어떠한 고고자료도 출토되지 않고 있다. 썰기돌로 성벽을 쌓았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 성일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채집된 기와편도 모두 중화민국시기의 것으로 편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평지성설은 공히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평지거점설이다. 산성과 평지성이 하나의 도성을 이루는 고구려 고유의 도성 구조는 아직 이 시기에 마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평지성 유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 제기이자, 하고성자성과 나합성 중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제기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삼국사기』의 주몽이 비류수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기록과 <광개토왕비>의 시조 추모가 “홀본 서쪽 산 위에 도성을 세웠다”는 기록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방위상으로 오녀산성의 동쪽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지리상으로 비류수로 비정되는 혼강가에 위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중심지는 인구가 밀집했을 것이므로, 고고학적으로 그 주변에 초기 적석총이 밀집한 고분군의 존재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 즉 졸본의 평지거점으로서 고려묘자촌을 주목한다(조법중, 2007; 양시은, 2013; 여호규, 2014b; 김현숙, 2017). 기왕에 이미 고려묘자촌을 주

목하는 견해(梁志龍, 2008)가 없지 않았다. 단, 비록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고려묘자촌에도 평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평지거점설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평지성이 아닌 평지거점의 존재에 동의하더라도, 고려묘자촌은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치 않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강현숙, 2015).

이상을 통해서 졸본에 관한 두 번째 논쟁점, 환인 지역 내 평지 중심지의 위치 문제를 정리하였다. 하고성자성설과 나합성설, 고려묘자촌설로 정리되는데, 평지성설로서 앞의 두 견해는 특히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첫 도성의 평지 중심지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약점이 있었다. 한편, 평지 중심지로서 졸본의 위치를 나합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평지성설(田中俊明, 1994; 千田剛道, 2015)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흘승골성을 후대의 각색으로 해석하는 경향 가운데 졸본을 나합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노태돈, 1999; 노태돈, 2012; 李道學, 2015)가 있었다. 단, 이 경우 거리상의 약점은 상쇄되더라도, 고고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은 여전히 남는다. 평지 중심지로서 졸본의 위치를 고려묘자촌으로 비정하는 견해 역시 평지거점설만이 아니었다.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흘승골성을 후대의 각색으로 해석하면서, 고려묘자촌을 졸본으로 비정하는 견해(권순홍, 2019a)이다. 평지거점으로서 고려묘자촌을 주목한 점에서 앞의 평지거점설과 같지만, 졸본에 도읍했던 당시에는 평지거점에 대응하는 산성이 없었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다. 즉 당시 졸본의 범위에 오녀산성은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 4. 국내 위나암의 위치

『삼국사기』 유리왕 22년 기사의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았다”는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은 국내 위나암이다. 국내 위나암의 위치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유리왕대의 ‘국내’와 4세기 이후 ‘국내성’의 관계에 대해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역시 졸본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멸망 이후 잊혔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찬자가 유리왕대의 국내와 고국원왕대 이후의 국내성을 동일시한 이후, 전근대 역사서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리왕 22년(3년)부터 장수왕 15년(427년)까지 고구려의 도성은 국내성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졸본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는 잊혀졌다. 비록 17세기 청의 등장에 따른 조선 지식인들의 북방 영토의식 고양과 당시 활발해진 중국 동북지역 관련 지리서들의 편찬으로 말미암아 ‘국내’에 대한 다양한 위치 비정이 시도되었지만, 사료비판과 현지조사가 여의치 않았던 까닭으로 오류가 적지 않았다.

이후 근대 일본인 연구자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함으로써, 유리왕대 ‘국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졸본을 중국 요령성의 환인으로, ‘국내성’을 중국 길림성의 집안으로 확정된 이후, 논의의 방향은 국내성과 환도성의 관계 및 위치 문제로 국한되었다(鳥居龍藏, 1914; 關野貞, 1914; 白鳥庫吉, 1914). 이 와중에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은 산상왕대로 고정되었다. 물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함으로써, 유리왕대 천도 기사는 인정되지 않았고, 『삼국지』에 나오는 3세기의 “갱작신국(更作新國)” 기사가 활용되었을 뿐이다.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일본 학계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정론을 비판하면서 유리왕대의 ‘국내’를 인정했는데(李丙燾, 1959; 金哲堉, 1975; 魏存成, 1985), ‘국내’와 ‘국내성’은 여전히 동일시되었고, 그 위치는 <광개토왕비>가 위치하

고 고구려 적석총이 밀집한 집안으로 비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은 유리왕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해석이 오래도록 통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발굴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집안 지역 도성으로 비정되는 집안의 평지성과 산성자산성에서 3세기 이전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국내’와 ‘국내성’을 구분하는 견해(노태돈, 1999; 김희선, 2010; 권순홍, 2015; 李道學, 2015)가 등장하였다. 이때의 ‘국내’는 지명으로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서 ‘국이 소재하는 나’라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내(內)가 고구려어의 한자 표기인 나(那), 노(奴)와 음이 통하고, 천(川), 양(壤), 원(原) 등과 뜻이 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천도하기 전인 유리왕 21년, “달야난 교시(郊豕)를 국내에서 잡았다”는 기록과 “천도를 위해 왕이 직접 국내로 가서 지세를 봤다”는 기록 등을 통해 ‘국내’가 보통명사가 아니라 특정 지명으로서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임기환, 2018a). 다만, 국내를 보통명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유리왕대의 국내와 4세기 이후의 국내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국내성으로 불리던 집안 평지성과 위나암성으로 비정되던 산성자산성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3세기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은 양자 구분의 필요를 뒷받침하였다. 유리왕대 국내와 4세기 이후의 ‘국내성’은 고고학적으로 구분되었던 셈이다. 후술하겠지만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에 관한 재해석의 전제로서, 국내와 국내성의 구별이 인정됨에 따라 태조왕대 천도설과 신대왕대 천도설, 산상왕대 천도설

이 제기될 수 있었다.

다시 유리왕대 국내 위나암의 위치 문제로 돌아오자. 본격적인 위치 비정은 졸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연구자들이 시작했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이들의 위치 비정은 유리왕대의 국내 위나암이 아니라, 산상왕대 이후의 국내성에 대한 것이었다. 유리왕대 국내 위나암의 위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정은 근대 일본 역사학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정론을 비판했던 한국과 중국 학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국내와 국내성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성으로 비정되는 중국 길림성 집안의 평지성<sup>5</sup>과 산성자산성<sup>6</sup>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70년대 집안 평지성의 발굴결과, 고구려시기의 석축 성벽 아래에 한대 토성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됨으로써(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1984), 유리왕대 집안 지역의 한 현도군을 몰아낸 후 그곳을 도성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유리왕대 천도설과 함께 한동안 통설로 자리 잡았다(李丙燾, 1959; 金哲俊, 1975; 李殿福, 1982; 魏存成, 1985; 車勇杰, 1993; 姜仙, 1995; 임기환, 2003; 琴京淑, 2003; 심광주, 2005). 단, 2000년대 집안 평지성의 재발굴결과, 1970년대 고고 조사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유리왕대 국내와 4세기 이후의 국내성을 구분하려는 시도 이후, 위나암성의 위치에 대한 재해석이 속출하였다. 현재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뉘

---

5 집안의 평지성은 중국 길림성 집안시 시가지에 위치하는 평지성이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서쪽으로는 통구하가 흐르고 있어 자연 해자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이 자연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다.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동벽 554.7m, 서벽 702m, 남벽 751.5m, 북벽 730m로, 전체 둘레는 약 2,738m의 방형에 가까운 석성이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6 산성자산성은 집안 평지성에서 북쪽으로 2.5km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하는 포곡식 산성이다. 산세를 따라 성벽을 쌓았고, 계곡의 입구인 남쪽에 성문이 나 있다. 전체 둘레는 약 6,942m이다.

어 있다.

첫째, 환인의 오녀산성설이다(노태돈, 2012; 권순홍, 2015; 李道學, 2015; 강진원, 2018). 기왕에 이미 국내 위나암을 오녀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鳥居龍藏, 1914)가 있었는데, ‘위나암’과 ‘오녀’ 간 발음의 유사성이 주요 근거였다. 이에 더하여 근래에는 두 가지 근거가 추가되었다. 하나는 사료에 나타나는 위나암의 지형적 특징이다. 『삼국사기』 대무신왕 11년 기사에 “한 요동태수가 침략해오자 왕이 위나암성에 들어가 수십 일간 지켰다”는 기록에 따르면, 위나암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나암이라는 글자 그대로 바위산이어야 한다는 점과 산 밑에서 봤을 때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당시 한인(漢人)들이 위나암성에 수천(水泉)이 없다고 여겨, 오래 포위하여 성 내부가 곤핍해지기를 기다리는 작전을 썼으나, 성 내부에 지(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이 있으니 단번에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물러났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고학적 증거로, 오녀산성에서 1세기 당시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오녀산성 발굴결과(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3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1세기가 정확히 국내 위나암시기에 부합했다. 다만, 오녀산성설의 경우 공히 오녀산성으로 비정되는 흘승골성과 위나암성 간의 관계가 숙제로 남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흘승골성을 후대의 각색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노태돈, 2012; 권순홍, 2015; 李道學, 2015), 이미 지적인 대로 각색된 시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나암성을 공히 오녀산성으로 비정하면서도, 평지의 도성으로서 국내의 위치에 관해서는 비정이 조금씩 달랐다. 졸본을 나함성으로 비정하는 경우, 고려묘자춘을 국내로 비정하거나(李道學, 2015), 고려묘자춘과 하고성자성 등을 포함하는 지금의 환인 지역 전체를 국내의 범주로 보면서 그 중심지를 환인 시가지로 비정하기도

한다(노태돈, 2012). 반면, 졸본을 고려묘자촌으로 비정하는 경우, 상고성 자고분군, 하고성자성 일대와 고려묘자촌은 지역적으로 구분된다고 보면서 전자를 포함하는 지금의 환인 시가지 일대를 국내로 비정한다(권순홍, 2019a).

둘째, 집안의 산성자산성설이다(강현숙, 2015). 이 경우 흘승골성을 오녀산성으로 비정한다면, 위나암성은 오녀산성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특히 3세기 이전의 묘제였던 무기단적석총이 밀집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형 적석총들의 위계화가 진행된 지역은 집안의 마선구 일대였으므로, 그 주변의 산성에서 위나암성을 찾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단, 이러한 해석은 환도성 이전 시기의 중심지가 마선구 일대일 가능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1세기 국내 위나암의 위치를 말해주진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해석이지만, 유리왕대 국내 위나암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후술하겠지만, 비록 사료상으로 유리왕 22년(3년)과 산상왕 13년(209년) 사이에 천도 기사가 없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왕실 교체 기사를 통해 태조왕-신대왕대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중심지 교체를 설명할 수 있다면(김종은, 2003; 권순홍, 2015; 임기환, 2018b), 1세기 말부터 진행된 마선구 일대의 적석총 조영은 달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위나암성의 지형적 특징은 그 내부에서 하천이 흘러나오는 포곡식 산성으로 집안의 산성자산성과 전혀 다르다는 약점과 산성자산성설 역시 공히 산성자산성으로 비정되는 위나암성과 환도성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집안의 패왕조산성설이다(김현숙, 2017). 기왕에 국내 위나암으로 패왕조산성을 주목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았다(孫進己, 1988). 흘승골성으로 비정되는 오녀산성은 위나암성일 수 없고, 또한 앞서 제기된 산성

자산성 역시 위나암성의 지리적 특징과는 달랐으므로, 제3의 산성을 물색한 결과였다. 패왕조산성은 바위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산정식 산성으로 산 아래에서 보기에 성 내부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료상 위나암성의 지형적 조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흘승골성과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위나암성을 패왕조산성으로 비정할 경우 그 아래 평지 중심지로서 국내를 비정할 만한 곳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견해에서는 유리왕대 국내를 집안 지역으로 비정하면서, 위나암성을 도성 혹은 그 주변의 산성이 아니라 국경 지역의 산성으로 판단한다. 『삼국사기』 대무신왕 11년 기사에 따르면, 한 요동태수가 위나암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면서도 고구려 왕성에 관련된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곳이 왕성 주변이 아니라 국경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삼국사기』 유리왕 21년 기사에 따르면, 교시를 뒤쫓은 장생(掌牲)이 국내가 아닌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 그곳을 도읍할 만한 장소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통해, 위나암성은 비록 도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국내 인근의 산성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패왕조산성의 위치는 집안에서 직선거리로만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히려 오녀산성과 더 가깝다. 따라서 국내를 집안으로 비정하면서 위나암을 패왕조산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둘째, 패왕조산성에서는 4세기 이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후의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물질자료가 출토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비교적 근래의 발굴결과에서도 4세기 이전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패왕조산성의 축조를 유리왕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통해서 유리왕 22년에 천도한 국내 위나암의 위치에 관한 견해를 정리했다. 근대 일본인 연구자들은 국내 위나암 자체를 부정했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는 국내 위나암을 인정하면서 그 위치

를 대체로 4세기 이후의 국내성과 동일시하여 집안으로 비정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유리왕대의 국내와 4세기 이후의 국내성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 국내 위나암을 다시 비정하는 견해들이 속출하였다. 위나암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오녀산성설과 산성자산성설, 패왕조산성설이다. 쟁점은 각각의 산성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있다. 첫째, 『삼국사기』 대무신왕 11년 기사에 나오는 위나암성의 지형적 특징을 갖추었는가. 둘째, 고고학적으로 1세기대 이래의 유물이 출토되는가. 셋째, 다른 도성, 예컨대 흘승골성 혹은 환도성과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직 어느 견해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고, 충분한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기

2000년 이래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에 대한 활발한 발굴결과, 그동안 ‘국내성’으로 불리던 집안 평지성과 그 배후의 산성자산성 내부에서 3세기 이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특히, 2009년과 2011년 집안 평지성 동·남벽 조사 시, 성벽의 가장 안쪽 토축 기초부에서 출토된 토기편들이 4세기 초로 편년됨에 따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집안 평지성의 초축 연대를 4세기 초 이전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3세기 이전에는 집안 평지성과 산성자산성 일대가 고구려의 도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로써 기왕에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을 유리왕 22년으로 판단했던 통설은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관심은 3세기 이전 고구려 도성의 위치와 환인에서 집안으로 도성이 옮겨 온 시점, 이 두 가지 문제로 모아졌고, 논의는 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환인에서 집안으로 도성을 옮겨 온 시점에 관해서는 크게 유리왕대설, 태조왕대설, 신대왕대설, 산상왕대설의 네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단, 논의의 시발이 2000년 이래 집안 평지성과 산성자산성에서 3세기 이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발굴결과였으므로, 다음에서는 그 이후에 제기된 견해로 한정하여 정리하겠다.

첫째, 산상왕대설이다(노태돈, 1999; 김희선, 2010; 노태돈, 2012). 『삼국지』의 “개작신국” 기사를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기사로 활용하면서,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점을 산상왕대로 보고 있다. 사료상으로 유리왕대 천도 기사 이후 산상왕대까지 천도 관련 기사가 없다는 점과 고고학적으로 3세기가 되어서야 집안 평지성과 산성자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이다. 이 경우 유리왕대의 국내 위나암을 환인 지역으로 비정하면서 3세기 이전까지 고구려 도성은 꾸준히 환인이었다고 본다. 단, 여기에는 두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첫째, 『삼국사기』 동천왕대 기사 중, 고국천왕의 부인이자 산상왕의 부인이었던 태후 우씨(于氏)가 죽고 나서 산상왕 곁에 묻히자, 국양(國壤), 즉 고국천왕의 귀신이 분을 못 이기고 더불어 싸웠고, 돌아와 생각해보니 차마 국인(國人)들을 볼 낫이 없으니 자기를 가려달라고 무자(巫者)에게 말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국인, 즉 도성인들을 볼 낫이 없다는 점을 통해 고국천왕의 장지가 도성에서 멀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인이 산상왕릉 곁에 묻히는 것을 보고 더불어 싸울 만큼 산상왕릉과 고국천왕릉이 멀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은 동천왕대에도 고국천왕의 장지가 고국양(故國壤)이 아닌 국양으로 불렸다는 점이다.

이 기록을 종합하면, 고국천왕과 산상왕은 공히 동천왕대의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국천왕대와 산상왕대, 동천왕대의 도성이 같은 곳이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둘째, 『삼국사기』에서 신대왕이 즉위 후에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한 달 후에야 돌아왔다는 점이다. 만약 산상왕대설을 따른다면, 신대왕은 당시 환인 지역에 있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졸본을 다녀오는데 한 달이나 걸렸던 셈이다. 훗날 도성이 평양에 있던 시절의 고구려왕들 또한 시조묘에 제사지내기 위해 졸본에 다녀왔는데, 그 기간이 역시 한 달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았던 신대왕대 역시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유독 어색하다. 산상왕대설은 천도 관련 기사의 존재와 고고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만, 『삼국사기』에는 이미 산상왕대 이전에 도성이 집안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었다.

둘째는 태조왕대설이다(김종은, 2003; 余奎奎, 2005; 권순홍, 2015; 강현숙, 2015). 앞에서 확인한 대로, 『삼국사기』 신대왕대의 졸본 행차 기록과 동천왕대에 보이는 태후 우씨 관련 기록을 통해서 늦어도 신대왕대에는 집안 지역이 도성이었다는 전제 아래, 비록 집안 평지성 일대에서는 3세기 이전의 유물들이 보이지 않지만, 집안 마선구 일대의 고고학적 정황이 1세기 후반~2세기 전반, 즉 태조왕대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집안 마선구의 건강유적에서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사실(王志剛 외, 2012)과 그 주변에 무기단적석층이 밀집하면서도 초대형 적석층의 위계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강현숙, 2015)에 주목한 것이다. 마선구 일대에서는 평지성 유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아직 평지에 성을 조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오히려 고구려는 오직 불사(佛寺)·신묘(神廟)·왕궁(王宮)·관부(官府)에만 기와를 사용하였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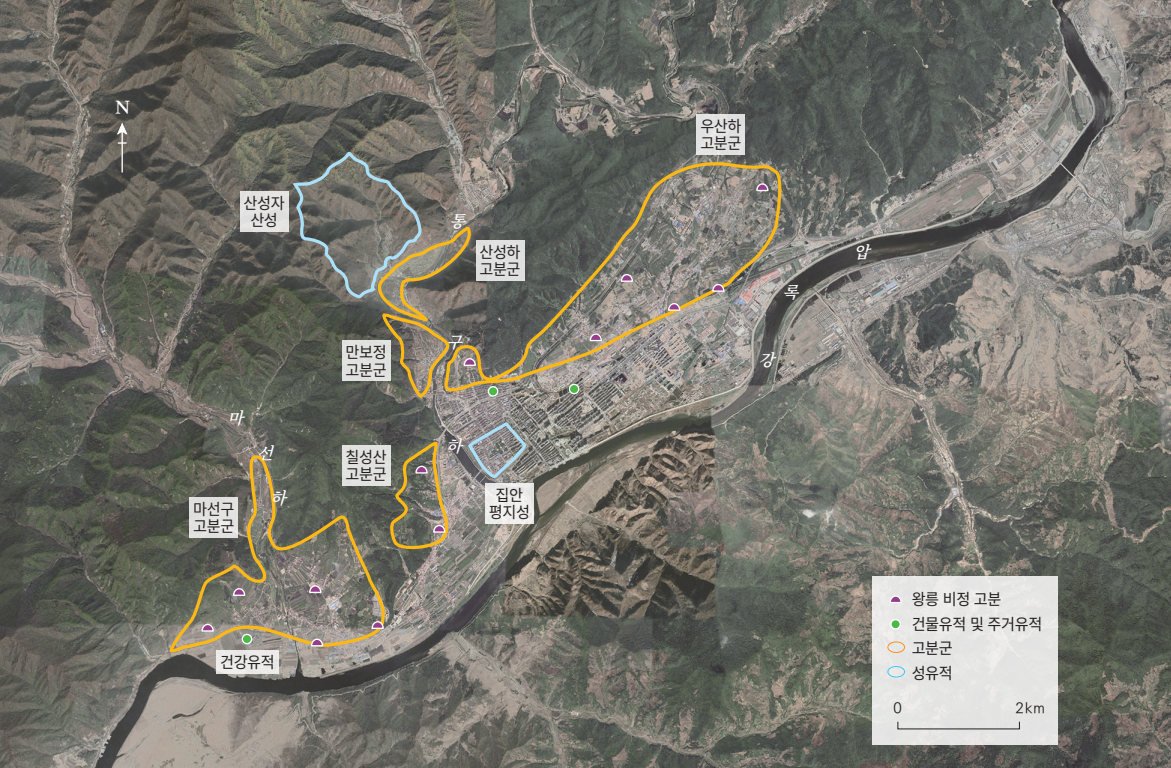


그림 4 | 집안 지역 도성 관련 유적 분포도(구글어스, 2020년 12월)

『구당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기와편이 출토되는 건강유적이 당시 고구려의 중심지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없지 않은데, 집안분지 내에서 마선구 일대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집안 평지성 자리가 아니라, 마선구를 택했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한편, 고고학적 정황은 위와 같더라도, 천도와 같은 국가 중대사가 『삼국사기』 태조왕대 기사에 남지 않은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설명 방법에 따라 태조왕대설은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유리왕대 천도 기사를 태조왕대 사실이 소급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余昊奎, 2005)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지』의 왕실 교체 기사를 통해서 태조왕대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개도(改都)로 설명하는 견해(권순홍, 2015)이다. 두 견해는 기왕에 유리왕대 천도 기사를 태조왕대의 사실이 소급된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삼국지』의 왕실 교체 시기를 태조왕대로 이해하면서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 교체는 소노부의 소재지 환인에서 계루부의 소재지 집안으로의 중심지 교체와 표리라고 해석했던 견해(김중은, 2003)로부터 각각 시사받은 바가 적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유리왕대로 소급된 태조왕대의 천도 기사와 왕실 교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환인에서 집안으로 도성이 옮겨 간 것이 태조왕 특정 연도의 천도에 의한 것인지, 왕실교체에 따른 개도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주장을 동시에 한 셈인데, 따라서 위의 두 견해는 양자택일로 문제를 해결했다. 전자의 경우, 『삼국사기』 유리왕대 기사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유독 태조왕대 지명들과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천도 기사를 포함한 유리왕대 기사들 중 일부가 태조왕대 사실들이 소급되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왕실 교체는 동명왕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余昊奎, 2005). 반면, 후자의 경우, 일부 지명이 겹친다는 점만으로 몇몇 기사들만 소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리왕대 천도 기사는 유리왕대 사실로 인정하되, 왕실 교체 시기를 태조왕대로 볼 수 있다면, 태조왕이 환인에 살다가 집안으로 이동해 간 천도가 아니라, 이전에 환인에 있던 소노부 왕대신 집안에 살던 계루부의 태조왕이 고구려의 왕이 됨에 따라 중심지가 바뀐, 개도로 이해한 것이다. 단, 이 경우 왕실 교체 시기를 태조왕대로 볼 수 없다면 입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한편, 유리왕대 천도 기사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 위나암을 산성자산성으로 비정하면서도 고고학적인 정황상으로는 환인에서 집안으로 도성이 옮겨 간 시점을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이라고 추정함으로써, 『삼국사기』의 기년을 그대로 믿지 않기도 한다(강현숙, 2015).

셋째는 신대왕대설이다(임기환, 2015; 기경량, 2017a; 강진원, 2018; 임

기환, 2018b). 『삼국사기』 신대왕대의 졸본 행차 기록 등을 통해서 늦어도 신대왕대에는 집안이 고구려의 도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앞서 제기된 태조왕대설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이었는데, 집안 마선구의 건강유적은 도성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조왕대 천도 기사가 유리왕대로 소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왕실 교체 역시 태조왕대로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마선구 일대에서 왕궁유적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 집안 평지성 자리, 지금의 집안 시가지가 당시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식적인 추정이다. 아직은 이 일대에서 1세기~2세기로 편년되는 기와편 등 중심지로 볼 만한 고고학적 정황이 나타나길 기다릴 뿐이다. 단, 이후 집안 시가지에서 3세기 이전의 도성으로 볼 만한 유물이 출토되더라도, 두 가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지역과 마선구 건강유적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신대왕대 천도 기사가 없는 이유이다. 후자의 해결을 위해 『삼국지』의 왕실 교체 기사를 활용하기도 한다(임기환, 2018b; 임기환, 2019). 왕실 교체를 통해 천도 기사의 부재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태조왕대 개도설(권순홍, 2015)과 같지만, 유리왕대 천도 기사를 후대의 분식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달랐다. 고구려의 초기 왕계를 주몽-대무신왕-민중왕-모본왕의 졸본(환인 지역) 왕계와 유리왕-[재사(再思)]-태조왕의 국내(집안 지역) 왕계로 구분하고, 왕실 교체를 통해 국내(집안 지역) 왕계가 집권한 뒤, 자신들의 시조 유리왕을 왕계에 편입시키면서 국내(집안 지역)로의 천도 기사를 삽입하여 재구성했다는 해석이었다. 다만, 사료의 부족으로 왕실 교체의 시점을 태조왕-신대왕대로 추정할 뿐, 신대왕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산상왕대 “갱작신국”의 주요 배경을 왕실 교체로 설명함으로써 방증하였다(임기환, 2019).

넷째는 유리왕대설이다(김현숙, 2017). 이 견해 역시 앞서 제기된 태조왕대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는데, 대안으로서의 신대왕대설마저도 사료에 천도 기사가 없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으므로 따르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 중대사인 천도가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리왕 22년 천도 기사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의 통설과 다른 점은 국내와 위나암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국내는 집안이지만, 위나암은 산성자산성이 아닌 패왕조산성으로 비정한다. 한편, 이 견해도 신대왕대설과 마찬가지로 3세기 이전의 고구려 도성은 입지조건이 좋은 집안 평지성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고고학적 물증이 없다는 약점이 남아 있다.

이상을 통해 환인에서 집안으로 도성이 옮겨 간 시점을 중심으로 3세기 이전 고구려 도성의 위치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하였다. 관건은 고고학적 정황과 문헌사료 간의 시차였고,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산상왕대설과 태조왕대설, 신대왕대설, 유리왕대설이 차례로 제기되었다. 다만 각각의 약점도 분명했다. 산상왕대설은 고고학적 정황으로는 적절하지만, 사료 상의 모순이 있었다. 반면, 유리왕대설은 사료상으로는 모순이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태조왕대설은 유리왕대 천도 기사 혹은 『삼국지』 왕실 교체 기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무리가 있고, 신대왕대설은 태조왕대설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안이었지만 가능성 이상으로 보기엔 어렵다. 한편, 대체로 도성이 옮겨 온 시점에 따라서 3세기 이전 고구려 도성의 위치에 대한 견해도 나뉘었다. 먼저 산상왕대설은 산상왕 이전의 도성을 환인 지역으로 비정하였는데, 오녀산성의 3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1세기의 고고학적 물증 이외에, 환인 지역에서 3세기까지 중심지였다는 물질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다. 태조왕대설은 태조왕대부터 3세기 이전까지의 중심지를 집안 마선

구로 보았다. 단, 앞서 지적한 대로, 입지 조건이 훨씬 좋은 집안 시가지 일대에 대한 해석이 숙제로 남아 있다. 신대왕대설과 유리왕대설은 공히 3세기 이전에도 집안 평지성 자리, 즉 지금의 집안 시가지가 고구려의 도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고고학적 물증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 6. 초기 도성의 성격과 경관

이상을 통해서 고구려 초기 도성에 관한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하였다. 주로 도성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문제였는데,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던 와중에, 특히 2000년대 이래 중국의 발굴성고가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속출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발굴성과의 축적은 논의의 심화뿐만 아니라 주제의 확장으로도 이어졌다. 지리적 위치 및 천도 시점을 넘어, 도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이에 따른 도성의 성격 변화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 것이다. 고구려 전 시기에 걸쳐서 도성의 공간과 경관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는데, 그중 초기 도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나는 문헌사료를 통해서 도성 경관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자료를 통해서 고구려 초기 도성의 경관을 평지성이 아니라 평지거점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멸망 시기까지 중심지의 성격 변화와 그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여호규, 2015; 기경량, 2017c; 권순홍, 2019b)가 있었다. 사료상에 나타나는 국읍(國邑)과 도(都)의 구분이나, 종묘·궁실·별도의 정무시설·뇌옥·창고·태학·불교사원·상설시장 등 도성 내 새로운 경관의 출현, 여기에 더하여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격자형 가로구획의 존재 등을 통해서 도성의 경관을 단계화

하고, 나아가 경관의 차이와 표리관계인 중심지의 성격 차이에 따라서 용어도 구분하자는 제안이었다. 초기 도성과 관련하여, 『삼국지』에 따르면, 대군장 혹은 대군왕 없이 장수(長帥)나 거수(渠帥)가 읍락민을 통주(統主)했던 동옥저, 예 및 삼한의 중심지와, 국왕이 존재하며 다양한 지배기구가 확인되는 부여 및 고구려의 중심지를 국읍과 도로 구분하였다. 특히, 국읍의 장수나 거수들은 읍락에 섞여 살았던 반면, 도의 왕들은 배타적인 공간으로서 궁실을 확보하였다는 점과 도에는 종묘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그 경관에 궁실과 종묘를 갖춘 도와 그렇지 못한 국읍을 구분하는 견해(여호규, 2015; 권순홍, 2019b)가 제기된 것이다. 비록 『삼국지』에서는 3세기 당시 여러 사회의 중심지들을 경관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간의 차이를 시간의 차이로 치환함으로써, 고구려의 중심지 역시 국읍의 단계를 거쳐 늦어도 3세기 중반에 도의 경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졸본과 국내 위나암은 궁실 혹은 종묘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국읍 혹은 그 이전 읍락 단계의 중심지였던 셈이다. 단, 이렇게 볼 경우에도 도 이전, 즉 읍락 혹은 국읍 단계의 중심지를 ‘도성’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격자형 가로구획이 조성된 후대의 ‘도성’ 및 ‘왕경’과 구분하여 초기의 중심지를 ‘왕도’라고 부르자는 제안(기경량, 2017c)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도성이란 무엇인가’ 내지 ‘고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이면서도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치환되기도 한다.

다음 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평지거점설의 제기였다. 이른바 고구려의 도성제, 즉 산성과 평지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도성 구조는 일찍이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포착되었다(關野貞, 1911). 그의 견해는 제출된 직후부터 탁견으로 받아들여지며 통념으로 자리 잡았고(白鳥庫吉, 1914; 池內宏, 1951; 三品彰英, 1951; 武田幸男, 1989), 한국과 중국 학계에

서도 적극 수용되었다. 단, 그는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라, 가야와 신라 등 한국 고대사회가 두루 공유하는 특징으로 파악하였고, 또한 당시 일본 학계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했으므로, 산상왕대 이전의 줄본이나 국내 위나암 등은 염두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과 평지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도성 구조는 고구려만의 특징으로 재생산되어, 줄본과 국내 위나암의 위치 비정을 위한 전제로서, 소급 적용되었다. 재생산의 배경에는 1970년대 집안 평지성의 발굴결과, 석축 성벽 아래에서 한대 토성으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고구려가 한대 토성을 재활용했다는 해석이 있었다(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1984). 이에 따라 환인에서도 집안과 마찬가지로 한대 토성을 재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고(魏存成, 1985), 이후 한중일 학계에서는 오래도록 산성과 평지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고구려 도성제가 초기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근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삼국사기』에는 동명왕대 이미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국 초기의 중심지 경관에 평지 성곽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문제 제기였다. 배경은 2000년대 이래의 발굴결과였다. 집안 평지성의 아래에서 한대의 토축 성벽이 있었다는 1970년대 이래의 통설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하고성자성의 축조 연대도 건국 초기에서 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고구려가 초기에 평지성 자체를 조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물론 앞서 누차 언급한 대로, 환인 지역에서 줄본의 사료적·고고학적 조건에 걸맞는 평지성 유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서 평지거점을 거론하는 견해가 기왕에도 있었지만(조범중, 2007; 양시은, 2013; 여호규, 2014b; 김현숙, 2017), 초기 고구려의 사회 성격과 권력 집중도를 고려했

을 때 그 중심지에 평지 성곽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기경량, 2017b; 강진원, 2018; 권순홍, 2019c)가 제기된 것이다.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 경관에서 평지 성곽을 배제한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 초기 도성에 관한 연구는 위치 비정과 천도 시점에 관한 새로운 논의 외에도, 중심지의 경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헌사료를 분석하여 궁실과 종묘의 조영을 기준으로 ‘국읍-도’라는 경관의 단계화를 상징하는 경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고학적 성과를 반영하여 초기 도성의 경관에 평지 성곽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경향이였다. 바꿔 말해서 고구려 초기 도성 즉, 졸본과 국내 위나암의 경관에는 궁실 혹은 종묘 그리고 평지 성곽이 없었다고 본 셈이다. 후속 작업은 고구려 도성에 궁실과 종묘, 평지 성곽 등 새로운 경관이 채워지는 과정을 재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도성 및 지배 권력의 성격 변화를 해석하는 작업일 것이다.

## 참고문헌

- 金哲垞,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김현숙 외, 2005, 『환인·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서울대학교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2014a,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姜仙, 1995, 「高句麗 國都 移動에 關한 一考察」, 『韓國學研究』 4.
- 강진원, 2018, 「고구려 국내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집권력 강화-내적 변화의 외적 동기와 관련하여-」, 『한국문화』 82.
- 姜賢淑, 2000, 「石槲積石塚을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역사문화연구』 12.
-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 권순홍, 2015, 「고구려 초기의 都城과 改都-태조왕대의 왕실교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8.
- \_\_\_\_\_, 2016, 「고구려 ‘도성제’론의 궤적과 함의」, 『역사와 현실』 102.
- \_\_\_\_\_, 2019a,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b, 「고구려 도성 경관의 형성과 지배 권력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95.
- \_\_\_\_\_, 2019c, 「고구려 도성 내 평지 성곽의 출현과 그 기능」, 『역사학보』 244.
- 琴京淑, 2003, 「高句麗 國內城 遷都의 歷史的 意味」, 『高句麗研究』 15.
- 기경량, 2017a,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7b, 「고구려 초기 왕도 졸본의 위치와 성격」, 『인문학연구』 34.

- \_\_\_\_\_, 2017c,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王都)와 도성(都城)의 개념-고구려의 용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 김중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 \_\_\_\_\_, 2017, 「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61.
- 김현숙, 2017, 「고구려 초기 王城의 위치와 國內 遷都, 『선사와 고대』 54.
- 김희선, 2010, 「高句麗 國內城 研究, 『白山學報』 87.
-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고구려 초기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 민덕식, 2006, 「삼국시대의 도성제, 김정배 편저,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 朴京哲, 1998,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 『한국고대사연구』 14.
- 朴淳發,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城, 『韓國古代史探究』 12.
- 심광주,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の 城郭研究,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 양시은, 2013,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嶺南學』 24.
- 梁志龍, 2008, 「關於高句麗建國初期王都의 探討-以卒本和紇升骨城爲中心-, 동북아역사재단 편, 『졸본시기의 고구려역사 연구(2008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 회의)』,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 『역사와 현실』 21.
- 余昊奎,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 \_\_\_\_\_, 2014b, 「고구려 도성의 구조와 경관의 변화, 대한문화재연구원 위임, 『삼국시대고고학개론』 I, 진인진.
- \_\_\_\_\_, 2015, 「삼국 초기 도성의 형성과정과 입지상의 특징,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 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1.
- 李道學, 2015, 「『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한국고대사연구』 79.
-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기환, 2003, 「고구려 都城制의 변천」, 『한국의 도성-도성 조영의 전통-』, 서울학연구소.
- , 2015,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 구성」, 『韓國史學報』 59.
- , 2018a, 「고구려 전기 도성 관련 기사의 재검토-기사의 원전 계통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5.
- , 2018b, 「고구려 國內遷都 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
- , 2019,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の 형성과 卒本」, 『사학연구』 136.
- 조범중, 2007, 「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 연구」, 『백산학보』 77.
- 조영광, 2010, 「고구려 5那部の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大丘史學』 98.
-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 車勇杰, 1993, 「高句麗 前期의 都城」, 『國史館論叢』 48.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 金旭東, 2011, 『西流松花江·鴨綠江流域兩漢時期考古學遺存研究』, 吉林大學.
- 孫進己, 1988, 『東北歷史地理』 上,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 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魏存成, 1994, 『高句麗 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耿鐵華, 2001, 「高句麗紇升骨城新考」, 『北方民族』 2001-2.
- 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1984,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 1984-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集安國內城東, 南城垣考古清理收穫」, 『邊疆考古研究』 11.
- 武家昌·王俊輝,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003-2.
- 樊聖英, 2008, 「桓仁縣王義溝高句麗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7』, 文物出

版社.

\_\_\_\_\_, 2009, 「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8』, 文物出版社.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2009』, 吉林大學出版社.

梁振晶, 2005, 「桓仁縣大甸子青銅時代及高句麗時期墓地」, 『中國考古學研鑒 2004』, 文物出版社.

王志剛 외, 2012, 「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 『東北史地』 2012-4.

魏存成, 1985, 「高句麗初, 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李殿福, 1982, 「高句麗丸都山城」, 『文物』 1982-6.

中國國家文物局, 2001, 「吉林通化萬發撥子遺址」, 『1999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千田剛道, 2015, 『高句麗都城的考古學的研究』, 北九州中國書店.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 1-7.

\_\_\_\_\_, 1914,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 25-11.

武田幸男, 1989, 「丸都·國內城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25-4·5.

三品彰英, 1951, 「高句麗王都考」, 『朝鮮學報』 1.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學雜誌』 25-7.

池内宏, 1951, 「曹魏の東方經略」, 『滿鮮史研究』 上世 第1冊, 吉川弘文館.

## 찾아보기

### ㄱ

가섭원(迦葉原) 216  
 간구자(干溝子)고분군 246  
 갈사국(曷思國) 217  
 강남산맥 16, 67, 70  
 개주-장하로 53  
 거란(契丹) 49  
 건강유적 323, 324, 326  
 계루부(桂婁部) 103, 104, 116, 199, 204,  
 207, 214, 219, 249, 282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 35, 39  
 고구려 건국설화 179, 195  
 고구려현 266, 272  
 고려묘자촌 310, 313, 314, 318, 319  
 고리(橐離) 196  
 고이 94  
 고조선 26, 34, 66, 67, 89, 94, 95, 101,  
 127, 145, 147, 150, 243  
 관북지방 25  
 관서지방 64  
 『관자(管子)』 93, 98, 126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181~184, 197,  
 198, 214

광주산맥 74  
 구려(句驪) 100  
 『구삼국사(舊三國史)』 190, 191, 197, 198  
 구어(舊語) 205  
 구하(寇河) 50  
 국내(國內) 297, 309, 310, 315~320,  
 322, 325, 326, 327, 330, 331  
 국내성(國內城) 70, 315, 316, 321  
 국원성 78  
 그루같이 72  
 그루같은의 북한계선 63  
 금와왕 189, 191, 211, 217  
 기단적석묘 247  
 길림시 57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 36, 45,  
 51  
 길주 27

### ㄴ

나(那) 248  
 나국(那國) 248  
 나부(那部) 248  
 나부연맹 204

- 나함성 310, 311, 314, 318  
 난생(卵生) 183, 186, 188, 189, 195  
 남도 40  
 남부여 214  
 남성자고성 57  
 남소성(南蘇城) 41  
 남소수(南蘇水) 37  
 남실위(南室韋) 58  
 남평양 78  
 남한강 77  
 낭림산맥 16, 60  
 노남리 쇠부리터 20  
 노령산맥(老嶺山脈) 16  
 노변강유적(老邊崗遺蹟) 49, 57  
 노하심(老河深) 108~110, 112~116, 166,  
 217  
 『논형(論衡)』 194, 195, 197, 198  
 농안현(農安縣) 47  
 농오리산성 48, 69, 70  
 嫩江) 54, 57, 58, 111
- ㄷ**
- 단둥(丹東) 애하침고성(愛河尖古城) 21,  
 41, 69  
 단석괴(檀石槐) 199, 200  
 대동강 61, 66, 67  
 대량수(大梁水) 37  
 대소왕(帶素王) 217  
 대수맥(大水貊) 36  
 대양하(大洋河) 53
- 대진 월평동산성 77  
 대흑산맥(大黑山脈) 45  
 대흥안령산맥(大興安嶺山脈) 24, 44  
 도모왕(都慕王) 201  
 독로강 21  
 둔성(敦城) 30  
 둔화(敦化) 5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189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東明王篇)」  
 181, 189, 197  
 동맹제(東盟祭) 204  
 동명(東明) 194, 195, 197  
 동명묘(東明廟) 203  
 동명(東明)설화 105, 194, 203, 205, 207  
 동부여(東扶餘) 34, 188, 189, 192, 211,  
 212, 215~217  
 동예 28  
 동옥저 26, 28, 30, 253, 262  
 동해고(東海賈) 30  
 두막루(豆莫婁) 58  
 두만강 25, 30, 128, 130, 138, 146, 217
- ㄹ**
- 마식령산맥 74  
 마천령산맥 28  
 마한계 주민집단 75  
 만발발자(萬發撥子)유적 20, 246, 298,  
 299  
 만주 24, 44  
 말갈 33

- 망강루(望江樓)고분군 165, 218, 304,  
310
- 망강루(望江樓)유적 104, 108, 109, 115,  
153
- 매구여민(賣句余民) 30
- 맥죽 89
- 멸약산맥 63, 64, 67
-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181, 185, 186,  
198, 210
- 모둔곡 188
- 모용외(慕容廆) 216
- 목단강 45, 58
- 목저성 40
- 몽골초원 44
- 묘향산맥 67
- 물길(勿吉) 58
- 미천왕(美川王) 을불 21
- 미호천 유역 75
- ㄴ**
- 박작성(泊灼城) 42
- 반석시(磐石市) 55
- 백금보(白金寶)문화 106
- 백기보고성(白旗堡古城) 289
- 백마산성 70
- 범부여 215
- 범하(汎河) 50
- 벽류하(碧流河) 53
- 보루성 77
- 본계-봉성로 53
- 부여(夫餘) 57, 186, 188, 192, 194, 210,  
212, 214, 215, 218
- 부여(夫餘) 건국설화 180, 194, 195, 197
- 부여 별종 205
- 부여씨 215
- 부여 엄리대수(夫餘奄利大水) 216
- 부여 출자 202, 207, 209, 219, 220
- 북도 40
- 북류 송화강 45, 54, 55
- 북부 고원지대 25
- 북부 내륙지역 65
- 북부 서안지역 64
- 북부여(北夫餘) 183, 184, 185, 192, 208,  
210, 212, 215
- 북부여수사(北夫餘守事) 185, 210
- 북옥저 26, 30, 33
- 북위(北魏) 187
- 북한강 77
- 불고륜(佛庫倫) 201
- 비류국(沸流國) 92, 102~104, 113, 189,  
192
- 비류나부 249
- 비류수(沸流水) 40
- 비리성(碑利城) 30
- ㄷ**
- 삭주-태천-영변로 70
- 산성자산성 35, 316, 317, 319, 321,  
325, 327
- 『삼국사기(三國史記)』 181, 188, 197

- 『삼국유사(三國遺事)』 181
- 『삼국지(三國志)』 187, 205
- 『삼국지』 부여전 194
- 상은태현(上殷台縣) 266, 272, 275~278, 288~290
- 색리(索離) 196
- 서개마현(西蓋馬縣) 266, 275
- 서단산(西團山)문화 105~108, 112, 128, 132, 135
- 서봉총(瑞鳳冢) 222
- 서안평(西安平) 21, 41, 42, 59, 272
- 서언왕(徐偃王) 199, 200
- 서옥제(壻屋制) 221
- 서요하 49
- 서차구(西岔溝) 108, 109, 112~115, 152, 153, 160, 161, 166
- 서흥 대현산성 69, 70, 72
- 서흥-평산로 71
- 석탈해(昔脫解) 199, 200
- 선비(鮮卑) 49
- 선사(善射) 186, 188
- 설(契) 200
- 설(契)설화 200, 232
- 성태왕(聖太王) 222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81, 197
- 소노부(消奴部) 249, 270
- 소백산맥 60, 75
- 소수맥(小水貊) 36, 42
- 소자하(蘇子河) 34, 37, 273, 275, 276, 279, 280, 289
- 소흥안령산맥(小興安嶺山脈) 24, 44
- 『속일본기(續日本記)』 201
- 송료대평원(松遼大平原) 44
- 송양왕(松讓王) 189, 192
- 송화강(松花江) 54, 58, 113, 127, 128, 132, 146, 151, 205, 218, 252
- 수곡성(水谷城) 72
- 수신제(隧神祭) 221
- 수안-신계로 71
- 승천(昇天) 183
-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 49
- 시베리아 44
- 시조모(始祖母) 221
- 시하(柴河) 50
- 신계 71
- 신라도 29
- 신성(新城) 34, 41
- 신원 장수산성 72
- 실위(室韋) 58
- 심양-본계로 53
- 심양 탑산산성(塔山山城) 52
- 
- 아산만 일대 75
- 안변 28
- 안성 도기동산성 77
- 안평구 21
- 알랑고아(阿蘭豁阿) 201
- 압록강 16, 23

- 압록강 수로 21  
 양맥(梁貊) 36  
 언진산맥 67  
 염리대수(奄利大水) 183, 226  
 연기 나성리토성 77  
 연노부(涓奴部) 219  
 영락태왕(永樂太王) 222  
 영릉진(永陵鎭) 38, 274  
 영릉진고성 35, 41, 243, 273, 289  
 영서지역 75  
 영성자산성 53  
 영흥 28  
 예계(위말갈) 주민집단 75  
 예군(滅君) 252, 254  
 예군(歲君) 남려(南閔) 101, 251, 253  
 예맥(滅貊, 穢貊) 89~91, 94~96, 98~  
 107, 117, 126, 253  
 예·맥 동중설 90  
 예·맥 이중설 90  
 예성강 61, 78  
 예족 96, 98, 99  
 5나부연맹체 249  
 오녀산성 306, 309, 310, 311, 313, 314,  
 318, 319, 321, 327  
 오락후(烏洛侯) 58  
 오매리절터(梧梅里寺址) 212  
 옥저(沃沮) 135, 216  
 왕의구(王義溝)유적 298, 300  
 외래인(外來人) 206, 208  
 요동성 53  
 요양-본계로 53  
 요하 도하로 52  
 요하 수로 53  
 용강산맥(龍崗山脈) 16, 36, 45  
 용담산성 57  
 우발수(優渤水) 188  
 우성(于城) 30  
 원고구려사회(原高句麗社會) 91, 247  
 원왕(元王) 182  
 위나암 297, 309, 310, 315~317, 319,  
 320, 322, 325, 327, 330, 331  
 『위략(魏略)』 198, 205  
 『위서(魏書)』 181, 186, 197, 198  
 위성방어체계 68  
 『유기(留記)』 206  
 유리명왕 19  
 유하 나통산성(羅通山城) 55  
 유하현(柳河縣) 46  
 유화(柳花) 188  
 은합우(銀盒杆) 222  
 의무려산맥(醫巫閭山脈) 50  
 의주-곽산-박천로 70  
 이오(李敖) 187, 209  
 임강시(臨江市) 22  
 임강 화피전자고성(樺皮甸子古城) 23  
 임둔(臨屯) 26, 66  
 임진강 62, 78  
 ㅈ  
 장광재령산맥(張廣才嶺山脈) 45, 46

장백산맥(長白山脈) 16, 24, 44  
 장백진(長白鎭) 22  
 장산곶 72  
 장춘시(長春市) 55  
 재령강 61, 66, 68  
 재령-해주 71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 35, 111, 276,  
 277, 280  
 적석묘(積石墓) 16, 245, 247  
 적석총(積石塚) 104, 218  
 적유령산맥 67, 70  
 정우현(靖宇縣) 46  
 정평 28  
 제1현도군 261, 265  
 제2현도군 38, 268, 278  
 제3현도군 40  
 졸본(卒本) 188, 297, 302, 305, 308~  
 311, 314, 317, 318, 323, 326, 330  
 중심방어체계 70  
 『주림전(珠林傳)』 194  
 주몽(朱蒙) 19, 179, 188, 189, 192, 195,  
 197  
 중강진(中江鎭) 22  
 중부 내륙지역 74  
 중부 서안지역 73  
 진번(眞番) 66  
 진천 대모산성 77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181, 182,  
 198, 206, 211  
 집안분지 19

집안 평지성 316, 317, 321, 323, 326,  
 328, 330, 324

## ㄷ

차령산맥 74, 75  
 창해군(滄海郡) 101, 251, 256  
 책구루(幘溝婁) 281, 284  
 책성(柵城) 33  
 <천남산(泉男産)묘지명> 185, 193~195  
 천리장성(千里長城) 49, 57  
 천명(天命) 220  
 천산산맥 52  
 천산산맥 동부 산간지대 36  
 천산산맥 횡단로 53  
 천손(天孫) 191, 192, 212, 213  
 천자(天子) 212, 220  
 천제(天帝) 183  
 천제지자(天帝之子) 184, 192, 208, 214,  
 220, 224  
 철배산성(鐵背山城) 41  
 청룡산성 68  
 청원 남성골산성 77  
 청천강 61  
 청하(淸河) 50  
 초하(草河) 연안 53  
 추가령구조곡 75  
 추모(왕) 181~184, 192, 197  
 추모성왕 185  
 추수동(抽水洞)유적 298, 299  
 충만강 21

ㄷ

탁리국(橐離國) 105, 195

태백산맥 60, 74

태왕(太王) 222, 223

태왕교조(太王敎造) 223

태왕릉(太王陵) 222

태자성(太子城) 41

태자하(太子河) 37, 52

토광묘(土壙墓) 218

통화(通化) 소도령(小都嶺)유적 20

ㄹ

패려(稗麗) 49

패왕조산성 319, 321, 327

평산 태백산성 72

평양 68, 70

평양 천도 42, 52, 67, 68

평정산(平頂山) 39

평지거점 309, 313, 328~330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32, 33

ㅎ

하고성자성 306, 311, 314, 318, 330

하백(河伯) 188, 189

한강 62, 75, 77

한강 수로망 78

한반도 24, 60

한반도 북부지역 64

한성 별도 72

함경도 25

함경도(관북) 해안지대 26

함경산맥 25

함흥평야 28

해란강 32

해모수(解慕漱) 188, 189, 191, 211, 217

해부루(解夫妻) 188, 189, 217

해성-수암로 53

해주 수양산성 72

현도군 95, 243, 260

혜산(惠山) 22

호우(壺杆) 222

호우총(壺杆塚) 222

호태왕(好太王) 222

혼강(渾江) 18, 21

혼춘(暉春) 32

혼춘분지 33

혼춘하 30

혼하(渾河) 40, 52

환도성 315, 319, 321

환인(桓仁) 218

환인 동북로 38

환인분지 18

환인 서북로 38

황룡산성 68

후직(后稷) 199, 200

휘발하 유역 55

흘골산성 68, 70

흘승골성(紇升骨城) 297, 305, 306, 309~

311, 314, 318, 319, 321





고구려통사 1

##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30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표지디자인 역사공간

제작·인쇄 역사공간

ISBN 978-89-6187-597-4 94910

978-89-6187-595-0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